

#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ODA의 역할과 신규사업 발굴 연구

2020. 8.



문화체육관광부



---

#### ■ 연구책임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보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 외부 공동 연구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심주형 (인천대학교 중국화교문화연구소 HK+ 연구교수)

변지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유혜림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 ■ 연구참여

이영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

본 연구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하여 작성되었으며,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ODA의 역할과  
신규사업 발굴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8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 대 관

---



#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 목적 .....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
1. 연구 범위 .....	5
가. 한국 ODA 전략에서 문화분야 확대방안 제시 .....	5
나. 권역별 대외정책과 문화ODA 현황 분석 .....	5
다. 문화ODA 사업으로서 신규사업(문화정책컨설팅) 모델 개발 .....	6
2. 연구 방법 .....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8
가. 선행연구 특징 .....	8
나. 주요선행연구 .....	8

##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문화ODA / 11

제1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 검토 .....	13
1.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	13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 .....	16
가. 지속가능발전과 문화 .....	16
나. 문화ODA 확대의 필요성 .....	18
제2절 기존 ODA의 특징과 한계 .....	21
1. 기존 ODA의 특징 .....	21
가. ODA 역사 및 현황 .....	21
나. 미국 ODA의 특징 .....	23
다. 일본 ODA의 특징 .....	25
라. 프랑스 ODA의 특징 .....	26
마. 덴마크 ODA의 특징 .....	27
바. 한국 ODA의 특징 .....	28

2. 기존 ODA에 대한 검토 .....	30
가. ODA 목표에 대한 문제제기 .....	30
나. ODA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 .....	31
다. 문화ODA 통한 소프트 파워 강화 .....	33
<b>제3절 DAC 회원국 ‘문화ODA’ 추진 현황과 특징 .....</b>	<b>34</b>
1. DAC 회원국 문화ODA 추진 현황 .....	34
2. 독일 문화ODA 현황 및 특징 .....	37
3. 스페인 문화ODA 현황 및 특징 .....	40
4. 프랑스 문화ODA 현황 및 특징 .....	45
5. 일본 문화ODA 현황 및 특징 .....	49
6. 기타 공여국 문화ODA 현황 및 특징 .....	53
7. 주요국 문화ODA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56
가. 주요국 문화ODA 종합 분석 .....	56
나. 주요국 문화ODA 시사점 .....	58
<b>제4절 소결 .....</b>	<b>59</b>
가. 지속가능발전 개념 도입 .....	59
나. 지속가능발전과 문화 .....	59
다. 문화ODA 확대의 필요성 .....	60
라. 기존 ODA 목표와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 .....	61
마. 주요국 문화ODA 특징 .....	61

### 제3장 한국형 문화ODA 사업 정립의 필요성 / 63

<b>제1절 한국 문화ODA 현황 .....</b>	<b>65</b>
1. 한국 문화ODA 정책 및 전략 .....	65
가.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된 문화교류의 문화ODA와의 연계 가능성 .....	65
나. 신남방·신북방 문화관련 정책 및 전략 .....	69
다.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제시된 문화ODA 가능성 .....	72
2. 한국 문화ODA 지원 현황 및 특성 .....	75
가. 한국 문화ODA 개괄 .....	75
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ODA 지원 현황 .....	76
다. 문화재청 문화ODA 지원 현황 .....	80
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문화ODA 지원 현황 .....	84
3. 한국 문화ODA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88
가. 한국 문화ODA 종합 분석 .....	88

나. 한국 문화ODA 시사점 .....	90
<b>제2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ODA 체계 확립 필요성 .....</b>	<b>91</b>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 필수 .....	91
2. 문화ODA 사업 확대와 지속 필요성 .....	93
3. 한국 문화ODA 특성 .....	95
가. 한국 문화의 괄목적 성장 .....	95
나. 지속가능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메가트렌드 .....	100
다. 한국의 문화정책 공유 가능성 .....	103
4. 문화ODA 목표 및 추진전략 .....	110
가. 문화ODA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하우스 .....	110
나. 문화ODA 추진전략 세부내용 .....	111
<b>제3절 국가별 맞춤형 문화ODA 사업을 위한 문화정책 자문사업 .....</b>	<b>119</b>
1. 문화ODA 맞춤 전략 필요성 .....	119
2. 모듈형 문화ODA 사업 개발 .....	120
3. 문화ODA 사업으로서 정책자문사업 .....	121
가. 한국형 문화ODA 사업으로서 정책자문사업의 가능성 .....	121
나. 한국의 기존 ODA 사업과 대외정책과의 조화 가능 .....	121
다. 개발협력국의 필요에 따른 맞춤 사업 지원 가능한 모듈형 정책자문사업 .....	121
라. 장단기 사업 구상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모듈형 정책자문사업 .....	122

## 제4장 문화ODA로서의 문화정책컨설팅 사업모델 / 123

<b>제1절 정책컨설팅 사업 사례 검토 .....</b>	<b>125</b>
1. 국내 정책컨설팅 사업 사례 .....	125
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125
나. KOICA 개발컨설팅 사업 .....	135
2. 국외 정책컨설팅 사업 사례 .....	141
가. OECD Knowledge Sharing Alliance: KSA .....	141
나. 세계은행 Advisory Services and Analytics: ASA .....	144
다. 독일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GDI .....	146
<b>제2절 문화ODA 정책컨설팅 포맷 .....</b>	<b>149</b>
1. 문화 기반 정책자문 사업 개요 .....	149
가.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의 이론적 배경 .....	149
나. 문화ODA 정책 컨설팅 사업(안) 개요 .....	151
다. KPSC 비전과 방향 .....	153

2. KPSC 사업유형 .....	154
가. 정책기술자문 .....	154
나. 제도구축사업 .....	154
다. 인프라 구축 연계 .....	155
라. 인적역량 강화 연수 .....	156
3. KPSC 모듈형 문화ODA 사업 프로세스 .....	157
가. 주요 추진절차 개요 .....	157
나. 세부 추진절차 .....	158

## 제5장 권역별 문화ODA 확대 전략 / 161

제1절 신남방 권역 .....	163
1. 신남방 권역 (아세안) 일반현황 .....	163
가. 역사·지리적 특성 .....	163
나. 언어·종족·문화적 특성 .....	166
다. 문화적 수요와 특성 .....	168
라. 한국과의 국제관계 .....	171
2. 문화정책과 제도 .....	174
가. 신남방 권역 문화정책과 제도 현황 .....	174
나. 인도네시아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76
다. 라오스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78
라. 베트남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79
3. 한국의 對신남방 문화ODA 현황과 전략 .....	182
가. 신남방 권역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82
나. 인도네시아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85
다. 라오스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86
라. 베트남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87
제2절 신북방 권역 .....	190
1. 신북방 권역 일반현황 .....	190
가. 역사·지리적 특성 .....	191
나. 언어·종족·문화적 특성 .....	191
다. 문화적 수요와 특성 .....	192
라. 한국과의 국제관계 .....	193
2. 문화정책과 제도 .....	194
가. 신북방 권역 문화정책과 제도 현황 .....	194
나. 몽골의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94

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203
라. 아제르바이잔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211
3. 한국의 對신북방 문화ODA 현황과 전략 .....	215
가. 신북방 권역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215
나. 몽골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219
다. 우즈베키스탄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221
라. 아제르바이잔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223
<b>제3절 아프리카 .....</b>	<b>225</b>
1. 아프리카 일반현황 .....	225
가. 역사·지리적 특성 .....	225
나. 언어·종족·문화적 특성 .....	227
다. 문화적 수요와 특성 .....	229
라. 한국과의 국제관계 .....	234
2. 문화정책과 제도 .....	236
가. 아프리카 문화정책과 제도 현황 .....	236
나. 우간다 문화정책과 제도 현황 .....	239
다. 탄자니아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242
라. 르완다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245
3.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 현황과 전략 .....	249
가. 아프리카 권역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249
나. 우간다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252
다. 탄자니아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254
라. 르완다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256
마.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에 대한 SWOT 분석 .....	260
바.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 전략 .....	261

## 제6장 권역별 문화ODA 시범사업안 / 263

<b>제1절 신남방: 베트남 .....</b>	<b>265</b>
1. 주요 문화정책 수요와 시범사업의 필요성 .....	265
가. 현황 분석 .....	265
나. 대상국가의 주요 문화정책 .....	268
다. 문화정책기관·협력기구 .....	268
라. 관련사업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	271
2. 시범사업안: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정책 자문사업 .....	274
가. 사업개요 .....	274

나. 예상사업 지역과 사업기간 .....	275
다. 사업 세부내용 .....	276
라. 정합성 분석 .....	281
<b>제2절 신북방: 몽골 .....</b>	<b>284</b>
1. 주요 문화정책 수요와 시범사업의 필요성 .....	284
가. 현황 분석 .....	284
나. 대상국가의 주요 문화정책 .....	285
다. 문화정책기관·협력기구 .....	286
라. 관련사업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	287
2. 시범사업안: 매체전환 콘텐츠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몽골 문화원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 건립 사업 .....	289
가. 사업개요 .....	289
나. 예산, 사업지역과 사업기간 .....	291
다. 사업 세부내용 .....	292
라. 정합성 분석 .....	299
<b>제3절 아프리카: 르완다 .....</b>	<b>304</b>
1. 주요 문화정책 수요와 시범사업의 필요성 .....	304
가. 현황 분석 .....	304
나. 르완다의 주요 문화정책 .....	314
다. 문화정책기관·협력기구 .....	322
라. 관련(유사) 사업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	324
2. 시범사업안: 르완다 전통춤 복원 및 진흥을 위한 지식공유사업 .....	326
가. 사업개요 .....	326
나. 사업 세부내용 .....	327
다. 정합성 분석 .....	335

## 제7장 결론 / 339

제1절 연구 의미와 고려사항 .....	341
제2절 연구결과 요약 .....	342
◇ 참고문헌 .....	349

# 표 목차

〈표 2-1〉 〈UNESCO-항저우 선언〉 문화의 세 가지 역할 및 기여 (2013) .....	17
〈표 2-2〉 한국 ODA 기본정신(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1항) .....	19
〈표 2-3〉 한국 ODA 목표(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2항) .....	19
〈표 2-4〉 주요 공여국 문화ODA 규모 (2009~2018) .....	35
〈표 2-5〉 독일 문화ODA 지원 현황(2014~2018년) .....	38
〈표 2-6〉 독일 주요 문화ODA 현황(2018년) .....	39
〈표 2-7〉 스페인 문화ODA 지원 현황(2014~2018년) .....	42
〈표 2-8〉 스페인 주요 문화ODA 현황(2018년) .....	43
〈표 2-9〉 프랑스 문화ODA 지원 현황(2014~2018년) .....	46
〈표 2-10〉 프랑스 주요 문화ODA 현황(2018년) .....	48
〈표 2-11〉 일본 문화ODA 지원 현황(2014~2018년) .....	50
〈표 2-12〉 일본 주요 문화ODA 현황(2018년) .....	52
〈표 2-13〉 노르웨이·포르투갈 주요 문화ODA 현황(2018년) .....	54
〈표 2-14〉 주요국 문화ODA 종합 분석 .....	57
〈표 3-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66
〈표 3-2〉 「문화비전 2030」에 제시된 문화분야 ODA 추진과제 .....	67
〈표 3-3〉 「문화비전 2030」에 제시된 문화교류 확대·국제교류 협력 추진과제 .....	68
〈표 3-4〉 신남방 문화관련 중점과제 및 전략 .....	70
〈표 3-5〉 신북방 문화관련 중점과제 및 전략 .....	71
〈표 3-6〉 중점협력국의 문화분야 정책 .....	73
〈표 3-7〉 한국 문화분야 ODA 규모(2015년~2020년) .....	75
〈표 3-8〉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2018년~2020년) .....	77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ODA 사업 .....	78
〈표 3-10〉 문화재청의 다자성 양자 사업 추진 사항 .....	80
〈표 3-11〉 문화재청 ODA 사업(2018년~2020년) .....	81
〈표 3-12〉 문화재청 문화ODA 사업 .....	82
〈표 3-13〉 KOICA 문화ODA 사업(2018~2020년) .....	84
〈표 3-14〉 2019년 KOICA 해외봉사단 문화분야 지원현황 .....	85
〈표 3-15〉 KOICA 2020년 문화ODA 사업 .....	86
〈표 3-16〉 범분야 문화ODA의 타분야 협력 과제 .....	96
〈표 3-17〉 시기별 정부 문화정책 특징 .....	98
〈표 3-18〉 한류 영향에 따른 문화콘텐츠·소비재 및 관광 파급효과 .....	101
〈표 3-19〉 세종학당 현황(2007~2018) .....	102

〈표 3-20〉 연도별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2005~2018)	105
〈표 3-21〉 문화산업관련 법률	107
〈표 3-22〉 CKL기업지원센터 현황	108
〈표 3-23〉 2018년 통합 저작권 번호체계(ICN) 발급건수	109
〈표 3-24〉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	109
〈표 4-1〉 KSP사업유형 및 내용	126
〈표 4-2〉 KSP 협력분야	126
〈표 4-3〉 KSP 사업 규모(2015~2020년)	127
〈표 4-4〉 주요 지역별 KSP 사업 현황	128
〈표 4-5〉 주요 국가별 사업현황	128
〈표 4-6〉 KSP 분야별 세부 사업현황	130
〈표 4-7〉 2019/20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공유 사업	132
〈표 4-8〉 KSP‘필리핀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위한 정책자문’사업 (예시)	132
〈표 4-9〉 2019/20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공동컨설팅 발주 사업	134
〈표 4-10〉 CIAT 사업 분류	136
〈표 4-11〉 KOICA DEEP 및 CIAT 사업 지원액	137
〈표 4-12〉 KOICA DEEP 및 CIAT 지역별 사업 지원액(2018년)	138
〈표 4-13〉 KOICA DEEP 및 CIAT 분야별 지원액	139
〈표 4-14〉 CIAT 모듈 및 교과목 구성(예시)	140
〈표 4-15〉 KSA 주요 사업 및 현황	144
〈표 4-16〉 GDI 주요 사업 수행	147
〈표 4-17〉 GGS 사이클 세부사항	148
〈표 4-18〉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의 개념적 발전	150
〈표 4-19〉 KPSC 개요	152
〈표 4-20〉 KPSC 모듈형 문화ODA 사업 수행 절차	158
〈표 5-1〉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의 주요 내용	163
〈표 5-2〉 아세안 국가들의 면적과 인구(2018년 기준)	165
〈표 5-3〉 아세안 각국의 언어와 종교 현황	167
〈표 5-4〉 2019년 아세안 국가 해외 관광객 입국 통계	171
〈표 5-5〉 한-아세안 국별 교역규모 (2018년 기준)	172
〈표 5-6〉 한국의 對신남방 문화ODA 지원현황	182
〈표 5-7〉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주관 對신남방 문화ODA 사업 추진 현황	182
〈표 5-8〉 한국의 신남방 주요국(3개국가) 문화ODA 지원현황	183
〈표 5-9〉 주요 공여국 對신남방 문화ODA 규모 (2009~2018)	184
〈표 5-10〉 신북방 권역 국가별 지역권 분류 및 문화ODA 관련 현지 인프라 분포	190
〈표 5-11〉 몽골 ‘장기개발정책 2015~2040’ 주요 내용	195

〈표 5-12〉 몽골의 ‘비전 2050’ 장기발전정책 .....	197
〈표 5-13〉 문화에 관한 정부정책 관련 국회 결의문(2012) .....	200
〈표 5-14〉 2010~2019년 몽골 주요 문화 인프라 현황 .....	201
〈표 5-15〉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문화발전 개념 .....	205
〈표 5-16〉 아제르바이잔 2020 주요 목표 .....	211
〈표 5-17〉 한국의 對신북방 문화ODA 규모 (2009~2018) .....	215
〈표 5-18〉 주요 공여국 문화ODA 규모 (2009~2018) .....	216
〈표 5-19〉 세부분야별 문화ODA 지원현황 (문화 및 레크레이션) .....	217
〈표 5-20〉 몽골 top10 공여국 .....	220
〈표 5-21〉 우즈베키스탄 문화ODA top10 공여국 .....	222
〈표 5-22〉 아제르바이잔 문화ODA top10 공여국 .....	224
〈표 5-23〉 아프리카 대륙의 언어 그룹과 분포 지역 .....	228
〈표 5-24〉 한국의 對아프리카 ODA 추이 (2009~2018) .....	234
〈표 5-25〉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 규모 (2009~2018) .....	249
〈표 5-26〉 주요 공여국 문화ODA 규모 (2009~2018) .....	250
〈표 5-27〉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문화ODA 지원현황 .....	250
〈표 5-28〉 우간다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2016~2018) .....	252
〈표 5-29〉 탄자니아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2016~2018) .....	254
〈표 5-30〉 르완다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2016~2018) .....	256
〈표 5-31〉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 SWOT 분석 .....	260
〈표 6-1〉 사업개요서 (잠정) .....	274
〈표 6-2〉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 정책자문 사업 세부내용 .....	276
〈표 6-3〉 사업수행체계 (예시) .....	276
〈표 6-4〉 양국 분담사항 (예시) .....	278
〈표 6-5〉 베트남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 정책자문 사업 추진 일정(안) .....	279
〈표 6-6〉 몽골 문화예술청의 정책 우선순위 및 전략목표별 세부과제 .....	285
〈표 6-7〉 몽골 문화예술청 하위부서별 역할 및 기능 .....	286
〈표 6-8〉 사업개요서 (잠정) .....	289
〈표 6-9〉 사업 세부내역별 소요예산(안) .....	291
〈표 6-10〉 사업수행주체 .....	294
〈표 6-11〉 양국 간 분담사항 .....	295
〈표 6-12〉 몽골 문화원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몽골 콘텐츠진흥원(가칭) 건립 사업 추진일정(안) ....	295
〈표 6-13〉 르완다 국가 개황 .....	304
〈표 6-14〉 르완다 VISION 2020 목표 및 핵심 부문 .....	306
〈표 6-15〉 르완다 EDPRS II 주요 목표 및 부문 .....	307
〈표 6-16〉 르완다 VISION 2050 목표 및 핵심 부문 .....	308

〈표 6-17〉 르완다 NST1 주요 목표 및 부문 .....	308
〈표 6-18〉 주요 공여국 對르완다 ODA 규모 (2009~2018) .....	310
〈표 6-19〉 한국의 對르완다 ODA 추이 (2009~2018) .....	312
〈표 6-20〉 한국의 對르완다 EDCF 및 KOICA 지원 규모 (2009~2018) .....	312
〈표 6-21〉 CPS 중점 분야별 성과목표 및 중점 분야 사업 추진 계획(안) .....	313
〈표 6-22〉 주요 공여국 對르완다 ODA 규모 (2009~2018년) .....	319
〈표 6-23〉 주요국 르완다 문화ODA 지원현황 .....	320
〈표 6-24〉 사업개요서 (잠정) .....	326
〈표 6-25〉 사업 세부내용 .....	327
〈표 6-26〉 르완다 전통춤 복원 및 진흥을 위한 한-르 지식공유사업 내용 및 예산(안) .....	329
〈표 6-27〉 양국 간 분담사항 .....	332
〈표 6-28〉 사업수행 일정 .....	332

# 그림 목차

[그림 2-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전략 체계 및 기능 강화(안) .....	20
[그림 2-2] 주요 공여국 문화ODA 규모 (2009~2018) .....	36
[그림 2-3] 2009년 스페인 12개 분야 중 문화분야 수립 .....	41
[그림 2-4] 일본 주요 문화ODA 예시 .....	52
[그림 3-1] ‘문화아시아’ 개념에서 문화적 비전 .....	66
[그림 3-2] 한국 문화ODA 사업 유형 .....	89
[그림 3-3] 영화 ‘기생충’ .....	99
[그림 3-4] 빌보드를 점령한 방탄소년단 .....	99
[그림 3-5] 분야별 한국에 대한 호감도 .....	100
[그림 3-6] 콘텐츠산업 연도별 매출액 현황 .....	102
[그림 3-7] 콘텐츠산업 연도별 수출액 현황 .....	102
[그림 3-8]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현황 .....	103
[그림 3-9] 웹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	103
[그림 3-10] 도시문화생태계 구축 특화사업의 종적, 횡적 확장(원주 문화도시 사례) .....	106
[그림 3-11] 한국의 문화도시 차별성 .....	106
[그림 3-12] 목표 및 추진전략 .....	110
[그림 3-13] 문화외교-ODA-문화교류 공유사업 예시 .....	113
[그림 3-14] 공공외교-ODA-문화교류 공유사업 예시 .....	6
[그림 3-15] 범분야 문화ODA의 타분야 협력 .....	114
[그림 3-16] 문화ODA 사업으로서 정책문화사업 전략 .....	122
[그림 4-1] 주요 국가별 사업현황 .....	129
[그림 4-2] KSP 사업 분야별 사업현황 .....	130
[그림 4-3] KSP 공동컨설팅 사업 체계 .....	133
[그림 4-4] 지식공유 목적 .....	142
[그림 4-5] OECD 주요 시범 사업 섹터 .....	142
[그림 4-6] 세계은행 ASA 사업 개념 .....	146
[그림 4-7] 사업 유형 .....	152
[그림 4-8] KPSC 비전 .....	153
[그림 4-9] KPSC 사업 프로세스 .....	157
[그림 4-10] 모듈형 문화ODA‘KPSC’사업 성과모형(안) (예시) .....	160
[그림 5-1] 아세안 회원국 지도 .....	164
[그림 5-2]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상황 .....	166
[그림 5-3] 동남아 주요국가 콘텐츠 시장 성장률 전망 .....	169

[그림 5-4]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대비 인터넷 보급률 (2019년 5월기준) .....	169
[그림 5-5] 2014년~2022년 아세안 지역 해외 입국자 추산 .....	170
[그림 5-6] 인도네시아의 창조경제: 부문별 국민총생산 기여도 (2017년) .....	176
[그림 5-7]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조직도 .....	178
[그림 5-8]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조직도 .....	179
[그림 5-9]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 .....	181
[그림 5-10]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계획 모형 .....	188
[그림 5-11]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및 문화예술청 조직도 .....	201
[그림 5-12]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중앙사무소 구조 .....	208
[그림 5-13] 아제르바이잔 문화부 조직도 .....	213
[그림 5-14] 對몽골 문화ODA 추이 및 유/무상원조 규모 변화(2009~2018) .....	219
[그림 5-15] 對우즈베키스탄 문화ODA 및 유/무상원조 규모 변화(2009~2018) .....	221
[그림 5-16] 對아제르바이잔 문화ODA 추이 및 유/무상원조 규모 변화(2009~2018) .....	223
[그림 5-17]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언어 분포 .....	227
[그림 5-18] 우간다 영화 “Who Killed Captain Alex” .....	241
[그림 5-19] 우간다 카수비 왕릉 (Kasubi Royal Tombs) .....	241
[그림 5-20] 탄자니아 텡가텡가(Tinga Tinga) 그림 .....	243
[그림 5-21] 탄자니아 응고롱고로(Ngorongoro) 보호구역 .....	245
[그림 5-22] 탄자니아 잔지바르 스톤타운(Stone Town in Zanzibar) .....	245
[그림 5-23] 르완다 소똥 그림(Imigongo) .....	247
[그림 5-24] 르완다 전통 접시와 향아리 .....	247
[그림 5-25] 멸종위기의 르완다 마운틴고릴라(Mountain Gorilla) .....	248
[그림 6-1] 베트남 내 영화관 현황 (극장사 별, 2019년 2월 기준) .....	267
[그림 6-2] 베트남 극장상영영화 제작 국가별 통계 .....	267
[그림 6-3] 영화 ‘기생충’의 두 번째 베트남 개봉을 알리는 포스터 .....	272
[그림 6-4] 사업 후보지(영화인협회건물)와 주요 사업 파트너 위치 .....	283
[그림 6-5] 사업 대상 후보지 건물 (베트남 영화인협회 건물, Số 51 Trần Hưng Đạo, Hà Nội) .....	283
[그림 6-6] 인토레 여성군무 .....	316
[그림 6-7] 인토레 남성군무 .....	316
[그림 6-8] 르완다 청소년문화부 조직도(안) .....	323
[그림 6-9] 사업수행체계 .....	330
[그림 6-10] 르완다 전통춤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지식공유산업 유관기관 업무 관계도 .....	331

# I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 검토



### 1 연구 배경

#### ■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문화 부분의 중요성 증대

-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설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4.7, 8.9, 11.4, 12.B에서 문화·관광을 명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 부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문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ODA 확대를 위한 이론적 토대 및 전략 수립 필요

#### ■ 개발협력국의 문화분야 수요의 증가

- 개발협력국의 경제개발마스터플랜, 국가계획, 개발정책 등 개도국의 국가발전전략 가운데 문화다양성, 문화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강화, 관광업 활성화 전략 등 포함·확대되며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개발협력국의 문화분야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ODA 접근의 필요

#### ■ 우리 정부의 문화 발전 정책 및 문화 협력 강조

- 정부가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서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의제에 의거하여 한국 문화ODA 사업의 확대 필요성 증대
- 개도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하 상호문화교류의 차원을 넘어, 한국 ODA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문화 협력을 통한 사회경제발전, 복지 증진에 기여 필요

#### ■ 한국형 문화ODA 모델의 부재

- 단기간에 괄목한만한 산업적 성과를 이루어낸 우리나라 문화정책 발전경험에 대한 개도국 수요가 많으나, 교통·인프라 등 경제정책과 달리 문화정책경험 전파를 위한 ODA 모델 부재
-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한국형 ODA 가운데 문화영역 미분류 되어 있으며, 24개국 중점협력국의 중점협력분야에서 문화분야의 부재
- SDGs와 개도국의 문화분야 수요에 부합하는 한국형 문화ODA 전략 필요성 증대

## 2 연구 목적

### ■ 한국 문화ODA 확대 이론적 논의 및 전략 수립

-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년) 및 국가협력전략에서의 문화ODA 확대를 위한 이론적 논의 제시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 한국형 문화ODA 사업 필요성 제시

### ■ 한국형 문화ODA 신규사업 모델 발굴

- 권역별 문화산업 발전 가능성, 문화정책 및 수요를 고려한 권역별 협력대상국 선정
- 대상 국가별 문화ODA 방향성 및 문화정책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 모델 제시

### 1 연구 범위

#### 가. 한국 ODA 전략에서 문화분야 확대방안 제시

- 국제사회에서의 문화ODA 현황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 사이의 주요 논의 현황
- 주요 공여국의 문화ODA 양적·질적 분석

#### ■ 한국 문화ODA 성과 분석

- 한국 문화ODA 현황, 특징 및 주요 성과

#### ■ 국제개발협력 기본(시행)계획 내 문화부문 포함 위한 논리 마련

- 기존 한국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검토 및 차기 기본계획(3차) 수립 시, 문화ODA 사업 필요성과 중요성 강조 논리
  - 기존 한국국제개발협력에서 문화ODA의 단발적, 분산적임을 강조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ODA 사업의 종합적, 장기적 사업기획 가능성 제시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적, 종합적 문화ODA 사업 필요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ODA 사업으로서 문화정책자문사업 필요성 제시(장·단기 필요성에 따른 맞춤 ODA 사업으로서 효용강조)

#### 나. 권역별 대외정책과 문화ODA 현황 분석

#### ■ ODA 중점협력국 관련 권역별 대외정책 검토

- 신남방, 신북방, 기타(아프리카/남미) 등 3권역별 대외정책 및 ODA 전략 분석 및 검토
- 권역별 대외정책 기조 변화 분석 통한 실질 협력 가능 분야 탐색

## ■ 권역별 문화ODA 전략 도출

- 권역별 문화ODA 현황 분석
- 권역별, 소득 수준별 국가 분류에 따른 공통의 문화ODA 전략 제시
- 3개 권역별 문화ODA 및 문화분야 정책환경 분석(문화정책 및 문화부문 국가개발계획 등)

## 다. 문화ODA 사업으로서 신규사업(문화정책컨설팅) 모델 개발

- 문화ODA로서 정책컨설팅 국·내외 사례 및 방향성 설정
- 정책컨설팅 사업 의의 및 국내외 관련 사례 수집 및 분석
- 문화ODA로서의 문화정책컨설팅 방향성 제시

## ■ 문화정책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 모델 개발

- 문화ODA 정책컨설팅 사업의 대상 분야 선정 현황과 특징
- 주요 문화분야(문화인프라, 문화산업) 정책컨설팅 모듈화

## ■ 권역별 협력대상국 문화정책 컨설팅 시범사업(안) 제시

- 사업 대상국 선정(문화산업 발전 가능성, 문화정책 및 수요 등 고려)
  - 대상국가: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1개국,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 1개국, 기타권역(아프리카/남미) 대상국가 1개국, 중점협력국가 등 고려
- 대상 국가별 문화정책 컨설팅 사업(안)
  - 권역별 1개국, 1개 사업안 제시

## 2 연구 방법

### ■ 문헌분석

- 한국 문화ODA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문화ODA 사업·프로그램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 문화ODA 관련 정책 및 전략 분석을 위한 정부, 개도국별 보고서 분석

### ■ 국외 사례조사

- DAC 회원국의 문화ODA 추진 현황 및 방향성 분석
- 해외 주요국의 문화ODA 현황 및 특징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 전문가 자문

- 문화ODA 관련 학계 전문가 자문 실시
  - 기존 ODA 성과, 추진과정 및 한계 수렴
  - 향후 문화ODA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발굴 등 연구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 가. 선행연구 특징

- 한국 문화ODA 관련 선행연구는 2010년 경 이후부터 주로 정부주도로 진행
  - 주요 내용은 문화분야 ODA 개념 정립, 활성화 전략, 평가체계 등 문화분야 ODA 확산과 성과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성과) 문화분야 ODA 관련 관심 제고 및 초기 담론 형성과 사업추진 동기 부여 등에 기여
- (한계) 개별 연구들이 문화ODA 활성화 논리의 제시가 부족하거나, 개별 사업 수행 자체에만 초점을 둔 경우가 많음
  - 정책차원에서의 문화분야 ODA의 구체적인 사업 구상과 성과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
- 본 연구의 차별성
  - 문화분야 ODA 사업 확대 논리 제시
  - 해당 논리에 따른 권역별 문화ODA 사업 모델 정립 및 권역별 1개국 시범사업안 종합적 제시

### 나. 주요선행연구

-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방안 연구”(정정숙, 2013)
  - 문화 영역 ODA는 개발의 진정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며,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과 정서적 측면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목됨을 강조
  - 문화영역 ODA의 효과로 개도국 자체의 문화교류 기반 조성 and 개도국 주민의 정서적 공감과 소통의 폭 확대, 세계의 문화다양성 보존 및 확산에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문화 영역 ODA 기존 사업의 성과 및 개발효과성에 대한 홍보, 빈곤문제에 있어서의 문화영역 필요성 강조

■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진단 및 추진체계 연구”(정보람, 2016)

- 문화분야 ODA 체계 문제점으로 소규모 단발성 사업으로 인한 성과관리 한계, 현지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산발적 사업 배분, 부처 실·국 및 기관 개별 계획에 의한 분절적인 사업 등을 지적
- 사업구조 및 운영관리 개선 위해 현지 사전조사 체계적 이행, 문화분야 ODA 중점 국가 전략 수립, 사업 단계별 연계 및 패키지화, 현지 전문인력 양성 확대 제시
- 조직 기능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마련(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 총괄부서 기능 강화 제시

■ “한국형 문화ODA 정책과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연구”(이태주, 2017)

- 한국 문화영역 비교우위분야 도출 및 각 영역별 대표 프로그램(안) 제시
- 한국 문화분야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문화분야 ODA 수행체계 강화, 현지 역량 활용 및 사전조사 강화, 민관협력 다각화, 차별성이 부각되는 사업지원, 사업개발 단계부터 성과관리 주력, 문화교류를 통한 쌍방향 ODA 사업 지향 제시

■ “개도국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이태주, 2019)

- 문화ODA 방향성 파악, 사례분석을 통해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방향성 모색
- 미얀마, 베트남에 대해 ‘복합문화시설 건립 ODA 시범사업’ 발굴 제시



# II

## 제2장 지속가능발전과 문화ODA

---

-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 검토
- ② 기존 ODA의 특징과 한계
- ③ DAC 회원국 '문화ODA' 추진 현황과 특징
- ④ 소결



## 1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 ■ 경제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발전’의 전통적 접근

- 경제성장이 곧 발전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곧 최고의 선으로 인식됨
-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에 대한 이해는 경제성장이 전체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생산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정함
- 그 수단이 시장주도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이건, 국가주도의 사회정책에 의해서든 기본은 경제성장으로 인식함

### ■ 경제중심 발전에 대한 부작용의 발생으로 회의론 등장

-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Louise Carson)의 저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출판되면서 과학기술이 초래한 환경오염의 위험을 알리는 계기가 됨
- “침묵의 봄”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인간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고발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됨
- 한국도 이 전통적 발전의 개념 하에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음.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나, 문화·사회·환경 등의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음

### ■ 성장의 한계에 대한 논의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도입

-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보고서로 인해 관련 논의 확산됨. 이 보고서는 앞으로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함.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처음 등장함
-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선언)”을 선포함.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UN Environmental Programme)’이 발족

- 1984년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에서는 인간중심발전론(Human-centered Development)을 제시하며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자립성, 사회정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인간 중심적인 발전을 통한 발전 필요하다고 주장
-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이름의 보고서 출간,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어, 이 회의에서 지구의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리우선언’과 세부적 행동강령을 담은 ‘의제21(Agenda21)’ 채택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논의 확산
- 1999년 후생경제학의 대가이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은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을 발표하면서 경제적 안정 이외에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인간의 역량(Capability)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인간의 역량은 다양한 행위를 수행하고 다양한 상태로의 존재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함. 인간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조건들 중에서 문화적 조건 역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
- 2000년 뉴욕에서 열린 55차 유엔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의제로 채택하여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
- 201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 70차 유엔총회에서는 2015년 만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음.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2000년 6월 「새천년 국가환경 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시작함. 이 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9월에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 2006년 10월에 국내 최초의 경제·사회·환경 분야 통합관리 전략 및 실천계획인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6~'10)”을 발표하며 4대 전략, 48개 이행과제, 238개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 2007년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공포, 2008년 2월 시행.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 이후 매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평가하는 국가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음

##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

### 가. 지속가능발전과 문화

#### ■ 문화적 권리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 증대

- 1948년 UN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2조 및 제27조에서 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임을 명시하고, 문화생활 참여를 인권으로 규정
-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채택을 계기로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의무규정이 마련됨

- 세계인권선언 (1948)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국제규약 (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 시민과 정치적 권리의 국제규약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 (1992),
-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 (2001),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2005),
- UNESCO-항저우 선언 (The Hangzhou Declaration, 2013),
-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 발표

-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본질적 특성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천이자,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 강조
- 2013년 유네스코와 항저우시의 주관으로 ‘문화, 지속가능발전의 열쇠(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항저우 선언(The Hangzhou Declaration)’ 채택
- ‘항저우 선언’은 인구증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평성, 존엄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
- 또한, 가치체계로서의 문화의 역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과 틀로서 문화의 역할,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의 역할 강조하였음

## 〈표 2-1〉 〈UNESCO-항저우 선언〉 문화의 세 가지 역할 및 기여 (2013)

- 첫째, 문화는 발전의 조력자 역할로 더욱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만들. ODA 사업 진행 시, 개발협력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으나, 역으로 문화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
- 둘째, 문화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발협력국의 발전이 증진되도록 함. 문화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용성이 있고, 그 포용성은 다양성을 확보하며, 이는 사회적인 발전과 증진을 가져옴
- 셋째, 문화는 이익과 가치를 창출함. 문화가 창출하는 이익과 가치는 경제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 문화적인 것을 포함함. 즉, 문화ODA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성장이나 수익 창출의 효과뿐 아니라, 정신적인 빈곤과 문화적인 빈곤까지 해소하는 역할 함

자료: UNESCO, (2013), The Hangzhou Declaration—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Hangzhou International Congress, 15~17 May, China

- 최근 국제 논의의 흐름은 개도국 개발전략에서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양적 성장에만 기여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및 질적 성장과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SDGs)에서는 세계시민의식 및 문화다양성 인식을 위한 교육, 지역 문화 및 지역 상품 진흥을 통한 관광 활성화 정책지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문화상품 및 관광 영향력 평가 측정도구 개발 등 문화와 관광 관련 4개의 이행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개발도상국 주민들과의 정서적 공감형성 및 소통이 중요하며, 문화향유로 나타나는 행복, 정체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개발협력국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하며,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고 포용 및 전파의 필요성을 담고 있음
- 세계은행(World Bank)은 모든 경제·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국 문화가 다르므로 지역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sup>1)</sup>
  - 문화유산과 자원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인 사회 각 분야(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에서의 부의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음

1) World Bank(2001), Cultural Heritage and Development: A Framework for Act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나. 문화ODA 확대의 필요성

### ■ 한국정부의 문화를 통한 발전과 협력 노력

- 현 정부에서는 일방향적 한류 확산이 아닌, 쌍방향적 착한 한류 실현에 중점을 두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대 국정전략 중 한류 실천과제 정책 수립하였으며, 한류를 통한 문화 콘텐츠 수출 시장 활성화 및 연계 산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문화비전 2030」에서는 교류, 협력, 공존 통한 ‘문화아시아’ 역할 증대를 추진하고자 아시아 문화와 연대·공존을 위한 목표로 ‘문화아시아’ 개념 도입하였음. 문화아시아 정책은 예술, 관광,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평화와 공존 추구
-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문화예술인·청소년·청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 지속 추진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현지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인프라·문화플랫폼 지원사업 전개, 예술교육분야의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 추진, 문화콘텐츠 ODA 사업 발굴, 스포츠 분야 ODA 확대 추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신남방·신북방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신남방 정책 내용 중 문화관련 중점과제 및 전략으로 첫째, 상호방문객 확대, 둘째,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셋째, 한-메콩협력 등이 있으며, 신북방정책 내용 중 문화 관련 중점과제 및 전략으로 첫째, 북방지역 인적·문화교류 확대, 둘째, 중국 동북지역과의 교류협력 확대, 셋째, 러시아·몽골 등 미래 30년 경험전략 수립 등이 있음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정책의 역할 증대

- EU의 국제문화교류정책인 Creative Europe 제2차 계획(2014~2020)에서는 지구적 차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지원이 아닌 컨소시엄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창의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남반구 국가들에서는 국가개발계획 및 전략에 지속적으로 문화를 통합하고자 노력함<sup>2)</sup>
- 문화에 지출된 공적개발원조(ODA)의 비중이 여전히 낮고, 대부분의 개발계획에 창의성에 특화된 성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생산과 예술활동의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있음
-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 문화부처 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창의성을

2) UNESCO(2017),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진작하는 국가개발계획에 예산배정, ODA 및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서 문화를 위한 분담금 증액, 남반구의 창의 산업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음

- 현재 문화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의 2017년 현재 이행 중인 111가지 국가개발계획 중에서 86%가 문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중 2/3 이상이 남반구에 속해있음
- 2015년 현재 전체 공적개발원조의 0.22% 만이 문화에 지출했음
  -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 대한 당사국들의 분담금 또한 꾸준히 감소했으며, 2011년 1,563.216 달러에서 2016년 833,304달러로 감소
- 유네스코는 핵심지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계획에 문화 통합,” “문화자원의 분배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지역사회의 취약집단이 문화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국제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에 문화통합,” “개발도상국의 문화 및 창의산업에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도상국의 창의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제시
- 유네스코 제시 지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려면 문화담당부처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주요 주체로서 참여하여야 함

##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신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포함

- 한국 ODA의 기본 정신과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제 사업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성 개발 및 문화ODA 사업 부실한 상황임

〈표 2-2〉 한국 ODA 기본정신(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1항)

-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표 2-3〉 한국 ODA 목표(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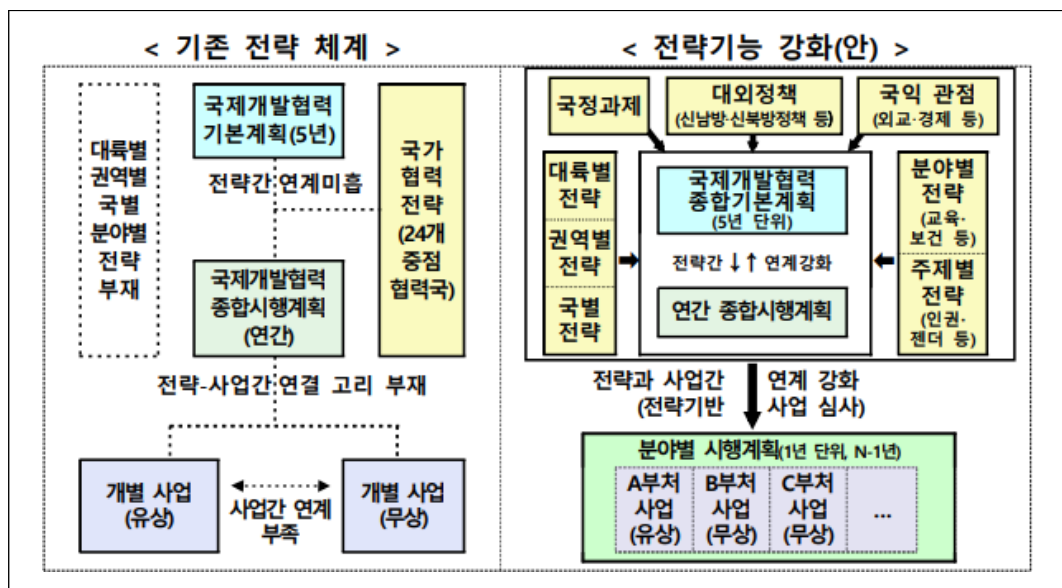
-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8.12.24.)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 4의2.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코이카(KOICA) 경우,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 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연수, 민관협력, 해외 긴급구호 및 국제기구협력 등을 추진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교통, 수자원·위생, 에너지, 보건, 교육, ICT 등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
- 각 부처의 ODA 중점 분야 및 집중 지원 사업 전문성과 포괄적 문화정책, 문화산업 분야 전문성을 갖춘 문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가능

##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전략적 추진에 따른 문화ODA의 필요성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기존 전략체계의 기능 강화로, 각 전략간(5년 기본계획-연간 시행계획-국가협력전략) 유기적 연계 필요
- 정부의 대외정책 및 경제 외교, 국익의 관점을 고려한 지역별·국별·분야별 전략이 종합적으로 수립·접근 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문화ODA는 각 전략 간 연계 강화에 기여하며, 중점협력국가 재지정, 경쟁력 있는 ODA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해 개발협력국 발전 지원,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핵심 대외정책에 뒷받침할 수 있음

[그림 2-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전략 체계 및 기능 강화(안)



자료: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p.20

### 1 기존 ODA의 특징

#### 가. ODA 역사 및 현황

##### ■ ODA 연원

- 현대적 의미의 공적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마셜 플랜(Marshall Plan) 또는 유럽재건프로그램(European Recovery Program)에서 부터 시작
- 1960년대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들이 해외원조에 동참 시작

##### ■ ODA 발전

-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과 함께 그 산하에 공여국들의 협력체인 개발원조위원회(DAC) 발족
- 1966년 설립된 유엔개발계획(UNDP)는 다자적 원조(multilateral assistance)를 주도
- 1970년 유엔 총회에서 각 공여국 당 Gross National Income(GNI)의 0.7%의 원조를 목표로 하는 결의안 채택
- 1980년대까지 원조액 증가에 주안점이 있었다면, 1990년대 탈냉전 이후의 원조는 개발협력국이 지나치게 원조에 의존하는 경향(aid dependency)을 타파하는데 관심
- 이념적 대결이 종식된 후, 구소련으로 부터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과 아프리카 등 구 독재국가들의 민주화를 위한 지원이 1990년대 관심사로 떠오름
- 2000년대 유엔 새천년 회의(UN Millennium Summit)에서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 세계화 시대에 당면한 문제들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조를 추구
- 새천년 개발 목표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저개발 국가에 대한 부채탕감, 공정한 통상(trade),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인권향상 등을 위한 효과적인 원조의 활용을 위한 논의가 지속 되고 있음

## ■ ODA 현황 (1): 공여국

- 2017년 기준으로 전체 DAC 국가들의 총수입(GNI)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0.31%로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0.7% 비해 여전히 부족함
- 0.7%를 초과한 공여국은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와 영국에 한함
-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국가 총수입의 0.18%를 해외원조로 할당. 그러나 원조 총액에서는 미국이 310억 달러로 뒤를 잇는 영국(187억 달러)과 독일(178억 달러)에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음
- 2018년 기준으로 ODA 총액 중 70%가 양자 원조(bilateral aid)이며, 이는 공여국의 개발협력국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원조정책 결정의 주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줌

## ■ ODA 현황 (2): 개발협력국

- 2018년 기준 현재 30개 DAC국가들이 총 1,533억 달러 상당의 원조를 155개 개발협력국에 지원
- 이중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개발협력국들이 존재하며 해당 국가들은 주로 분쟁 지역이거나, 장기간 저개발 문제로 신음해 온 국가들로서, 국가 재건 또는 개발을 위한 원조가 제공됨
-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경우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국가들에 주로 원조를 하는 경향을 보임. 2017년 통계상으로 미국의 최대 개발협력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순으로 나타남

## ■ ODA 현황 (3): 원조 분야 및 전망

- 2018년 현재, 분야별로는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한 원조가 전체의 18.2%, 경제적 간접자본에 대한 원조가 17.3%,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원조가 17.1%로 개발협력국의 장기적인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는 2000년대 이후 대두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 구조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생겨난 변화로,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방향을 바꿔서, 보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및 개발 인프라 구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원조를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함
- 따라서 기존의 불평등한 국제 경제 체제로 인해 발생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채 탕감과 같은 노력이나, 이러한 불평등을 고려한 저개발 국가들을 우대하는 통상 제도 설립과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여성인권 향상, 교육권 보장이나 질병 퇴치, 공공 보건 확립 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위한 원조 정책 개발 및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처럼 불평등한 구조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원조 프로그램의 개발과 원조의 효용성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개발 원조에 대한 주요 공여국들의 피로감과 국내 정치 및 사회 문제로 인해 지난 3년간 ODA 총액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나. 미국 ODA의 특징

### ■ 미국 ODA 규모

- 미국은 OECD 공여국들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액수의 ODA를 지원
- 그러나 이는 미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가장 관대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 평균적으로 미국의 ODA는 GDP의 0.1% 정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 냉전기 미국의 전략적, 이념적 동기

- 미국의 ODA 지원 동기를 이해함에 있어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 및 전략,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추구하는 고유의 이념 및 정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차 대전 후 소련과의 냉전에서 하나의 냉전 동맹(Cold War Alliance)전략으로 ODA를 채택
  - 소련의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경제지원을 시작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회복을 지원(마셜 플랜)
  - 아시아에서는 냉전 전략의 일환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이는 동유럽 국가 및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아시아 개발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지원과 같은 맥락
  - 남아메리카에나 중동, 아프리카에 소련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사건이나 징후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해당 지역에 대한 ODA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의 ODA 지원은 이러한 전략적인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및 자유주의 이념과 연관됨
  -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기독교 이념의 실천 및 자유주의의 전파가 냉전 동맹에 대한 ODA의 이념적 정당화로 작용
- 1970년대 아프리카의 기아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ODA가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인의 ODA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

- 이는 미국 국민이 가진 미국의 이념 및 정체성이 ODA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미국 ODA 실행 방식 및 주요 기구

- 미국 주도하에 설립된 Development Loan Fund (DLF),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등의 국제 제도를 통해 ODA를 집행
- UN, World Bank 등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 (Multilateral Aid)이 증가
-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개설
  - 케네디 행정부에서 국무부(State Department) 산하에 ODA 정책을 관할하는 기구
  - 개발협력국의 필요와 조건을 고려한 장기적인 원조 프로그램 USAID 관리 하에 시작

## ■ 탈냉전 이후 민주화 지원 및 전지구적 문제(Global problem) 해결을 위한 미국의 ODA

- 1990년대 이후 환경, 질병 등 전지구적 문제를 위한 ODA 증가하였고, 탈냉전 이후 급증한 유럽 및 아프리카 내전 후 국가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에 ODA 지원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발트 3국, 우크라이나 등과 같이 과거 소련의 영향에서 새롭게 독립 또는 민주화를 이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하고,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 민주 선거 실시를 위한 ODA 지원
- 1990년대 중반부터 ODA 감소. 이는 미국 국내 경제 불황 및 ODA에 대한 피로감에 의한 것

## ■ 21세기 미국의 ODA

- 9/11 테러 이후, 미국은 20세기에 일어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개입 또는 선별적 무개입으로 인한 지도국가로서의 명성의 훼손에 대한 자각이 일어남
- 이에 소프트 파워의 신장을 위해 OD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하면서 HIV/AIDS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지원 증가
- 이는 9/11 테러 이후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전 세계 여러 이슈로부터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부터, ODA는 선제적(preemptive) 안보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음
-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 이 과정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집단의 영향으로 선교적, 이념적, 인도주의적 지원의 명목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뿌리 깊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의 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음

## ■ 요약 및 전망

- 미국의 ODA는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전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채택, 집행되기 때문에, 미국 ODA는 단순히 개발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 반영 및 세계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그 내용에서 세계의 경찰 또는 지도 국가로서,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을 실현하는 좋은 국가라는 이념 또는 종교적 교의가 중요한 역할을 함
-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인해,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이 줄어들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 외교(transactional diplomacy)로 인해,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도 감소하는 추세

## 다. 일본 ODA의 특징

### ■ 일본 ODA 정책 결정 구조 및 방향성

- 일본 ODA의 시초는 세계 2차 대전 패전 후 1954년부터 1977년까지 13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쟁 보상금 지급을 명목으로 제공하였음
  - 이 보상금은 개발협력국이 요청하는 사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급됨
- 다른 공여국과 달리 원조 정책결정 과정이 정부관료, 기업, 정당의 “철의 삼각(iron triangle)”을 통해 불투명하게 이루어짐
  - ODA 정책의 변화는 정부 관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짐
  - 개발협력국에 위치한 일본 기업이 개발협력국의 필요를 평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일본의 기업과 정부가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 형태가 됨
- 일본의 원조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집행됨
  - 1970년대, 원조의 75%가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에 집중되었고, 나머지는 파키스탄,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에 제공
  - 지원 분야는 에너지, 산업, 광산 개발, 교통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집중
  - 원조를 통해 개발협력국의 개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일본은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따라서 일본의 ODA는 개발협력국의 개발보다는 일본의 수출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 및 원자재 수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목적이 다분함

## ■ 일본 ODA의 변화

- 일본의 ODA가 상업적 목적에서 외교적 목적의 수단으로 변화
  - 1970년대 오일 파동(oil shocks)을 겪으면서 일본은 중동 산유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ODA를 활용
  - 변화된 지정학적인 환경 속에서 격상된 일본의 경제적 위상으로, 아시아 이외의 국가에도 ODA를 시행하게 됨
  - 미국의 압력으로, 일본은 1980년대 ODA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1990년대에는 미국을 제치고 최대 원조국의 위치를 차지하게 됨
- 1980년대부터 엔화 대출(yen loan)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게 됨
  - 정부관료, 정당, 기업의 철의 삼각에서 기업이 배제되었으나, 1990년대 기업들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의 결과 삼각이 다시 형성됨
- 1990년대 말에는 국내적인 경제 위기 및 원조 관련 부정으로 인해 원조를 축소하기에 이름
-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미미했으나 21세기 들어 그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철의 삼각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익, 관료들이 누리는 정부 내에서의 지분 확보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여짐
  - ODA가 각 국내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개발협력국의 개발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계획, 집행될 필요가 있음

## 라. 프랑스 ODA의 특징

### ■ 프랑스 ODA의 외교적, 문화적 방향성

-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4공화국부터 식민지 동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식민지 시민들에게 프랑스 국적 및 경제적, 정치적 평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각 식민지 국가들에 교육, 보건, 농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지원을 실시함
-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프랑스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는데, 특히 아프리카 14개 국가들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획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원하였으며, 이러한 지원이 프랑스 ODA의 시작이 됨

- 아프리카 국가들은 프랑스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프랑스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됨

#### ■ 프랑스 ODA의 상업적 목적

- 이 아프리카 국가들은 석유자원 및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자원의 공급지로서 중요한 입지를 보유함
- 또한 많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프랑스의 상업적인 이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

#### ■ 프랑스 ODA 형태와 내용

- 프랑스의 양자적 지원(bilateral)은 아프리카의 구 식민지 국가들에 집중되었으며 반대로 다자적 지원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남
- 프랑스 문화와 언어 유지를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프랑스어가 개발협력국의 모국어로 유지되도록 함
- 농업 및 통신 분야의 기술적 지원이 다음으로 중요한 분야로 나타남

#### ■ 프랑스ODA의 변화

- 프랑스 원조정책은 1990년대 들어 변화를 맞이하는데, 기존 정책이 프랑스의 국익만을 추구하였고, 아프리카 국가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
- 1980년대까지의 일방적인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개발협력국의 정치경제체제를 고려하여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조건부 지원정책으로 바뀜
- 여전히 프랑스의 외교적, 문화적 이익 추구하고 개발협력국 발전이라는 지금까지 상충적인 두 가지 다른 ODA의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룩할 수 있는지가 관건임

### 마. 덴마크 ODA의 특징

#### ■ 덴마크 ODA의 위상

- 덴마크는 ODA를 통해 “인도적 국제주의자(Human Internationalist)” 또는 “ODA의 선구자(front runner)”로 평가받음

- ODA 총액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이지만, 1990년대 GDP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UN이 권고하는 0.7%를 훌쩍 넘어 1%대에 이를 정도로 해외원조에 있어서 중요한 공여국 중의 하나임

## ■ 덴마크 ODA의 시작

- 마셜 플랜의 개발협력국이었으나, 1949년 처음으로 UN을 통해 ODA 시작, 1950년대 초 한국에도 원조를 제공
- 정부가 가난한 국가를 지원하는 사적펀드(private funds)를 매치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해외원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외교부 산하 원조 프로그램(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ANIDA)을 시작하게 됨
- 원조 초기에 원조의 효과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수의 개발협력국(탄자니아, 인도, 케냐)에만 지원을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지원 금액과 개발협력국 수를 늘려감

## ■ 덴마크 ODA의 동기

- 덴마크는 지정학적으로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 힘의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ODA를 통해서 유럽 변방국가로서 다른 국가의 개발에 영향을 미침
  - ODA를 통해 양심적이고 관대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음
- ODA 개발과 빈곤 퇴치, 평등이라는 정신이 국민들의 인식과 일치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개발과 빈곤 퇴치와 같은 선구자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양자 지원

## 바. 한국 ODA의 특징

### ■ ODA

- 한국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1987년부터 유·무상 원조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면서 대외원조의 기틀을 마련함
  -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 및 EDCF 창설
  - 1987년 유상원조 시작: 최초의 EDCF 차관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도로건설 승인
  -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법 제정 및 KOICA 창설
  - 1991년 무상원조 시작: 의료단, 태권도 사범, 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시작

-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1991년 약 7,500만불에서 시작하여 2018년 현재 23.5억불로 증가
  - 이는 29개국 OECD DAC 회원국 중 15위에 해당하는 규모
- 2000년 OECD 개발협력국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공여국으로 전환하였음
-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출범하여 원조 총괄·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및 ODA 중기전략 수립
-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하였음
- 2010년 ODA 추진의 법적 안정성, 정책 일관성, 원조 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하였음

## ■ 한국 ODA의 변화

- 공여국으로 전환 이후 ODA 예산·사업이 지속 확대되었음
- 원조경험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차별화된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속 추진하였음
- 2010년과 2015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 지원전략 수립
  - 제1차 기본계획(2010년): 유·무상 분야별 원조 추진체계 수립, 다자원조 추진계획 수립
  - 제1기 국가협력전략(2011~2013년) 수립: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별 전략 수립
  - 제2차 기본계획(2015년): ODA 규모 및 운용계획,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 ODA 투명성 제고,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 제2차 국가협력전략(2015년): 중점협력국 조정 및 국별 중점협력 분야 조정

## 2 기존 ODA에 대한 검토

### 가. ODA 목표에 대한 문제제기

#### ■ ODA 목표

- 국제정치 현실주의 이론의 기본 전제는 무정부 상태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저개발 국가 발전을 돕는 이타적인 행위로 보이는 ODA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 행위이며, 따라서 국제정치 학자들 사이에서 그 행위의 근본 동기와 목표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를 촉발시켰음
- 어떤 학자들은 ODA를 제공받는 개발협력국에 대해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지정 학적인 영향력 확대 또는 경제적인 이익 증대를 위해 ODA를 공여한다고 주장하고,<sup>3)</sup> 또 다른 학자들은 국가들 사이에서 개발협력률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규범(norm)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규범이 공여국의 ODA에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주장함<sup>4)</sup>

#### ■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

- 이처럼 상반되어 보이는 여러 이론적 관점과 주장을 관통하는 공여국들의 공통적인 동기는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ODA를 제공한다는 것임. 만약 ODA가 자국의 이익을 해한다면 어떤 나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 이때, ODA 공여국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ODA를 통해 공여국에 대한 개발협력국 국민들의 인식 또는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다시 말해, ODA를 통해 관대한 국가, 국제사회의 규범에 공헌하는 국가라는 공여국에 대한 인식과 명성(reputation)을 제고함으로써 연성 권력(소프트 파워)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공여국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원조의 목표이고 기대하는 효과임<sup>5)</sup>
-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는 군사력, 경제제재와 같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압

3) Alesina, Alberto, and David Dollar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63; Browne, Stephen (2006), *Aid and Influence: Do Donors Help or Hinder?* (London: Earthscan); Maizers, Alfred, and Machiko Nissanke. (1984), "Motivations fo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12(9): 879~900; Riddell, Roger (2008),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4) Hoeffler, Anke and Verity Outram (2011), "Need, Merit, or Self-Interest-What Determines the Allocation of Aid?"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5(2): 237~250; Lundsgaarde, Erik, Christian Breunig and Seem Prakash (2007), "Trade Versus Aid: Donor Generosity in an Era of Globalization," *Policy Sciences*, 40(2): 157~179; Younas, Javed (2008), "Motivations for Bilateral Aid Allocation: Altruism or Trade Benefi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4(3): 661~674.

5) Nye, Joseph (2002),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으로 다른 나라가 자국의 정책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 호감을 느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가 원하는 정책을 동의하고 지지하게 하는 힘이 됨

- 주로 문화나 사상 등이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를 강화하는 수단이나 저개발 국가에 대해서는 ODA와 같은 해외 원조 역시 소프트 파워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됨
  - (예)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로 대표되는 문화와 자유주의 사상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하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주요한 수단이었으나, 냉전 시기부터 증가한 반미정서를 희석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ODA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였고,<sup>6)</sup> 이러한 정책이 개발협력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호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sup>7)</sup>

## 나. ODA 효과에 대한 문제제기

### ■ 경제발전에 대한 ODA 효과성에 관한 회의

- 일반적으로 ODA가 개발협력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로 입증되었으나,<sup>8)</sup>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면서 최근 들어 원조의 실제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ODA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많은 토론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빈곤 퇴출, 전염병 예방 및 치료 등 중요 사업별 원조의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개발협력국의 국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환경이 원조의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sup>9)</sup>
- 개발협력국의 국내 환경이 ODA의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개발협력국을 선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함

6) Adelman, Ken (2011), "Not-So-Smart Power: Go Ahead, Congress, But Away at U.S. Foreign Aid," *Foreign Policy* (April 18).

7) Bohner, Gerd and Nina Dickel (2011),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2(1): 391~417

8) McGillvray, Mark (2004), *Is Aid Effective?* (Helsinki: WIDER); Bowen, Janine (2019), *Foreign Aid and Economic Growth: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Routledge: New York).

9) Burnside, Graig and David Dollar (1998), "Aid, the Incentive Regime and Poverty Reduction,"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Microeconomics and Growth* (June); Collier, Paul and David Dollar (2002), "Aid Allocation and Poverty," *European Economic Review*, 46(8): 1475~1500; Charron Nicholas (2011), "Exploring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Corruption: Has the Anti-Corruption Movement" Been Effective? *The Developing Economies*, 49(1): 66~88; Lancaster, Carol (2006)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World Bank (1998),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Policy Research Report*.

- (예) 민주주의 수준이 낮거나 정치부패 정도가 심하여 정부의 투명성이 낮으면 원조의 효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공여국들이 원조 제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sup>10)</sup>

## ■ 개발협력국에 대한 문화적 영향력 강화에 ODA 효과 미비

- ODA를 통해 개발협력국 국민들이 공여국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개발협력국에 대한 공여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것이 ODA 공여국들의 공동된 동기이자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ODA가 개발협력국에서 공여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효과를 실제로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엇갈린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어 있음
- 개발협력국 국민들의 교육과 보건 수준 등의 향상과 같은 삶의 질 개선과 재난 지원 등의 ODA 사업효과는 개발협력국 국민들 사이에서 공여국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의적인 태도를 창출해 낸다는 연구가 상당수 존재함<sup>11)</sup>
- 반면, 개발협력국 국민들이 ODA 사업의 공여국이 누군지 모르고, ODA 사업을 통해 삶이 질이 나아졌다는 효과를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거나, ODA의 혜택을 불공평하게 분배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ODA가 개발협력국 국민들의 공여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별다른 변화를 초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반대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함<sup>12)</sup>
- 한국의 기존 ODA 역시 과연 개발협력국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의적인 태도를 창출하여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ODA 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함
- 만약 개발협력국에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증가한다는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많은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ODA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져서 정부 ODA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10) Berthélemy, Jean-Claud (2006) "Bilateral Donors' Interest vs. Recipients' Development Motives in Aid Allocation: Do All Donors Behave the Same?"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0(2): 179~194; Dollar, David and Victoria Levin (2006) "The Increasing Selectivity of Foreign Aid, 1984~2003," *World Development*, 34(12): 2034~2046.

11) Goldsmith, Benjamin, Yusaku Houruchi, and Terence Wood (2014) "Doing Well by Doing Good: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Foreign Public Opinion,"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 87~114; Andrabi, Tahir and Jishnu Das (2010) *In Aid We Trust: Hearts and Minds and the Pakistan Earthquake of 2005*. Washington, DC: World Bank; Dietrich, Simone, Minhaj Mahmud and Matthew Winters (2018) "Foreign Aid, Foreign Policy, and Domestic Government Legitimacy: Experimental Evidence from Bangladesh," *The Journal of Politics*, 80(1): 133~148.

12) Zürcher, Christopher, Jan Koehler, and Jan Böhnke (2010) "Assessing the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East Afghanistan 2005~2009,"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ishstein, Paul, and Andrew Wilder (2012) *Winning Hearts and Mind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Security in Afghanistan*. Medford, MA: Feinstein International Center, Tufts University.

## 다. 문화ODA 통한 소프트 파워 강화

### ■ 개발협력국 수요와 자생력 성장에 맞는 ODA 사업 필요

- ODA는 개발협력국에 대한 공여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협력국의 필요와 발전을 위한 자생력 향상을 가져오는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 필요
- 특히 경제성장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많은 추상적이고,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ODA는 해당 개발 사업의 공여국이 누군지 모른다거나, ODA 사업이 끝난 후 개발협력국 주민의 삶의 질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 있음
- 외형적 성장을 위한 개발 중심의 ODA 사업은 사업의 혜택이 주민들 사이에서 불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공여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음
- 발전과 개발에 대한 인식과 사회내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결국 사람들의 사고전환에 기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ODA 사업은 여러 한계를 가지게 됨

### ■ 개발협력국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ODA

- 문화ODA는 개발협력국 국민의 마음을 얻어 공여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한 문화외교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
-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팝송과 같은 대중문화가 전 세계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온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그 나라의 매력적인 문화임
- 공여국은 문화ODA를 통해 개발협력국의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국의 문화를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공여국에 대한 호감도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공여국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됨

## 1 DAC 회원국 문화ODA 추진 현황

### ■ 개관(Overview)

- OECD 34개 회원국 중 DAC에 속한 29개 국가들의 2018년 한해 총 문화ODA 규모는 2억 9,733만 달러로, 문화ODA 최대 공여국은 일본, 프랑스, 한국,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순임
- 최근 일본의 문화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8년 기준 1억 4,774만 달러 규모를 보임
  - 문화ODA 분류 가운데 2018년 문화 및 레크레이션(Culture and recreation) 영역에서 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일본의 관광정책, 행정, 관리(Tourism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영역은 2012년 이후(7,206만 달러) 타 OECD 회원국 비교 시 월등히 높은 지원액을 보임

### ■ 문화ODA 규모를 축소한 유럽 국가들

- 유럽 공여국의 문화ODA 규모가 줄어들음에 따라 DAC 전체 지원액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기준 프랑스>스페인>독일>일본>스웨덴>노르웨이>포르투갈>한국 순으로 지원액이 높았다면, 2018년에는 일본>프랑스>한국>스페인>독일>노르웨이>포르투갈>스웨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한국의 지원액이 증가하였음
- 일본 다음으로 2018년 기준 문화ODA 지원액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2009년 지원액이 2억 7,553만 달러로 지원액 규모가 컸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스페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문화ODA를 제공하는 국가였으나 2012년부터 문화ODA 지원액이 현저히 줄어들음
- 독일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두 번째로 많은 문화ODA를 제공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문화ODA 규모를 축소함
- 노르웨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 이상, 2014년과 2017년에는 1천만 달러 이상 문화ODA를 제공하였으나, 2018년 문화ODA 규모를 축소하여 2018년에는 801만 달러의 문화ODA를 제공하고 있음
- 스웨덴 역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천만 달러 이상 문화ODA를 제공하였

으나 2013년 문화ODA 규모를 540만 달러로 축소한 이후 2018년 486만 달러를 제공함

## ■ 문화ODA 규모를 증대한 아시아 국가들

- 유럽 국가 대부분이 최근 들어 문화ODA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은 반대로 최근에 문화ODA 규모를 증대하였음
- 일본은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에 비해 문화ODA 규모가 작았으나, 2018년 DAC회원국 전체 지원액의 약 44%에 해당하는 1억 2,307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은 2012년부터 문화ODA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2014년, 2015년에는 일본 보다 많은 문화ODA를 제공하였고, 2018년에는 일본,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문화ODA를 제공하는 국가임

〈표 2-4〉 주요 공여국 문화ODA 규모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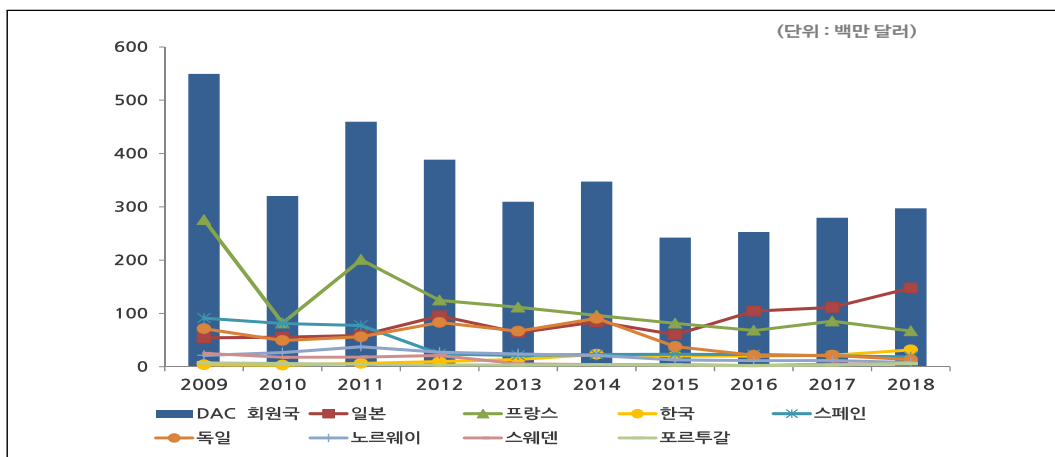
순위	공여국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일본	문화 및 레크레이션	33.77	34.54	33.61	19.02	12.16	12.64	12.84	19.75	28.75	123.07
		관광정책, 행정, 관리	16.62	18.44	19.19	72.06	48.45	69.94	45.81	78.16	81.19	16.50
		자연문화 유산보호	3.76	2.46	6.11	4.42	3.26	2.06	1.30	6.32	1.26	8.16
		합계	54.15	55.44	58.90	95.49	63.87	84.64	59.94	104.23	111.20	147.74
2	프랑스	문화 및 레크레이션	226.11	76.74	170.25	112.94	91.95	84.64	76.32	61.49	71.10	53.64
		관광정책, 행정, 관리	27.71	2.76	28.08	5.84	15.22	3.52	1.70	3.82	12.55	5.02
		자연문화 유산보호	21.71	2.06	2.49	5.64	4.24	8.03	3.30	2.70	1.68	8.29
		합계	275.53	81.57	200.82	124.42	111.41	96.19	81.32	68.01	85.33	66.95
3	한국	문화 및 레크레이션	3.27	2.75	5.64	7.05	11.64	20.64	17.15	17.74	18.28	27.66
		관광정책, 행정, 관리	0.49	0.33	0.48	1.37	1.17	2.70	1.72	1.38	2.57	3.08
		자연문화 유산보호	-	-	-	1.42	0.94	0.07	1.22	0.81	0.70	0.85
		합계	3.76	3.08	6.12	9.84	13.75	23.41	20.09	19.93	21.56	31.59
4	스페인	문화 및 레크레이션	61.81	59.88	67.12	19.81	19.46	20.50	20.52	20.46	17.60	15.07
		관광정책, 행정, 관리	7.73	7.58	3.61	1.32	0.53	2.22	1.06	1.44	0.83	1.51
		자연문화 유산보호	21.54	13.62	6.45	2.85	1.17	0.33	1.70	1.04	1.86	1.94
		합계	91.09	81.08	77.18	23.98	21.15	23.05	23.27	22.94	20.29	18.51

순위	공여국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	독일	문화 및 레크레이션	48.21	42.08	47.39	75.99	61.81	87.07	36.44	17.79	13.25	7.73
		관광정책, 행정, 관리	20.56	5.79	7.42	2.61	3.46	2.56	0.76	0.35	2.56	1.95
		자연문화유산보호	2.61	1.26	1.46	4.41	1.44	1.03	0.70	3.46	5.38	3.66
	합계		71.38	49.12	56.26	83.01	66.71	90.66	37.89	21.60	21.20	13.33
6	노르웨이	문화 및 레크레이션	20.78	23.26	26.97	24.28	21.71	20.33	11.97	10.63	10.77	7.69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7	2.75	9.84	2.57	2.26	0.39	0.26	0.34	0.29	0.32
		자연문화유산보호	0.32	0.33	0.67	0.13	—	0.38	0.39	0.39	0.59	—
	합계		21.17	26.34	37.48	26.98	23.97	21.10	12.62	11.36	11.64	8.01
7	포르투갈	문화 및 레크레이션	6.65	5.77	4.18	3.55	3.38	4.01	2.65	2.01	2.93	2.85
		관광정책, 행정, 관리	0.21	0.04	0.05	0.01	0.01	—	0.56	0.10	0.31	3.41
		자연문화유산보호	0.21	0.13	0.37	—	—	—	—	—	—	0.07
	합계		7.07	5.94	4.61	3.56	3.39	4.01	3.21	2.11	3.24	6.33
8	스웨덴	문화 및 레크레이션	25.16	17.56	18.09	21.02	5.4	4.05	3.51	1.6	4.17	4.81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	—	—	0.427	0.841	0.823	0.058
		자연문화유산보호	—	—	—	—	—	—	—	—	—	—
	합계		25.16	17.56	18.09	21.02	5.4	4.05	3.937	2.441	4.993	4.868
DAC 전체			549.31	320.13	459.46	388.30	309.65	347.11	242.28	252.62	279.45	297.33

주: 2018년 기준으로 공여국 문화ODA 총 지출액 순위를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4.22., 2020.06.02)

[그림 2-2] 주요 공여국 문화ODA 규모 (2009~2018)



주: 2018년 기준으로 공여국 문화ODA 총 지출액 순위를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4.22, 2020.06.02)

## 2 독일 문화ODA 현황 및 특징

### ■ 개발원조 전담부처 경제협력개발부, 독일국제교류협력단 중심으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ODA 사업 모색

- 독일은 연방 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이하 BMZ)를 설립하여 2009년 자유주의적 개발협력 정책을 바탕으로 ‘기회 창출-미래 개척’이라는 개발협력 정책을 구상하였음<sup>13)</sup>
- 개발협력 정책에서 민간 경제부문 주체의 개발협력에 대한 활동 참여를 중요시 하였으며, 연방 정부는 독일기술협력단(GTZ), 독일개발봉사단(DED) 및 국제향상교육과 개발회사(InWEnt)를 하나의 기구인 ‘독일국제교류협력단(GIZ)’으로 통합하였음<sup>14)</sup>
- 주요사업은 빈곤 감축을 기조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전략기획을 수립함
- 특히 독일은 모든 사업에 문화를 범분야적으로 적용하여 문화ODA를 시행하고 있음<sup>15)</sup>

### ■ 독일 문화ODA의 지원액 감소 추세에도 다양한 원조전달 기관 유지

- 독일의 문화ODA 지원액은 2014년 9,089만 달러에서 2018년 기준 1,333만 달러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에서 민간 경제부문 주체 및 다양한 기관의 개발협력 활동 참여의 중요성에 따라, ODA 지원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다양한 원조전달기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NGO 및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액은 2018년 기준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부분에서 151만 달러, 자연문화유산보호 부분에서 201만 달러로 기술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관련 사업의 경우, 사원 복원 사업, 바간 사원의 페인트 보존 사업, 직업 교육원에서의 문화다양성 및 상호 교육 프로젝트, 스포츠 장비 지원, 코소보 축구 장기 프로젝트 등 진행됨

13) KOICA(2018),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86쪽 참조

14) Michael Bohnet(2013),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 FES Information Series.

15) 이태주(2017), 「한국형 문화ODA 정책과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연구」, 22쪽 참조

〈표 2-5〉 독일 문화ODA 자원 현황(2014~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원조전달채널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공분야기관	문화 및 레크레이션	79.393	28.872	8.353	2.146	4,272
	관광정책, 행정, 관리	2.234	0.606	0.024	0.006	0.001
	자연문화유산보호	—	0.334	2.765	2.685	1.167
NGO 및 시민사회단체	문화 및 레크레이션	0.721	0.676	3.442	3.391	1,516
	관광정책, 행정, 관리	0.480	0.080	0.211	0.154	0.101
	자연문화유산보호	0.033	0.014	0.301	1.793	2,018
다자기구	문화 및 레크레이션	0.133	—	0.133	0.181	—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2.209	1,549
PPP	자연문화유산보호	—	—	—	0.041	0.097
기타 <sup>16)</sup>	문화 및 레크레이션	0.100	2,360	5,750	7,261	1,918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06	—	0.085	0.041	0,295
	자연문화유산보호	0.867	0,282	0,092	0,546	0,373
민간분야기관	문화 및 레크레이션	—	—	0,025	0,003	0,030
기타 <sup>17)</sup>	문화 및 레크레이션	6,732	4,538	0,093	0,277	—
	자연문화유산보호	0,199	—	—	—	—
합계		90,898	37,762	21,274	20,734	13,337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4.22., 2020.06.02)

## ■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의 문화교류 허브 역할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증진 도모

- 주요 문화ODA 원조전달채널인 공공분야기관의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부분 사업유형은 2018년 기준 프로젝트1개, 기타 기술원조가 49개국 68개 사업으로 종합69개의 문화ODA 사업을 지원함
-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부분 지역별 사업 현황은 아프리카 지역에 17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에 14개 사업을 실시함
- 독일의 문화ODA 사업은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e)을 통한 시민사회 파트너와의 교육 협력 사업(Educational Cooperation with Partners of the Civil Society)이 42개로 대부분을 차지함. 이외에도 괴테 문화원을 통해 교육 분야 독일-프랑스 합동 사업(Joint German-French Projects in the Educational Sector) 12개를 진행하고 있음

16) 대학교, 단과대학, 기타 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싱크탱크 등의 기관으로 Channel 코드는 50000

17) '기타'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타 채널

- 독일문화원(Goethe-Institut)을 중심으로 문화 협력, 교육분야 협력, 예술, 문화 및 미디어, 청소년 대상 문화분야 프로젝트 등을 진행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독일어 전파, 국제문화협력 사업을 촉진하여 독일의 문화사회정치 관련 포괄적인 정보 제공으로 문화 외교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표 2-6〉 독일 주요 문화ODA 현황(2018년)

(단위: 백만 달러)

DAC 사업유형	주요 내용		
	개발협력국	ODA 사업	지원액
프로젝트 (C01)	코소보	문화 교류를 위한 미트로비카 청소년 센터 지원 사업 (Youth Center Mitrovica)	0.0140
기타 기술원조 (D02) 49개국/68개 사업	터키	괴테문화원 지역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 교육 협력 사업 (Educational Cooperation with Partners of the Civil Society, Goethe Institute)	0.267
	터키	괴테문화원 에른스트 로이터 이니셔티브 예술, 문화, 미디어 분야 지원 사업 (Ernst Reuter Initiative, Goethe Institute)	0.223
	시리아	시리아 문화 유산 디지털 보존 사업 (Syrian Heritage Archive Project)	0.221
	인도네시아	괴테문화원 지역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 교육 협력 사업 (Educational Cooperation with Partners of the Civil Society, Goethe Institute)	0.214
	레바논	괴테문화원 지역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 교육 협력 사업 (Educational Cooperation with Partners of the Civil Society, Goethe Institute)	0.194
	인도	괴테문화원 지역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 교육 협력 사업 (Educational Cooperation with Partners of the Civil Society, Goethe Institute)	0.186
	레바논	카미드 엘로즈 문화 유산 및 역사에 관한 전시/박물관 사업 지원 (Concept Archaeological Museum Kamid El-Loz)	0.074
	코소보	노보브르도 성당 보존 사업 (Preservation of the Cathedral in Novobrd)	0.071
	이라크	네비유니스 모스크 피해 측량 및 모술 조나 무덤 지역 보존 지원 사업 (Building Expertise Nebu Mosque / Jona Tomb in Mosul)	0.062
	수단	아문 리온 사원 보수 사업 (Naga Restorations at Amun and Lion Temple)	0.056
	인도	역사적인 스리나가 운트 카달 다리 보수 사업 (Restoration of the Oont Kadal Bridge in Srinagar)	0.044
	이란	탁테슬레이만 유적지 보전 사업 (Safeguarding Takht-e Soleyman)	0.024
	터키	괴테문화원 독일-프랑스 공동 문화 예술 작품 지원 사업 (Joint German-French Projects in the Educational Sector, Goethe Institute)	0.024
	태국	괴테문화원 독일-프랑스 공동 문화 예술 작품 지원 사업 (Joint German-French Projects in the Educational Sector, Goethe Institute)	0.021
	볼리비아	본(Bonn) 소재 마라부(Marabu) 극장 문화부 지원 사업 (Theater Project Agua/Water)	0.009

주: 문화ODA 부문 주요 원조액을 이루는 문화 및 레이레이션(16061) 부분, 전달채널 공공분야기관(10000) 중심으로 기술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 (검색일: 2020.04.22)

### 3 스페인 문화ODA 현황 및 특징

#### ■ 스페인 대표 원조기관 개발협력청 중심으로 중남미지역 ODA 지원 집중<sup>18)</sup>

- 스페인의 ODA 주무부처는 외교협력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및 원조기관 개발협력청(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AECID)이며, 14개 중앙부처, 17개 자치정부 등이 ODA를 수행하고 있음
- AECID는 기술협력, 인도적 원조,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경제협력 등의 수단으로 빈곤감소와 사회통합, 개발협력국 국민의 인권보장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며, 외교협력부와 4년마다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여 개발목표 전략을 수립함

#### ■ ‘문화와 개발(Culture and Development)’ 범분야 섹터 수립<sup>19)</sup>

- 스페인은 타 공여국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와 개발’이라는 범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섹터 개발로 질적 차별화를 보이고 있음
- 문화와 개발 섹터의 목적은 문화를 사회·경제·환경적 차원에서 개발의 한 요소 및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개발과 관련된 문화적 정책을 수립하여 수여국의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유산을 강화하는 것임
- 스페인은 라틴 아메리카와의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으로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함에 따라 문화와 개발 분야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
- 스페인 Master Plan 2013~2016에서는 글로벌화, 지역경제 증진을 위해 ‘문화 표현의 다양성’을 제시함<sup>20)</sup>
  - 문화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육성, 공공 및 민간의 역량 강화에 기여 수여국-공여국간 문화 부문교류,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 등 수행
  - 스페인 원조기관 개발협력청(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ECID)은 개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문화 체육부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으며, AECID 해외조직으로는 크게 기술협력사무소(Oficinas Técnicas de Cooperación), 문화센터(Centros Culturales), 교육센터(Centros de Formación)가 있음
  - AECID는 해외지역에 기술협력사무소 31개, 문화센터 13개, 교육센터 1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에 높은 비중을 차지함

18) KOICA(2018),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233~239쪽 참조

19) KOICA(2010),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95~96쪽 참조 및 재구성

20) OECD(2013),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Spain 2011

[그림 2-3] 2009년 스페인 12개 분야 중 문화분야 수립

<b>"Hardware"</b>	<b>"Software"</b>		
<b>10 Principles</b>	<b>12 sectors</b>	<b>4 areas of special attention</b>	
An approach centred around: 1. Human development and human capacity 2. Rights-based approach 3. Sustainable development 4. Participation 5. Gender equality 6. Learning 7. Development effectiveness 8. Endogenous development, inclusive policies 9. Partnership 10.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1. Democratic governance 2. Rural development and fighting hunger 3. Education 4. Health 5. Water and sanitation 6. Economic growth for poverty reduction 7.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limate change and habitat 8.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9. Culture 10. Gender equality 11. Migration 12. Peacebuilding	1. Fight against hunger  2. Environmental protection, natural resources, climate change  3. Gender equality  4. Innovative financing resources for development	
	<b>5 cross-cutting policies</b>		
	1. Social inclusion and fighting poverty 2. Democratic governance and human rights 3. Gender equality 4.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5. Cultural dimension/respect for diversity		

Source: Adapted from: MAEC/SECI (2009a), *Plan Director de la Cooperación Española - Documento de líneas maestras*, Madrid, 2009. Note: We have added the labels "hardware" and "software", which staff used in interviews.

주: 스페인의 마스터플랜 2013~2016 에서는 '문화 표현의 다양성'으로, 범분야에 속해 있음  
 자료: OECD(2013),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Spain 2011

## ■ 공공분야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원조전달채널을 통한 문화ODA 지원

- 스페인의 주요 원조 전달 기관은 공공분야기관으로, 2018년 기준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부분 1,071만 달러, 관광정책 및 행정관리 부분은 33만 달러, 자연문화유산보호 부분은 104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다자기구, NGO 및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대학교, 단과대학, 기타 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싱크탱크 등의 기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등 다양한 원조전달채널을 통해 문화ODA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5년 동안 지원액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NGO 및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소 및 싱크탱크 등의 기관 등의 지원액은 증가추세에 있음

〈표 2-7〉 스페인 문화ODA 지원 현황(2014~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원조전달채널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공분야기관	문화 및 레크레이션	17,948	15,596	15,354	15,369	10,710
	관광정책, 행정, 관리	1,644	0,542	1,070	0,465	0,334
	자연문화유산보호	—	0,538	0,392	0,719	1,041
NGO 및 시민사회단체	문화 및 레크레이션	1,149	0,892	1,118	1,143	1,470
	관광정책, 행정, 관리	0,660	0,361	0,172	0,189	0,725
	자연문화유산보호	0,033	0,117	0,160	0,469	0,332
PPP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66	2,951	2,981	—	0,089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0,043	—	—
	자연문화유산보호	—	—	—	0,068	0,353
다자기구	문화 및 레크레이션	1,234	0,987	0,962	0,834	1,664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11	—	—	0,113	0,413
	자연문화유산보호	0,093	0,694	0,156	0,311	0,146
기타1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13	0,098	0,050	0,109	0,213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96	0,063	0,030	0,016	0,034
	자연문화유산보호	0,113	0,099	0,058	0,065	0,063
민간분야기관	문화 및 레크레이션	—	—	—	0,010	—
기타2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90	—	—	0,141	0,006
	자연문화유산보호	0,123	0,103	0,185	0,125	—
합계		23,273	23,041	22,731	20,146	17,593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4.22., 2020.06.02)

## ■ 문화훈련 강화 프로그램, 도서관박물관 중심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중심 문화ODA 진행

- 1,759만 달러로 2018년 세 번째로 많은 문화ODA를 제공한 스페인은 팔레스타인 포함 전 세계 65개 국가에 244개의 문화ODA 사업을 지원함
- 지역별로는 프랑스와 일본과 다르게 멕시코를 포함한 중미와 남미(라틴 아메리카)에 135개에 이르는 가장 많은 사업을 지원
- 스페인의 문화ODA 사업은 도서관 및 미술관 인력 지원, 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각종 문화 프로젝트(project-type interventions) 등이 있는데, 인력 지원에 집중된 프랑스와 일본과 달리 스페인은 244개 중 229개가 각종 문화 사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지원금 규모로는 문화ODA 상위 6개 사업이 도서관 및 미술관 인력 지원 사업이며 상위 10개 사업 중 8개가 여기에 해당함
  - 가장 지원금이 많은 사업은 모로코에 대한 도서관 및 미술관 인력 지원 사업으로 2018년 한해 115만 달러를 제공했고, 두 번째는 브라질 도서관, 미술관 인력 지원 사업으로 110만 달러를 제공함. 문화 사업 중 지원금이 가장 큰 사업은 페루 무역관광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Tourism) 문화 사업 지원으로 28만 달러를 제공
- 스페인은 문화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 문화 발전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의 지원액이 729만 달러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스페인의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국은 터키, 레바논, 브라질, 세르비아, 요르단,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총 12개국임
- 기타 기술원조 사업은 파나마, 모리타니, 베네수엘라 3개국에 집중되었음
  - 파나마의 경우 '십자가의 길 신호 및 개선 프로젝트 초안 작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고, 모리타니는 '모리타니 2017 문화유산 박물관의 문화유산 기술', '도서관 기술 지원 사업'을 수행했으며, 베네수엘라의 경우 '베네수엘라 문화 프로그램 2018 사업'이 진행되었음

〈표 2-8〉 스페인 주요 문화ODA 현황(2018년)

(단위: 백만 달러)

DAC 사업유형	주요 내용		
	개발협력국	ODA 사업	지원액
프로젝트 (C01) 69개국/ 229개 프로젝트	페루	페루 무역관광부 차파크 난 문화 관광 유적 보존 사업 (2018 Peru 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Tourism - Qhapaq Ñan)	0.283
	니카라과	니카라과 히스패닉 문화원 지원 사업 (Nicaraguan Institute of Hispanic Culture)	0.260
	콜롬비아	헤리티지 농촌 도서관 지원 사업 (Heritage Rural Libraries)	0.236
	멕시코	문화협력 - 문화센터 지원 사업 (Cultural Cooperation - Cultural Center)	0.204
	아르헨티나	문화협력 - 부에노스 아이레스 문화센터 지원 사업 (Buenos Aires Cultural Cooperation - Cultural Center)	0.135
	페루	문화협력 - 리마 문화센터 지원 사업 (Lima Cultural Cooperation - Cultural Center)	0.122
	파라과이	문화협력 - 아순시온 문화센터 지원 사업 (Asuncion Cultural Cooperation - Cultural Center)	0.110
	볼리비아	문화협력 - 라파즈 문화센터 지원 사업 (La Paz Cultural Cooperation - Cultural Center)	0.106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라비에자 역사공원 토지 및 정체성 개발 사업 (Developing Territory Developing Identities - Identity Integral Musealization of the Archaeological Site of Santa Cruz La Vieja)	0.152

DAC 사업유형	주요 내용		
	개발협력국	ODA 사업	지원액
	엘살바도르	자카테콜루카 지역 마스터 플랜 (Zacatecoluca Master Plan)	0.118
	콜롬비아	보고타 문화 교육 대사관 강화 사업 (Strengthening of Cultural Training Embassy in Bogota)	0.100
	볼리비아	헤리티지 계획 미션 (Heritage Plan Misiones)	0.089
	브라질	브라질리아 문화 교육 대사관 강화 사업 (Strengthening of Cultural Training Embassy in Brasilia)	0.087
	볼리비아	수크레 역사도시 유적 복원 계획 (Heritage Rehabilitation Plan of Historic Areas Sucre)	0.065
	볼리비아	라파즈 지방정부 유적 보전 사업 (Heritage Government Municipal de La Paz Incentives)	0.044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레토리아 문화 교육 대사관 강화 사업 (Strengthening of Cultural Training Embassy in Pretoria)	0.04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문화 교육 대사관 강화 사업 (Strengthening of Cultural Training Embassy in Yakarta)	0.032
	페루	교통 엑스포에서 지방 문화 전시 강화 지원 사업 (Strengthening Local Cultural Offer Transport Expo)	0.016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2018 키예프 대사관의 문화 훈련 강화	0.0156
	적도 기니	적도 기니 바타 2018 문화협력-문화 센터 (EQUATORIAL GUINEA BATA 2018 CULTURAL COOPERATION - CULTURAL CENTER)	0.0991
	멕시코	멕시코 2018 문화협력-문화 센터 협력 (MEXICO 2018 CULTURAL COOPERATION - CULTURAL CENTER)	0.2006
	페루	2018 문화강화 지역 문화행사 제작 프로그램 (Iberoamerica 2018 Cultural Fortalecimiento ferta cultural local Produccion Programa de)	0.0015
	카메룬	카메룬 2018 아운데 대사관의 문화 훈련 강화	0.0177
	온두라스	온두라스, 파라과이 및 도미니키 공화국 지역문화 제공 강화 (Honduras, Paraguay and Dominican Republic Strengthening local cultural offer Waiting for Thoreau)	0.0012
	알바니아	티라나2018 지역문화 홍보 대사관 교육 (ALBANIA TIRANA 2018 TRAINING ON LOCAL CULTURAL PROMOTION EMBASSY)	0.0142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D01)	12개국	도서관 및 박물관_문화 활동 및 도서관 (LIBRARIES AND MUSEUMS)	7.296
기타 기술원조(D02)	파나마	파나마 십자가의 길 2018 세계유산 개선 사업 (PANAMA 2018 HERITAGE OF PANAMA CAMINO CRUCES)	0.0040
	모리타니	칭게티 도시 박물관 문서 보존 기술 지원 (Mauritania 2017 Libraries Heritage Chinguetti)	0.0016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문화 프로그램2018 (VENEZUELA CULTURAL PROGRAM 2018)	0.0692

주: 문화ODA 부문 주요 원조액을 이루는 문화 및 레이아웃(16061) 부분, 전달채널 공공분야기관(10000) 중심으로 기술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 (검색일: 2020,04,22)

## 4 프랑스 문화ODA 현황 및 특징

### ■ 프랑스 개발협력청 중심으로 포용적 거버넌스 전략 목표에 따라 문화 및 창의적 산업 육성 책무 수립

- 프랑스는 외무부가 무상원조 정책을, 경제재정산업부가 유상원조를, 개발협력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이하 AFD)<sup>21)</sup>이 사업 수행을 전담하며, 구식민지인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AFD는 개발도상국 및 프랑스 해외영토의 생활향상 도모로, 포용적 거버넌스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새롭게 정의된 AFD 책무는 ① 거버넌스 확립, ② 문화 및 창의적 산업 육성, ③ 개발교육 및 국제연대, ④ 이주문제 대응, ⑤ 디지털 기술, ⑥ 새로운 파트너국가와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음<sup>22)</sup>

### ■ 문화분야 최대 공여국으로서, 공공분야기관의 문화ODA 집중 지원

- 프랑스는 지식과 문화의 교류를 개발협력의 비전으로 채택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여 핵심 정책으로 문화 및 창의적 산업 관련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분야기관의 문화ODA 지원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소 최근 문화ODA 지원 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AFD 전략목표에 따라 NGO 및 시민단체의 지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 2018년 한해 6,695만 달러에 이르는 가장 많은 문화ODA를 제공한 프랑스는 팔레스타인(West Bank and Gaza Strip) 포함 전 세계 108개 국가에 588개의 문화ODA 사업을 지원함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247개로 가장 많은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에 157개 사업을 지원함

21) 프랑스 개발협력청(AFD)는 아프리카 지역, 지역사회 및 기업, NGO 등의 다양한 원조 참여자, 프랑스어권 지역 중심으로 주요 지원 목표를 세움

22) KOICA.(2018),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81쪽 참조

〈표 2-9〉 프랑스 문화ODA 지원 현황(2014~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원조전달채널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공분야기관	문화 및 레크레이션	84.616	76.324	59.812	70.077	52.143
	관광정책, 행정, 관리	3.842	1.569	3.142	3.542	3.842
	자연문화유산보호	7.255	2.467	2.240	1.408	7.234
NGO 및 시민사회단체	문화 및 레크레이션	-	-	1.683	1.031	1.498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0.391	0.276	1.179
	자연문화유산보호	1.197	0.581	0.255	0.181	0.148
PPP	자연문화유산보호	0.029	-	-	-	-
다자기구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30	-	-	-	-
	자연문화유산보호	-	-	-	-	0.909
기타1	자연문화유산보호	0.288	-	-	-	-
민간부분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8.077	-
합계		97.257	80.941	67.523	84.592	66.953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4.22., 2020.06.02)

## ■ 아프리카국가 중심으로 언어교육·문화유산 보존 관리 등 문화ODA 지원

- 프랑스의 문화ODA는 구식민지인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언어교육,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등의 지원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있음<sup>23)</sup>
- 2018년 프랑스의 문화ODA는 프로젝트,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기타 기술원조 3가지 사업 유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원조 지원액은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이 2,668만 달러 규모로 가장 높게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기술원조가 2,510만 달러로 높은 비중을 보임
- 프랑스의 문화ODA 사업은 다양한 문화 및 여가 인프라 지원(infrastructure et services sociaux divers-Culture et loisirs), 알리앙스 프랑세즈 인력 지원(personnel des Alliances Francaises), 문화 협력 서비스(SCAC: service de cooperation et d'action culturelle), 프랑스 문화원 기금(subvention Institut Francais) 등인데, 588개 문화ODA 사업 중 대부분인 437개 사업은 문화 협력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23) 조계수·정연내(2019), “한국 문화ODA 실행전략 연구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3호, 34쪽 참조

- 지원금 규모로는 문화ODA 상위 5개 사업이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caises) 인력 지원 사업인데, 상위 10개 사업 중 8개가 여기에 해당함
  - 가장 지원금이 많은 사업은 인도에 소재한 알리앙스 프랑세즈 인력 지원 사업으로 2018년 한 해 313만 달러를 제공했고, 두 번째는 브라질에 소재한 알리앙스 프랑세즈 인력 지원 사업으로 241만 달러를 제공함. 세 번째 규모 큰 사업은 중국 소재 알리앙스 프랑세즈 인력 지원 사업으로 236만 달러를 제공
- 프로젝트의 경우는 13건의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진행되었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 주를 이룸
-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및 기타 기술원조 사업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음

#### ■ 프랑스 외교부 중심 ‘프랑스 협력과 문화 행동 네트워크’ 수행<sup>24)</sup>

- 프랑스 외교부에서는 협력과 문화 행동 네트워크를 구성, 프랑스 문화 센터와의 합병을 통해 AFD 기관 및 해외 프랑스 연구소 등에서 문화ODA를 수행하고 있음
- AFD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는 13,000 명의 자원 봉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문화 산업 전문가를 위한 포럼, 예술 협력 및 교류’를 통한 현지 문화 행사 지원, 시청각 기자재 구매, 언어 및 교육용 기자재 구매, 영화전문가 초청, 문화 행사 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랑스와의 문화 협력·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24)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diplomatie.gouv.fr/en/the-ministry-and-its-network/missions-structure/the-cooperation-and-cultural-action-network/>) (검색일: 2020.04.27)

〈표 2-10〉 프랑스 주요 문화ODA 현황(2018년)

(단위: 백만 달러)

DAC 사업유형	주요 내용		
	개발협력국	ODA 사업	지원액
프로젝트 (C01)	알제리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지원 (Infrastructure et services sociaux divers–Culture et loisirs)	0.0083
	모로코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지원 (Infrastructure et services sociaux divers–Culture et loisirs)	0.0074
	베냉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지원 (Infrastructure et services sociaux divers–Culture et loisirs)	0.0105
	남아프리카 공화국	DESSALEMENT SOLAIRE AUTONOME	0.2018
	왈리스 푸투나	정치, 문화 및 사회 생활 (Vie politique, culturelle et associative)	0.0002
		정치, 문화 및 사회 생활 (Vie politique, culturelle et associative)	0.0006
		문화유산(Patrimoines)	0.0354
		정치, 문화 및 사회 생활 (Vie politique, culturelle et associative)_인쇄물 및 브로슈어	0.0055
		스포츠(Sport)_협회 및 재단으로 직접 송금	0.0223
		정치, 문화 및 사회 생활(Vie politique, culturelle et associative)_수여국 국민에게 집단 송금	0.0003
		스포츠(Sport)_협회 및 재단으로 직접 송금	0.0253
		스포츠(Sport)	0.0020
		정치, 문화 및 사회 생활(Vie politique, culturelle et associative)_위원회 및 국회의원 참여	0.0305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D01)	인도, 브라질, 중국 등 62개국	알리앙스 프랑세즈 인력 지원 (Personnel des Alliances Françaises), 문화 및 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지원 (Infrastructure et services sociaux divers–Culture et loisirs)	26.6838
기타 기술원조(D02)		문화협력 서비스(SCAC – P185 – Palestine – Service de coopTration et d'action culturelle)	25.1079

주: 문화ODA 부문 주요 원조액을 이루는 문화 및 레이레이션(16061) 부분, 전달채널 공공분야기관(10000) 중심으로 기술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 (검색일: 2020.04.22)

## 5 일본 문화ODA 현황 및 특징

###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중심으로 국익에 공헌하는 ODA의 전략적 운영

- 2008년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가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하 JBIC)의 유상원조 및 차관 및 일본 외무성의 무상 자금협력을 흡수·통합함으로써, 원조 전담기관으로 ODA를 실행하고 있음<sup>25)</sup>
- 일본은 2015년 「개발협력대강」에서 일본 ODA의 원조 이념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의 ODA는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슈 및 인간안보’를 일본 원조 전략목표로 두고 있음<sup>26)</sup>
-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정책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며, 일본의 원조 전략이 외교·경제적 역할의 이유로 양자원조가 80%를 차지, 이를 반영하는 양자사업이 대다수임<sup>27)</sup>

### ■ 원조 전략목표에 근간이 되는 문화ODA 사업 진행

- 일본의 원조 전략목표가 외교·경제적 역할 및 양자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전달에 비해 공공분야기관(Public Sector)을 통한 문화ODA 사업이 주를 이룸
- 2018년 일본의 공공분야기관의 문화ODA 지원 현황은 2017년(2,040만 달러)에 비해 대폭 상승한 1억 335,6만 달러이며, ‘대이집트 박물관 건립 사업(The Grand Egyptian Museum Construction Project (II))’이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진행되었음
- 일본 외무성의 「개발협력대강」개정 발표 이후 NGO 및 시민사회단체의 문화ODA 지원도 다소 증가한 것 역시 일본 정부의 ODA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sup>28)</sup>
- 기타2에 해당하는 기타 채널을 통한 문화ODA 지원 분야는 ‘TC AGGREGATED ACTIVITIES<sup>29)</sup>로 기술협력 프로젝트에 해당함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일본의 원조기관 일원화 및 개혁조치」

26) 강우철(2017), 「일본 ODA의 국제규범 준수와 공여국 중심주의: 개발협력대강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일본 ODA의 원조 이념은 신ODA 대강에서 ‘일본 ODA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안전과 번영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로 정의하였으며, 개발협력대강에서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일본의 평화와 안정 유지, 번영의 실현, 안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예측하기 쉬운 국제환경의 실현, 보편적인 가치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유지 및 옹호라는 국익을 확보하는데 공헌한다.’라고 언급함

27) KOICA(2018),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150쪽 참조

28) ODA watch(2015.03.20), “일본 외무성의 「개발협력대강」 개정, 그 쟁점을 보다,”

([http://www.odawatch.net/?document\\_srl=466568&category=249&mid=articlesth](http://www.odawatch.net/?document_srl=466568&category=249&mid=articlesth))

- 일본의 경우 관광정책, 행정, 관리분야에서도 2014년 1,208만 달러에서 2018년 894만 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타 OECD 공여국에 비해 높은 지원액을 보임

〈표 2-11〉 일본 문화ODA 지원 현황(2014~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원조전달채널	분류	2014	2015	2016	2017	2018
공공분야기관	문화 및 레크레이션	9,255	7,927	8,252	7,921	118,913
	관광정책, 행정, 관리	12,086	8,876	15,466	11,285	8,945
	자연문화유산보호	0.551	0.719	5.921	1.201	5.711
NGO 및 시민사회단체	문화 및 레크레이션	1,430	0.780	1,237	1,329	1,045
	관광정책, 행정, 관리	0.303	0.394	0.484	0.850	0.302
	자연문화유산보호	0.561	0.408	0.514	0.042	0.428
다자기구	문화 및 레크레이션	—	2,884	1,269	1,384	—
	자연문화유산보호	—	—	—	—	2,023
기타1	문화 및 레크레이션	0.660	—	0.177	—	0.090
	자연문화유산보호	—	0.056	—	—	—
민간분야기관	문화 및 레크레이션	—	—	0.054	0.215	0.066
기타2	문화 및 레크레이션	1,304	1,252	8,761	17,903	2,961
합계		26.15	23.296	42.135	42.13	140.484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4.22., 2020.06.02)

## ■ 박물관 건립, 체육훈련단지 시설개선, 교향악단 악기 개선 등 문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및 인력지원사업 중심 지원

- 주요 분류코드인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부분의 2018년 지원액은 1억 1,235만 달러로 DAC 회원국 중 가장 많은 문화ODA를 제공하였으며, 일본은 해당 부분 전 세계 37개국, 47개 문화ODA 사업을 지원하였음
- 일본은 OECD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문화ODA 사업을 지원하는데,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부분에서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에 11개, 사하라 북부 지역에 4개 사업을 지원

29) OECD Stat에서 검색 가능한 일본 ODA사업 가운데 'TC AGGREGATED ACTIVITIES'사업에 대한 설명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OECD(2014) 「Development Assistance Flows for Governance and Peace」보고서에 따르면, 'TC'는 기술 협력으로 번역됨

- 일본의 문화ODA 사업은 유아 문화센터, 체육관 등 시설 개선 지원에서부터 교향악단 악기 구입, 장학금, 각종 문화 관련 시설 인력 지원에 이르는데, 인력 지원 사업이 42개로 대부분을 차지함
-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사업은 앞서 언급한 이집트 박물관 공사 사업이고,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문화ODA 사업은 브라질에 대한 인력 지원 사업으로 181만 달러를 제공
- 일본의 2018년 주요 문화ODA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이집트의 ‘대 이집트 박물관 건립 사업’뿐만 아니라, 온두라스의 ‘문화센터 시설 개선 사업’, 미얀마의 ‘국립교향악단 악기 개선 사업’, 파라과이의 ‘국립체육훈련단지 시설 개선 사업’ 등 문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주를 이룸
- JICA의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규모가 일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문화ODA 에서도 약 42개국에<sup>30)</sup>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하였음
- 특히, 일본이 2015년 시작한 내일을 위한 스포츠(Sport for Tomorrow, 이하 SFT)는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임
-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은 요르단 1개국에서 소규모(2천 달러)로 진행되었음

30) 2018년 문화분야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국가는 아시아 8개국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미얀마, 스리랑카), 중남미 12개국(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13개국 (이집트,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지부티,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수단, 우간다), 오세아니아 5개국(피지, 바누아투, 키리바시, 팔라우, 통가), 중동·중앙아 6개국 (요르단, 이집트, 부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총 42개국에 파견하였음

〈표 2-12〉 일본 주요 문화ODA 현황(2018년)

(단위: 백만 달러)

DAC 사업유형	주요 내용		
	개발협력국	ODA 사업	지원액
프로젝트 (C01)	파라과이	국립체육훈련단지 시설 개선 사업 (Project for Improvement of the Equipment of the Sports Training Complex of the National)	0.030
	미얀마	미얀마 국립교향악단 악기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Musical Instruments of the Myanmar National Symphony Orchestra)	0.089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유아문화센터 장비 개선 사업 (The Project for Improvement of Equipment for Infant Cultural Center of San Pedro Sula)	0.080
	요르단	각종 문화시설 인력 지원 사업, 기술 협력 (TC AGGREGATED ACTIVITIES)	1.104
	이집트	대이집트 박물관 건립 사업 (The Grand Egyptian Museum Construction Project (II))	112,346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D01)		각종 문화시설 인력 지원 사업, 기술 협력 (TC AGGREGATED ACTIVITIESACTIVITIES)	5.261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E01)	요르단	각종 문화시설 인력 지원 사업, 기술 협력 (TC AGGREGATED ACTIVITIES)	0.002

주: 문화ODA 부문 주요 원조액을 이루는 문화 및 레이레이션(16061) 부분, 전달채널 공공분야기관(10000) 중심으로 기술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 (검색일: 2020.04.22)

[그림 2-4] 일본 주요 문화ODA 예시



자료: JICA ([https://www.jica.go.jp/english/news/field/2019/20200206\\_01.html](https://www.jica.go.jp/english/news/field/2019/20200206_01.html)) (검색일: 2020.04.23)  
JICA(2019.10), JICA's Initiatives for African

## 6 기타 공여국 문화ODA 현황 및 특징

### ■ 노르웨이: 문화기금, 문화 학교 지원 사업 등 다섯 번째 큰 규모의 문화ODA 지원

- 노르웨이는 2018년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부문에서 769만 달러 상당의 문화ODA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프랑스, 일본, 스페인, 한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규모임
- 노르웨이의 주요 문화ODA 사업은 39만 달러 규모의 팔레스타인 문화 기금(Palestine Cultural Fund), 25만 달러 규모의 모잠비크 문화 학교(MONO Fredrikstad and the culture schools) 지원, 모잠비크와 케냐의 평화유지군 인적 교류 사업 등이 있음

### ■ 포르투갈: 아프리카 지역 프로젝트 사업 중심 문화ODA 지원

- 2018년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부문에서 285만 달러 상당의 문화ODA를 제공하여 여덟 번째에 해당하는 포르투갈은 전 세계 38개 국가에 66개의 문화ODA 사업을 지원함
-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31개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였는데, 이 중 26개는 사하라 남부 지역에서 실시함. 국가 중에서는 아프리카의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카보베르데(Cabo Verde)에서 9개의 가장 많은 사업을 실시했고, 남미의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브라질에서 7개로 두 번째 많은 사업을 실시
- 포르투갈의 문화ODA 사업은 스페인처럼 각종 문화 프로젝트(project-type interventions)에 집중되어 있는데, 66개 중 63개 사업이 여기에 해당함
-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37만 달러 규모의 사하라 남부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 제작(cinematographic and audiovisual productions) 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 큰 사업은 모잠비크에 제공한 31만 달러 규모의 문화 개발 협력 외부 구조(the external structures for 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지원 사업임

〈표 2-13〉 노르웨이·포르투갈 주요 문화ODA 현황(2018년)

(단위: 백만 달러)

공여국	DAC 사업유형	주요 내용		
		개발협력국	ODA 사업	지원액
노르웨이	프로젝트 (C01)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문화 기금 2단계 (Palestine Cultural Fund – Phase II)	0.394
		조지아	조지아 문화 유산 관리 지원 사업 (Riksantikvaren–Cultural Heritage Management Georgia)	0.026
	기타 기술원조 (D02)	모잠비크	춤, 교육, 공연 포함 문화 활동 및 문화 학교 지원 사업 (Support MONO Fredrikstad and the Culture Schools)	0.246
		모잠비크	인적 교류 및 음악, 춤, 영상예술 등 문화 진흥 사업 (Peace Corps, FK Norway, Personnel Exchange)	0.150
		케냐	인적 교류 및 음악, 춤, 영상예술 등 문화 진흥 사업 (Peace Corps, FK Norway, Personnel Exchange)	0.060
포르투갈	프로젝트 (C01)	모잠비크	마푸토, 베이라 지역 문화 개발 협력 외부 구조 지원 사업 (Support to the External Structures for 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in Maputo and Beira)	0.309
		브라질	영화 및 영상 제작 지원 사업 (Support to the Cinematographic and Audiovisual Productions)	0.276
		멕시코	문학, 영화, 예술 및 기타 활동 문화 협력 사업 (Cultural Cooperation in Literature, Cinema, Arts and Other Activities)	0.236
		콜롬비아	문학, 영화, 예술 및 기타 활동 문화 협력 사업 (Cultural Cooperation in Literature, Cinema, Arts and Other Activities)	0.054
		아르헨티나	문학, 영화, 예술 및 기타 활동 문화 협력 사업 (Cultural Cooperation in Literature, Cinema, Arts and Other Activities)	0.038
		브라질	브라질리아 포르투갈 문화센터 (Portuguese Cultural Center of Brasilia)	0.212
		동티모르	딜리 포르투갈 문화센터 (Portuguese Cultural Center of Dili)	0.081
		중국	베이징 포르투갈 문화센터 (Portuguese Cultural Center of Beijing)	0.056
		상투메 프린시페	글로벌 프로젝트 - 도시 간 협력 문화 사업 (Global Project–Intermunicipal Cooperation Activities)	0.165
		카보베르데	학교 도서관 네트워크 지원 사업 (Dynamization of School Libraries)	0.083
		카보베르데	노사세노라 성당 복원 사업 (Rehabilitation of the Nossa Senhora do Rosário Church–Restoration of the Gothic Chapel)	0.059

공여국	DAC 사업유형	주요 내용		
		개발협력국	ODA 사업	지원액
		브라질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춤, 연극, 음악, 공연 예술) 문화 협력 사업 (Cultural Cooperation in Arts and Entertainment (Dance, Theater, Music and Performing Arts))	0.042
		멕시코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춤, 연극, 음악, 공연 예술) 문화 협력 사업 (Cultural Cooperation in Arts and Entertainment (Dance, Theater, Music and Performing Arts))	0.012
		스리랑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춤, 연극, 음악, 공연 예술) 문화 협력 사업 (Cultural Cooperation in Arts and Entertainment (Dance, Theater, Music and Performing Arts))	0.006
		브라질	상파울로 포르투갈어 박물관 재건 사업 (Reconstruction of the Portuguese Language Museum in Sao Paulo)	0.03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포르투갈 도서관 회귀 도서 보존 복구 사업 (Contribution to the Royal Portuguese Reading Office of Rio de Janeiro)	0.014
		모잠비크	모잠비크 문학 진흥을 위한 문학상 (IN/Eugénio Lisboa Literary Prize)	0.006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 문학 진흥을 위한 문학상 (Literary Prize Arnaldo France)	0.006
	기타 기술원조(D02)	브라질	문화 활동 지원 사업 - 어린이와 청소년 문학 진흥 (Support to Cultural Activities-Fostering Literary Production by Promot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Literary Works)	0.001

주: 문화ODA 부문 주요 원조액을 이루는 문화 및 레이레이션(16061) 부분, 전달채널 공공분야기관(10000) 중심으로 기술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 (검색일: 2020.04.22)

## 7 주요국 문화ODA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가. 주요국 문화ODA 종합 분석

#### ■ 독일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사업 지속 모색

- 문화ODA 지원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민간경제부문 주체 및 다양한 기관의 개발협력 활동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다양한 원조전달기관이 활동하고 있음
- 독일 문화원이 문화교류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문화협력, 교육분야 협력, 예술, 문화 및 미디어, 청소년 분야 프로젝트 등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증진 도모함
- 독일어 전파 및 독일의 문화·사회·정치 관련 포괄적인 정보 제공으로 문화ODA를 통한 공공외교에 기여하고 있음

#### ■ 스페인은 문화와 개발 분야 수립, 질적 차별화를 모색하며 문화ODA 지원

- 스페인은 타 공여국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와 개발’이라는 범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섹터 개발로 질적 차별화를 보이고 있음
- 문화와 개발 섹터의 목적은 문화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차원에서 개발의 한 요소 및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개발과 관련된 문화적 정책을 수립하여 수여국의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유산을 강화하는 것임
- 다자기구, NGO 및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대학교, 단과대학, 기타 교육기관, 연구소 또는 싱크탱크 등의 기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등 다양한 원조전달채널을 통해 문화ODA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지원액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NGO 및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소 및 싱크탱크 등의 기관 등의 지원액은 증가추세에 있음

#### ■ 프랑스는 문화분야 최대 공여국으로서, 공공분야기관의 문화ODA 집중 지원

- 프랑스 개발협력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이하 AFD)을 중심으로 ODA를 실행하고 있으며, 포용적 거버넌스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새롭게 정의된 AFD 책무는 ① 거버넌스 확립, ② 문화 및 창의적 산업 육성, ③ 개발교육 및 국제연대, ④ 이주문제 대응, ⑤ 디지털 기술, ⑥ 새로운 파트너국가와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프랑스는 지식과 문화의 교류를 개발협력의 비전으로 채택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여 핵심 정책으로 문화 및 창의적 산업 관련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공공분야기관의 문화ODA 지원이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 일본은 원조 전략목표에 근간이 되는 문화ODA 사업 진행

- 일본의 원조 전략목표가 외교·경제적 역할 및 양자원조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 따라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전달에 비해 공공분야기관(Public Sector)을 통한 문화ODA 사업이 주를 이룸
- 일본 외무성의 「개발협력대강」 개정 발표 이후 NGO 및 시민사회단체의 문화ODA 지원도 다소 증가하였으며, 기타 채널을 통한 문화ODA 지원 분야는 기술협력 프로젝트임

〈표 2-14〉 주요국 문화ODA 종합 분석

구분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일본
ODA 전반	개발협력 전담부처 통합	●	⊗	△	●
	공공 외교기반 원조전략	◎	⊗	⊗	●
문화 ODA 전반	문화분야 추진 정책	●	●	●	⊗
	문화ODA 지원액	-	-	-	+
	원조전달채널의 다양화	●	●	⊗	●
	주요 문화ODA 중점지역 유무	⊗	●	●	⊗
	프로젝트 사업 중심	△	△	△	●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중심	⊗	●	●	◎
	기타 기술원조 중심	●	△	●	⊗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	◎	●	◎	◎
	문화·예술 교류 허브 기관 유무	●	⊗	●	⊗
	문화인프라 구축 사업	△	◎	◎	●

주: 매우강함 ●, 강함 ◎, 보통 △, 약함 ⊗ / 증 +, 감 -

## 나. 주요국 문화ODA 시사점

### ■ 주요국별 상이한 ODA 전략 기반으로 문화ODA 사업 추진, 종합적인 문화ODA 사업 추진 계획의 필요성 증대

- 문화ODA 정책 목표에 따라 국가별로 주요 사업지역과 주요 사업 형태가 결정됨. 자국의 전체적인 문화ODA 전략의 목표를 수립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개발협력국의 필요에 맞는 종합적인 문화ODA 사업은 미진함에 따라 개발협력국의 필요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한국의 문화ODA 사업 목표와 동원 가능한 자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문화ODA 추진 계획이 필요함

### ■ 문화ODA 분야에서 인적 지원, 연수 프로그램의 중요성 증대

- 주요 공여국은 인력양성을 연수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기타 기술원조 사업 등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문화교류 확대를 정책 기조로 하여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인적 지원 양성, 연수 프로그램이 동반됨에 따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 문화ODA 분야의 인력양성, 연수 프로그램의 진단, 대내외 정책을 반영하여 우리 국제개발에 적합한 문화ODA 사업 발굴의 기초 제공

### ■ 주요 공여국 사례를 참조한 한국형 문화ODA 모델 토대 마련

- 한국 문화ODA 사업 발굴 및 운영을 위한 문화ODA 전체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담 부처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독일의 독일문화원 활용 사례를 참조한 해외 한국 문화원을 활용한 문화ODA 사업 구상, 프랑스의 협력과 문화 행동 네트워크 구성과 같이 프랑스 문화 센터, 공공기관, 프랑스 연구소의 협력을 통한 문화ODA 진행 사항을 참조한 플랫폼 구축, 일본의 문화분야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내일을 위한 스포츠(SFT) 프로그램 연계 등 유기적·장기적 사업 분석을 통한 한국 문화ODA 사업 발전 등 한국형 문화ODA 모델 토대 마련이 가능함
- 공여국에서 지정하지 않은 ‘문화와 개발’이라는 범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스페인 사례를 참조하여 새로운 섹터 개발을 통한 ODA 질적 차별화 모색 가능

### 가. 지속가능발전 개념 도입

#### ■ 성장의 한계에 대한 논의와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도입

-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 보고서로 인해 관련 논의 확산됨. 이 보고서는 앞으로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함.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 처음 등장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음. 새천년개발목표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정부는 2000년 6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 시작함

### 나. 지속가능발전과 문화

- 최근 국제 논의의 흐름은 개도국 개발전략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양적 성장에만 기여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및 질적 성장과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SDGs)에서는 세계시민의식 및 문화다양성 인식을 위한 교육, 지역문화 및 지역상품 진흥을 통한 관광 활성화 정책지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문화상품 및 관광 영향력 평가 측정도구 개발 등 문화와 관광 관련 4개의 이행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개발도상국 주민들과의 정서적 공감형성 및 소통이 중요하며, 문화향유로 나타나는 행복, 정체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개발협력국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 하며,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고 포용 및 전파의 필요성을 담고 있음

## 다. 문화ODA 확대의 필요성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 부처 참여 필요

- EU의 국제문화교류정책인 Creative Europe 제2차 계획(2014~2020)에서는 지구적 차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지원이 아닌 컨소시엄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창의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남반구 국가들에서는 국가개발계획 및 전략에 지속적으로 문화를 통합하고자 노력함<sup>31)</sup>
- 문화에 지출된 공적개발원조(ODA)의 비중이 여전히 낮고, 대부분의 개발계획에 창의성에 특화된 성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생산과 예술활동의 환경적인 영향이 등한시되고 있음
- 유네스코는 핵심지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계획에 문화 통합,” “문화자원의 분배에서 지역간 형평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지역사회의 취약집단이 문화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국제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에 문화통합,” “개발도상국의 문화 및 창의산업에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도상국의 창의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제시
- 유네스코 제시 지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려면 문화담당부처가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주요 주체로서 참여하여야 함

###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신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 포함

- 한국 ODA의 기본 정신과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제 사업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성 개발 및 문화 ODA 사업 부실한 상황임

###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전략적 추진에 따른 문화ODA의 필요성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기존 전략체계의 기능 강화로, 각 전략간(5년 기본계획-연간 시행계획-국가협력전략) 유기적 연계 필요
- 정부의 대외정책 및 경제 외교, 국익의 관점을 고려한 지역별·국별·분야별 전략이 종합적으로 수립·접근 되어야 함

31) UNESCO(2017),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 이에 따라, 문화ODA는 각 전략 간 연계 강화에 기여하며, 중점협력국가 재지정, 경쟁력 있는 ODA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해 개발협력국 발전 지원,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핵심 대외정책에 뒷받침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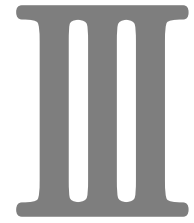
## 라. 기존 ODA 목표와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

- ODA의 목표는 관대한 국가, 국제사회의 규범에 공헌하는 국가라는 공여국에 대한 인식과 명성(reputation)을 제고함으로써 연성 권력(소프트 파워)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공여국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원조의 목표이고 기대하는 효과임
- ODA를 통해 개발협력국 국민들이 공여국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ODA 공여국들의 공통된 동기이자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ODA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선 엇갈린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ODA가 개발협력국 내에서 공여국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낸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함

## 마. 주요국 문화ODA 특징

- 문화ODA 정책 목표에 따라 국가별로 주요 사업지역과 주요 사업 형태가 결정됨. 자국의 전체적인 문화ODA 전략의 목표를 수립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국의 필요에 맞는 종합적인 문화ODA 사업은 미진함에 따라 개발협력국의 필요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한국의 문화ODA 사업 목표와 동원 가능한 자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문화ODA 추진 계획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문화ODA 전체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담 부처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독일의 문화원 활용 사례를 참조하여, 해외 한국 문화원을 활용한 문화 ODA 사업 구상도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제3장 한국형 문화ODA 사업 정립의 필요성

---

- ① 한국 문화ODA 현황
-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ODA 체계 확립 필요성
- ③ 국가별 맞춤 문화ODA 사업을 위한 문화정책 자문사업



### 1 한국 문화ODA 정책 및 전략

#### 가. 「문화비전 2030」에서 제시된 문화교류의 문화ODA와의 연계 가능성<sup>33)</sup>

##### ■ 「문화비전 2030」발표를 통한 문화협력 확대 제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16일 「문화비전 2030」을 통해 3대 방향·9대 의제를 발표하였으며 3대 방향 가운데, 창의성 확산을 위한 의제로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제시함

##### ■ 교류, 협력, 공존을 통한 ‘문화아시아’ 역할 증대

-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위한 문화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아시아 각국이 문화동반자로서 문화교류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을 제시
- 아시아 문화의 연대·공존을 위한 목표로 ‘문화아시아’ 개념 도입하였으며, 문화아시아 정책은 예술, 관광,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한류를 가능케 함
- ‘문화아시아’에서 문화적 비전은 협력, 경험의 공유, 생성, 공동의 목표, 차이와 공존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문화교류차원의 비전은 저변확대로써 문화ODA 가능성을 제시함
  - 성장·발전을 이룩한 문화측면 경험을 문화ODA 사업을 통해 공유 가능하며, 이는 수여국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이룩할 수 있음
  - 문화아시아 정책이 예술, 관광뿐만 아니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됨에 따라, 포괄적 문화의 틀에서 수여국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ODA 접근이 가능해짐
  - 현재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분야 ODA 사업인 ‘문화동반자 사업(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CPI)’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문화·예술·미디어 및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동 창작과 인적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국 문화역량 발전에 협력적으로 기여하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됨<sup>34)</sup>

33)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참조 및 재구성

3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8.07.19) 〈문화동반자 사업, 신규 문화기관 참여로 새로워진다〉, (검색일: 2020.08.04)

[그림 3-1] '문화아시아' 개념에서 문화적 비전



#### ■ 자원·상호협력을 통한 문화ODA분야 확대

- 소극적 문화예술 교류, 전시, 협력 사업에서 벗어나 문화분야 ODA의 위상을 정립해 현지 수요 기반 한국의 우수한 문화인프라, 콘텐츠, 법·제도,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개도국과 아시아 국가에 지원함으로써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함
- 어린이·청소년 세대가 더욱 활발하게 전 세계인과 소통하고 교류·체험할 수 있는 국제문화플랫폼을 개발·확대하여,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함을 제시함
- 국가 간 문화예술인·청소년·청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 다각화 추진함

〈표 3-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6.>

〈표 3-2〉 「문화비전 2030」에 제시된 문화분야 추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추진과제 1	<p>문화예술인·청소년·청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간 문화·문화인력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동반자사업,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사업 등 해외 예술인력 국내초청 프로그램의 심화, 국내 문화인력의 해외 파견 확대 추진 등 쌍방향 예술인력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대</li> </ul> </li> <li>▶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해외 청소년 문화통신원 양성, 해외 청소년 방한 수학 여행단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li> <li>한국 어학연수 등 갭이어(Gap Year) 문화홈스테이 지원 방안 마련, 해외 어린이·청소년 대상 한국 문화체험단 운영</li> <li>선진 문화 경향(트렌드)을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사절단 운영</li> </ul> </li> </ul>
추진과제 2	<p>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적극적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위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총괄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와 위상 제고, 협력사업 성공모델 개발 등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우리나라 중점 개발협력국 24개국 국가협력전략(CPS) 분야는 주로 지역개발, 교통, 물관리, 보건,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명시적으로 문화분야는 미포함)</li> <li>전체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문화영역 공적개발원조 비율 확대 추진 ('18년 현재 0.4%)</li> </ul> </li> <li>▶ 현지수요 기반 문화인프라·문화플랫폼 지원사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도상국 대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복합문화관 등 현지 수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분야 인프라 구축 지원</li> </ul> </li> <li>▶ 예술교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 국가들의 한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술교육기관으로 확대</li> <li>현행 문화동반자 사업을 확대해 공적개발원조 국가들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교류와 지원을 확대</li> <li>아시아 국가 중심의 청년예술 전공자 지원사업인 한예중 AMA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전 대륙의 공적개발원조 국가에 확대하여 추진</li> <li>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기조를 수용하여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공적개발원조 국가 간의 예술인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 확대</li> </ul> </li> <li>▶ 문화콘텐츠 공적개발원조 사업 발굴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유산(3D, 입체영상 등 개도국 문화유산 발굴·보존사업 등), 문화예술(개도국 전통문화예술발굴·보존사업 등), 문화산업(영상콘텐츠, ICT 기반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산업 전수), 관광(관광콘텐츠 개발지원과 한국 성공사례 전수-문전성시 사업 등), 체육(엘리트 체육 감독, 선수, 노하우 전수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지원), 저작권(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환경 조성) 등 분야별 문화 공적개발원조사업 확대 추진</li> </ul> </li> <li>▶ 스포츠 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와 '드림 프로그램'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국가 1종목 매칭 지원, 신남방 국가 대상 체육교류협력 등 사업 간 연계 강화와 전략적 교류 확대</li> <li>스포츠 지도자(감독, 코치), 행정가 등 심화과정을 운영해 사후 네트워킹 강화</li> <li>평창동계올림픽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 대상 '드림 프로그램*' 확대 추진</li> </ul> </li> </ul> <p>* 동계스포츠 불모지 국가의 선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초청 프로그램</p>

자료: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참조 및 재구성

## ■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국제교류협력 기반 조성

-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를 위한 아시아 문화교류를 확대 및 다각화하며 글로벌 문화국가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협력 사업 전개함
- 우리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전파하는 일방향적 문화교류를 넘어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쌍방향적 문화교류 협력사업을 제시하였음

〈표 3-3〉 「문화비전 2030」에 제시된 문화교류 확대·국제교류 협력 추진과제

구분		주요 내용
추진과제 1	아시아 문화교류 개발협력국가와 사업 다각화	<p>▶ <b>아시아 문화교류 다각화·다양화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교류대상 국가가 5개국(중, 일, 미, 프, 독)에 편중됨에 따라 북방(러시아, 몽골, 중앙아 5개국)과 남방(아세안 10개국) 지역, 서아시아 등으로 교류대상 권역과 국가 다양화 필요</li> </ul> <p>▶ <b>북방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방 지역 문화동반자를 매개로 국내 연수기관과 현지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으로 장기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북방지역 문화기반강화 현지교육훈련·워크숍 대상국 확대</li> <li>● 북방 지역 문화부 대상 ‘문화기반강화 교육훈련·워크숍’ 수요조사와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추진</li> </ul> <p>▶ <b>신남방협력 증진을 위한 아세안 문화교류 활성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아세안 문화포럼 확대: 문화일반, 문학, 연극, 무용, 미술, 영화, 영상, 뮤지컬 등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정부관계자가 참가하는 문화포럼, 국제문화 심포지엄 등 확대 추진</li> <li>●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 확대 실시와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 신규 개발협력국 발굴·지원</li> <li>● 아세안 문화담당 부처 대상 ‘문화산업 역량강화 교육훈련·워크숍’ 수요조사와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추진</li> </ul> <p>▶ <b>문화동반자 사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AMA 장학생 및 AMFEK 사업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 문화 전문인력의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동반자 사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AMA 장학생 및 AMFEK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예술교육기관 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국제교류센터 건립 추진</li> </ul>
추진과제 2	동아시아 자유관광 기반 조성 추진	<p>▶ <b>전략적 다자협력과 한국형 관광개발 협력 모델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전문 국제기구 유치 검토, 각종 관광 분야 국제회의·컨벤션 유치</li> <li>● 한국의 관광성공 모델을 전수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 등의 진출과 투자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 발굴 추진</li> </ul>
추진과제 3	국제 문화교류와 협력 지원 기반 조성	<p>▶ <b>맞춤형 문화교류 사업 기획과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문화교류 협력 주제별(공공, 민간), 영역별(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해외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지침 제시,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교류지역 다변화와 효율적 문화교류 시행</li> <li>● 수교기념 문화행사 계기 또는 재외문화원과 해외 현지 문화예술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우수 공연·전시 프로그램(단체)의 해외 진출·교류 기회 확대 추진</li> </ul>

구분	주요 내용
	<p>▶ <b>국제문화교류 정책 종합계획 수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문화교류 비전·추진전략 제시, 추진체계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 등으로 국가 간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환경조성</li> </ul> <p>▶ <b>국제 문화교류 지원체계 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교류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운영</li> <li>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들 간의 정보공유, 협력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유관기관·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li> </ul>

자료: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참조 및 재구성

## 나. 신남방·신북방 문화관련 정책 및 전략<sup>35)</sup>

### 1) 신남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 ■ 인적교류·문화교류 등 우리 외교·경제 다변화를 위한 협력 확대

-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협력을 위해 사회, 문화 및 안보 등 균형 있는 협력 사업 지속 확대를 강조함
  - 아세안측은 2019년 11월 정상회의에서 對 아세안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및 안보 분야의 협력까지 균형 있게 아우르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 우리의 연성권력(soft power)과 우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타 국가들의 지역 전략과 차별화된 신남방 국가의 호응을 이끌 수 있는 분야 도출 추진

#### ■ 쌍방향 문화교류·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 확대

- 관광객 등 상호 방문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 인적 교류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벽 완화 등 개선
- K-Pop 중심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 국가에서의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가 증대되고 있는 배경 속에서 상호 문화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문화 교류 기반 마련 필요
  - 한-아세안 문화의 상생번영을 위한 문화혁신포럼 정례 개최 추진, 아세안 내 한국어 교육 확대,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문화ODA로의 확대 가능

3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안건(2019) 및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보도자료(2018.06.18),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도자료(2019.11.13),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도자료(2020.02.12)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표 3-4〉 신남방 문화관련 중점과제 및 전략

대상국가	담당기관	신남방정책 전략과제별 중점사업	
<b>① 상호 방문객 확대</b>			
신남방국가	문체부	① 한국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 ▶ 한국문화관광대전(호치민, 마닐라, 뭄바이) 개최 및 아세안 6개국 환대주간 운영	계속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문체부	② 국내 무슬림 여행 환경 개선 ▶ 할랄레스토랑 위크 개최 및 무슬림 친화 시설 확대 (기도실, 레스토랑 등)	계속
<b>②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b>			
신남방국가	문체부	① 문화홍보 거점 인프라 확충 ▶ 콘텐츠 마케터 파견(베), 문화홍보관 추가 배치 협의(말) 등	계속
신남방국가	문체부	② 수교계기 등 상호문화교류 행사추진 ▶ 한-필('19), 한-말('20) 상호문화교류의 해 준비추진	계속
아세안국가	문체부	③ 아세안 대상 콘텐츠 교류 활성화 ▶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K-콘텐츠 엑스포 개최, 유망콘텐츠 기업 수출지원 강화 등	조정 (확대)
아세안국가	외교부 문체부	④ 아세안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 증진 ▶ 한-ASEAN 센터, 아세안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중 문화행사	계속
신남방국가	교육부 문체부	⑤ 한국어교육 활성화 추진 ▶ 한국어 채택국 확대, 세종학당 진출확대,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 등	계속
신남방국가	문체부	⑥ 한-신남방 체육교류 확대 ▶ 스포츠 ODA 추진(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사업)	신규
<b>③ 사람분야 한-메콩 협력</b>			
메콩국가	외교부	① 메콩지역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관광개발	신규
미얀마	문화 재청	② 문화재 보존복원 사업	신규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안건 (2019.12.19) 참조 및 재구성

## 2)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 ■ 북방지역 진출을 위한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이해 증진 목표 수립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8년 6월 18일 북방위 제2차 회의를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논의함
- 4대 목표 가운데,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전문가 양성 목표를 제시함

### ■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인력양성 추진과제 제시

-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상호교류를 대폭 확대·

러시아의 한류에 대한 수요 증대에 맞춰,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콘텐츠 진출 전략 수립 필요성 제시

-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제시
- 대학·청년·학술단체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북방지역 유학생 유치 추진, 한-러 학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유라시아 아카데미 개설 등 추진 목표 제시
- 한-러 뿐만 아니라 북방지역 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북방지역 전문가 양성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교류 확대를 강조함
-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콘텐츠 시장개척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하는 등 북방국가 청년들과의 교류 확대되고 있음

#### ■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북방국가 수요 분야 중심 협력 다양화 추진

- 중앙아시아 한류 콘텐츠 수출 및 의료관광 활성화 등 북방국가 수요가 큰 분야 중심 협력을 통해 성장동력 확충 제시
- 한-러 문화교류의 해 및 관광로드쇼 등을 통해 문화관광교류 확대 및 북방지역 전문인력 양성 지속적 추진 강조

〈표 3-5〉 신북방 문화관련 중점과제 및 전략

대상국가	담당기관	신북방정책 교류협력 강화방안	
① 북방지역 인적·문화교류 확대			
중앙아시아 등 북방국가	관계 부처 합동	① 목표: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및 한류 콘텐츠 진출 전략 수립 및 추진 ▶ 네트워크 구축 및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 지원	안건
② 동북지역과의 교류협력			
중국 동북지역 (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	관계 부처 합동	①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북방위) ▶ 교류협력 기반 확충 및 다각화, 문화인적교류 협력활성화 등 ▶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강화 ② 드라마공연 등 문화교류와 유학생 등 인적교류 활성화 ▶ 중고생, 유학생, 공무원 교류 지속, 한류 콘텐츠 전시행사 개최 검토 등 문화행사 개최 및 관광협력 강화 ▶ 양측간 협의, 항공편 및 페리 운항 확대 추진	안건
③ 러시아·몽골 등 미래 30년 경험전략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북방국가	관계 부처 합동	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 ▶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바이오, 의료, 뷰티, 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 다양화 추진 ▶ 북방국가들의 수요가 큰 분야 중점 협력 방안	안건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보도자료(2018.06.18),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도자료(2019.11.13),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도자료(2020.02.12) 참조 및 재구성

## 다.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제시된 문화ODA 가능성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를 위한 '제3차 기본 계획' 수립

- 중점협력국가 재지정, 경쟁력 있는 ODA 모델 활성화 등 필요성 제시
- 이에 따라, 문화ODA를 통한 문화 정책 발전경험·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한국형 문화ODA 모델 마련 필요

### ■ 국가협력전략(CPS)에 부합하는 ODA 추진

- ODA 효과성 제고 및 CPS 종료평가를 통한 2020년 중점협력국 재선정이 예정되어 있음
- 주요 CPS 중점협력분야는 교통·IT·보건·수자원·교육 등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고려하여 지정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함
- 최근 2기 중점협력국의 국가발전전략에서 문화분야가 추가·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14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CPS의 적절성, 전략이행도, 중점 지원분야 성과 등을 분석하고 CPS 보완 방안 제시 필요한 상황
  - 14개 중점협력국: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우간다, 세네갈, 볼리비아, 르완다, 페루
- 중점협력국 재지정 과정에서 CPS 중점협력분야에 문화분야 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표 3-6〉 중점협력국의 문화분야 정책

권역	개발협력국	주요 내용
신남방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2011~2025): 8개 중점산업 중 관광업 선정
		인도네시아 중장기개발 계획 (RPJMN 2020~2024): 경제 분야에서 관광 및 서비스업의 개발 명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Making Indonesia Industry 4.0 Roadmap): 2018년 4월 18일에 발표하여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와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진전을 지원하려는 계획 수립
	캄보디아	캄보디아 사각전략(2018~2023): 인적자원 개발 및 역량개발을 위한 천연·문화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강화
	필리핀	필리핀 개발계획: 사회 결집력 강화를 위한 ① 필리핀 문화와 가치 증진(문화 다양성 존중, 창조적 우수성 가치 확대, 문화를 존중하는 거버넌스 및 개발 강화) ② 인적자본 확충(소득창출 역량 확대)
아시아	라오스	라오스 정부는 2016~2025 라오스 관광개발진흥계획: 관광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법에 9대 투자 인센티브 분야 중 하나로 관광개발 산업을 명기함 → 관광자원,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을 국제 표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내국인 및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베트남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2030년까지의 비전, 2020년까지 베트남의 문화산업 부분 발전전략” 제안에 관한 총리 승인 결정문을 통해 정책 추진 방향 법제화
		2013년 “2030년까지의 비전, 2020년까지 영화 발전전략” 승인 총리결정문을 통해 영화산업 전략 구체화
	스리랑카	관광업 성장으로 민간소비 회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기여, 산업구조는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파키스탄	파키스탄 비전 2025: 관광객 수 200만 명 이상으로 확대, 경제성장을 위한 관광업 활성화
신북방	아제르바이잔	국가개발프로그램(Strategic Program 2019~2023): 공공행정 분야 중 관광산업 육성 추가: 관광정책으로 관광 인프라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개발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자문 제공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지원/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어프로그램 개발 지원
		아제르바이잔 2020: 문화유산 효과적 관리 및 보호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 ① 주력 산업의 구조개혁·현대화·다각화 심화를 통한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 관광 산업 발전 가속화, 국가경제 기여도 증대, 관광 서비스 품질의 다양화 및 개선, 관광인프라 업그레이드 ② 주택, 도로교통, 통신 등 사회인프라 확충·현대화를 통한 생활여건 개선: 극장, 문화·교육기관 및 박물관의 활동 개선, 자료 및 기술 기반 강화 ③ 교육 및 과학 발전: 어린이 음악·예술 교육을 위한 신규/기존 시설의 (재)건립

권역	개발협력국	주요 내용
	몽골	<p>몽골 '비전2050'</p> <p>① 문화강국: 몽골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브랜드 등 대외적인 평가제고, 몽골의 유목민 문화와 전통 글씨 등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확대를 세부적으로 제시</p> <p>② 경제발전: 기존 광업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 제조업(중공업, 경공업, 식품), 광산업, 에너지산업, 운송업, 관광업 등 업종 중심으로 개발 예정</p> <p>③ 지역중심개발: 국가 안전,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역사, 문화 등 기준으로 각 지역 중심의 개발 계획 수립</p> <p>④ 울란바토르 및 위성도시: 수도 울란바토르 인구밀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 위성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 또한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환경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설 내 체육관, 도서관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 포함</p>
		<p>몽골 3주(州) 정책(2018~2020): 지역단위로 관광 인프라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특수 참여형 관광업 개발</p>
아프리카	<p>아프리카연합 Agenda 2063</p> <p>①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아프리카의 번영 아프리카 고유 자연유산 보존</p> <p>② 강력한 문화정체성과 공동의 유산, 가치, 도덕성 문화정체성, 유산, 언어, 지역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르네상스(Africa Renaissance) 달성을 추구</p>	
	우간다	<p>우간다 중기 개발계획(NPD II): 우선순위 분야에 관광 포함</p> <p>※ 관광업 활성화에 따라 서비스재 부문 수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적자가 완화되었음</p>
	르완다	<p>우간다 국가발전계획인 VISION2040 내 Social Transformation Pillar 내에 문화분야를 포함</p>
중남미	볼리비아	<p>창조적예술산업발전을 위한 5개년 전략(2017~2022): 제국주의로 인한 전통예술 단절 상황을 극복하고 예술 증진을 통해 주민들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산업 증진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데 목표를 둠</p>
	페루	<p>볼리비아 애국정책: 경제적으로 1인당 5천불 이상 달성을 목표, 관광분야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및 국내 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p> <p>국가문화유산 통합 등록 및 관리시스템구축사업(2015~2018/800만불) 진행</p>

자료: 국가협력전략 중간평가(2018), 국가협력전략 중간평가(2019),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20) 참조;  
본 보고서 5장 및 6장 권역별 문화분야 정책 참조

## 2 한국 문화ODA 지원 현황 및 특성

### 가. 한국 문화ODA 개괄

#### ■ 문화ODA 수행 기관

- 문화ODA를 수행하는 주요 정부 부처 및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기관별 주요 사업은 연수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룸

#### ■ 한국 문화분야 ODA 규모

- 한국 문화분야 ODA 지원 규모는 2006년 시작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으며, 한국 공적개발원조 재정 대비 0.47%인 163.7억 원 수준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체육·관광 분야를 제외한 문화분야 ODA 예산은 2019년 43억 원, 2020년 37억 원에 불과함

〈표 3-7〉 한국 문화분야 ODA 규모(2015년~2020년)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ODA (유·무상 통합)	2조 3,782억원	2조 4,394억원	2조 6,359억원	3조 482억원	3조 2,003억원	3조 4,27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무상원조 수행)	119억원	131억원	116억원	119.7억원	135.2억원	143.6억원
총 ODA 대비 문화ODA 비율	0.5%	0.54%	0.44%	0.39%	0.42%	0.42%
문화재청 (무상원조 수행)	24.4억원	23억원	31.3억원	31.3억원	22.9억원	20.1억원
총 ODA 대비 문화ODA 비율	0.1%	0.1%	0.11%	0.1%	0.07%	0.05%

자료: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ODA 지원 현황

### ■ 문화분야 한국 발전 경험 공유 및 문화역량강화 사업 중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ODA를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에 기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국제사회 문화·스포츠·관광 공여국으로서 문화ODA 확대를 통해 한국의 문화 발전 경험 공유에 중점을 두며, 개도국 문화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개발협력국이 자국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화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초청연수, 장학지원, 전문가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ODA를 통해 개도국 문화분야 인적·물적·제도적 자원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함

### ■ 문화ODA 규모의 점진적 증가 추세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ODA 예산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 기준 총 17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체육·관광분야를 포함한 문화ODA 예산은 2018년 119.7억 원, 2019년 135.2억 원, 2020년 143.6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 상호교류 가능한 문화ODA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른 문화ODA 시행기관과는 달리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상호교류가 가능한 ODA를 추진하고 있음<sup>36)</sup>
- 더불어 문화·관광 분야 국제기구(UNESCO, UN WIPO)와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36) 이태주(2019), 「개도국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표 3-8〉 문화체육관광부 ODA 사업(2018년~2020년)

(단위: 억원)

사업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 예산 (억원)	'18년 (억원)	'19년 (억원)	'20년 예산 (억원)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 강화ODA	문화동반자 사업	매년 신규 사업		9.16	8.24	8.24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몽골	2018	매년 신규 사업	1.94	1.89	—
	베트남	2018~2022		2.14	1.89	—
	탄자니아	2018,2019		2.22	1.89	—
문화예술 ODA	베트남	2018~2022	8.00	2.00	1.00	2.00
	인도네시아	2019	—	—	1.00	2.00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사업	몽골	2019	5.64	—	5.64	—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ODA)		매년 신규 사업		14.25	13.35	13.35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개도국 선수 합동훈련과정	매년 신규 사업		6.23	7.20	7.20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매년 신규 사업		14.25	15.04	15.04
	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	매년 신규 사업		22.27	24.48	24.48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매년 신규 사업		15.01	15.21	9.24 4.47
	평창드림 프로그램	2020	7.00	—	—	7.00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Art Major Asian(AMA) 장학사업	매년 신규 사업		8.95	10.89	10.31
	AMFEK 초청연수사업	매년 신규 사업		0.83	0.80	0.80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지원		1990~	1.20	1.20	—	—
WIPO 신탁기금 지원		2007~	—	10.72	10.72	10.18
아시아문화역량 강화지원		2018~2019	16.58	8.50	8.08	3.42
유네스코 협력		2019~2020	4.81	—	4.81	—
관광외교 역량강화		2019	3.25	—	3.13	2.85
합계				150.97	158.17	140.69

자료: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문화ODA 사업

분류/부문	사업명	목적	성과지표	사업 효과	추진방향 및 계획	사업유형
문화 및 관광/ 문화 및 예술	개도국 문화지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기를 초청, 공동창작 및 연수를 통한 개도국 문화인력 전문역량 강화</li> <li>쌍방향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ODA 개발협력국과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및 국가이미지 제고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동반자 사업 프로그램 이수 인원</li> <li>문화동반자 사업 종합 평가(점)</li> <li>수교기념행사를 통한 한국문화호감(단위: 점)</li> </ul> <p>* 2019년 14개 기관/단체 참여, 27개국 60명 초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생과의 공유 및 확산 장려를 통해 연수생 개인 및 현지 문화 조직 역량 강화, 장기적으로 개도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도모</li> <li>문화ODA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li> <li>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청연수 지원 대상국 확대 및 귀국 연수생 사후관리 체계화</li> <li>문화ODA 확대 및 국제사회 문화동반자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li> <li>현지 맞춤형 수준별 교육훈련과정 개발</li> </ul>	연수형
문화 및 관광/체육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목별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상호교류 증진</li> <li>네트워킹 구축 및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li> <li>개도국 시스템 제반제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 (4종목, 270여명)</li> <li>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18개 종목, 18개국, 313명)</li> <li>스포츠 지도자 파견, 합동훈련, 용품 지원(6종목, 7명 파견)</li> <li>개도국 스포츠행정가 교육과정(7기 선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스포츠 네트워킹 및 개도국 스포츠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li> <li>스포츠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은 스포츠 ODA 적극 동참으로 동북아 스포츠 허브화 및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사사업인 국제체육교류지원사업 내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사업구조를 개선</li> <li>상대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외교력으로, 스포츠 ODA 사업 다각화 필요</li> </ul>	연수형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해외 예술계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도국 예술 엘리트 장학생 선발, 한국 문화 전파자 역할</li> <li>개도국 교수 및 예술전문가 초청을 통한 공동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학생 100명당 입상자 수</li> <li>원별 및 학교본부 국제교류 간수</li> <li>초청자 수</li> <li>입학자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졸업생 다수가 사회 지도층으로 활동하며 한국문화 전파의 가교 역할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 자개발국 우수예술인재 대상국가 관리</li> <li>해외예술교수 및 전문예술가 초청인원 확대</li> <li>문화동반자 사업 동문회 개최 등 향후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기술</li> </ul>	연수형

분류/부문	사업명	목적	성과지표	사업 효과	추진방향 및 계획	사업유형
문화 및 관광/관광	개발도상국 관광 지도자 벤치마킹 사업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개발국 관광정책 입안자 및 관광산업 종사자 역량 강화, 국제 사회 내 친한 인사 육성</li> <li>•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li> <li>• 우리 관광 기업 진출 기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청연수, 실무급 심화연수</li> <li>• 자개발국 관광지도자 초청연수 사업 평가 결과 효과(성)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 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 및 소득 향상</li> <li>• 우리나라 관광업계 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협력국 맞춤형 사업 발굴</li> <li>• 관광 분야 네트워크 강화</li> </ul>	연수형
문화 및 관광/관광	지속 가능 관광 발전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ODA를 통한 개발협력국 소득 창출, 빈곤감소</li> <li>• 우리 기업체의 참여에 따른 일자리 창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프로젝트 사업 진행률</li> <li>• 몽골 관광인력 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지원을 통한 ODA 중점협력국의 빈곤 퇴치 및 국민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li> <li>• 자개발국 국민의 방한 관광 촉진</li> <li>• 우리나라 관광 개발 정책 전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프로그램 활용지원</li> <li>• 관광 교육센터 건립</li> <li>• 개발도상국 벤치마킹 사업연수 내 액션플랜 발표를 통한 사업 발굴</li> <li>• 지속적인 ODA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개발협력국 맞춤형 사업 발굴</li> </ul>	프로젝트+ 연수형
문화 및 관광/관광	관광 외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분야 국제기구 참가 및 의제 주도를 통해 국제관광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지속적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관급 이상 양자 회담, 정부 대표로 참석한 국제회의, 관광 분야 MOU 체결 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관광' 등 관광 분야 주요 의제를 적극적으로 선도</li> <li>• 선진 관광리더로서의 이미지와 국제 관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관광분야 국제 이젠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주도적 국제협력 추진</li> <li>• 국제기구 및 양자 협력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및 총체적(holistic) 국내 관광정책 모색</li> </ul>	연수형
문화 및 관광/문화예술	문화 예술 교육 O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개발협력국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li> <li>• 삶의 질 향상 및 국제사회에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ODA 현지 수혜자 만족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 인도네시아 현지 연수시행 및 심화연수 프로그램(현지전문가 육성) 연구 개발</li> <li>• 개발협력국 확대를 통한 현지 수혜 대상 및 해외 청년진출 기회 확대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부·문체부 융합·연계 프로그램 시행으로 문화분야 ODA 시너지 창출</li> <li>• 개발협력국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 및 해외청년진출 기회 확대 추진</li> </ul>	연수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참조 및 재구성

## 다. 문화재청 문화ODA 지원 현황

### ■ 문화ODA 규모의 점진적 감소 추세

- 문화재청의 문화ODA 예산은 2018년 31.3억 원, 2019년 22.9억 원, 2020년 20.1억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 전체 사업 가운데 중점협력국 사업이 90.9%에 해당하며, 중점협력국 중 중점협력분야는 0% 비중임

### ■ 중점협력국 중심 문화유산 역량강화 사업에 집중

-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 기조에 따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점협력국 및 역사적 연대가 있는 국가 중심으로 문화유산 ODA를 추진하고 있음
- 문화재청에서는 개발협력국의 문화유산 발굴·보존현장에 ODA 공공부문 공여국-개발협력국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 개발협력 추진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 흐름을 따르고 있음

### ■ 지속적인 다자성 양자 사업 추진

-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야 국제기구에 분담금과 신탁기금 확대로 ODA 개발협력국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강화에서 한국 위상제고에 기여함

〈표 3-10〉 문화재청의 다자성 양자 사업 추진 사항

구분	내용
2013.11.22.	문화재청과 라오스 정부문화관광부 간 참파삭 문화경관 내 왓푸사원과 고대 거주지 유적 보존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2016.07.17.	문화재청과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간 문화유산 교류협력 양해각서
2016.12.16.	한국문화재단과 미얀마 바간 고고학박물관 수장고 신축공사 지원협정서
2017.03.24.	한국문화재단과 라오스 루앙프라방 세계유산사무소 간 위탁문서 체결
2019.04.07.	한국문화재단과 카자흐스탄 국가무형유산위원회 간 위탁문서 체결
2019.09.	문화재청-UNESCO 세계유산 정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예정
	문화재청-UNESCO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예정
	문화재청-UNESCO 방콕사무소 아시아지역 세계유산 보존관리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예정
	문화재청-IUCN 세계자연유산 보존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예정

자료: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표 3-11〉 문화재청 ODA 사업(2018년~2020년)

(단위: 억원)

사업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 예산 (억원)	'18년 (억원)	'19년 (억원)	'20년 예산 (억원)
개발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프로젝트)	라오스	2013~2020	79.21	17.51	11.64	7.54
	미얀마	2015~2020	18.52	2.00	7.87	6.25
개발협력국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 지원(기타기술협력)	라오스	2015~2019	2.50	0.50	0.50	—
	우즈베키스탄	2019~2021	1.50	—	0.50	0.50
	카자흐스탄	2018	0.50	0.50	—	—
개발협력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 역량 강화(기타기술협력)	아시아	2018	0.90	0.90	—	—
	아랍, 아프리카지역	2019	0.90	—	0.90	—
개발협력국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역량 강화	아태지역	2020	—	—	—	0.80
중앙아시아 유적발굴 및 보존관리	우즈베키스탄	2020~2021	8.00	—	—	4.00
문화재청-IUCN 아태지역 주제연구사업 기여금(기타기술협력)		2017~2019	1.50	0.49	0.50	—
문화재청-UNESCO 아태지역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2017~2021	22.92	4.52	—	—
문화재청-ICCROM 아태지역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신탁기금		2018~2022	12.26	2.26	—	—
문화재청-ICOMOS 아태지역주제연구 사업기여금		2017~2019	1.50	0.49	—	—
UNESCO 세계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1988~	—	0.51	0.45	0.46
UNESCO 무형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2005~	—	0.51	0.45	0.46
IUCN 의무분담금		2009~	—	0.11	0.10	0.10
ICCROM 의무분담금		—	—	1.00	—	—
합계			150.21	31.3	22.91	20.11

자료: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표 3-12〉 문화재청 문화ODA 사업

분야/부문	분류	사업명	사업 내용	특성
문화 및 관광/ 문화재	문화재 국제협력(ODA)	라오스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사업	2011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문화유산분야 MOU 체결
			2011~2012	• '동아시아 크메르유적 기초조사 및 라오스 세계유산 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2	• 홍낭시다 유적 복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013.11.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세계유산(홍낭시다) 보존복원 협력 약정 체결
			2013	• 보존환경 모니터링·지층분석, 정밀실측, 현장사무소 건립
			2014	• 지표·시굴조사, 암석 성분분석, 복원 추정도 작성, 유적 고증연구
			2015~2016	• 시·발굴조사, 진입로 구축, 고증연구, 유적 보수설계, 지반 안전성 연구, 부재 수습·실측, 지하 유구 조사 위한 GPR 탐사, 영상 기록화사업, 국제심포지엄, 초청연수 등
			2017	• 유적 답도 발굴조사, 석재 보존처리 연구용역, 주사전 보수공사 등
			2018	• 유물 실측 및 DB 구축, 주사전 부재현황 전수조사, 유물 분석 및 부재수습 등
			2012.08.	• 문화재청장-유네스코 사무총장 간담회 "바간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지원 요청"
			2012.09.	• 문화재청-미얀마 문화부 간 문화유산 분야 MOU 체결
			2013.02.	• 미얀마 ODA 추진 정부 간(문화재청-미얀마 문화부) 합의
			2013.09.	•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처리장비 지원
			2014.11.	• 바간유적(네팔) 사원, 짜쿠 사원) 내 보존환경 모니터링 장비 설치
			2015~2017	• 바간 고고학박물관 보존환경 개선사업(수장시설 구축, 장비 지원)
			2017.01.	• 바간지역 지진 발생('16.8), 미얀마 측 바간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 요청
			2017.07.	• 바간유적 지진피해 복구 지원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2018.03.	• 바간유적 보존을 위한 기술조정포럼에서 바간벽화 보존처리사업'계획 발표
	미얀마 바간유적 보존관리 지원사업		2018.03.	• 문화재청-한국문화재단-DoA 간 관리지급 업무협약
				• 벽화 재료분석 기초연구, 역사고증연구(문화·건축·미술), 주요사원 디지털 기록화
			2018	• 구조부문 지진피해 현황파악, 벽화 분석장비 지원

• 문화재청-라오스정부 간  
MOU체결

• 연수사업

• 연구용역

• DB구축

등 중장기 사업 복합적 진행

• 문화재청-미얀마 정부

MOU 체결 및 ODA 협의

• 장비지원, 모니터링 장비 설치

등 프로젝트 위주 사업 진행

분야/부문	분류	사업명	사업 내용	특성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지원 사업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지원 사업	2015.03. • 라오스 정보문화부 문화유산국 국장 면담, 무형유산 ODA 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국 ODA 지원 요청</li> <li>• 연수사업</li> <li>• 인베토리 작성·보완</li> </ul> 무형유산 성격 상 역량강화 연수 사업 및 인베토리 작성 등 프로젝트 사업 복합적 진행
			2015 • 라오스 무형유산(켄, 람봉) 기록화 작업 추진	
			2015.11. • 라오스 무형유산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지원	
			2015~2016 • 캄보디아 무형유산(보카토) 기록화 및 인지도 제고 활동 지원	
			2015 • 라오스 무형유산(까오몌, 꺄시랑쌌싸오) 기록화 작업 추진	
			2017 • 라오스 무형유산(전통도예기법, 전통화반죽장식) 인베토리 작성	
			2017 • 카지호스탄 무형유산(전통악기 제작·연주 등) 인베토리 작성	
			2017 • 라오스 전통악기(켄, Khaen)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2018 • 라오스 무형유산(전통공예, 전통춤 남게오) 인베토리 작성 및 기 작성된 종목(인형극, 구술연행, 레커그릇, 전통음식, 금실지수, 수공예 종이) 인베토리링 보완조사	
			2018 • 카지호스탄 무형유산 종목(배식, 제티겐) 인베토리 작성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유네스코 세계유산·기록유산 등재 지원사업	2011~2018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미등재국·과소등재국 대상 등재역량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형 및 세계유산 등재 지원</li> <li>• 문화유산 관련 연구 등 다자ODA 진행</li> </ul>
			2014~2017 • 라오스, 방글라데시 세계유산 등재 지원	
			1972 •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 채택	
			1988.09. • 대한민국 협약 가입	
			2019.07. • 총 14건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재	
			2003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	
			2005.09. • 대한민국 협약 가입	
			2019.07. • 총 20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 문화재청 가입	
			IUCN은 UNESCO 협력기관으로 심사대상인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호 지역 지정에 영향력 이 큰 전문 기관임. 이에 천연기념물 지정 등 국내 생물권 보호를 총괄하며 세계자연유산을 등재하는 문화재청은 등 기관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의무분담금 납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UNESCO) 의무분담금	세계자연유산(UNESCO) 의무분담금	2016.03.~2016.04. • IUCN 주재사업 협의: 화산유산, 지질유산 등 관련 주제연구	
			2017.10. • MOU 체결	

자료: 문화재청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참조 및 재구성

## 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문화ODA 지원 현황

### ■ 문화유산 보유 국가 중심 장기 프로젝트 사업 진행

- KOICA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업은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으로, 박물관 운영 역량강화도 함께 진행되었음
  - 콩고국립박물관은 DR콩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6년 7월 착공, 2019년 11월 공식 개관<sup>37)</sup>
- 프로젝트는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캄보디아 유적 복원 사업 등으로 장기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
- 특히 중남미 페루,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와 같이 문화유산 보유 국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 관광·지식재산권·한국어 분야 글로벌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표 3-13〉 KOICA 문화ODA 사업(2018~2020년)

(단위: 억원)

사업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 예산 (억원)	'18년 (억원)	'19년 (억원)	'20년 예산 (억원)
아프리카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2012-2020	230.00	49.98	72.47	3.00
페루 국가문화유산 통합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5-2021	82.40	30.00	26.46	15.63
캄보디아 앙코르유적 프레이피투 사원과 코끼리테라스 보존 및 복원 2차 사업		2019-2023	77	-	2.00	16.3
글로벌연수 (ODA)	DR콩고 국립박물관 운영 역량강화	2017-2019	4.86	1.62	1.62	-
	온두라스 관광분야 역량강화('20-'22)	2020-2022	3.96	-	-	1.54
	ASEAN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2020-2022	4.86	-	-	2.27
	(한국어) 개발협력에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 - 공무원 초급	2019-2021	6.48	-	1.62	1.86
	(한국어) 한국어 교육을 통한 차세대 개발협력 인재양성(초중급)	2019-2021	6.48	-	1.62	1.86
	(한국어) 개발협력에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전문가 양성(중급)	2019-2021	6.48	-	1.62	1.86
	(한국어) 개발협력에 위한 한국어 교사 역량강화(고급)	2019-2021	6.48	-	1.62	1.86

자료: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37) 주 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2019.11.25), <'KOICA 콩고국립박물관 공식 개관' 새소식,>  
([http://overseas.mofa.go.kr/cd-ko/brd/m\\_10663/view.do?seq=1342287](http://overseas.mofa.go.kr/cd-ko/brd/m_10663/view.do?seq=1342287))

## ■ 코이카 해외봉사단 문화분야 파견

- KOICA에서 파견하는 문화분야 해외봉사단은 권역별, 지역별 다양한 국가, 분야로 파견하고 있으며, 문화분야 해외봉사단 파견 지출액은 2019년 기준 약 27억 원에 해당함
- 파견된 해외봉사단의 주요 활동은, 문화센터 강사 대상 음악·미술·무용·레크레이션 연수 및 주제별 워크숍 운영, 해당국가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지원, 교육시설 보수 개선 등의 활동을 수행함

〈표 3-14〉 2019년 KOICA 해외봉사단 문화분야 지원현황

(단위: 억원)

권역별	사업명	CRS 코드명	지출액
아시아	캄보디아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문화 및 레크레이션	1.2억원
	라오스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1.1억원
	미얀마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2.3억원
	스리랑카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3억원
	베트남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1.5억원
아프리카	요르단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1.6억원
	이집트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1.4억원
	가나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2억원
	모로코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4억원
	르완다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9억원
	세네갈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6억원
	탄자니아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1.0억원
	우간다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9억원
	우간다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NGO봉사단 파견		0.2억원
중남미	볼리비아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5억원
	콜롬비아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5억원
	코스타리카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7억원
	도미니카공화국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1.2억원
	에콰도르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3.0억원
	파라과이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1.2억원
	페루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2.8억원
오세아니아	솔로몬군도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8억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1.2억원
	우즈베크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4억원
	몽골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0.7억원

자료: KOICA(2019), 해외봉사단 지원실적 내부자료 참조 및 재구성

〈표 3-15〉 KOICA 2020년 문화ODA 사업

유형	사업명	목적	성과지표	사업 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사업유형
개발컨설팅	DR공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	DR공고 문화유물 보존 및 보호를 통해 국민 의식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축된 국립박물관 및 전시실</li> <li>• 국내초청연수를 통해 역량 강화 된 인력의 수</li> <li>• 국립박물관 관람객 수</li> </ul>	국립박물관 신축건물 건축, 기자재지원, 전문기파견, 초청연수	국립박물관 건축 및 전시	인프라 구축 (박물관 건립)+연수사업+ 기자재 지원 등 복합적 사업 진행
					유물 보존처리 및 영상자료 디지털화, 일반 사무 기자재 및 교육 기자재, 차량지원	
					PM, 학예, 교육, 운영, 통역 및 코디네이터, 보존처리, 음성 및 영상 디지털화, 통역실무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관리자 과정 4명, 실무자 과정 8명	
	페루 국가문화유산 통합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한국의 선진화된 문화 정보화시스템 기술 이전을 통한 페루 국가문화유산 체계적 관리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등록 및 관리시스템</li> <li>• 신규 시스템 구조에 맞는 문화재 정보 시범 DB</li> <li>• 교육훈련 받은 시스템 운영인력</li> <li>• IT 시스템 교육을 받은 시스템 관리 인력</li> <li>• IT 기자재 제공 및 설치</li> <li>•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수원기관의 제반여건 마련</li> </ul>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구축, 기자재 지원 및 관련인력 초청연수 추진	사업관리(홍보, 평가 및 성과관리)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 연수사업+기자재 지원 등 복합적 사업 진행
					문화유산 표준분류체계 및 시스템개발 컨설팅 문화유산	
					통합등록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기자재(서버 및 관련 SW, 문화유산자료 입력 장비)	
					시스템 개발 감리	
					역량강화	사업관리 • 사업기획관리용역(PM) • 프로젝트 현지관리 및 성과관리
					• 초청연수: 정책관리자, 시스템 운영자, 시스템 실무자 등(15명, 2주)	
					• 현지연수: 시스템 사용자 교육(5일, 30명), 운영자 교육(7일, 10명)	

유형	사업명	목적	성과지표	사업 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사업유형
프로젝트	김보디아 양곡유적 프레아피투 사원과 코끼리테라스 보존 및 복원 2차 사업	김보디아 제1관광자원인 양곡유적을 보존 복원하여 관광수익 증대하고 보존기술 역량강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레아피투 사원군 복원 (출사원 탐, 코속사원 등문 복원)</li> <li>코끼리 테라스 위험부분 3개소 복원</li> <li>훈련받은 기술자</li> <li>구축된 기지재</li> <li>관광객 증가</li> </ul>	캄보디아가 보유한 세계적 관광지인 앙코르 유적 보호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유적복원 시범사업, 초청연수, 기지재 지원을 실시	프레아피투사원군 및 코끼리 테라스 보존 및 복원 정밀조사, 보존처리작업, 홍보관 운영 등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기술교육(15명/5일/8회)</li> <li>실용성 활용 역량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5명/4회)</li> <li>국내 초청 단기연수(10명/14일/2회)</li> <li>국내 초청 중기연수(4명/8주/2회)</li> </ul> 기지재 재원	복원설계 프로젝트+ 연수사업+기지재 지원 등 복합적 사업 진행
				사업관리비/기타 사업 중간/종료 평가 및 수시 점검		
글로벌 연수 사업 (CIAT)	한국어문화 전문가 양성(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기간: 2019. 7. 11. ~ 9. 28. (80일간)</li> <li>연수인원: 15국 20명</li> <li>국별보고 및 액션플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강의</li> <li>한국 전통 사회와 문화 강의, 현장견학, 문화체험 및 실습</li> <li>한국 현대 사회와 문화 학습</li> <li>국별보고 및 액션플랜</li> </ul>		연수사업
	차세대 한국어 인재양성	개도국 경제사회발전 이끌어갈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 등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기간: 2019. 7. 7. ~ 10. 31. (120일간)</li> <li>연수인원: 14국 21명</li> <li>국별보고 및 액션플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기본/심화강의</li> <li>한국문화 수용(역사, 경제, 정치, 문화)</li> <li>현장견학</li> </ul>		
	한국어 교사 양성 및 능력배양(고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기간: 2019. 8. 15. ~ 11. 2. (80일간)</li> <li>연수인원: 16국 19명</li> <li>국별보고 및 액션플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수준 향상 프로그램(고급 한국어)</li> <li>한국어교사 능력 제고를 위한 이론 및 교육방법 마이크로티칭</li> <li>교육실습 및 한국 사회문화 특강</li> <li>국별보고 및 액션플랜</li> </ul>		

주: 2020년 KOICA 사업기운데 KOICA 지식서비스에서 검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재구성  
 자료: KOICA 지식서비스 ([http://www.koica.go.kr/koica\\_kr/7468/subview.do](http://www.koica.go.kr/koica_kr/7468/subview.do)), (검색일: 2020.04.16)

### 3 한국 문화ODA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가. 한국 문화ODA 종합 분석

##### ■ 문화체육관광부의 역량강화, 연수 사업, 문화예술교육 ODA 등 연구연수사업에 집중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문화ODA 사업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강하여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연수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매년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에서 발전되어 지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 대상국의 확대, 귀국 연수생 사후관리 등 체계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
- 특히, 문화ODA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동반자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와 같이 긍정적 측면을 도출할 수 있음
- 더불어 연수성과 공유 및 확산 장려를 통해 한국의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산업적 성과를 공유하며 네트워크 구축하고 있으며, 문화ODA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및 개발협력국의 문화 다양성 확보에 기여함

##### ■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개발·구축 등의 프로젝트 위주 ODA 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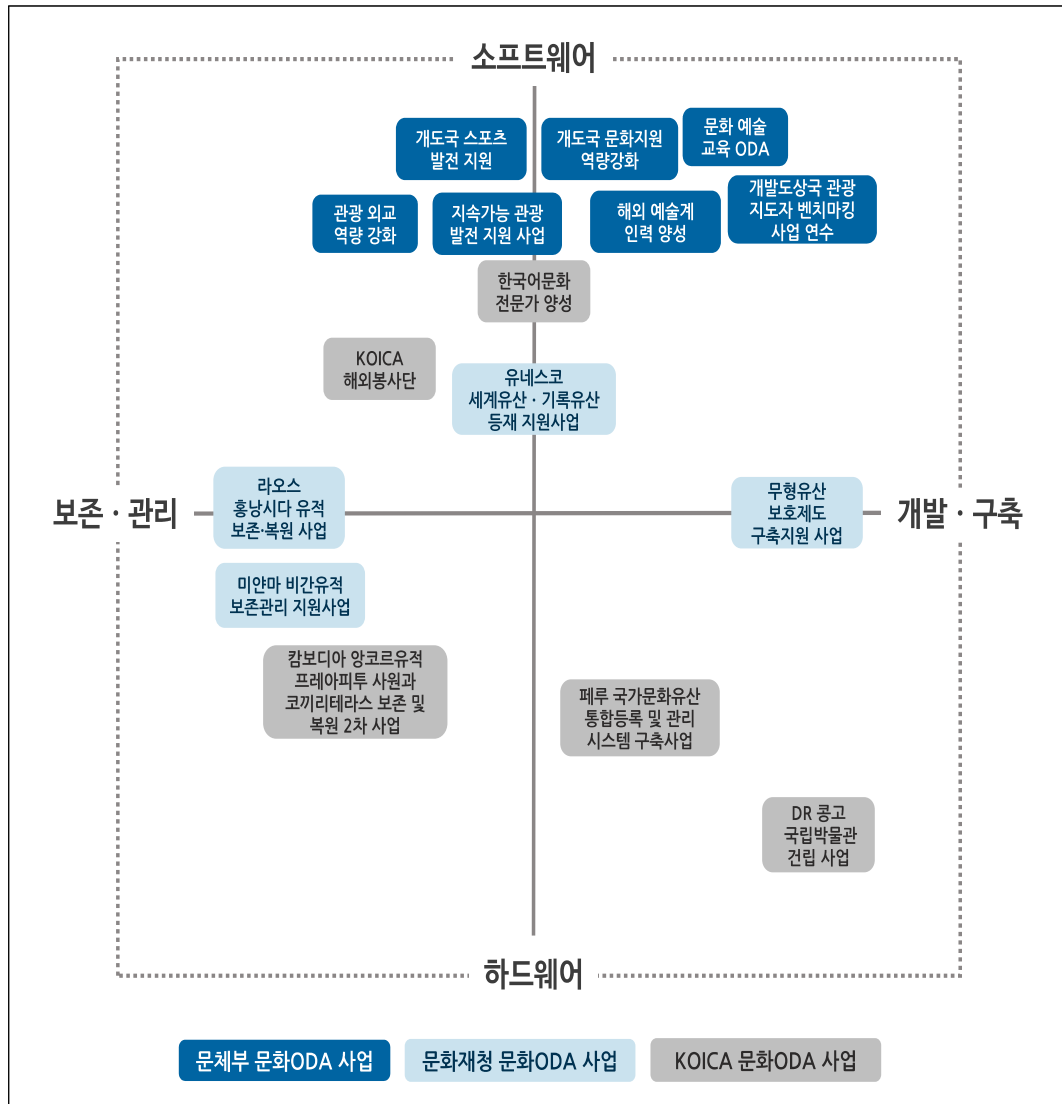
- 문화재청에서는 중점협력국 대상 양자 및 다자 ODA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발성 사업이 아닌, 문화재청-개발협력국 정부간 MOU, ODA 협의 등의 절차 후 연수사업, 연구용역, 프로젝트 등 복합적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적절한 지원을 통해 ODA의 지속성을 실현하고 있음

##### ■ KOICA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및 연수사업·기자재지원 등 복합적·장기적 사업 운영

- KOICA의 경우,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구축, 유적 및 사원 보존 사업 등 문화유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하드웨어 구축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사업, 기자재 지원, 사업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국가에 KOICA 해외봉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강사 연수 및 워크숍 진행,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대표적인 KOICA의 인력양성 사업으로 글로벌연수사업(CIAT)은 한국어문화 전문가 과정을 도입하여 개도국 공무원, 기술자, 연구원, 정책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음

[그림 3-2] 한국 문화ODA 사업 유형



## 나. 한국 문화ODA 시사점

### ■ 대내외 개발협력 정책 기조에 따른 문화협력교류 확대 필요성 증대

-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 존중 확대에 따라 문화분야 ODA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차이를 인지하고 공존을 위한 협력,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시아 문화 연대 생성을 위한 협력 및 경험의 공유인 ‘문화아시아’ 구성을 한 문화 교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됨
- 단기적, 개별적 문화ODA 사업에서 벗어나 한국의 우수한 문화 정책 발전경험 공유하고 문화분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 및 협력 다각화 추진을 위한 문화 ODA가 필요함

### ■ 신남방·신북방정책 전략에 따른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확대 필요

- 신남방·신북방지역 진출을 위한 인적·문화교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한류문화의 지속적 확산, 개발협력국 수요를 반영한 상호교류의 확대로 경제협력 및 문화외교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인력양성 지원 확대가 필요함

###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한국형 문화ODA 모델 마련의 필요성 증대

- 개도국의 문화정책 진단 및 대안 제시를 위한 문화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KOICA의 문화ODA 개별적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 협력 사업 기반 마련
-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한국 문화ODA 분절적 사업을 재정비하여 한국형 문화ODA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 필수

### ■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중심의 발전 추구 필요

- 단기적, 경제적, 외형적 발전이 아닌 장기적 인간중심 발전을 위해서는 자립성, 사회 정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발전 추구 필요
- 인간 중심의 발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 외에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함. 이를 위해 인간의 역량(Capability)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인간의 역량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역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를 수행하고 다양한 상태로의 존재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함
- 2013년 유네스코와 항저우시의 주관으로 ‘문화, 지속가능발전의 열쇠(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항저우 선언(The Hangzhou Declaration)’ 채택
- ‘항저우 선언’은 인구증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평성, 존엄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시킴
- 지속가능발전(SDGs)에서는 세계시민의식 및 문화다양성 인식을 위한 교육, 지역문화 및 지역상품 진흥을 통한 관광 활성화 정책지원,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문화상품 및 관광 영향력 평가 측정도구 개발 등 문화와 관광 관련 4개의 이행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 ■ ODA 효과성에 대한 의문

- ODA를 통해 개발협력국 국민들이 공여국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함으로써 개발협력국에 대한 공여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것이 ODA 공여국들의 공통된 동기이자 목표이나, ODA가 개발협력국에서 공여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효과를 실제로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의문 존재
- ODA는 개발협력국 국민들의 교육과 보건 수준 등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재난 지원 등은 공여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개발협력국 국민들 사이에서 공여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의적인 태도를 창출해 낸다는 연구가 상당수 존재함

- 반면, ODA가 개발협력국 국민들의 공여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별다른 변화를 초래하지 않거나, 심지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반대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도 상당수 존재함

## ■ 공여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ODA 사업

- ODA 공여국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ODA를 통해 공여국에 대한 개발협력국 국민들의 인식 또는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임. 다시 말해, ODA를 통해 관대한 국가, 국제사회의 규범에 공헌하는 국가라는 공여국에 대한 인식과 명성(reputation)을 제고함으로써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공여국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구하는 원조의 목표이고 기대하는 효과
- 경제성장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많은 ODA는 해당 개발 사업의 공여국이 누군지 모른다거나, ODA 사업이 실시되는 중에는 사업 참여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업이 끝난 후 삶이 질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등 ODA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문화ODA는 개발협력국 국민의 마음을 얻어 공여국의 소프트 파워(문화적 영향력)를 높이기 위한 공공외교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 또한 개발협력국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국의 문화를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공여국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음

## ■ 문화ODA의 지속성 보장 위한 문화 부처 참여 필요

- EU의 국제문화교류정책인 Creative Europe 제2차 계획(2014-2020)에서는 지구적 차원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지원이 아닌 컨소시엄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창의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남반구 국가들에서는 국가개발계획 및 전략에 지속적으로 문화를 통합하고자 노력함<sup>38)</sup>
- 문화에 지출된 공적개발원조(ODA)의 비중이 여전히 낮고, 대부분의 개발계획에 창의성에 특화된 성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생산과 예술활동의 환경적인 영향을 무시하고 있음
-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에 문화부처 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창의성을 진작하는 국가개발계획에 예산배정, ODA 및 국제문화다양성기금에서 문화를 위한 분담금 증액, 남반구의 창의 산업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지원 등을 권고하고 있음

38) UNESCO(2017),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 2 문화ODA 사업 확대와 지속 필요성

### ■ 기존 한국ODA 체계의 한계점

- 한국 ODA의 기본 정신과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제 사업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의성 개발 및 문화 ODA 사업 부실한 상황임
- ODA를 통해 개발협력국 국민들이 공여국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ODA 공여국들의 공통된 동기이자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ODA가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선 엇갈린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음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정상황 개선 한계. 재정 상황 악화와 타 분야 재정 수요 증가는 ODA 예산 확대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 주요 공여국 문화ODA 사업과 다른 차별성 필요

- 주요국의 문화ODA 사업의 경우, 문화ODA 정책 목표에 따라 국가별로 주요 사업 지역과 주요 사업 형태가 결정됨. 자국의 전체적인 문화ODA 전략의 목표를 수립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개발협력국의 필요와 사업의 지속성에 맞는 문화ODA 사업이 미진함에 따라 개발협력국의 필요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한국의 문화ODA 사업 목표와 동원 가능한 자원을 고려한 한국형 문화ODA 사업 추진 필요함
- 종합적, 장기적, 체계적 문화ODA 사업으로서 사업의 형태를 구성함으로써 한국형 문화ODA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 ■ 문화ODA 사업 확대와 지속 필요

- 한국은 경제발전의 경험,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문화육성 정책 추진의 경험, 문화유산 관리,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문화콘텐츠 육성, 전세계적인 한류문화의 인기로 인한 소프트 파워 보유 등의 문화부문의 종합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음
- 현재 한국국제개발협력계획내의 중점협력국 24개국 협력전략에서 문화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계획' 수립 전에 재평가되는 14개 중점협력국의 협력분야에 문화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이는 한국의 소프트파워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지 않은 것과 같음
- ODA 사업은 세부분야별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문화분야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여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종합적인 문화ODA 전략 및 사업 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문화전담 부처 중심의 사업 체계 구축이 필요함

### 3 한국 문화ODA 특성

#### 가. 한국 문화의 괄목적 성장

##### ① 한국형 문화ODA 가능성

##### ■ 한국형 문화ODA 정의 확립

- 기존 문화ODA 선행연구인 정정숙 외(2013)에서는 문화ODA를 ‘개도국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고 문화적 정체성 회복 및 문화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표현을 통한 최소한의 복지를 확보하게 하고, 그들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회, 경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공여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으로 정의하였음
- 더불어 OECD DAC은 문화분야 ODA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화 인프라 지원, 미래세대 문화역량강화, 인류문화유산 보존 등 개발협력국의 문화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일 경우 ODA로 간주한다고 명시함<sup>39)</sup>
- 이태주 외(2017) 연구에서는 ‘문화ODA는 개발협력국의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협력국 주민의 문화권 향유를 증진하며 문화 역량을 발전시키는 ODA사업이며, 개발협력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사업’으로 정의한 바 있음
- 기존 선행연구에서 논하는 문화ODA의 정의를 협의적 문화 개념에서 재정의 하면 다음과 같음

##### 〈문화ODA 정의〉

포괄적 문화\* ODA로서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을 동시에 이룬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개발협력국의 문화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

\* 포괄적 문화의 범주: ① 문화기본법에 의거, ②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을 준용하여, 문화란 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로서,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임

39) 장현식(2014), “문화ODA 개념과 추진방향”, 「2014 문화와 발전 한국의 문화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115~116쪽,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 범분야로서 문화 주류화

- 문화는 교육, 환경, 인권, 공공행정, 농촌개발 등 지속가능발전 달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범분야적 주요 분야로 종합적으로 타 분야와 협력하여 문화ODA 사업 추진이 가능함

〈표 3-16〉 범분야 문화ODA의 타분야 협력 과제

SDG 세부목표		협력 타분야	과제
	세부목표 1, a 빈곤층식 프로그램 정책 제공	교육 + 문화	•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계모델 구축 사업 → 지역 토착민 전통문화/무형문화재 활용
	세부목표 2.2 5세미만 아동 발육부진 및 체력저하 해결	기초보건 + 문화	• 생활문화기반시설 복합화 사업 →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아동 체력증진 교육
	세부목표 4.5 성별, 농촌/도시,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으로 교육과 직업훈련 보장	지역개발 + 문화	• 농촌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 ex) 콜롬비아 영화법(2003 제정) 기반, 문화산업 부가 가치 창출 산업 • 장애인 문화교육 직업훈련원 운영 → ex) 몽골의 장애인에게 책을 배달하는 이동도서관, 장 애인이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얻고 스포츠, 여가 및 문 화 활동에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짐바브웨의 장애인법 (1992) 기반 직업훈련원 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 여성, 농촌, 장애인 등 취약계층 등 포용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교육 + 문화	
		농촌개발 + 문화	
		공공행정 + 문화	
	세부목표 5.5 공적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기회	공공행정 + 교육 + 문화	• 문화정책컨설팅 사업 → 사업 내 여성 의사결정자 참여 장려 • 여성친화적 생태계 ·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컨설팅
	세부목표 6.6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 등 물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원	물관리 및 보건위생 + 문화	• 도시재생사업 → 강, 호수, 개천 생태복원사업 및 관광사 업관리 운영자 인력양성 사업
		환경보호 + 문화	
		지역개발 + 문화	
	세부목표 8.3 창의성과 혁신 지원	교육 + 문화	• 개발협력국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지원 사업
		지역개발 + 문화	
	세부목표 8.9 지속가능관광 촉진 정책 설계 및 시행	지역개발 + 문화	• 지역문화와 제품 증진하는 관광자원 활용 사업 •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정책 컨설팅 • 관광정보 구축 지원 사업 • 관광교통 협력 및 서비스 개선 사업 • 관광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
		공공행정 + 문화	
		교통 + 문화	

SDG 세부목표		협력 타분야	과제
	세부목표 10.7 이주정책 관리 및 인구의 이동성 지원 정책	공공행정 + 교육 + 문화	• 예술가·문화전문가 남-남(South-South) 이동성 지원 정책 사업
	세부목표 11.3 참여지향적·지속가능한 도시화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공공행정 + 교육 + 문화 지역개발 + 문화	• 지역 문화자원 활용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 문화도시 조성계획문화브랜드 구축 컨설팅
	세부목표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환경보호 + 문화	• 문화유산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을 위한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 생태관광(Ecotourism)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목표 12.8 사람-자연 조화 교육 및 정책	교육 + 문화 환경보호 + 문화	• 미술문화, 체육보건 연계 과목 개설 및 세계시민교육 융복 합센터 인프라 구축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목표 15.1 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 사용	환경보호 + 문화	•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사업 • 우수 생태자원 발굴 및 브랜드화 사업 • 생태관광지역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 지역협의체 운영, 스토리텔링,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 교육과정 개발
	세부목표 16.7 포용적, 참여지향적 의사결정 보장	공공행정 + 교육 + 문화	• 문화예술 창의산업 관계자 문화교류 정책연수 • 장애인 의사소통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문화거버넌스 구축 지원 사업 → 공공서비스 미디어와 디지털 환경
	세부목표 17.1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공공행정 + 교육 + 문화	• 창의성 증진창의 허브 성장 및 발전 촉진 도시정책 컨설팅 사업 • 지역 문화상품 서비스 창조생산배포·향유 사업 • 창작-생산-유통-접근 협력적 거버넌스 문화산업정책 컨설팅
	세부목표 17.17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독려, 촉진		• 문화정책 이니셔티브 정책 프로그램 • 문화진흥기구 설립 지원 → 문화정책 연구, 지속적 인프라 활용, 산업 진흥기관 운영 노하우 공유사업

## ■ 문화의 개도국 지속발전 기여 측면

- 개발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정책 수립, 문화 기반 활용을 및 관광분야 인프라 구축, 문화분야 인적 역량 강화 등 문화 기반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영향력(Impact)을 충족함
  - 문화는 개발을 도우며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섭, 평등 및 다양성을 증진하고, 경제적 가치와 비화폐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 문화적 영향력 측면 효과성

- 문화분야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개도국 문화정책·전략 수립에 기여하여 개발협력국 문화권 보장, 문화적 다양성 확보,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개선 등 소프트파워 측면 긍정적 효과를 창출

## ② 한국의 문화정책

### ■ 한국 문화정책의 발전

- 한국의 문화성장의 뒷받침이 되는 문화정책은 국가 발전의 원동이 되어왔음
  - 「문화비전2030」은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설정, 문화를 통한 혁신적 통합적 실천과제를 제시함

〈표 3-17〉 시기별 정부 문화정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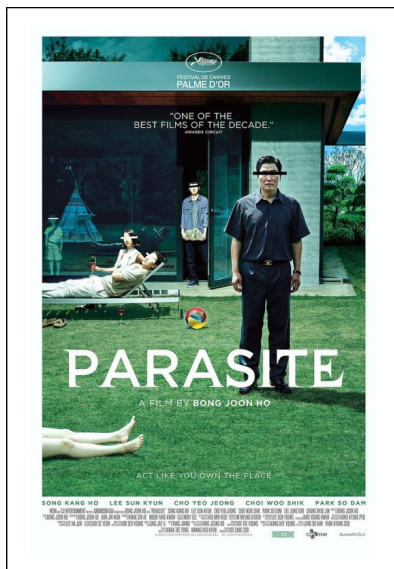
시기	특징	시기	특징
제1·2공화국 (1948~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미약</li> <li>• 무위방임 시기</li> </ul>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흥 위주 문화행정으로 전환</li> <li>• 문화산업의 본격적인 육성</li> <li>• 문화예산 1% 및 1조 원 달성</li> </ul>
제3공화국 (1961~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행정 추진을 위한 법체제 확립</li> <li>• 공보행정 우위의 문화행정</li> <li>• 규제·통제 중심의 문화행정</li> </ul>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문화행정 시스템과 민간 자율성 강화</li> <li>• 수요자 중심의 문화행정</li> <li>• 문화행정의 영역과 대상 확대</li> <li>• 문화분권 정책 실시</li> </ul>
제4공화국 (1972~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문화 계승과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li> <li>• 올바른 민족사관의 정립</li> <li>• 대국민 홍보용 문화사업</li> </ul>		
제5공화국 (1981~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문화의 주체성 확립</li> <li>• 문화시설 확충 및 재정 확대</li> <li>• 지역 문화의 균형적 발전</li> </ul>	이명박 정부 (2008~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 자체의 완성도와 가치 제고</li> <li>•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li> <li>• 정부·지자체·민간 간의 역할 분담</li> <li>• 선택과 집중 등 지원방식의 개편</li> </ul>
제6공화국 (1988~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및 문화균점화</li> <li>• 문화복지 및 문화향수권 강조</li> <li>• 통일문화 기반 조성 노력</li> </ul>	박근혜 정부 (2013~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융성</li> <li>• 문화를 통한 융성</li> <li>• 창조경제 진흥</li> </ul>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1993~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정기의 확립 강조</li> <li>• 우리 문화의 세계화 강조</li> <li>• 문화산업 육성 시작</li> </ul>	현 정부 (2017~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행정 공정화 강화</li> <li>• 생활문화 확대</li> <li>• 스포츠·관광복지 구현</li> </ul>

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8), 「한류와 문화정책」, 68~69쪽 참조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참조 및 재구성

## ■ 한류콘텐츠 브랜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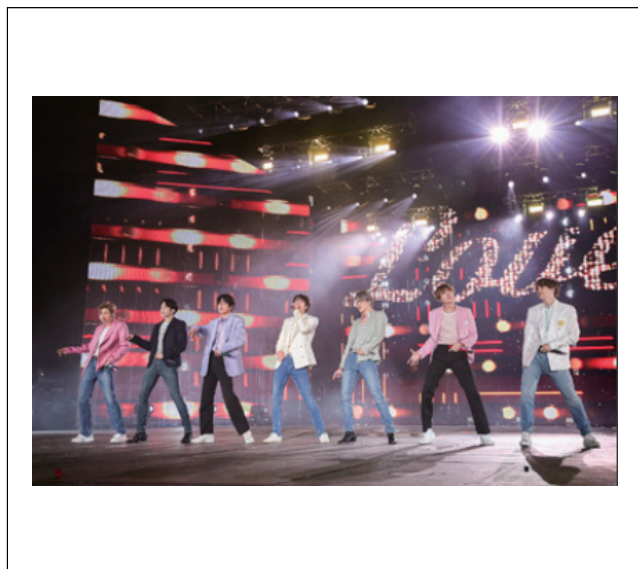
- 대중문화 다양성에 대한 수요와 문화콘텐츠를 국가 브랜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 확장·지원, 한류가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 2019년 방탄소년단(BTS)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한류의 아이콘이 되었음
  - 방탄소년단 2017년 발매 타이틀 ‘DNA’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하였음
-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프랑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작품·감독·국제영화·각본 4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음
  - 북미 박스오피스 집계 사이트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글로벌 흥행 수익은 2억5743만996달러에 달함<sup>40)</sup>

[그림 3-3] 영화 ‘기생충’



자료: CJ 엔터테인먼트

[그림 3-4] 빌보드를 점령한 방탄소년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K콘텐츠」 참조

40) 박스오피스 모조 홈페이지(<https://www.boxofficemojo.com/title/tt6751668/>)

## 나. 지속가능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메가트렌드

### ① 문화콘텐츠의 긍정적 역할에 따른 문화 호감도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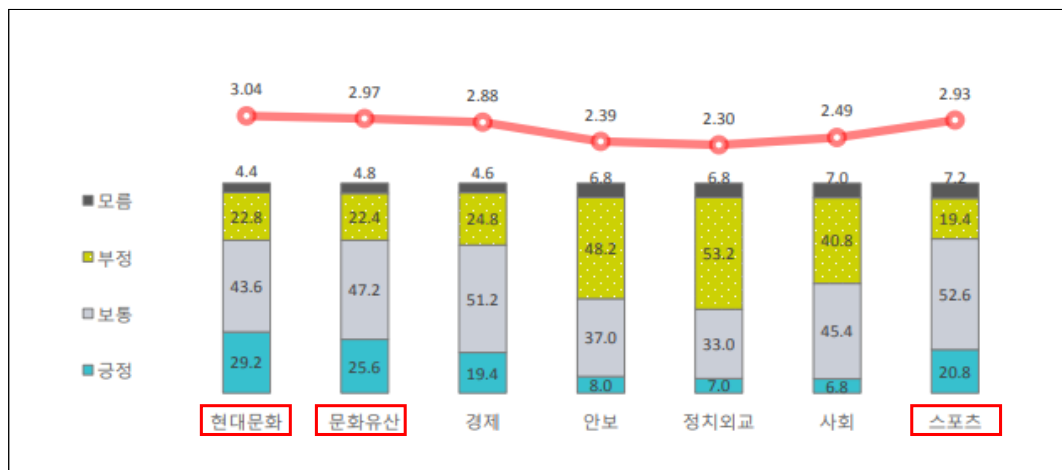
#### ■ 한국 문화콘텐츠의 상대적 비교우위

- 해외 콘텐츠에 대한 선호에 있어 한류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음
  - 16개국 7,500명 해외 한류소비자 대상 「2019 해외한류실태조사」 실시, 타국가의 콘텐츠 선호도 조사결과, 미국 드라마(43.9%), 한국 드라마(34.9%), 일본드라마(7.4%), 중국 드라마(7.2%) 영국 드라마(5.4%) 기타(1.2%)로 집계됨
  -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미국 예능(43.5%), 한국 예능(30.0%), 일본 예능(10.1%), 중국 예능(8.9%), 영국 예능(6.3%), 기타(1.1%)로 한국 예능의 높은 선호도를 보임

#### ■ 한국의 긍정적 연상 이미지·호감도 제고

-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실시한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sup>41)</sup>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sup>42)</sup> ‘한국’ 하면 떠오르는 분야는 ‘한식’, ‘K-POP’으로 대표되는 문화 콘텐츠들로 우리나라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단초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한류의 다양성도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자산
- 분야별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다른 분야에 비해 현대문화, 문화유산, 스포츠와 같이 문화분야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남

[그림 3-5] 분야별 한국에 대한 호감도



자료: 해외문화홍보원(2019),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65쪽

41) 해외문화홍보원(2019).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61~66쪽 참조

42) 한국 포함 16개 국가 8,000명(각 국가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조사 참조

## ② 한류에 따른 파급효과

### ■ 한류에 따른 직·간접 수출효과 기여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실시한 해외한류실태조사<sup>43)</sup>에 따르면 2019년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은 123.2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18년 대비 22.4% 증가함.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수출이 19.2% 증가하였고, 소비재 및 관광 수출도 26.1% 증가함. 한류 영향에 따른 문화콘텐츠 수출액과 소비자 및 관광 수출액이 증가,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표 3-18〉 한류 영향에 따른 문화콘텐츠·소비재 및 관광 파급효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19년 증가율 (%)
문화콘텐츠	3,119	4,724	5,356	6,384	19.2
소비재 및 관광	4,441	5,073	4,707	5,935	26.1
합계	7,560	9,796	10,063	12,319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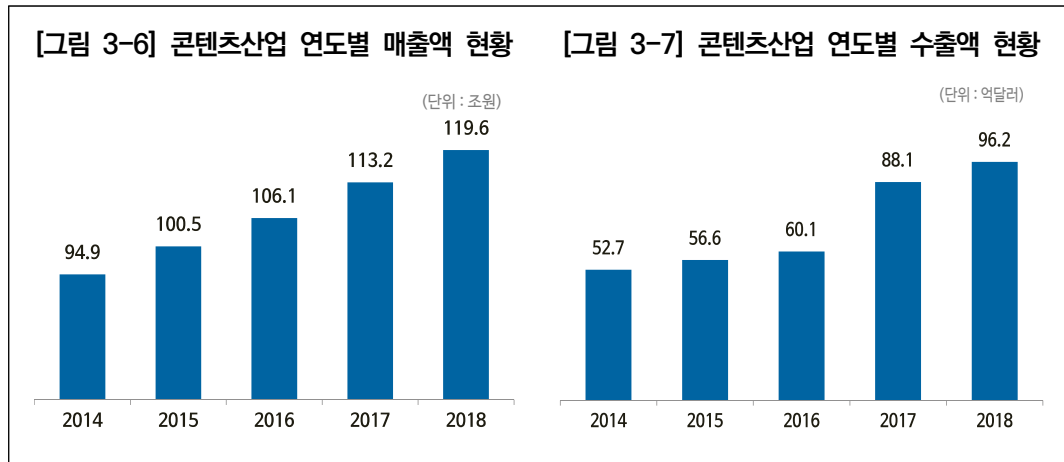
자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45~47쪽 참조

### ■ 콘텐츠산업 매출액·수출액 증가

- 2018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sup>44)</sup>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119조 6,066억 원으로 집계됨
  - 매출액 규모는 출판산업이 20조 9,538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방송(19조 7,622억 원), 광고(17조 2,119억 원), 지식정보(16조 2,910억 원), 게임(14조 2,902억 원) 순으로 나타남
- 한류의 영향으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5년간('14~'18) 연평균 16.2%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64억 1,149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캐릭터(7억 4,514만 달러), 지식정보(6억 3,388만 달러), 음악(5억 6,424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4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45~47쪽 참조 하였으며, 해당 실태조사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등 대륙별로 17개국을 선별, 총 8,000명 응답하였음

44) 콘텐츠산업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11개 산업에 해당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5.19), <콘텐츠산업 수출액 1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9.1% 증가>

### ③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수요 증대

#### ■ 한국어 교육·문화 대표 브랜드 세종학당 확산<sup>45)</sup>

- 세종학당은 한국어 교육기관의 접근성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해 언어 권역 확장, 국가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함
-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어 수강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종학당이 미설치된 지역의 사공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대표 사이트인 누리-세종학당 ([www.sejonghakdang.org](http://www.sejonghakdang.org))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전 세계 57개국 172개소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61,810명 수강, 2017년 대비(56,202명) 10%(61,810명) 상승함

〈표 3-19〉 세종학당 현황(2007~2018)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일반 세종학당 수	3개국 13개소	4개국 14개소	6개국 17개소	13개국 23개소	24개국 41개소	36개국 68개소	46개국 93개소	48개국 103개소	49개국 111개소	52개국 116개소	45개국 110개소	47개국 110개소
수강자 수(명)	740	2,906	4,301	6,016	9,348	16,590	22,135	28,457	27,420	32,674	34,931	42,746
문화원 세종학당 수	-	-	-	-	16개국 19개소	19개국 22개소	24개국 22개소	24개국 27개소	24개국 27개소	24개국 27개소	27개국 30개소	27개국 31개소
수강자 수(명)	-	-	-	-	9,160	12,203	15,042	15,689	15,888	16,875	21,271	19,064
합계	740	2,906	4,301	6,016	18,508	28,793	37,177	44,146	43,308	49,549	56,202	61,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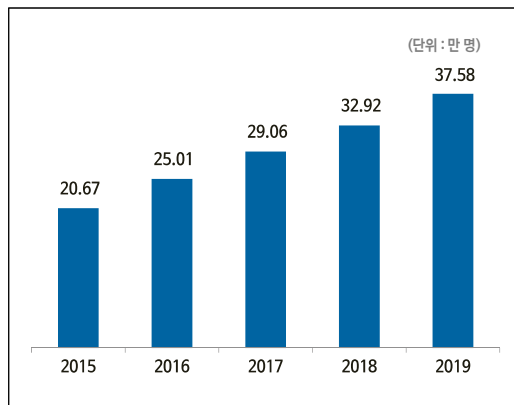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186쪽

4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184~187쪽 참조 및 재구성

## ■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콘텐츠 가운데 한국어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장르는 드라마와 K-Pop임
- 2019년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는 약 37만 명으로, 전년대비(32.92만 명) 14% 상승함

[그림 3-8]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현황



자료: 한국어능력시험(TOPIK) 홈페이지 참조 및 재구성

[그림 3-9] 웹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회화 프로그램



자료: 누리 세종학당 홈페이지

## 다. 한국의 문화정책 공유 가능성<sup>46)</sup>

### ① 한국의 세계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 2005년 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제정됨
-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을 ODA에 접목, 개발협력국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4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 ■ 유네스코 총회 한국 ‘예술교육’ 결의안 채택<sup>47)</sup>

- 2011년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로 독립의제로 발의된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의 실행(Implementation of 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Outcome Document of the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결의안”이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 「서울 어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는 2010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 예술교육대회에서 107개 참여국에 의해서 채택된 국가 차원의 예술교육 이행안(로드맵)으로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3개의 실천목표(△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질적 향상성, △사회적 가치 확산성)와 13개의 전략을 제시함
- 2019년 11월 21일 제40차 유네스코 총회는 우리나라의 주도로 상정한 “예술교육 및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인식증진(Promoting Awareness of Arts Education and the International Arts and Education Week)”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됨

## ■ 문화예술교육의 다각화를 통한 향유층 확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자체 문화예술교육 기능 강화 및 지역예술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함
  - 유아, 아동·청소년, 직장인 및 지역주민, 고령층, 학교 예술강사 대상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확대됨

## ② 지역문화정책에 따른 한국형 문화ODA 보급화의 가능성

### ■ 문화격차 해소·지역문화 발굴 지역문화정책 추진

- 생활 속 문화·여가에서 삶의 만족을 찾는 가치관 확산에 따른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및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굴을 위해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함
- 지역문화 균형발전 및 특성화,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환경과 문화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개발을 목표로 문화도시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47)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유네스코 동향 ([http://overseas.mofa.go.kr/unesco-ko/brd/m\\_8646/view.do?seq=1344556](http://overseas.mofa.go.kr/unesco-ko/brd/m_8646/view.do?seq=1344556)) (검색일: 2020.06.10)

- 한 예로,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재단 또는 대학,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 현안과제에 대한 실제적인 컨설팅을 실시, 이를 지역문화 발전에 활용

〈표 3-20〉 연도별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지원현황(2005~2018)

연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규모 (개)	209	14	16	20	16	14	15	14	13	13	15	13	13	15	15
예산 (백만원)	5,794	500	500	481	433	470	448	430	29	393	366	358	340	323	3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5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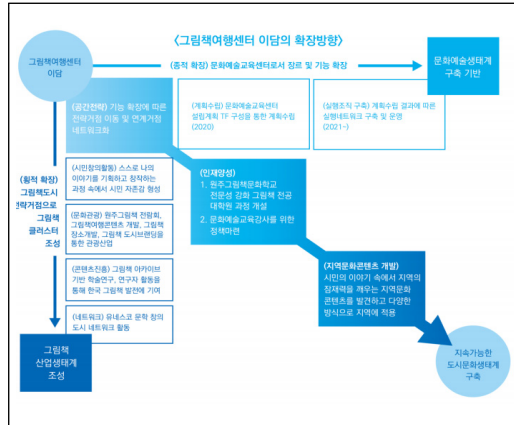
- 지역의 특화된 문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발전모델을 발굴확산을 위해 문화브랜드 사업을 실시
  - 2012년부터 문화브랜드 사업 중 우수 사업을 대표브랜드로 선정, 총 19개 대표브랜드가 선정됨

####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한 문화도시 정책<sup>48)</sup>

-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위해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의 문화적 가치·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등 문화균형발전 견인함
  - 다양한 개발협력국의 도시재생정책 지원에 지역자산 활용+인재양성+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주류화 가능
  - 거점형 문화도시('06~현재 추진 중): 역사전통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14~현재): '18년 문화도시형 26곳, 문화마을형 25곳
- 한국 문화도시는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광역별 문화도시사업을 실시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 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여 대표 문화도시를 설정하여 그 효과를 실현시킴
- 더불어 문화도시 권역벨트를 형성하여 각 권역에서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광역단위로 확장하여 문화광역벨트를 구축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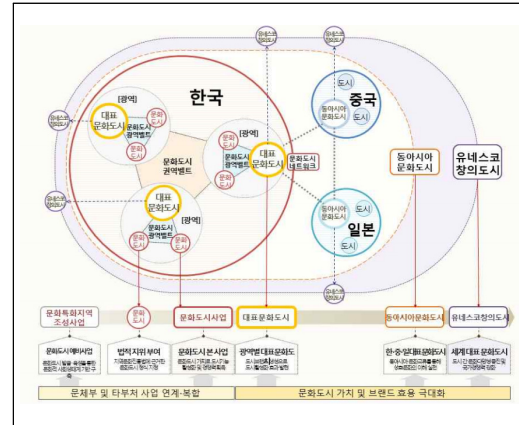
48)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참조 및 재구성

[그림 3-10] 도시문화생태계 구축 특화사업의  
종적, 횡적 확장(원주 문화도시 사례)



자료: 원주 문화도시 조성계획(2019)

[그림 3-11] 한국의 문화도시 차별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 ③ 경제발전·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 기반 문화산업정책 발전

#### ■ 문화산업 기반 삶의 질 향상·경제발전 이바지를 위한 법률 제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산업<sup>49)</sup>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정책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제정되어 왔음
- 우리 문화산업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산업의 법제 제정을 개도국에 전파하여 문화산업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및 규정 정비, 온전한 이행에 기여 가능

49)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의미함

〈표 3-21〉 문화산업관련 법률

국	과	소관법률	제정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999. 2. 8., 제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2002. 1. 14., 제정
	영상콘텐츠산업과	영상진흥기본법	1995. 1. 5., 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6. 4. 28., 제정
	게임콘텐츠산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 4. 28., 제정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2012. 2. 17., 제정
	대중문화산업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 4. 28., 제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2012. 2. 17.,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14. 1. 28., 제정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저작권법	1957. 1. 28., 제정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87. 11. 28., 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2004. 3. 22., 제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8. 6. 5., 제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2003. 5. 29., 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5. 1. 27., 제정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002. 8. 26., 제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2007. 7. 19., 제정
		독서문화진흥법	2006. 12. 28., 제정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화산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 연구」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 ■ 공정 상생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정책 사업 추진

-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 내 불공정 관행 개선, 공정 생태계 조성 사업,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 균형발전 사업, 4차 산업혁명 핵심동력 뉴콘텐츠 R&D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콘텐츠 사업 내 불공정 관행 개선과 성 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콘텐츠공정상생센터(18.4), 성평등센터 ‘보라’(18.3),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18.3) 개소 등 콘텐츠 분야 종사자의 고충을 예방·해결하고 분야별, 성별, 지역별 불공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운영함
  - 2018년 기준 불공정관행 및 성 평등관련 상담 90건, 신고 29건으로 집계됨
- 기업-기업, 기업-이용자, 이용자-이용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률이 지정되었으며, 그 역할 강화를 위해 10년 이상 전문가로 조

정위원 구성 및 전문교육 실시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5,633건 상담, 조정접수 5,084건, 조정회의 114회가 실시됨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9조〉

**제1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문화 산업 벤처·스타트업 기업 및 지원 기관의 창의성, 아이디어 발현 지원

- 뉴콘텐츠(VR·AR) 발굴 및 지원으로 가상현실 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프로젝트(프런티어) 6개 과제 지원, 유망 VR·AR 콘텐츠 제작 지원
  - 현재 총 23개 과제 지원
- 문화산업 종사자들 위한 방안으로 CKL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문화 산업 관련 교육, 제작지원, 협업·창작 공간 제공 등 지원하고 있음
  - 콘텐츠 창작·창업 활성화를 위한 개도국 콘텐츠 산업 성징 기반 조성 사업 연계 가능

〈표 3-22〉 CKL기업지원센터 현황

층	구성	주요기능
17F	사무 공간, 협업 라운지	• 운영사무실, 회의실, 네트워크 라운지 공간 활용
16F	비즈니스센터	• 비즈니스센터, 벤처 지원(투자, 융자, 법률), 일자리센터 등
15F	창작 지원 시설	• 협업 및 네트워크를 위한 열린 공간 • 개인 창작실, 회의실 등
14F	입주 공간	• 입주 공간: 28개
13F		• 공용회의실: 6실 (각층 2실)
12F		• 식음 및 휴게 공간: 3실 (각층 1실)
11F	콘텐츠 제작 지원 시설	• 제작 지원 시설(스튜디오, 3D랩 등)
9F		• 스타트업 네트워크 및 교육 시설(CKL시설 통합) • 렌더팜룸, 녹음실, 편집실, 프로젝트실, LED룸 등
B1~1F	CKL 스테이지(공연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 ■ 중소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 실시

- 해외 수출 관련 법률·지재권·마케팅·금융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콘텐츠 Biz-Desk (상담센터) 운영,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 콘텐츠 번역·자막·더빙 등의 현지화 제작 지원, 콘텐츠 해외 출원 등록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 저작권 정책<sup>50)</sup>

- 저작물 유통의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 정책을 통한 침해 최소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저작권 교육 확대·운영 및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시스템인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운영
- 학생, 성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연령 대상으로 수준별·분야별 교육 과정 운영
-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통합저작권번호체계(ICN, Integrated Copyright Number)를 발급하여 거래소의 저작물 및 저작권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개별 저작물에 통합 저작권번호체계인 ICN을 부여
- 개도국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연계 가능

〈표 3-23〉 2018년 통합 저작권 번호체계(ICN) 발급건수

(단위: 건)

음악	어문	사진	뉴스	영화	미술	합계
476,634	6,110	11,081	3,692,537	761	11,164	4,198,28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388쪽

〈표 3-24〉 저작권 교육 운영 현황

(단위: 명, 회)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학생	교육 인원	376,330	393,063	396,460	416,027	392,626
	교육 횟수	8,314	8,940	10,418	10,636	11,207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성인	교육 인원	18,292	14,855	18,937	13,347	12,777
	교육 횟수	313	274	354	300	245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문화 예술인	교육 인원	232	708	1,066	1,140	1,962
	교육 횟수	7	12	25	27	47
시·도 교육청 연수 운영		64명	45명	60명	99명	86명
교과서 집필진 연수 운영		71명	54명	36명	24명	28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350~356쪽 참조

50)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350~390쪽 참조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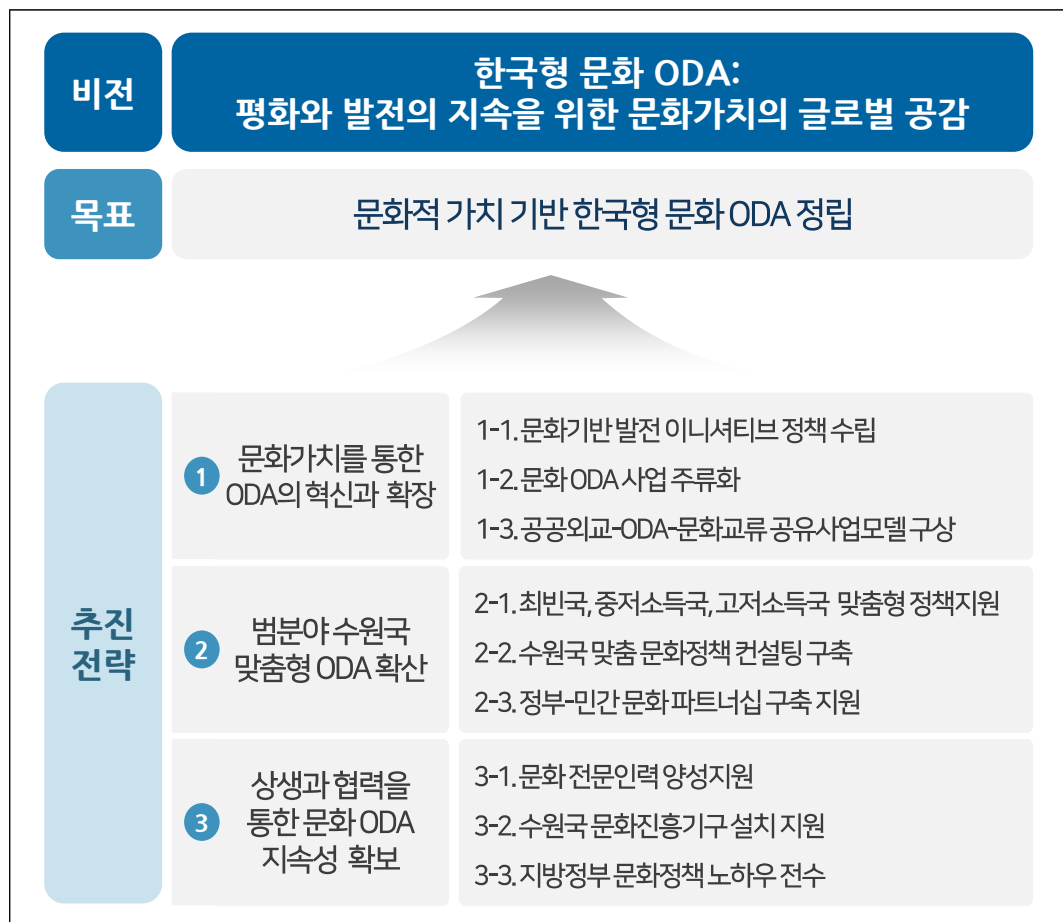
## 4 문화ODA 목표 및 추진전략

### 가. 문화ODA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하우스

#### ■ 지속가능의제(SDGs) 달성 기반 한국형 문화ODA 정립

- 한국은 ODA를 경제·사회 개발 촉진제로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문화’라는 비교우위 부문에서 ODA 선도국가로 도약하였음
- 한국의 문화 발전과 그간의 성과를 지속가능의제(SDGs) 달성을 위한 한국형 문화ODA로 접근하여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
- 포괄적 문화ODA로서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을 동시에 이룬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형 문화ODA 정립을 목표로 함

[그림 3-12] 목표 및 추진전략



## 나. 문화ODA 추진전략 세부내용

### ① 문화가치를 통한 ODA의 혁신과 확장

- ODA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모색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
- 문화기반 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기반 ODA 사업의 주류화 필요
- 다양한 기존 사업들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공유 사업으로의 확장 필요

### 1-1) 문화기반 발전 이니셔티브 정책 수립

####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문화기반 발전 프로그램 수립과 보급을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모색
- 개발협력국의 문화기반 발전을 통한 ODA 효과성 제고

#### ■ 지속가능발전의 열쇠인 문화의 역할 강조

- 기존의 발전 체계에서는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에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됨. 최근 국제 논의의 흐름은 개도국 개발전략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양적 성장에만 기여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및 질적 성장과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

#### 〈항저우 선언(The Hangzhou Declaration)〉

- 2013년 유네스코와 항저우시의 주관으로 ‘문화, 지속가능발전의 열쇠(Culture: Key to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항저우 선언(The Hangzhou Declaration)’ 채택
- ‘항저우 선언’은 인구증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평성, 존엄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시킴

- 개발협력 효과성 증진을 위해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개발도상국 주민들과의 정서적 공감형성 및 소통이 중요하며, 문화향유로 나타나는 행복, 정체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개발협력국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하며,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고 포용 및 전파

#### ■ 개발협력국 문화기반 발전 프로그램 수립

- 문화기반 발전은 이익과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며, 외형적 경제성장이 아닌 인간역량(Human Capacity) 성장에 초점을 둠

- 개발협력국의 전통문화 가치를 발전시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세계 문화가치에 대한 이해증진과 발전 전략의 공유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유 가능한 개발협력국 발전단계 맞춤형 발전 모델 수립

## 1-2) 문화ODA 사업 주류화

###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ODA 사업이 개별 개발도상국이 처해 있는 현실과 문화를 반영하여 적합한 차별화된 목표가 설정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sup>51)</sup> 모든 ODA 사업의 기본 설계에 있어 ‘문화’를 기본 고려 대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많은 경우 물질적 지원이나 인적 자원 개발 지원이 개발협력국의 수준, 여건, 필요 및 수요에 맞지 않는 일방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원조 효과성을 심각히 훼손함<sup>52)</sup>
- 지속가능성의 확대로 문화ODA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가능성 증대

### ■ SDGs에서 개발의 스펙트럼 확장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창의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남반구 국가들에서는 국가개발계획 및 전략에 지속적으로 문화를 통합하고자 노력
- 대부분의 개발계획에 창의성에 특화된 성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문화생산과 예술활동의 환경적인 영향이 등한시되고 있음
- 모든 ODA 사업은 개발협력국의 문화적 맥락과 가치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을 통한 해당지역과 국가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여야 함
- MDGs는 사회개발위주 의제로 교육, 보건, 절대빈곤퇴치,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하며, SDGs는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 등 개발의 스펙트럼을 넓힘
- 개발협력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고, 다양화 될 전망으로, 문화ODA 확대는 국제사회 속에서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기조로 이를 통해 문화ODA 사업의 주류화는 ‘2030 지속가능개발 프레임워크’에서 논하는 인간-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 방향성에 부합함

51) 권상철 외(2018), 「국제개발협력개론」, 290~293쪽 참조

52)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2),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6쪽 참조

## ■ 주류화 사업

- (예산배정) 개발협력국의 창의성 진작을 위한 국가개발계획에 예산배정 필수
- (분담금 증액)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산 및 공공 기금에서 문화관련 분담금 신설 및 증액
- (기업지원) 개발협력국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관련 기업 지원

### 1-3. 문화외교-ODA-문화교류 공유사업 모델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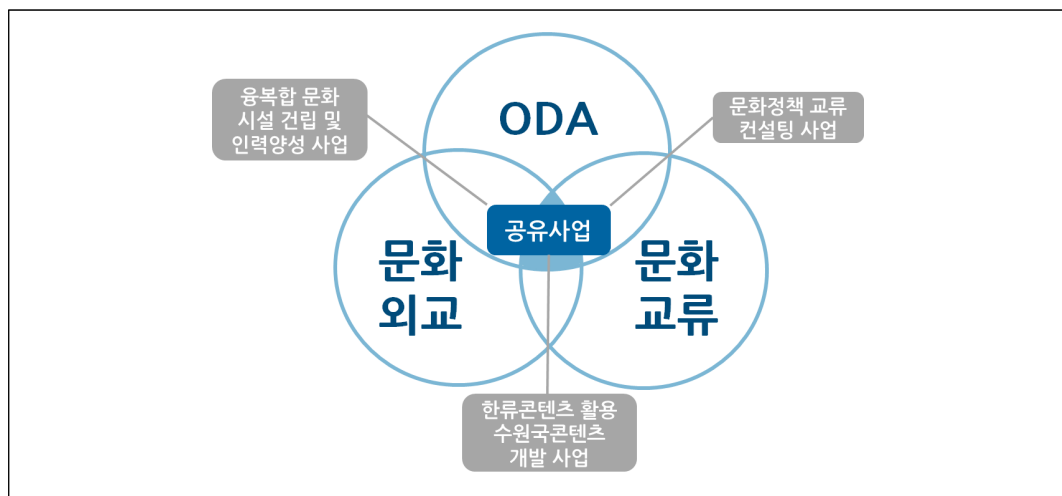
####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각 영역의 고유사업과 중첩영역 사업을 구분하여 공유사업 개발 촉진
- 개발협력국의 필요성에 맞춘 선택과 집중 또는 종합화 지원 사업 개발에 용이

#### ■ 개발협력국 수요 반영 및 전략적 문화 영향력 증대

- (목적기반 사업 융합용이) 각 분야의 목적성을 강조하다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 개발에 용이함. 개발협력국의 필요에 목적을 맞춘 종합적인 개발 사업 개발 가능해짐
- (모듈형 패키지 지원) 각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협력국의 필요에 맞는 패키지 사업 지원 가능
- 정상외교, 고위급 채널 등 개발협력국 요청에 유연한 대응 가능
  - 예시로, 2019년 11월 26일 한-미얀마정상회담에서 미얀마 아이돌 그룹 '프로젝트 케이 (Project K)'의 케이팝(K-Pop) 연수요청에 적극적 지원전략 추진 가능

[그림 3-13] 문화외교-ODA-문화교류 공유사업 예시



## ■ 지식중심 협력형 사업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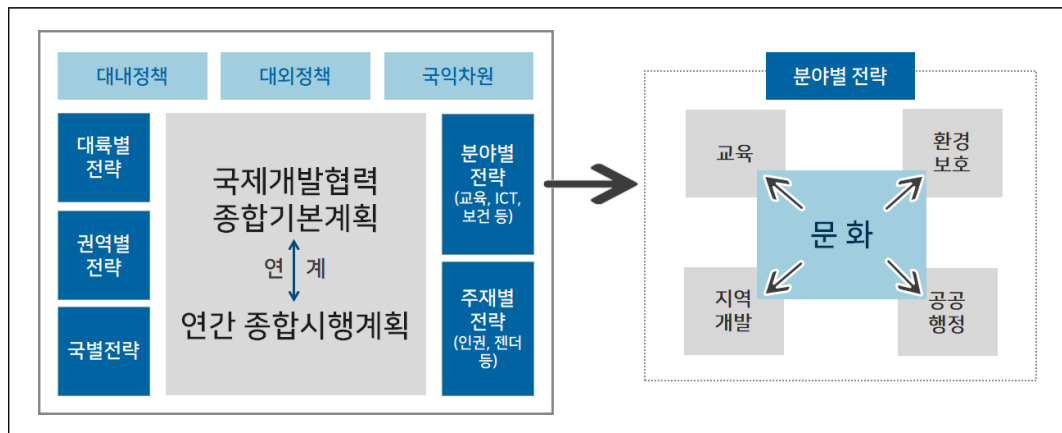
- (종합적 지식공유 사업) 개별단위 사업 중심이 아닌 목적에 맞춘 지식 공형 사업을 생산하고, 개발협력국의 능력개발과 흡수능력 개선 및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개발
- (정부간 파트너십 강화) 공여국의 범부처간 협력이 개발협력국의 범부처간 협력을 추동할 수 있고, 개발협력국-공여국간 파트너십 강화에 맞는 사업 구상

## ② 범분야 개발협력국 맞춤형 ODA 확산

###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공여국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개발협력국의 문화기반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ODA모델 구축
- 기존 ODA 사업의 재구성 및 복합화를 통한 개발협력국 맞춤 사업 개발
- 범분야 종합 사업 개발을 통해 보편적 맞춤형 ODA 사업모델 확보

[그림 3-15] 범분야 문화ODA의 타분야 협력



## 2-1) 최빈국, 중저소득국, 고저소득국 맞춤형 정책지원

###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개도국의 발전 정도에 따른 최빈국, 중저소득국, 고저소득국 수준별 정책목표와 당면 발전 목표와 장애물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수준별 맞춤 정책 지원 필요
- 발전 수준별 문화기반 정책 모델 제시를 통한 개발협력국 실질 발전에 기여

- 중점협력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대내외 정책, 분야별·지역별 전략을 종합한 맞춤형 문화ODA 컨설팅 모델을 구축하여 문화역량 수준, 문화적 특수성·잠재성 등 개발협력국별 다양성을 고려하여 현재 개도국 문화 정책 및 전략, 수요를 반영함. 이는 개도국 문화적 다양성 확보 및 개도국 내 발전 분야의 다각화에 기여할 것임

#### ■ 발전 수준별 요구사업 반영

- 최빈국 국가의 경우 전통문화의 보존과 진흥 지원을 통한 국가 문화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중저소득국은 전통문화 기반 문화산업 육성, 장기 문화발전 정책 수립과 전문가 양성 등의 요구가 반영 되어야 함
- 고저소득국의 경우 개발도상국 탈출과 경제발전 기조의 변화에 따른 세부 정책 수정 및 문화의 보편성 증대와 산업 육성 요구 증대

#### ■ 지속가능발전의 세부정책 모델 다변화

- (수준별 사업모델 구상) 개발협력국의 발전정도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을 고려한 수준별 사업모델 구상
- (발전 단계별 사업 유형 연계) 발전 단계별 요구 사업 유형화와 연계성 강화를 통해 장기 문화기반 ODA 사업 모델 개발

### 2-2) 개발협력국 맞춤형 문화정책 컨설팅 구축

####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개발협력국의 인프라, 문화 콘텐츠 현황, 문화 발전 정책 기조, 인력구조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컨설팅 사업 진행
- 기존 사업 결과와 기반 활용, 개별 ODA 사업의 연계성 강화와 사업 효과 증대

#### ■ 한국 문화발전 노하우 전수

- (문화기반 지식공유 파트너십) 한류의 확산은 한국 특유의 문화를 보편적 문화로 인식시킨 결과임. 문화정책이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 발전 노하우 전수 가능

-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문화정책) 한국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문화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음. 이 한국의 경험은 유일한 것이며 선진국도 못하는 정책컨설팅 제공의 토대가 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1년 문화동반자 사업 수요조사에서 문화전문가(문화·예술, 문화산업분야), 문화행정가(문화정책분야) 연수 사업에서 높은 수요가 집계됨
  - 문화전문가 과정: 12개국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우간다, 가나, 파키스탄) 121명 집계
  - 문화행정가 과정: 8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우간다, 탄자니아, 콜롬비아) 14명 집계

### ■ 지식공유 ODA로서 문화정책 컨설팅

- (지식공유의 중요성) 세계은행,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지식제공 협력 사업 강조. 개도국의 능력개발과 흡수능력 강화를 통해 ODA 사업의 효과성 증진
  - 세계은행: 'Knowledge Bank',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ADB: 'Knowledge Management Framework', USAID: 'Knowledge for Development Strategy', CIDA: 'Canadian Partnership' 등 다수 지식 프로그램 존재
- (문화는 지식기반경제의 토대) 지식의 축적과 활용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자원가운데 하나로 인식됨. 정보격차를 넘어 개도국의 제한된 인식 개선과 지식혁신

## 2-3) 정부-민간 문화 파트너십 구축 지원

###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개도국의 경우 민간기업과 사회단체의 활동이 미약함으로, 정부와 민간 영역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문화발전의 토대 제공
- 개도국 문화 발전/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효과가 발생

### ■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 요소

- (개발과 성장에 필수) 개발협력의 규모 증대와 효과성 및 장기지속성 증진에 민간분야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임
- (협력을 통한 효과성 증대) 공공원조기관이 인프라를 구축하면 민간기업 및 단체들이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맡는 등 효과성과 장기지속성 담보에 유리

## ■ 문화영역 생태계 조성

- (개발협력국 문화 생태계 형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동시발전을 통해 개발협력국 문화 생태계의 형성과 체계적 혁신 도모
- (개발협력국 민간 문화주체 양성)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인력 양성

## ③ 상생과 협력을 통한 문화ODA 지속성 확보

### 3-1) 문화 전문인력 양성지원

####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문화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자체 문화발전 역량을 구축하고, 공여국-개발협력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
- 장단기 연수프로그램 운영과 현실 실제 사업 과정에서의 실무 컨설팅 제공

#### ■ 사업간 연계성과 원조효과성 증진

- (문화관련 인력 체계적 양성) 문화정책, 문화관련 민간영역 활성화 등 개발협력국 자체 인력의 능력 양성은 필수적인 요소임
- (ODA 사업간 연계성과 효과성 강화) 개발협력으로 완성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장단기 문화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정책기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현지 전문인력 양성은 필수적인 요소임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개별사업 연계확대를 통한 유기적 사업 발굴: 기존 개별사업 및 한국 문화 발전경험기반 문화ODA 컨설팅을 바탕으로 형성된 네트워크, 사업 연계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기적 사업을 발굴함

#### ■ 공여국과의 협력

- (파트너십 구축) 문화분야 인력양성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여국-개발협력국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용이하고, 국가간 신뢰도 형성에 도움
- (장기적 협력) 연수인력과의 파트너십을 지속하면서 개발협력국의 장단기 문화ODA 사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용이

### 3-2) 개발협력국 문화진흥기구 설치 지원

####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한국 문화발전에 기여한 문화진흥 관련기관 및 기구 설치와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 정책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 다양하고 건강한 문화정책생태계 구축을 통한 문화발전 추구

#### ■ 문화정책 지원 및 산업 진흥 기구 필요

- (정책 인프라 구성)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시설 인프라 이외에도 정책생산 인프라 구축도 제공되어야 함. 이에 따라 문화관련 연구기관, 정책시행기관, 관련 산업 진흥 기구 등의 설립과 운영 노하우 필요
- (문화 콘텐츠 육성에 필요)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의 문화콘텐츠 생산과 수준 유지 등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설립

### 3-3) 지방정부 문화정책 노하우 전수

#### ■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국가전체의 문화발전과 장기 지속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이외에도 각급 단위 정부기관들의 노력도 필수적임. 개도국의 경우 중앙집권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방정부 별 단위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수
- 지방 특유의 문화를 보호·진흥하고, 특성을 살린 문화산업 육성

#### ■ 분절화 된 사회에서 발전

- (지역별 편차) 개도국일수록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경우가 많음.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경우도 많음
- (인종과 언어의 차이) 많은 소수민족과 민족별 언어의 다양성이 클 경우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해석이 매우 달라짐

#### ■ 지방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 지원

- (지방정부 참여 유도) 한국의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노하우 활용
- (문화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주체들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유도

## 1 문화ODA 맞춤 전략 필요성

### ■ 문화협력 확대위한 맞춤 문화ODA 사업 제시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16일, 「문화비전 2030」을 통해 3대 방향·9대 의제를 발표함
- 3대 방향 가운데, 창의성 확산을 위한 의제로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제시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각 국가간 공유지식의 증진과 협력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의 역할이 중요해짐
- 아시아 문화의 연대·공존을 위한 목표로 ‘문화아시아’ 개념 도입하였으며, 문화아시아 정책은 예술, 관광,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 지속가능한 한류를 가능케 함
-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한류문화의 인기를 기반으로 문화ODA사업을 통해 한국의 여러 국가역량을 활발히 펼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증대가 가능해짐
- 소극적 문화예술 교류, 전시, 협력사업에서 벗어나 문화분야 ODA의 위상을 정립해 현지 수요 기반한 한국의 우수한 문화인프라, 콘텐츠, 법·제도,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개도국과 아시아 국가에 지원함으로써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함
  - 전체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문화영역 공적개발원조 비율 확대 추진('18년 현재 0.4%)
- 개발도상국 대상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복합문화관 등 현지 수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분야 인프라 구축 지원과 같이 현지수요 기반 문화인프라 및 문화 플랫폼 지원사업 전개
- 예술교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
  - 한예종 AMA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전 대륙의 공적개발원조 국가에 확대하여 추진
- 일회성, 단발성 사업에서 프로젝트와 개발컨설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현지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적절히 조합하여 문화ODA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음

## 2 모듈형 문화ODA 사업 개발

### ■ 한국은 한국형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원조경험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차별화된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노력 해옴
- 실제 2012년 OECD DAC 동료평가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에 기초한 ODA 추진을 비교우위로 평가<sup>53)</sup>
- 정책자문 및 컨설팅(KSP, DEEP 사업) 등 개발협력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발굴하여 진행해옴

### ■ 맞춤형 지원 사업에 맞는 모듈형 문화ODA 사업 필요

- 문화ODA 부분에서도 다양한 세부분야가 존재하고, 개발협력국에서도 각 국가별 정책과 사안에 따라 정책자문 필요 부분이 상이함
- 여러 세부분야가 존재함
  - 문화정책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정책자문
  - 문화시설 건립+문화시설 운용방안+문화콘텐츠 구성 및 개발
  - 문화정책 및 실행 전문가 양성
- 개발협력국의 필요에 따라 각 부분별 패키지를 조합하여 개발협력국 맞춤형 문화 ODA 사업 구성 가능
  - 인프라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 인적 자원 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요소,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법제 정비 등과 같은 전략적 요소의 적절한 패키지 조합으로 파편적 지원의 문제점을 개선함

53) 관계부처합동(2020), 「2029년 국제개발협력\_종합시행계획」, 4쪽

### 3 문화ODA 사업으로서 정책자문사업

#### 가. 한국형 문화ODA 사업으로서 정책자문사업의 가능성

- 한국의 문화역량과 정책 추진의 경험을 살려 다른 국가와 다른 문화ODA사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책자문사업은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음
- 개발협력국의 필요분야에 대한 타겟형 사업뿐만 아니라, 개발협력국의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상황에 맞는 종합형 정책자문사업이 가능함
- 한류의 기반이 되는 한국의 민간 문화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으로서 정책자문사업도 구상이 가능함
- 한류는 이미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국가들이 한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의 문화ODA 사업을 통해 지역별 문화교류 확대의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음

#### 나. 한국의 기존 ODA 사업과 대외정책과의 조화 가능

- 기존 유·무상 국제개발협력사업과의 연계시켜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적절한 사업임
- 시설 건립 이후 시설운영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자문이 가능하며,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노하우 전수 등을 추진 할 수 있음
- 신남방·신북방 국가의 중요한 대외정책 기조와 조화를 이루어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다. 개발협력국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사업 지원 가능한 모듈형 정책자문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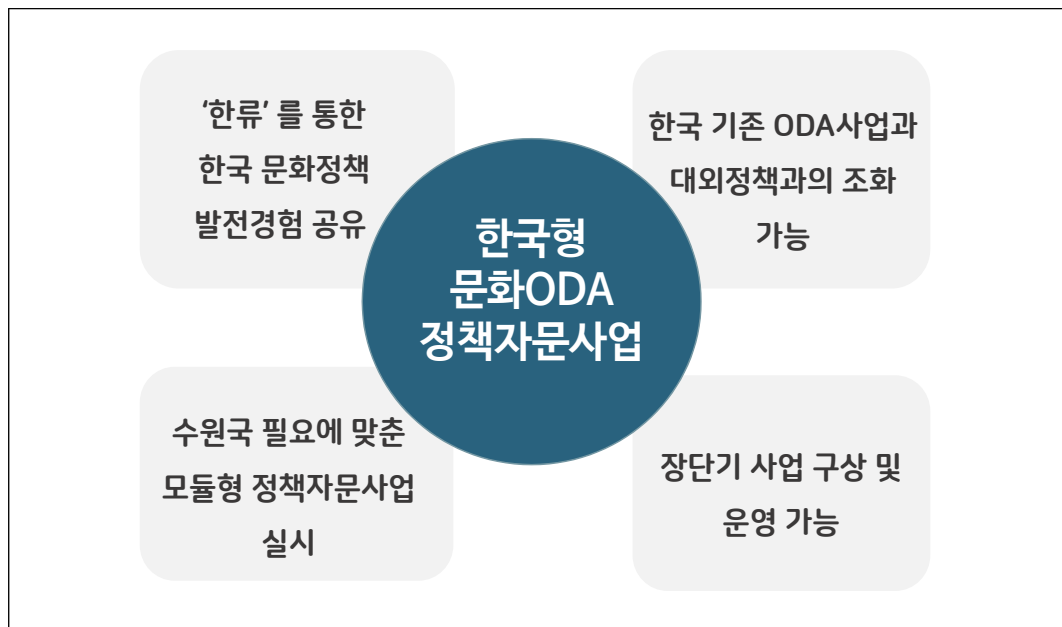
- 개발도상국은 국가별로 종합적인 문화진흥정책의 유무 등 문화정책에 대한 편차가 큼
- 공여국의 많은 지원사업으로 문화유산 보존 사업, 시설건립 사업 등 단발성 지원과 사업 추진경험은 많이 존재함
-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여건을 갖춘 경우는 많지 않음

- 기존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협력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구상하여 함께 공유할 수 있음

## 라. 장단기 사업 구상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모듈형 정책자문사업

- 개발협력국의 필요와 협의를 바탕으로 단기 전문가 연수사업으로 구상할 수도 있고, 종합적인 문화정책 계획부터 컨설팅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문화정책과 시설 건립과 활용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에 장기적인 정책자문을 구성할 수도 있음
- 한국은 현재 국제개발협력계획에 따라 중점협력국을 지정하여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분야 정책자문 사업을 진행이 가능함
- 기존 진행되었던 사업에 연계·모듈형으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음

[그림 3-16] 문화ODA 사업으로서 정책문화사업 전략



# IV

## 제4장 문화ODA로서의 문화정책컨설팅 사업모델

---

- ① 정책컨설팅 사업 사례 검토
- ② 문화ODA 정책컨설팅 포맷



### 1 국내 정책컨설팅 사업 사례

#### 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sup>54)</sup>

##### 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개요

###### ■ 개발협력국 수요 기반 한국의 팔목적 성장·발전경험 지식 공유 사업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연구·정책자문·역량배양 지원 사업임
-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자 기획재정부는 2004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 약 8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발전경험과 전문성, 경제성장 노하우 공유해 왔음
- KSP는 개발협력국 수요에 기초하여 국가 간 개발경험을 공유하여 파트너십을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롯한 삶의 질 향상과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은 크게 국가정책 자문 사업,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 경제발전 경험모듈화 사업으로 구성됨
  - 국제사회 및 개발협력국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방식 및 사업유형 등을 다양하게 구성
- 국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과 국제기구의 개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연계시킨 개발협력 모델로 주목 받고 있음
-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 사업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경제일반, 행정·ICT, 농어업, 보건 의료, 산업에너지, 인적자원, 국토건설, 환경의 개발협력 8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함
- 사업의 결과물은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되어 향후 지식기반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됨과 동시에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및 국제사회와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증가하는 지식공유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54)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index>), KSP Brochure ([http://www.ksp.go.kr/resources/contents/KSPBrochure\\_ko.pdf](http://www.ksp.go.kr/resources/contents/KSPBrochure_ko.pdf)) 참조 및 재구성

〈표 4-1〉 KSP사업유형 및 내용

협력방식	사업유형(수행기간)	내용
정책자문사업	정책자문(1년)	현지조사 및 공동연구를 통해 실천적인 정책대안 도출
	역량강화연수(1주~2주)	개발협력국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정책 기획·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 제공
	정책자문관 파견(6~12개월)	한국 전문가를 개발협력국에 파견하여 정책 개선 및 이행 지원
공동컨설팅 사업	정책자문(1년)	정책대안의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국제기구의 지역전문성과 KSP의 정책전문성 연계
사례연구	사례연구	발전경험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식공유를 위한 실증적인 지식콘텐츠 창출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index>)

## ■ 한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분야 협력 수행

- KSP는 개발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경제정책, 사회정책, 공공부문의 세 분야에 공동연구 및 정책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경제정책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경제분야 일부분으로서 관광분야를 포함하여 정책자문사업을 실시함
  - 2011년 가봉, 적도기니를 중심으로 2012년 도미니카공화국, 2013년 가나, 2015년 태평양 도서국<sup>55)</sup> 등을 중심으로 정책자문이 실시됨

〈표 4-2〉 KSP 협력분야

정책분야	중 분류	세부분야	
경제정책	경제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	
	거시·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	금융기관 및 제도
		환율 및 국제금융	금융안정
		기타 거시·금융정책	
	산업·무역정책	구조변화와 경제 다변화	무역과 수출진흥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직접투자
		중소기업정책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육성
		기타 산업·기업 정책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정보통신기술
		기타 과학기술정책	
	국토개발	기반시설투자	지역균형발전
		도시개발	기타 국토 개발정책
	농촌개발	농촌개발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55) 외교부, 태평양도서국 개황(2014)에 따르면 태평양도서국은 지리·문화적으로 멜라네시아(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피지, 바누아투), 마이크로네시아(팔라우, 미크로네시아연방, 나우루, 마셜제도, 키리바시), 폴리네시아(투발루, 사모아, 통가, 니우에, 쿡제도)로 구분됨

정책분야	중 분류	세부분야		
사회정책	인적자원개발	교육	직업능력개발	
	보건·복지	보건·의료	사회보장	
	노동시장	노동시장 정책 및 사업		
	환경	환경 및 자연자원 관리		
	기타 사회정책	기타 사회정책		
공공부문	재정	재정정책		공공투자/PPP
	행정	공공부문관리	전자정부	공기업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index>)

## 2) KSP 사업현황

### ① KSP 사업 규모(지원액)

#### ■ KSP 사업 규모의 점진적 증대 추세

- 2015년 KSP 지원액은 242억 원으로 기획재정부 ODA 지원액 가운데 2.5%에 하였으나, 2016년 115억 원(1.1%), 2017년 69.3억 원(0.6%)로 다소 감소함
- 2018년 지원액은 다시 증가하여 159.6억 원으로, ODA 지원액의 1.3%를 차지하였으며, 2019년 211.3억 원(1.6%), 2020년 320.4억 원(2.3%)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4-3〉 KSP 사업 규모(2015~2020년)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액	242.1	115	69.3	159.6	211.3	320.4
(%)	(2.5)	(1.1)	(0.6)	(1.3)	(1.6)	(2.3)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index>)

### ② 지역별 사업현황

#### ■ 다양한 개발협력국 발굴 및 사업 실시

- 2004년 KSP 사업이 시작하여 최초 협력대상국은 베트남 및 우즈베키스탄이었으며, 주요 자문 분야는 경제·사회 개발로 중소기업, 외국인투자활성화, 산업정책 관련 분야 정책자문 실시하였음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중남미, 중동, CIS·유럽 국가의 비중도 확대되고 있음

- 협력 사업 수는 총 누적 715건, 세부 주제별 사업 수는 1,49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지역별 사업현황은 아시아(37.1%)에서 421개 사업으로 가장 많이 진행 되었으며, 중남미 89개(21.1%), CIS·유럽 81개(19.2%)로 그 뒤를 따름

〈표 4-4〉 주요 지역별 KSP 사업 현황

구분	계	아시아	CIS ·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 별 국가 수 (%)	68개국 (100)	15개국 (22.1)	13개국 (19.1)	18개국 (26.5)	15개국 (22.1)	7개국 (10.3)
사업 수 (%)	421개 (100)	156개 (37.1)	81개 (19.2)	89개 (21.1)	67개 (15.9)	28개 (6.7)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index>)

## ■ 주요 개발협력국과의 다양한 세부주제 연계 KSP 사업 수행

- 아시아 지역 가운데 베트남에서 37개 사업을 실시, 전체 가운데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인프라 선진화 계획 수립, 다낭시 도시철도 개발 계획 운영 지원, 소방방재청 현대화 정책 수립 지원, 직업훈련과 기업발전 연계성에 따른 인적자원 개발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베트남 다음으로 26개 사업(6%)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주요 사업은 자카르타 대중버스체계 개선 전략 수립 지원, 기술혁신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 방안, 내부 감사 강화를 통한 정부 책무성 증진 방안 등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주제가 확대 되고 있음
- CIS·유럽 지역에서 가장 사업이 활발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안그렌 경제특구 운영지원 방안, 공공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2015/16 우즈베키스탄 KSP 등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공공부문, 보건·의료, 교육, 재정정책 등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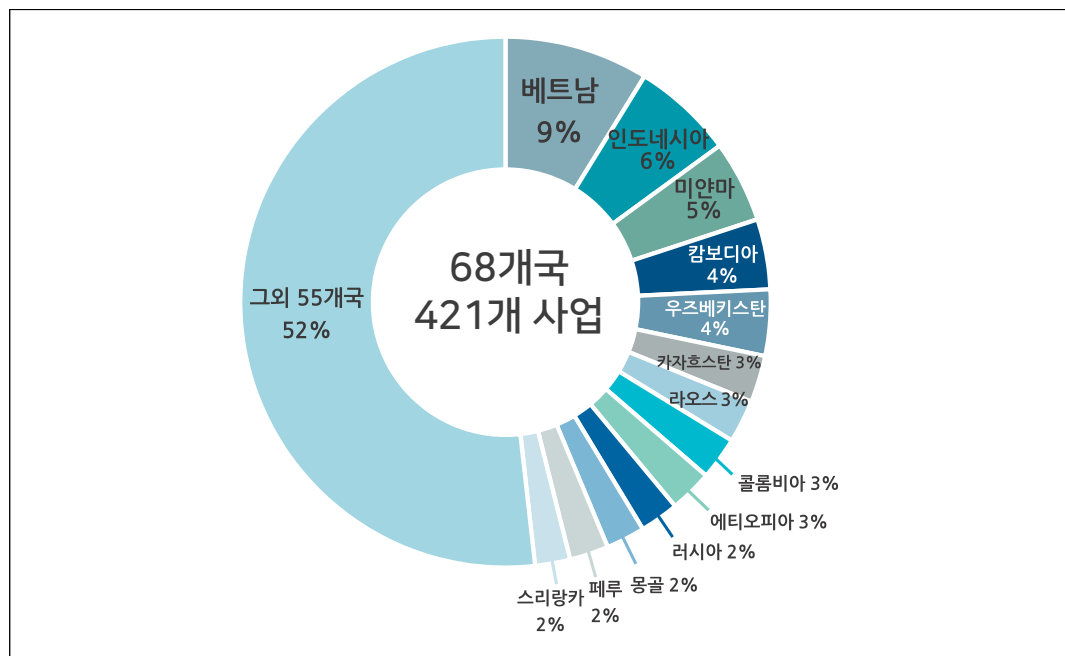
〈표 4-5〉 주요 국가별 사업현황

지역	국가	사업 수	지역	국가	사업 수
아시아	베트남	37	중남미	온두라스	8
아시아	인도네시아	26	중동	가나	8
아시아	미얀마	21	중동	알제리	8
아시아	캄보디아	18	중동	이집트	8
CIS & 유럽	우즈베키스탄	17	중동	탄자니아	8
CIS & 유럽	카자흐스탄	12	아프리카	아랍에미리트	7

지역	국가	사업 수	지역	국가	사업 수
아시아	라오스	11	아프리카	쿠웨이트	7
중남미	콜롬비아	11	CIS & 유럽	아제르바이잔	6
중동	에티오피아	11	CIS & 유럽	터키	6
CIS & 유럽	러시아	10	CIS & 유럽	헝가리	6
아시아	몽골	10	중남미	에콰도르	6
중남미	페루	10	CIS & 유럽	루마니아	5
아시아	스리랑카	9	CIS & 유럽	불가리아	5
아시아	필리핀	8	중남미	브라질	5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	8	중남미	쿠바	5
중남미	멕시코	8	중동	케냐	5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index>)

[그림 4-1] 주요 국가별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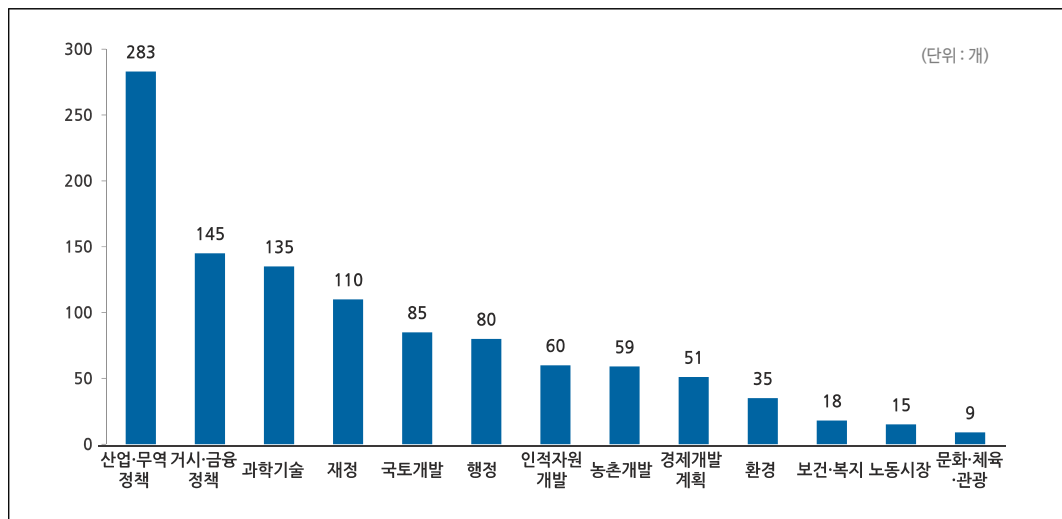
### ③ 분야별 사업현황

#### ■ 산업·무역정책 분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진행

- 분야별 가운데 산업·무역정책관련 사업이 283개로 가장 높게 집계되어 개발협력국의 경제정책분야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관련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음
  - 대표 사업으로는 수출 역량강화 및 수출증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컨설팅,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정책자문, 국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행 전략 수립 등이 있음

- 그 뒤를 거시·금융 정책(145개), 과학기술(135개), 재정(110개) 등 순으로 나타나, 직접적으로 개발협력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나타남
  - 거시·금융 정책 분야 사업은 미얀마 자본시장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탄자니아의 거시경제 안정화 방안과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산업연구 강화 방안, 우즈베키스탄 공공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 등이 있음
  - 과학기술 분야 사업은 개발도상국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브라질 IT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컨설팅,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의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등이 있음
  - 재정 분야 사업은 에티오피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재정 관리 개선 방안, 이집트 경제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제도 개선, 키르기즈공화국 프로그램 예산제도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전략 수립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림 4-2] KSP 사업 분야별 사업현황



- 세부분야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가운데 ‘연구개발 및 혁신’이 9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관련 사업은 전자정부 혁신, 과학기술 인력, 데이터베이스 역량강화 등이 있음

〈표 4-6〉 KSP 분야별 세부 사업현황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거시·금융 정책	경제개발계획	51	국토개발	기반시설 투자	38
	통화신용정책	6		지역균형발전	15
	환율 및 국제금융	3		도시개발	29
	금융안정	26		기타 국토개발정책	3
	금융기관 및 제도	70	농촌개발	농촌개발	59
	기타 거시·금융정책	40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9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대분류	중분류	사업 수
산업·무역 정책	구조변화와 경제다변화	37	인적자원개발	교육	24
	무역과 수출진흥	58		직업능력개발	36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57	노동시장	노동시장 정책 및 사업	15
	직접투자	26	재정	재정정책	71
	중소기업정책	58		공공투자 / PPP	39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육성	25	환경	환경 및 자연자원 관리	35
	기타 산업·기업 정책	22	행정	공공부문관리	39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90		전자정부	31
	정보통신기술	42		공기업	10
	기타 과학기술정책	3	보건·복지	보건·의료	13
				사회보장	5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index>)

### 3) KSP 사업 사례 특징

#### ■ 수요국 개발수요 반영한 수요 중심 접근(demand-driven approach) 사업 실시

- 수요국의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KSP 건설·인프라 분야 정책자문 사업<sup>56)</sup>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음
  - 2019~2020년 KPS 정책공유 사업 가운데, 캄보디아 ‘2020년 디지털 방송 전환 준비를 위한 주파수 관리 강화방안 수립’ 사업을 예시로 들면, 보디아를 제외한 9개 ASEAN 국가 대비 진척이 더딘 디지털 방송 전환 관련하여, ‘12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성공한 한국의 지식공유를 요청하였음<sup>57)</sup>
- 2019년-2020년 진행예정인 KSP 사업은 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 교육프로그램 개선, 인력양성 방안,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마스터플랜 구축, 인프라 운영 및 관리 방안 등의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56)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사업은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 등 경제협력 차원에서 정책 자문 및 금융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4년 신규 도입

57) 한국수출입은행(2019), 「캄보디아 디지털 방송 전환 준비 지원 제안요청서(RFP)」, 2쪽

〈표 4-7〉 2019/20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공유 사업

국가(지역)명	사업명	총괄기관	발주금액(잠정) *부가세포함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주택보증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9억원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 예금보험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8억원
파라과이	파라과이 직업훈련기관 평가시스템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3.9억원
아제르바이잔	유라시아 교역 거점 구축을 위한 항만운영 현대화	한국개발연구원	3.2억원
인도네시아	기술혁신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5억원
모잠비크	운전면허교육 시스템 현대화	KOTRA	3.5억원
브라질	산업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 지원	KOTRA	3.5억원
에콰도르	수출역량강화 및 對아시아 수출증진 방안	KOTRA	3.5억원
페루	파나맥스 및 포스트 파나맥스급 조선산업 역량강화	KOTRA	4.2억원
미얀마	만달레이시 교통 마스터플랜 구축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3.3억원
베트남	보건인프라 선진화 계획 수립	한국수출입은행	3.4억원
캄보디아	2020년 디지털 방송 전환 준비를 위한 주파수 관리 강화방안 수립	한국수출입은행	2.5억원
캄보디아	교통신호관리 및 안전체계개선방안 (Sihanoukville & Takeo 지역)	한국수출입은행	3.2억원
라오스	지속가능한 고체폐기물 관리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6억원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index>)

## ■ 개발협력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중장기적 차원의 시스템 관리 및 개선 정책 자문요청에 따라 개발협력국과의 공동 연구, 역량강화 연수 및 공동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정책보고서 발간 등 협력
- 특히 후속연계 사업 방안으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 우리정부와의 지속적 협력 마련을 고려한 지속적 운영 가능한 사업 마련

〈표 4-8〉 KSP‘필리핀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위한 정책자문’사업 (예시)

국가	필리핀
사업명	필리핀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위한 정책자문
사업기간	2019~2020
사업배경	현재 운영중인 예산재무관리시스템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범 정부차원의 통합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 투명성을 강화 하고자 동 정책 자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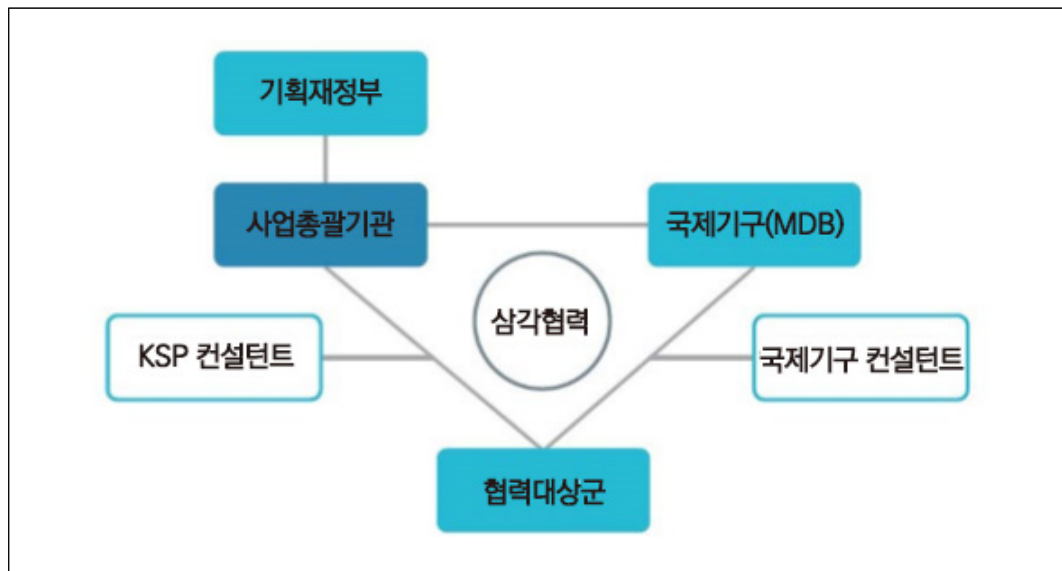
추진목적	필리핀 정부는 한국의 통합회계관리시스템(D-Brain)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재무부 처 차원의 현존예산재무관리시스템(BTMS) 개선방안 자문 및 정부차원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략을 지원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강화
사업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연구: 부 주제를 중심으로 개발협력국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한국의 발전경험 사례 연구, 정책제언 및 실행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li> <li>• 역량강화연수: 기재부(MOEF),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재정정보원 등 통합회계관리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주제관련 정책실무자의 역량제고</li> <li>• 자문 및 보고서 발간: 공동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고위 정책관계자,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자문을 제공하고, 최종 정책자문보고서 발간</li> </ul>
후속연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속사업으로 국가통합회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우리기업의 참여 가능</li> <li>• 필리핀 정부와의 전자정부분야 지속적 협력 발판 마련</li> </ul>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index>)

## ■ 공동컨설팅: 국제기구의 지역 전문성과 접목을 통한 협력대상국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은 2011년 출범하여 현재 9개 국제기구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협력 국제기구: OECD, World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fDB(African Development Bank),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CAF(Development Bank of Latin America),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그림 4-3] KSP 공동컨설팅 사업 체계



자료: 정혁(2015), 「KSP 체계 개선방안 연구」 69쪽

- 공동컨설팅 사업은 KSP 사업과 국제기구의 기술 협력사업(Technical Assistance/ Cooperation)을 연계하여 지원하여,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기술협력 사업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접목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함<sup>58)</sup>
- KSP-국제기구-개발협력국 간 상호교류로 지식공유 활동 증진에 기여하며, 국제개발협력사회에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함

〈표 4-9〉 2019/20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공동컨설팅 발주 사업

국가(지역)명	사업명	총괄기관	발주금액(잠정) *부가세포함
캄보디아	(ITC 공동컨설팅) 캄보디아 전자조달체계 구축 및 해외공공조달시장 역량강화 지원	한국개발연구원	2.5억원
중앙아메리카	(GGGI 공동컨설팅) 중앙아메리카 (Mesoamerica) 녹색성장프로그램	한국개발연구원	3.2억원
도미니카공화국	(IDB 공동컨설팅) 도로자산관리 시스템 전략 수립	한국수출입은행	3.4억원
온두라스	(IDB 공동컨설팅) 전력공급 품질 및 효율 향상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3.4억원
우즈베키스탄	(ADB 공동컨설팅)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교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수출입은행	2.9억원
조지아	(ADB 공동컨설팅) 수자원 공급 및 도시위생 서비스 개선사업	한국수출입은행	3.0억원
코스타리카	(IDB 공동컨설팅) 중소기업혁신형 공공구매정책 수립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3.2억원
베트남	(WB 공동컨설팅) 직업교육 훈련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2.3억원
콜롬비아	(IDB 공동컨설팅)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3.4억원
우즈베키스탄	(EBRD 공동컨설팅) 정보통신분야 국유기업 상업화 정책 지식 이전	한국수출입은행	2.8억원

자료: KSP 홈페이지(<http://www.ksp.go.kr/index>)

58) 정혁(2015), 「KSP 체계 개선방안 연구」, 67쪽

## 나. KOICA 개발컨설팅 사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및 글로벌연수사업(CIAT: 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

### 1) 개발컨설팅 사업(DEEP), 글로벌연수사업(CIAT) 개요

#### ① DEEP 개요<sup>59)</sup>

##### ■ 소프트웨어 위주 기술협력 중심 사업으로 개발협력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 기여

- 현재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별협력사업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특정 개발목표 달성을 목표로한 프로젝트형 사업과 개발컨설팅 사업(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이하 DEEP)을 포괄하는 다년도(2-5년) 사업으로 통칭하여 운영하고 있음
- DEEP 사업은 협력대상국의 역량개발을 통한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의 정책과 기술이전, 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및 발판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함
- 국별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협력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DEEP 사업은 컨설팅과 현장사업이 복합된 프로젝트의 형태로 운영됨
- 프로젝트형 사업은 주로 소프트웨어 및 제도구축 지원에 특화된 사업으로 통상 건축 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 중 컨설팅,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구성된 기술협력 중심의 사업임

#### ② CIAT 개요<sup>60)</sup>

##### ■ 우리나라의 축적 경험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경제사회발전 기여

- CIAT 사업은 우리나라의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개도국 인적자원개발(HRD), 조직역량 강화 및 제도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스스로 개발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배양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우호협력관계 증진

59) KOICA(2017), 「2017년 ODA 백서」 참조 및 재구성

60) KOICA(2018), 「글로벌연수(CIAT 프로그램) 길라잡이」 참조 및 재구성

- 1963년부터 시작된 대표적 기술협력 사업으로, 개도국 주요인사(정책입안자,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초청연수(또는 현지/제3국연수)를 실시 하였음
  - KOICA 설립 시기인 1991년부터 2017년 실적: 192국 4,512과정 74,645명

## ■ 사업유형별 추진 사항

- 사업 유형은 참가 개발협력국 수에 따른 국별연수, 다국가연수, 학위수여 여부, 사업 발굴 경로에 따른 연수, 연수장소, 사업기간, 운영방식에 따라 분류함
  - 개별 연수사업(Program)은 복수의 연수과정(Course)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연수과정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되 기타 보조적 수단의 활동 포함 가능
- 다국가연수 사업의 경우, ① 원조사업 분절화 방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제안사업, ②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 등 파트너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 인지도, 지역·분야별 전문성, 분담사항을 고려하여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 파트너십 구축하는 공동연수, ③ 국제원조동향, 정부 정책과제, KOICA 전략 프로그램 등 추진을 위한 자체 연수사업 기획 추진 제도화하는 자체발굴연수로 분류됨

〈표 4-10〉 CIAT 사업 분류

분류 기준	사업명		내용
참가국	국별연수	country-specific program	1개 특정 개발협력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기술 역량 강화 연수
	다국가 연수	multi-country program	2개 이상의 개발협력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기술 역량 강화 연수
학위 수여	석사학위 연수	scholarship program	다수의 개발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수생의 석사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연수
	일반연수	non-degree program	석사학위연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국별/다국가연수를 통칭하는 표현
사업 발굴 경로	개발협력국 요청연수	country-requested program	개발협력국의 공식 요청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연수
	정부부처 제안연수	ministry-proposed program	국내 정부부처(지자체포함)의 공식 사업제안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연수
	공동연수	joint program	협력기관의 제안 또는 상호 협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연수
	자체기획 연수	KOICA-initiated program	KOICA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연수

분류 기준	사업명		내용
연수 장소	초청연수	invitational training/ training in Korea	한국에 연수생을 초청하는 실시하는 연수
	현지연수	local training/training in partner country	개발협력국에서 실시하는 연수
	제3국 연수	training in a third-country	한국 및 개발협력국이 아닌 제3국에서 실시하는 연수
	교차연수	cross-country training	초청/현지/제3국 연수 중 2개 이상을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실시하는 연수
사업 기간 분류	단년사업	one-year Program	1년 이내 종료되는 사업
	다년사업	multi-year Program	1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
운영 방식	위탁연수	commissioned program/ entrusted program	KOICA가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연수
	자체연수	KOICA-implemented program	KOICA가 주관하여 직접 운영하는 연수

자료: KOICA(2018), 「글로벌연수(CIAT 프로그램) 길라잡이」, 8쪽 참조 및 재구성

## 2) DEEP, CIAT 사업현황

### ① DEEP, CIAT 사업 규모(지원액)

#### ■ DEEP 사업 지원액 감소추세 및 CIAT 지원액 유지

- DEEP 사업의 경우 2015년 561.86억 원으로 KOICA ODA 지원액 가운데 6.7%에 해당하였으나, 2020년 기준 337.6억 원(2.8%)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CIAT의 경우 다소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기존 지원액을 유지하며, 2020년 기준 연수사업 390.3억원(3.3%), 장학지원 사업은 153.8억원(1.3%)에 해당함

〈표 4-11〉 KOICA DEEP 및 CIAT 사업 지원액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DEEP		561.86	482.67	519.0	440.5	351.8	337.6
		6.7	5.6	5.6	4.3	3.5	2.8
CIAT	연수사업	354.75	331.03	324.2	260.6	260.8	390.3
		4.3	3.9	3.5	2.5	2.6	3.3
	장학지원	159.44	183.16	182.7	174.4	173.9	153.8
		1.9	2.1	2.0	1.7	1.7	1.3

자료: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② 지역별 사업현황

### ■ 아시아지역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협력국과 사업 진행

- 2018년 기준, DEEP, CIAT사업 모두 아시아지역에서 지원액, 전체건수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베트남, 미얀마에서 높은 지원액 규모를 보임
  - 미얀마의 경우, DEEP 사업은 9.4억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이 8.3억 원으로 그 뒤를 따름
  - CIAT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1.7억 원으로 가장 높은 지원액을, 미얀마에서 62건으로 높은 사업건수를 보임

〈표 4-12〉 KOICA DEEP 및 CIAT 지역별 사업 지원액(2018년)

(단위: 억원, 건)

지역	DEEP			CIAT		
	지원액	전체건수	신규건수	지원액	전체건수	신규건수
아시아	277.47	25	4	167.85	608	107
아프리카	59.19	10	0	146.00	520	122
중남미	75.69	10	1	50.58	158	62
중동	0.00	0	0	22.01	50	19
동구 및 CIS	15.70	2	0	28.52	120	32
오세아니아	0.00	0	0	9.57	45	16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http://stat.koica.go.kr/ipm/os/acms/areaEacoEacoBsnsList.do?lang=ko>)(검색일: 2020.06.22)

## ③ 분야별 사업현황

### ■ 보건, 교육,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등 주요 협력분야 중심 사업 진행

- DEEP, CIAT 모두 한국 주요 협력분야인 보건, 교육,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농림수산 등의 분야에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기술환경에너지의 경우 DEEP, CIAT 모두 타 분야에 비해 높은 지원액을 보이며, 그 뒤를 공공행정 분야가 따름
- 개발협력국 요청, 정부부처 제안 등으로 사업발굴이 됨에 따라 개발협력국의 수요와 우리 정부부처의 제안 사항을 기반으로 분야별 사업비중이 할당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3〉 KOICA DEEP 및 CIAT 분야별 지원액

(단위: 억원, %)

구분	20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DEEP	CIAT	DEEP	CIAT	DEEP	CIAT	DEEP	CIAT	DEEP	CIAT
합계	427.10	552.14	537.84	591.14	707.10	476.60	479.57	523.08	428.05	470.49
	(7.36)	(9.51)	(8.44)	(9.28)	(11.04)	(7.44)	(7.54)	(8.23)	(6.26)	(6.88)
보건의료	14.72	38.11	10.93	39.63	26.63	33.56	7.32	37.46	6.46	27.81
교육	8.58	62.31	22.52	38.53	43.11	32.40	58.60	40.28	65.34	43.44
공공행정	116.72	249.28	126.54	278.02	175.44	213.82	113.87	188.13	95.95	164.48
기술환경 에너지	237.01	97.78	329.37	124.60	330.43	102.80	269.90	122.42	194.31	110.19
농림수산	50.06	86.82	48.48	95.87	131.50	72.22	29.89	82.32	66.00	70.36
긴급구호	0.00	17.84	0.00	14.48	0.00	10.72	0.00	10.84	0.00	8.25
기타	0.00	0.00	0.00	0.00	0.00	11.10	0.00	41.64	0.00	45.96

자료: KOICA 통계조회서비스(<http://stat.koica.go.kr/ipm/os/acms/areaEacoEacoBsnsList.do?lang=ko>), (검색일: 2020.06.22)

### 3) 사업 특징

#### ■ DEEP 프로젝트 사업 기반 역량강화

- DEEP 사업은 프로젝트 사업 기반으로,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워크숍 등을 세부사항으로 수행하고 있음
  - (예시) ‘키르기즈공화국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역량개발 사업(‘20~‘24/500만불)’의 경우, 컨설팅, 시스템 구축 전문가 파견, 실무자초청연수, 구축단계 시스템 운영자 초청연수, 개발자 초청 시스템공동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추가적으로 시스템 기자재, 정보화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CIAT 분야별 모듈 및 교과목 구성, 다양한 영역 초청연수 실시

- 사업분야에 따라 세부주제에서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하여 정책, 역량강화, 국별보고 및 액션플랜 등으로 구성됨
- 강의와 현장견학이 주를 이루며, 한국의 정책 현황, 문화탐방 및 문화교류 등이 대다수 수업에서 진행되고 있음

〈표 4-14〉 CIAT 모듈 및 교과목 구성(예시)

모듈	강의	현장견학
Module I 젠더와 지속가능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더와 개발</li> <li>○ SDGs와 젠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화여자대학교</li> </ul>
Module II 한국의 양성평등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성주류화정책</li> <li>  : 성별영향평가</li> <li>  : 성인지예산</li> <li>  : 성별분리통계</li> <li>○ 한국의 젠더거버넌스와 여성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성정책연구원</li> <li>○ 한국양성평등진흥원</li> </ul>
Module III 한국의 여성인권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여성인권운동과 성평등</li> <li>○ 한국의 젠더기반폭력 대응 정책</li> <li>○ 한국의 성평등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여성사전시관</li> <li>○ 나눔의 집</li> <li>○ 한국성폭력상담소</li> <li>○ 강원 해바라기 센터</li> </ul>
Module IV 여성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여성 직업교육훈련(TVET)</li> <li>○ 한국의 여성 일자리지원 정책</li> <li>○ 한국의 여성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li> <li>○ 한국의 여성인재 지원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li> <li>○ 서울시여성가족재단</li> <li>○ 서울혁신파크: 직장맘 지원센터</li> </ul>
Module V 국별보고 및 액션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별보고</li> <li>· 개도국 여성이 직면한 여성 역량강화 정책 이슈 분석</li> <li>·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프로젝트 공유</li> <li>○ Action Plan</li> <li>· Action Plan 1차 미팅: Action Plan 가이드라인 제시 및 방법론 이해</li> <li>· Action Plan 2차 미팅: 문제의 구체화,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 확립</li> <li>· 특강: 사업 수립과 성과평가 - PCM과 PDM</li> <li>· Action Plan 3차 미팅: 성인지적 정책 제안서 작성 관련 워크숍</li> <li>· Action Plan 4차 미팅: 액션플랜 결과 발표</li> <li>○ Ewha-KOICA 석사과정 연수생들과의 만남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li> </ul>	

자료: KOICA 홈페이지([http://koica.go.kr/sites/koica\\_kr/index.do](http://koica.go.kr/sites/koica_kr/index.do)) (검색일: 2020.06.25)

## 2 국외 정책컨설팅 사업 사례

### 가. OECD Knowledge Sharing Alliance: KSA<sup>61)</sup>

#### 1) KSA 개요

##### ■ 지속적인 개발과 지식공유의 중요성 강조의 실현

- OECD는 2013년 1월 지식공유연합(Knowledge Sharing Alliance: KSA)를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OECD 국가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였음

#### 2) KSA 목적

##### ■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 개도국, 국제 및 지역기구, OECD 회원국 상호 이익 제공

- OECD는 선진국-개도국간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지식공유분야 선도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식을 공동생산하고, 경제개발경험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의 KDI와 유사한 독일의 독일 국제협력공사(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이하 GIZ) 및 독일개발연구원(German Development Institute, 이하 GDI)는 OECD 차원의 국가 간 지식공유사업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지식고유 선도국인 한국, 독일이 창설 멤버로 참여 중이고, 일본이 옵저버로 참여 중이고, 프랑스, 터키, 멕시코, 호주 등이 관심을 보이면서 참여 협의 중
- KSA의 체계 - OECD 지식공유연합은 한국 및 독일 등 지식공유 선도국과 개도국 등 협력 국가간의 파트너십 결성을 통해 경험 및 현물 등을 제공하는 협력 사업을 추진 - OECD는 동료평가(peer reviews)나 정책대화(policy dialogues) 및 정책 기준(policy standards) 설정 등의 형식으로 KSA 파트너십 국가 간의 활동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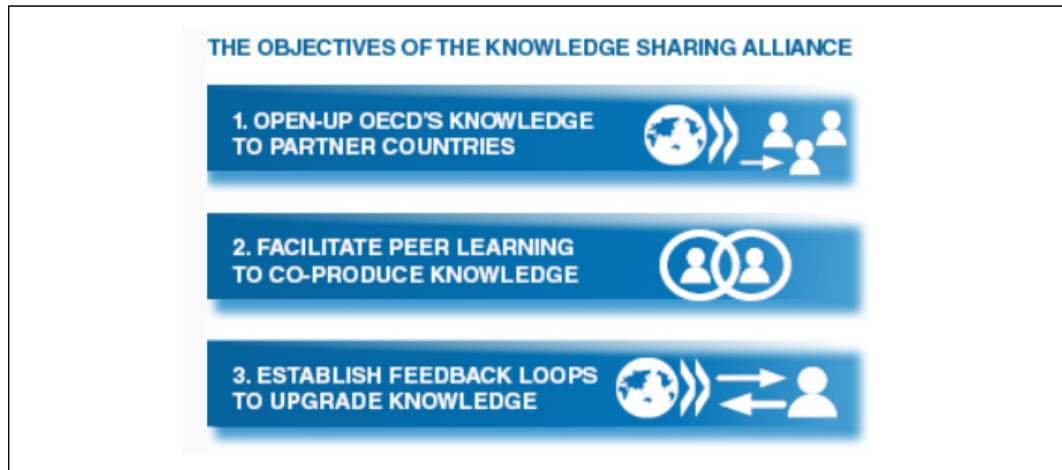
##### ■ 지식공유에서의 상호작용 및 파트너십 강조

- OECD에서는 국가, 조직 등에서 생산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여 공동으로 학습하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61) OECD(2014), Knowledge Sharing Alliance Facilitating Dialogue for Universal Development 참조 및 재구성

- 이에 따라 지식공유에는 ①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새로운 콘텐츠 ② 정책대화, 장기적 지식의 제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프로세스, ③ 새로운 협력, 신뢰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식 파트너가 포함되어야 함
- 지식공유는 동료 평가(Peer Review), 동료 학습(Peer Learning), 학습 고리(Learnign Loops)을 통해 이루어짐

[그림 4-4] 지식공유 목적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www.oecd.org/knowledge-sharing-alliance/knowledgesharingallianceobjectives.htm>)  
(검색일: 2020.06.28)

### 3) KSA 주요 사업

#### ■ 주요 시범 사업

- OECD 주요 시범 사업은, OECD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 포용적 성장, 글로벌 물 안전, 아시아 도시 녹색 성장 지식 공유, 공공분야 거버넌스, 글로벌 가치 사슬 천연자원, 투자 정책 프레임, 유라시아 경쟁력, 국가 간 이윤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등이 있음

[그림 4-5] OECD 주요 시범 사업 섹터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www.oecd.org/knowledge-sharing-alliance/knowledgesharingallianceobjectives.htm>) (검색일: 2020.06.28)

## ■ 글로벌 지식 허브(Knowledge Hub) 확산 및 국가 간 협력 증대 모색

- 공공부문, 녹색성장, 도시개발, 세금·재정 등 다양한 분야 글로벌 지식 공유 구축 워크숍 다수 진행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함
- ‘지식 허브(Knowledge Hub)’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지식에 관한 최근의 급격한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발전 경험 및 모형에 대한 지식공유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개발협력 및 국제사회 공헌의 새로운 형태로 급부상 하였음
- 지식공유에 대한 다각적 모색을 통해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지식공유 허브 확산에 기여

## ■ 지식공유 기반 국제협력 강화 방안 통합적 조율<sup>62)</sup>

- 2014년 6월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주최한 「제 2차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지식공유 사업 운영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지식공유 허브 확산을 위한 전략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함
  - 2012년 발리의 ‘제1차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Bali High-Level Meeting on Knowledge Hub)’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논의하였음
- 지식허브 기관의 운영 경험 공유를 위해 약 60개국 400여 명의 국내외 고위급 정책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 국제사회 개발협력 발전을 위한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지식공유가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면서 세계은행과 각 지역 개발은행의 개발협력 기조 또한 지식공유로 옮겨 감에 따라 다양한 지식공유 플랫폼 확보가 증시되고 있음
- 효과적인 지식공유를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식공유 허브를 구축, 활용해야 하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강조됨

62) ODA KOREA 홈페이지([http://www.odakorea.go.kr/mz.bltn.NoticSl.do?brd\\_seq=1&bltn\\_seq=386&print\\_no=328](http://www.odakorea.go.kr/mz.bltn.NoticSl.do?brd_seq=1&bltn_seq=386&print_no=328)) 참조

〈표 4-15〉 KSA 주요 사업 및 현황

연도	사업 및 현황
2014. 2.	인도네시아 공공 문 혁신에 관한 국제 지식 공유 제휴 구축 KSA-GOV 워크숍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다이나믹 아시아 도시 녹색 성장에 관한 KSA-GOV 워크숍
2014. 3.	KSA-CleanGovBiz 워크숍
	‘동남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화 촉진’ 및 인도네시아 발리의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와 우선 순위’에 관한 OECD 동남아시아 지역 포럼 전문가 세미나
2014. 6.	유럽위원회에 대한 OECD의 지식 공유 접근법 발표
	서울 세계 은행 –MOSF 제2차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 ※ 2012년 발리의 ‘제1차 지식공유 허브 구축을 위한 고위급 회의(Bali High-Level Meeting on Knowledge Hub)’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논의
2015. 2.	OECD 국가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지식 공유 및 상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인도 NAEC 정책 대화
2015. 3.	유라시아 경쟁력 프로그램 타지키스탄 국가 별 워크숍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정부에 관한 동남아시아 네트워크
2015. 6.	동남아시아 지역 포용 적 성장에 대한 지역 협의
	아시아 도시 녹색 성장에 관한 제 4 차 OECD 지식 공유 워크숍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www.oecd.org/knowledge-sharing-alliance/eventsoftheknowledgesharingalliance.htm>)

## 나. 세계은행 Advisory Services and Analytics: ASA<sup>63)</sup>

### 1) ASA 개요

#### ■ 개발협력국의 개발환경과 발전제약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

- 1996년 세계은행은 지식은행을 표방하며 크게 세 가지 기능과 역할을 제시
- 개발협력국의 개발환경과 발전제약을 다각적·심층적으로 분석하며, ASA의 결과물은 세계은행 내·외부 관계자와 개발협력국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제언을 제공함
- ASA는 기존의 ESW(Economic and Sector Work)와 비차관 기술원조(Non-lending TA) 등의 사업들을 통합한 사업 분류이며, ESW의 목적은 차관(loan) 및 개발협력국 정부의 정책 등을 회원국과 투자자에게 알리고, 협력대상국의 자체 개발 역량을 보완함
- 비 차관 기술원조는 협력대상국이 정책개혁 또는 제도 강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 개최, 자문 및 기타 활동, 보고서 및 간행물 등 광범위한 지식 작업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함

63) 한국개발연구원(2015), 「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 9~34쪽 참조 및 재구성

- ASA 결과물은 분석 보고서, 실무 자문 및 지식 공유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되며, 민간 부문 개발과 관련하여 IFC, MIGA와 공동으로 진행 가능함
- 우선순위 연구 영역은 서비스제공, 위험관리, 일자리 창출, 경쟁력 제고, 공동번영 및 포용, 글로벌 공공재 등에 해당함

## 2) ASA 사업 종류 및 주요내용

### ■ 선진 개발협력기구에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 제고

- ASA는 지식공유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예로 영국의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는 지식공유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으며,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도 새로운 지식관리 네트워크를 개발하였음
- 또한 옥스팜(Oxfam)이나 티어 펀드와 같은 비정부기구들도 지식기반의 원조에 참여 함
- 영국 DFID는 웹기반의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수행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세계적 연구기관, 학술 기관, 싱크탱크 등이 참여하는 개발분야 민간 파트너십인 글로벌 개발 네트워크(Global Development Network)에 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참여

### ■ ASA 사업 종류

- 자문서비스는 국별로 심도 있는 경제사회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공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발협력국 정부의 역량 강화 제고를 목표로 함
- ASA 사업 종류는 경제사회 연구(Economic and Sector Work: ESW), 컨퍼런스, 자문 등 비 차관 기술원조, 정책 보고서,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WDR), 영향평가 연구, 공여국 협력방안연구 등의 일반 연구 및 출판(Research & Publication), 역량강화훈련 등이 있음

### ■ 주요 개발에 대한 주력 연구 출판 사항

- 세계은행은 주요 개발 주제에 중점을 두고 주요 출판물을 제작하여 공개하고 있음
  - 빈곤과 번영 공유 2016:불평등 극복, 세계개발 보고서 2017: 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경제 번영 등의 보고서가 출판됨

- 출판 및 연구 외에도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및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제공함

#### ■ 아이디어 생성 및 지식 격차 해소 Knowledge for Change Program (KCP)

- 세계은행의 지식공유 사업은 신탁기금에 의해 지원되며, 그 한 예로 Knowledge for Change Program(KCP)가 있음
- KCP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범적으로 개발하여 지식 격차를 메우기 위해 2002년 설립된 프로그램으로, 연구 및 데이터 분야에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였음

[그림 4-6] 세계은행 ASA 사업 개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5), 「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 28쪽

## 다. 독일 German Development Institute: GDI<sup>64)</sup>

### 1) GDI 개요

#### ■ 지속적 대화를 통한 상호교류 증대

- 독일의 GDI는 독일의 개발협력 관련 연구 기관으로, 주로 연구과제 수행, 정책제언, 개발협력 전문가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고 있음
- GDI 주요 사업 수행은 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현황 분석, 실증분석, 정책제언을 통해 연구보고서를 도출함

64) 한국개발연구원(2015), 「주요 국제개발협력기관 지식공유사업 현황 연구」, 75~92쪽 참조 및 재구성

〈표 4-16〉 GDI 주요 사업 수행

구분	내용
개발 및 지역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제 간의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지향하며 국제적 연구기관과 협력하는 연구, 현장경험을 통한 연구 진행</li> <li>• 주요 연구 지역은 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에 해당함</li> <li>• 현지 현황 분석, 기존 국가 사례 분석, 실증분석, 정책제언을 통한 연구보고서 도출 및 설문 조사를 통한 데이터 분석</li> </ul>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 작성 및 정책제언 시 간결한 'Brief Paper'제공</li> </ul>
역량강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 졸업생을 위한 학사 후기 훈련 프로그램(Post Graduate Program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GC)</li> <li>•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글로벌 거버넌스 스쿨(Global Governance School: GGS)</li> <li>• 석사급 개도국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거버넌스 관리 프로그램(Managing Global Governance: MGG)</li> </ul>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5), 「주요 국제개발협력기관 지식공유사업 현황 연구」, 81~88쪽 참조 및 재구성

- 정책제언의 경우,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제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서로 도출하며, 개발협력국에 보고서 전달 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기존 자문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함
  -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상호작용 과정(interactive process)을 거치며 그 효과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의미가 있음
-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학부 졸업생을 위한 프로그램(PGC),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GGS), 석사급 개도국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MGG) 3가지로 구분됨

## 2) GDI 역량강화 프로그램 주요 사항

### ① 학사 후기 훈련 프로그램(Post Graduate Program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GC)

#### ■ 독일 및 유럽 학생 중심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학사 후기 훈련 프로그램(Post Graduate Program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PGC)은 매년 9개월 동안 독일 및 유럽 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 실무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임
-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글로벌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주로 개도국 또는 체제전환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참여 학생들은 GDI 연구원과 팀을 구성하여 지역 연구를 위해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학제간 스터디를 통해 연구를 실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
- GDI는 경력 카운슬링 및 구직활동에 지원하며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취업하는데 도움을 줌

## ② 글로벌 거버넌스 관리 프로그램(Managing Global Governance: MGG)

- 글로벌 거버넌스 관리 프로그램(Managing Global Governance, 이하 MGG)은 학술적으로 진행되는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글로벌 거버넌스 스쿨(Global Governance School, 이하 GGS)와 외무부에서 주최하는 단기 세미나인 국제사회의 미래(International Futures)로 구성됨
- 주로 개도국가운데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남아공의 인재를 선발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기후변화, 안보와 개발, 인권 등의 분야의 교육을 실시함
- 또한 졸업생 네트워크인 'MGG Knowledge and Research Cooperation'을 런칭하고 공동연구, 주제별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를 유지함

〈표 4-17〉 GGS 사이클 세부사항

구분	내용
사업준비 단계 (preparation ph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global campus 21</li> <li>• 훈련 전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프로젝트 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및 기관 선정 등의 소개 단계</li> </ul>
사업시행 단계 (full-time training in German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거버넌스 스쿨(G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관련 수업 진행 및 제네바 또는 브뤼셀 학술연수, 전체 세션 또는 그룹 세션으로 나누어짐(그룹 세션은 구체적인 분야에 관해 진행)</li> </ul> </li> <li>• 국제 미래(International Fu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를린에 있는 외무부가 주최하는 2주 세미나로 자국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인적 교류 실시</li> </ul> </li> <li>• 전문가 랩(expert 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단계로 GDI의 협력기관 또는 새로운 기관에서 약 9주 동안 Change project를 할 수 있다. 참여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기관 선정</li> </ul> </li> <li>• 마무리 단계(closing weeks): 프로젝트 스터디 결과 공유 및 최종평가</li> </ul>
후속조치 단계 (follow-up ph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6개월 동안 MGG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을 자국에 전달</li> </ul>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5), 「주요 국제개발협력기관 지식공유사업 현황 연구」, 86쪽 참조

### 1 문화 기반 정책자문 사업 개요

#### 가.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의 이론적 배경

##### ■ 지속적 성장에서 기술·지식의 중요성

- 지식이 국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리는 과거 경제이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술진보에 대한 중요 인식도 제시되어 왔음
- Slow(1956)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천을 기술진보, 혁신과 같은 생산성 향상이라 했으며, Lucas(1988)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지속적 성장의 원동력이라 설명하며 지식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내생적 성장이론을 공고화했음
- OECD(1996)에서는 지식을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동력으로 파악하며 경제적 성과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학습, 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음

##### ■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의 발전

-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는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하여 산업화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인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지식의 축적과 공유, 학습을 통한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은 중요한 고려 사항임<sup>65)</sup>
- 개발협력분야에서 지식의 축적과 공유, 상호학습을 통한 지식공유와 같은 다양한 활동이 개발협력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에 주목됨으로써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TC)이 등장함
- OECD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술협력을 국가의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제공하는 단독 기술협력(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과 특정 투자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 제공을 하는 투자 관련 기술협력(Investment 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IRTC)으로 구분함
- 세계은행에서는 기술협력을 경제성장, 개발을 위한 지식·기술의 이전으로 정의하여, 정책개발, 제도개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로 구분하였음<sup>66)</sup>

65) 한국개발연구원(2017), 「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 14~15쪽

66) 한국개발연구원(2017), 「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 16쪽

- 개발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에 따라 1990년 이후 단순 인프라 지원, 기술지원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이 강조되어, 공여기관의 지식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정책 제언 제공에 중점을 두었음
- 2000년대 이후 개발협력국의 역량개발 수반을 위한 지식 공유가 강조되었으며, 협력강화로 연계되어 개발협력의 범위가 확대됨
- 개발협력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공유는 개발경험, 혁신과정에 대한 소통을 넘어 상호교류와 지식공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표 4-18〉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의 개념적 발전

연도	기술 원조 및 기술 협력	개발 패러다임
1940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원조의 개념에 대한 미정립 단계</li> </ul>	
194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적 형태의TA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WII의 종료와 함께 냉전시기, 동맹국에 대한 기술전수 성격, 동맹국의 산업화 및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전수 의미</li> <li>– 저소득국은 산업국의 발전모델을 답습(follow)해야 한다는 방식의 접근</li> </ul> </li> </ul>	동맹국 지원을 위한 TA 표명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 수행 목적으로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기구, 양자기구들 TA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라 확장형 TA를 실시</li> </ul> </li> </ul>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TC) 개념이 등장(UNDP도 TC 개념을 공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대등하고 상호적인(More equal, interactive) 관계 강조 기술원조의 협력(Collaboration)적 성격을 강조</li> <li>– 1970~80년대, TA 개념에서 참여적 접근(Participatory Approaches)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li> </ul> </li> </ul>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와 현대화 추진 시대의 종료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TA/TC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협력국 수요에 기반한 TA를 강조하기 시작. 즉, 개발협력국이 보유한 지식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기 시작함</li> </ul> </li> </ul>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에 대한 문제인식 비정부기관(Non-State Actor)의 참여 또한 강조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도상국의 소유권(Ownership)을 강조하는 기술원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에 대한 이해와 참여와 함께 개발협력국의 입장에서 우선순위 선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공감</li> <li>– 개발협력국의 발전을 위해 자체 연구역량 증진 필요</li> <li>– 지식으로서의 TA/TC라는 개발담론이 등장</li> <li>– 세계은행에서 “개발을 위한 지식(Knowledge for Development)”</li> <li>– 지식기반의 원조(knowledge based aid)</li> <li>–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라는 용어와 개념이 등장 (UNDP, 2004; GTZ, 2006)</li> <li>※ 생산적인 지식활용을 위한 혁신제도 개념이 지식원조에 적용되어, 개발협력국의 각기 상이한 환경 속에서 지식‘전수’가 아닌 지식 활용과 새로운 지식/기술‘생성’이라는 측면이 강조</li> </ul> </li> </ul>	지식공유개념의 출현 TA/TC를 확장하여 지식공유를 지식창출의 혁신제도(Innovation Systems)로 인식 개발경험/혁신과정에 대한 소통을 넘어선 상호교류와 학습의 과정을 강조

연도	기술 원조 및 기술 협력	개발 패러다임
2010 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부산원조 총회: SDGs 체제하 파트너십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기구의 혁신적 지식공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식전달의 체계성 강조한 세계은행의 글로벌전달 이니셔티브 (Global Delivery Initiative)</li> <li>2) 산관학연의 다양한 구성원 참여강조(OECD)</li> </ol> </li> <li>- KSP 2.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맥락적 혁신(contextual innovation) 차원의 지식 창출 → 공유가치의 극대화</li> <li>2) 개발협력국 발전역량/개발환경/참여를 강조한 지식공동체적 협력</li> </ol> </li> </ul> </li> </ul>	지식공유파트너십 SDG체제하 지속가능개발협력 (민간의 참여)을 통한 전략적 개발 시스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7), 「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 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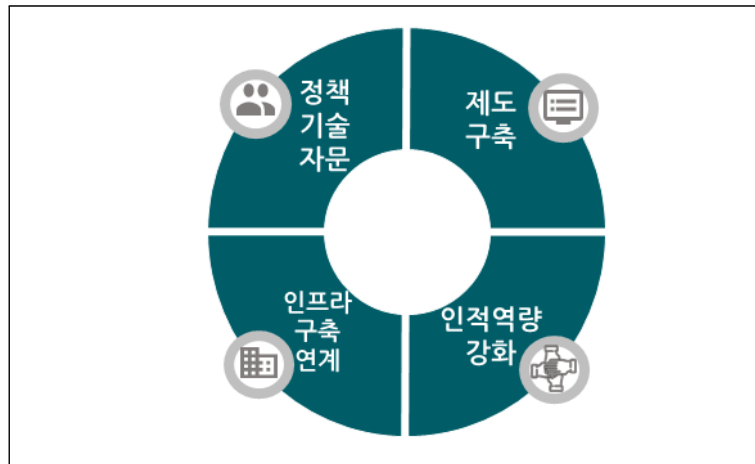
## 나. 문화ODA 정책 컨설팅 사업(안) 개요

### ■ 개발도상국 문화 기반 자립적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사업

-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지식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도국 문화를 기반으로 자립적 지속 성장을 위해 개발 협력국 발전역량, 개발환경, 참여를 강조하는 지식공동체적 정책컨설팅 사업 구상
- 해당 사업의 국문명은 ‘개발도상국의 문화 기반 자립적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사업(Korean Partnership Program for Self-Sustaining Development based on Culture, 이하 KPSC)’으로 ODA 사업 유형 가운데,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TC) 분야에 해당함
- 기술협력(TC)이 단독 기술협력(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과 투자관련 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IRTC)으로 구분됨에 따라, 문화ODA 정책컨설팅 사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적절히 혼합하여, 개발협력국의 지식창출 및 개발협력국 자본축적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함
- 특히, 문화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이 개발협력국의 경제개발마스터플랜, 국가계획, 개발정책 등 개도국의 국가발전전략 가운데 문화 다양성, 문화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강화, 관광업 활성화 전략 등 포함·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문화분야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발굴을 추진함
  - 현지수요에 기반한 문화 인프라·문화플랫폼 지원사업, 예술분야 사업, 문화콘텐츠, 스포츠, 관광분야 사업 발굴 가능

- 세부 유형은 정책기술자문, 제도 구축, 인프라 구축 연계, 인적역량 강화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발협력국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정책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구상함

[그림 4-기] 사업 유형



- 사업기간은 사업 유형 및 개발협력국 수요에 따라 다년사업 및 다년사업을 진행 가능하며 다년간 사업을 지향, 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계 사업을 발굴을 목표로 함

〈표 4-19〉 KPSC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국문: 개발도상국의 문화 기반 자립적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사업		
		영문: Korean Partnership Program for Self-Sustaining Development based on Culture		
사업 유형	기본 유형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TC) 혼합 유형(FTC+HRTC) <sup>67)</sup>		
		기본형: 모듈형 맞춤 지원		
	구분	유형	상세유형	주요 산출물
	세부 유형	정책기술자문	- 정책자문 - 기술자문 - 특정전략수립	- 마스터플랜 - 보고서 - 계획문서 - 연구보고서
		제도구축	제도 이행 지원 제도·규제 정비	- 법, 규정 개발 - 제도 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연계	- 시설건립 및 리모델링 - 문화진흥기구 설립지원 -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자재 지원	- 마스터플랜 - 타당성조사 보고서 - 설계, 실시설계(구축된 인프라 시설)
		인적역량 강화	- 교육 - 워크숍 - 공동연구	- 연수 프로그램 - 교육매뉴얼 - 공동연구보고서 등
사업기간	단년사업: 1-2년 이내 종료 사업			
	다년사업: 2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			

## 다. KPSC 비전과 방향

### ■ 모듈형 문화ODA 연계 사업의 가능성

- KPSC 사업은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과 개발협력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 유형인 정책기술자문, 제도구축, 인프라 구축연계, 인적역량강화 유형을 모듈형으로 맞춤지원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ODA 사업으로 확장함

### ■ 문화ODA 분야 후속사업 연계

- KPSC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연계가능 한 후속사업을 제시,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며 문화 부분 개도국 자체 개발정책과 전략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사업을 발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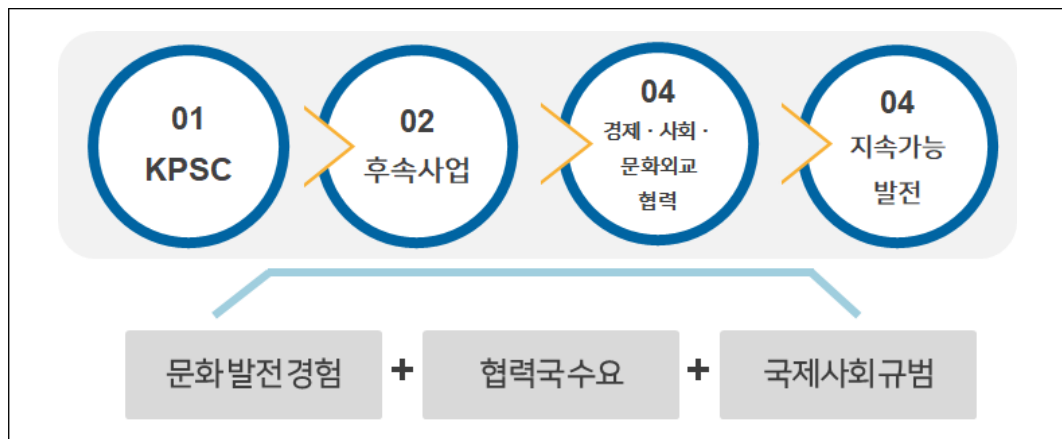
### ■ 한국-개발협력국 국제교류 및 경제·사회·문화 외교적 협력 증진

- 문화ODA기반으로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 외교 협력관계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함

### ■ 개발협력국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개발협력국의 문화 기반 경제, 사회,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모하여 국제사회 규범 이행

[그림 4-8] KPSC 비전



67) 단독 기술협력(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개발협력국의 지식, 기술, 기술 노하우, 인구의 생산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교사, 봉사단, 전문가 제공을 포함하는 인적기술협력 혹은 인적자원을 목표로 하여 교육, 연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며, 투자관련 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IRTC)는 개발협력국의 자본축적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컨설팅서비스, 기술지원, 투자 프로젝트 수행관련 조사를 포함하며 실제 프로젝트 도입에 공여국의 전문가(관리자, 기술자 등) 지원을 기술자문서비스를 포함

## 2 KPSC 사업유형

### 가. 정책기술자문

#### ■ 한국 문화발전 경험 기반 개발협력국 맞춤형 문화정책기술 자문 실행

- 문화기반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로드맵을 수립함
- 개발협력국의 문화기반 경제·사회 진단(diagnostic), 분석(analytics), 자문(advisory) 등의 지식제공서비스를 통해 특정전략을 수립하고, 문화기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함

#### ■ 현지조사 및 공동연구, 정책 자문관 파견으로 맞춤형 문화정책 제시

- 한국의 문화산업육성, 발전경험을 기반으로 개발협력국 상황에 맞는 문화정책 자문을 통하여 개발협력국 스스로 역량 개발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최종결과물은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개발협력국 정부에 전달하며,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과 연계 공동연구를 모색함

#### ■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 발굴 및 문화콘텐츠 브랜드화 방안 등 현실 가능한 기술자문 실행

-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인 포괄적 문화ODA의 범주 내에서 개도국의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 발굴 지원
- 문화성장의 근간이 되는 문화정책 수립 및 대중문화에 대한 수요와 문화콘텐츠를 국가 브랜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장·지원
- 문화 산업분야에서 개발협력국의 자체적 기관 구축, 정책 컨설팅 수요 등 확대되기를 희망함에 따라 수요를 반영한 사업 운영이 가능함

### 나. 제도구축사업

#### ■ 경제발전·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문화산업정책 제도 구축

- 우리 문화산업 발전경험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산업관련 법제 구축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법·제도 구축을 통해 안전망 및 문화 진흥에 기여

#### ■ 제도적 지원체계 강화

- 제도 구축뿐만 아니라, 조직 컨설팅, 협력체계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수립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반 사업을 실시함
- 제도 구축 사업 연계로, 인프라 구축 및 인적역량 강화 연수가 수행될 수 있음
- 개발협력국에 적합한 제도가 원활하게 자국에 이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 다. 인프라 구축 연계

#### ■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 복합문화시설을 통해 인프라, 시설, 기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유기적으로 운영, 경쟁력 있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인프라 구축 실행
- 주요 산출물은 마스터플랜 고도화 및 현지화, 타당성조사 보고서, 실시 설계 등의 산출물을 통해 인프라 효율적 운영 및 양성된 인력의 성공적 투입을 통한 성과 제시

#### ■ 문화진흥기구 설립 지원

- 한국 문화발전에 기여한 문화진흥 관련기관 및 기구 설치와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 정책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
- 문화발전을 위해 시설 인프라 이외에도 정책생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이에 따라, 문화관련 연구기관, 정책시행기관, 관련 산업 진흥 기구 등의 설립과 운영 노하우 필요
-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수준유지 등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설립하여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 생산과 발전을 도모함

## 라. 인적역량 강화 연수

### ■ 문화·예술·문화산업분야 전문가의 수요를 반영한 인적역량 강화 연수

- 개발협력국 정책관계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책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의 기획·수립·집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제공
- 인적역량 강화 연수의 경우, 초청연수, 워크숍, 공동연구 등을 통해 공동연구보고서, 국별 액션플랜 등의 결과물을 도출함
- 개발협력국의 정책 현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적 지식 공유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함

### ■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 진행

- 개발협력국에 지원되는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 성격의 사업과 연계하여 인적역량 강화연수를 진행함
- 교육과정개발, 교원역량 강화,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문화유산 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추진 역량강화 추진
- 국제수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량 및 기술향상, 지속가능한 지식활용

### ■ 지식공유에 따른 개발협력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 문화분야 인력양성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공여국-개발협력국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용이하고, 국가간 신뢰도 형성에 긍정적 효과
- 연수인력과의 파트너십을 지속하면서 개발협력국의 다년간의 문화ODA 사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용이

### 3 KPSC 모듈형 문화ODA 사업 프로세스

#### 가. 주요 추진절차 개요

##### ■ 사업 착수 전 추진 사항

- 개발협력국의 사업 요청서 접수 또는 국내 정부부처(지자체포함)의 공식 사업제안을 반영한 사업 요청서 접수 후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 사전 타당성 조사 심사 후 연간계획을 포함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의에 포함하며, 실시가 협의 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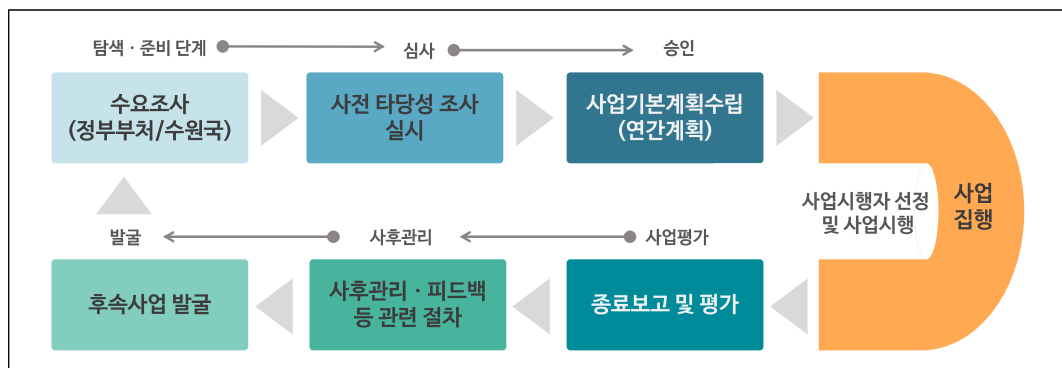
##### ■ 사업 집행 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 집행 및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등 모니터링, 중간평가 실시

##### ■ 사업 집행 후 사항

- 사업 모니터링 및 종료보고, 평가 진행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사후관리 진행
-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관련절차 진행 및 연수생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 사후평가 실시
- 후속연계사업 발굴 및 만족도 평가, 파트너십 강화, 개발협력국 수요 요청 확인 및 검토

[그림 4-9] KPSC 사업 프로세스



## 나. 세부 추진절차

〈표 4-20〉 KPSC 모듈형 문화ODA 사업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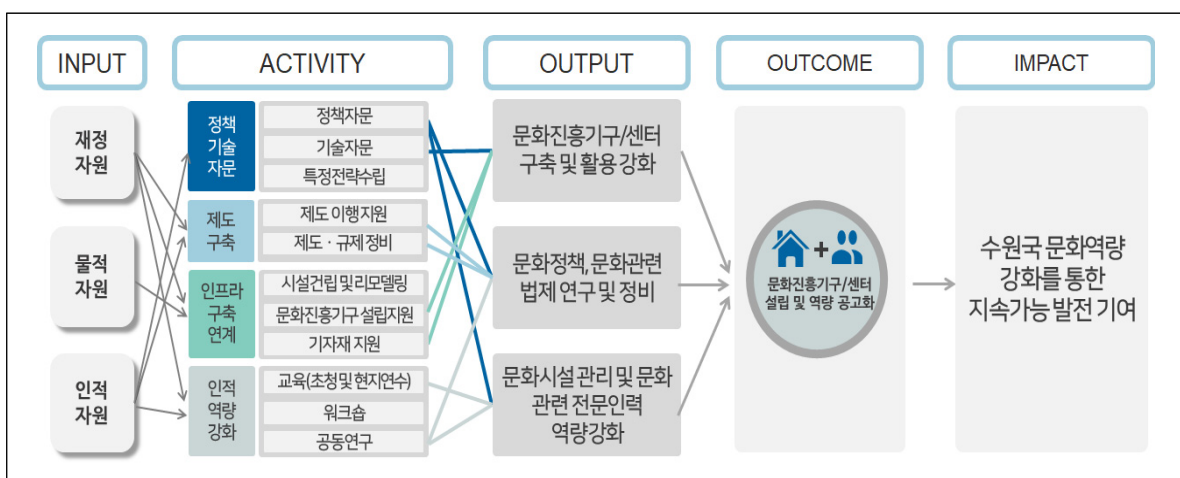
사업 단계		주요 내용
사업 착수 전 (N-2년)	탐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협력국 수요조사 및 정부부처, 사업계획 기반 사업발굴, 형성</li> <li>해당연도 지원 후보 사업 논의</li> <li>개발협력국 한국 대사관 협의</li> </ul>
	설계 및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당성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사업 추진방안 및 현지 사업추진 여건 조사(개발협력국 정부의 정책기조, 수혜대상, 이해관계자 등 분석)</li> <li>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목적, 성과목표, 사업개요, 사업 수행 요소(역할분담, 예산, 성과지표 등) 구체화)</li> <li>종합결론 도출(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li> </ul> </li> </ul>
사업 착수 전 (N-1년)	사업추진 계획 수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 추진계획(시행계획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구성요소, 추진방안, 예산 및 일정계획, 정합성, 위험관리 등</li> <li>인적역량 강화 연수의 경우 연수과정, 대상, 인원, 시기, 연수내용 등 상세내용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li> <li>인프라 건설의 경우 타당성 조사, 건설 기간, 수혜 대상 등 상세내용 포함</li> <li>정책자문의 경우 파견 전문가 구성, 기간, 예산 등 수립</li> </ul> </li> <li>KPSC 사업 추진 예산 확보(한국 측)</li> </ul>
사업 계획 (N년)	정부간 협의 및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li> <li>용역계약 선정 및 준비 착수</li> <li>자문위원 선정 및 정책자문팀 구성</li> <li>현지 전문가 추천 및 한국측 전문가 간담회 실시</li> <li>사업추진 관련 양국 정부 간 사전 협의 진행</li> <li>수행에 관한 MOU 체결</li> </ul>
사업 집행 (N년~)	사업 수행 단계	<div>정책자문</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정책자문 프로그램 계획 (기간, 연구 방향 및 범위, 실무 연수 계획 등)</li> <li>정책자문단 파견 및 정책우선순위 파악, 전문가 면담 수행</li> <li>착수보고회 실시 및 사업계획서 수정·보완</li> <li>연구내용 논의 및 전문가 면담 반영 한 중간보고서 작성</li> <li>개발협력국 정책실무자 연수 실시</li> <li>연구 계획, 중간보고서, 정책실무자 연수 사항 반영한 최종보고서 작성</li> <li>최종 연구결과 발표 및 수정·보완</li> <li>최종보고서 완성 및 정책 반영을 위한 제언 보고</li> </ul>
	정책 기술 자문	

사업 단계				주요 내용
			초청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청연수 프로그램 계획 조정 (과정, 연수시기, 기간, 인원 등)</li> <li>연수생 선정 및 초청(과정개요 안내, 입·출국 지원 안내)</li> <li>연수과정 기획 및 실시계획 검토</li> <li>오리엔테이션, 입교식, 평가, 수료식 실시</li> <li>과정 모니터링 및 연수생 관리</li> <li>연수과정 종료평가</li> </ul>
		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 관련 정책 현황 조사, 기관면담, 현장방문 수행</li> <li>사업현지 사무소, 사업 대상 지역 확인 및 1차 정책 방향 제시</li> <li>법제 관련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담</li> <li>이행 지원에 필요한 현지 자원 활용 및 전략 개발을 위한 사업 수행</li> <li>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 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 이행</li> </ul>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기획조사(예산 및 사업규모 적정성, 성과지표, 인프라 수행기관 설계 및 시공 감리 완료)</li> <li>건축 공사 실시 및 점검협의 진행</li> <li>기자재 납품업체 일정 확인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li> <li>시공업체 계획서, 일정 보고 및 사업 수행자 주간/월간/분기/연간 보고 및 관리</li> </ul>
		인적 역량 강화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연구 및 워크숍 사전조사 및 기수집된 정보 토대로 중간보고서 작성</li> <li>공동연구진 관련 주제 관련 구체적 지식(경험)공유 및 중간보고회 개최</li> <li>중간보고서 결과 및 중간 평가 실시</li> <li>사업 중간 모니터링 실시</li> <li>사전조사, 기수집된 정보, 중간보고회 사항을 반영한 최종보고서 작성</li> <li>공동연구진, 기관 등 초청 워크숍 진행하여 사업결과 공유 및 전파</li> </ul>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진 수행 자료 구성</li> <li>사업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실시</li> </ul>
사업 집행 후	사업 종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서 작성 마무리 및 최종 심의, 논의 안건 진행</li> <li>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li> <li>종료평가 실시</li> </ul>
	정리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 평가 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성과 및 개선 사항 평가</li> <li>연수사업의 경우, 연수생 관리 실시</li> </ul>
	사후관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체계 실시</li> <li>사업 홍보</li> <li>후속사업 모색</li> </ul>

## ■ 모듈형 문화ODA ‘KPSC’사업 성과모형(안) (예시)

- ‘문화진흥기구/센터 설립 및 역량 공고화 지식공유 사업(예시)’의 영향력(Impact)은 수여국의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진흥기구/센터 설립 및 역량 공고화 지식공유 사업(예시)의 산출물(Output)은 문화진흥기구/센터 구축 및 활용, 문화정책, 문화관련 법제 연구 및 정비, 문화시설 관리 및 문화관련 전문인력 역량강화로 구성함
- Output1: 문화진흥기구/센터 구축 및 활용 강화는 ① 건축시공 및 문화진흥기구/센터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센터 구축, 기구 설립 운영 총괄, 문화인프라 및 문화 ODA 사업 전문가, 토목 및 건축전문가 등), ② 건축설계 및 건축업체 선정, 문화진흥기구/센터 건축공사로 진행되며, ③ 기자재 사양 확정 및 기자재 공급업체 선정,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운영인력 교육으로 진행함
- Output2: 문화정책, 문화관련 법제 연구 및 정비는 ① 개발협력국 제도·규제 현황 파악, 제도의 범위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② 구축된 제도 이행 지원, ③ 법제 연계성, 효율성 제고 방안을 위한 법제관련 공동연구 및 세미나 진행
- Output3: 문화시설관리 및 문화관련 전문인력 역량강화는 ① 정책자문을 통한 문화진흥기구/센터 기획 전문가 정책자문, ② 초청 연수 및 현지연수를 통한 문화진흥기구/센터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리 및 문화예술인력 육성, ③ 공동연구를 통한 지식공유 확장으로 교육매뉴얼, 공동연구보고서 작성 등으로 진행됨

[그림 4-10] 모듈형 문화ODA ‘KPSC’사업 성과모형(안) (예시)



# V

## 제5장 권역별 문화ODA 확대 전략

---

- ① 신남방 권역
- ② 신북방 권역
- ③ 아프리카



## 1 신남방 권역 (아세안) 일반현황

가. 역사·지리적 특성<sup>68)</sup>

## ■ 아세안 창설 배경 및 역사

- 냉전 시기 베트남전쟁과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아세안(ASEAN) 창립선언(방콕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되었음
-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가입하면서, 모두 10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동남아시아 정치, 경제, 문화공동체로 발전함
- 아세안은 비정치분야 중심 협력 조성단계 (창설-1970년대 전반), 정치분야 포함 지역협력 강화단계 (1970년대 후반-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이후엔 지역공동체로서의 확대발전을 추구하고, 2015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을 선언하였음
  - 아세안 공동체는 3개의 공동체로 구성됨: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아세안 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 2015년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단결하며,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인간 지향적, 인간중심적, 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 형성을 강조

〈표 5-1〉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의 주요 내용

공동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은 규범중심적(rule-based), 인간지향적이고(people-oriented), 인간중심적(people-centered)인 공동체 지향</li> <li>• 동 공동체는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 자유, 높은 삶의 질, 공동체 구축의 혜택 등을 보장</li> <li>• 아세안 공동체는 평화적이며, 안정적이고, 회복력(resilient)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세계국가 공동체(a global community of nations)의 일원으로서 대외 지향적(outward-looking) 공동체 추구</li> </ul>

68) 외교부 아세안국 아세안협력과(2019.10), 「아세안 개황」, 14~30쪽 참고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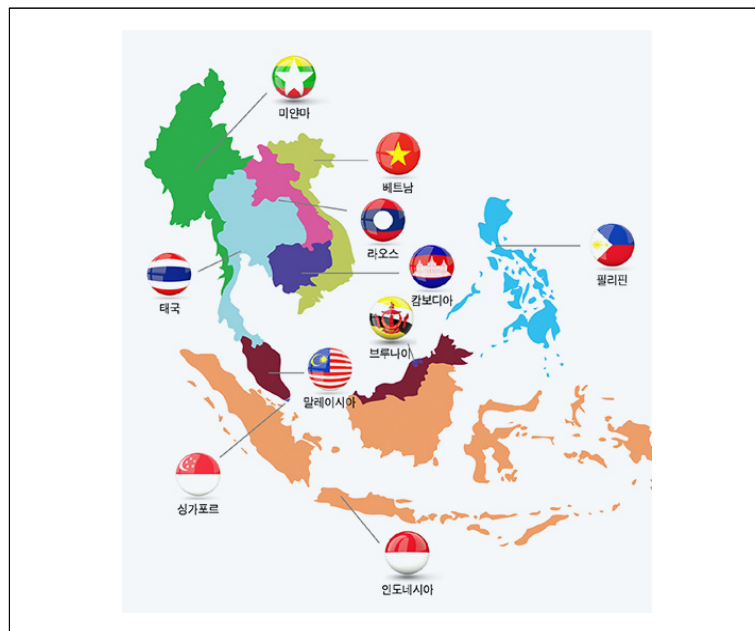
정치안보공동체 (APSC)	경제공동체(AEC)	사회문화공동체(ASCC)
규칙기반 공동체 포용적 대응 공동체 관용과 중용 공동체 포괄적 안보 공동체 분쟁 해결 공동체 아세안 중심성 공동체 역외 협력 상생 공동체	높은 수준의 통합과 유기적인 경제 경쟁력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 연계성 및 부분 간 통합 강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인간중심의 공동체 글로벌 아세안을 지향	실행적이고, 참여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공동체 포괄적 공동체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력 있는 공동체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미래방향		

• 향후 10년간 아세안은 통합의 다음단계인 강력히 단결된 공동체(Stronger Cohesiveness as a Community)를 추구

## ■ 아세안의 지리적 특성

- 중국의 남쪽, 인도의 동쪽 그리고 호주의 북서부를 포괄하는 지리적 위치의 국가들로 구성
  - 북쪽으로는 동아시아, 서쪽으로는 남아시아, 동쪽으로는 오세아니아와 태평양, 남쪽으로는 호주와 인도양을 경계로 함
  - 총면적: 약 448만 km<sup>2</sup> (전체 아시아 면적의 약 10.5%)

[그림 5-1] 아세안 회원국 지도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www.nsp.go.kr](http://www.nsp.go.kr)) (접속일: 2020.07.08)

- 대륙과 해양문화 및 지리적 차이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
  - 대륙부 동남아시아: 역사적으로 인도차이나 지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반도, 미얀마, 태국

- 도서부 동남아시아: 역사적으로 누산타라, 동인도 혹은 말레이 군도 지역-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 대부분 지역이 계절풍과 몬순의 영향을 받는 열대기후 지대이나, 베트남 북부와 미얀마 북부 산간지대는 아열대성 기후로 겨울에 추위와 눈이 내리기도 함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통 농업과 생계방식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
  - 아세안 지역은 열대기후의 영향으로 브라질 다음으로 지구상 두 번째로 큰 열대 다우림이 위치한 지역임
- 화산활동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순다 판(Sunda Plate) 위에 대부분 국가가 위치하고 있어, 화산 폭발과 지진 및 해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쓰나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피해
  - 2018년 인도네시아 발리 아궁화산 폭발
  - 2020년 필리핀 루손섬 탈화산 폭발
- 광활한 지역에 각국이 분포하고 있어 네 개의 다른 시간대 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있음
  - (UTC +6:30) 미얀마, (UTC +7:00)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UTC +8:00)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UTC +9:00)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 아세안 각국의 면적을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순이며, 이 중 라오스는 유일하게 해양에 면하지 않은 내륙국가라는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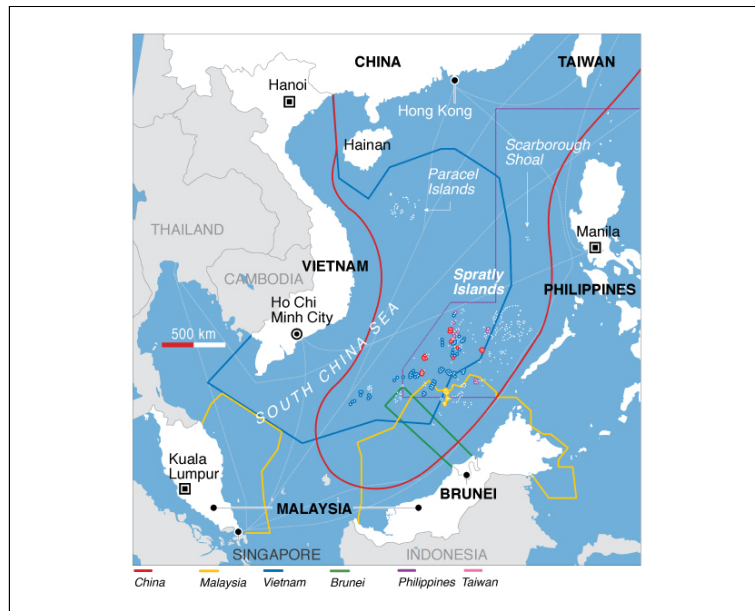
〈표 5-2〉 아세안 국가들의 면적과 인구(2018년 기준)

국가	면적(km <sup>2</sup> )	인구
브루나이	5,770 (경기도 0.5배)	0.4 백만 명
캄보디아	181,040 (한반도 0.8배)	16.2 백만 명
인도네시아	1,910,931 (한반도 9배)	266.7 백만 명
라오스	236,800 (한반도 1.1배)	7.0 백만 명
말레이시아	330,800 (한반도 1.5배)	3.0 백만 명
미얀마	676,590 (한반도 3배)	53.9 백만 명
필리핀	300,000 (한반도 1.3배)	106.5 백만 명
싱가포르	719 (서울시 1.2배)	5.8 백만 명
태국	513,120 (한반도 2.3배)	96.5 백만 명
베트남	330,967 (한반도 1.5배)	96.5 백만 명
합계	4,486,737km <sup>2</sup>	654.2 백만 명

자료: 외교부 아세안국 아세안협력과(2019. 10), 「아세안 개황」, 15~16쪽

-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역내 정치·군사적 긴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아세안 공동체의 안정성과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과 분쟁의 시험대로써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국: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완

[그림 5-2]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상황



자료: Voice of America (2012.07.31)

## 나. 언어·종족·문화적 특성

### ■ 다언어, 다종족, 다문화적 특성

- 아세안 국가들의 전체인구는 <표 5-2>에서와 같이 약 6억 5천 4백만 명에 달하며, 전 세계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고,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지역에 뒤이어 세계 3번째로 인구가 조밀한 지역임
- 단일 종족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인(the Javanese)이 최대 종족을 형성(약 1억 명)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킵족(the Kinh)이 두 번째(약 8천 6백만 명), 태국의 타이족(the Thais)이 세 번째(약 5천 9백만 명), 미얀마의 버마족(the Burmese)이 네 번째(약 3천만 명 추산)로 다수 종족을 이루고 있음
- 아세안 국가들은 오랜 무역의 역사, 이주 및 식민지 경험으로 언어생활에 영향을 받았으며, 800여 개가 넘는 토착 언어가 서로 다른 종족집단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
- 아세안 국가의 문화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이슬람교 전파로부터 주요한 영향을 받았

으며, 필리핀의 경우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 통치 경험을 통해 서구 기독교 문화의 영향도 받았음

- 수천 년에 걸친 농경문화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기둥을 세워 집을 짓는 고상식/수상가옥(Stilt House)이 주거형태로서 광범위하게 나타남

## ■ 종족, 문화적 다양성과 갈등

- 다양한 종교가 분포해 있고 이슬람교(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상좌부 불교(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대승불교(베트남), 천주교(필리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87.1%가 무슬림이며,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임 (전세계 무슬림 인구의 12.6%)<sup>69)</sup>
- 오랜 역사·문화적 교류의 역사로 인해, 동일한 소수종족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걸쳐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배력을 지닌 화교, 국경지대 난민과 무국적 소수민족(Zomia), 그리고 로힝아와 같은 소수민족 문제로 국가 간 정치적 긴장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종교적 차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지역적 분리주의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각국의 국내정세와 아세안 공동체 형성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
  - 미얀마 라카잉 지역 (상좌부 불교와 이슬람교의 대립)
  -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대립)
  - 필리핀 민다나오(카톨릭과 이슬람교의 대립) 등

〈표 5-3〉 아세안 각국의 언어와 종교 현황

국가	공식어	종교 (주요 3개)
브루나이	말레이어, 영어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캄보디아	크메르어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어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
라오스	라오어	불교, 애니미즘, 기독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어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미얀마	버마어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필리핀	타갈로그어	천주교, 이슬람교, 개신교
싱가포르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태국	타이어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베트남	베트남어	민속종교, 불교, 기독교

69) Pew Research Center(2019.04.01) "The countries with the 10 largest Christian populations and the 10 largest Muslim populations" (검색일: 2020.07.20)

## 다. 문화적 수요와 특성

### ■ 한류 문화 콘텐츠 및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

- 아세안 지역은 한류 문화 확산의 중심으로, K-Food, K-Culture, K-Beauty, 한국 식 배달 서비스 등이 확산되어 한류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음<sup>70)</sup>
  -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동남아시아에서 평균시청률 40% 기록
- 한류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문화 콘텐츠산업 인프라 발전 경험과 지식,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2019년 한·미얀마 정상회담에서 미얀마 남성 아이돌 그룹 'project K'의 한국 연수 요청 사례<sup>71)</sup>
-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높으며, 아세안 국가 중 모두 7개 국가에 33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 중에 있음<sup>72)</sup>
  - 라오스 (1개소), 말레이시아 (2개소), 미얀마 (1개소), 베트남 (15개소), 인도네시아 (6개소), 태국(4개소), 필리핀 (4개소)
- 각국과 역내 방송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시장 수요 확대에 따라 공동제작과 기술협력에 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2019년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의 정보통신부 사이에 TV 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 ■ 콘텐츠 시장의 고성장세 지속

- 아세안 국가들은 빠른 경제발전 속도에 맞춰 콘텐츠 시장의 성장세가 세계 평균 5%를 웃도는 8.8%의 고성장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sup>73)</sup>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해외기업의 직접 진출 혹은 현지 기업들과 협업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콘텐츠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70) 외교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10.15), <신남방정책의 핵심이자 한류의 중심, 아세안.> (검색일: 2020.0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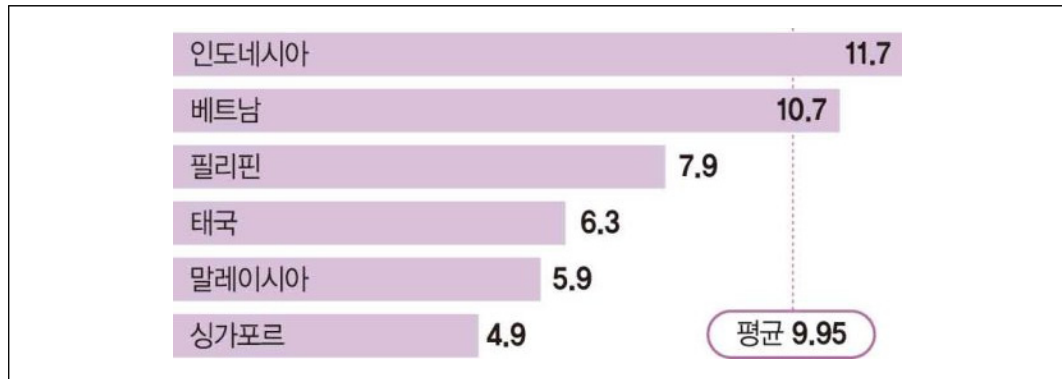
7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2019.11.26), <한·미얀마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

72) 세종학당 재단 홈페이지(<https://www.ksif.or.kr/intro.do>) (검색일: 2020.07.20)

73) 파이낸셜 뉴스(2017.01.01), <[2017 대전환 골든타임] 동남아 시장 한류 성패에 달렸다.> (검색일: 2020.07.06)

[그림 5-3] 동남아 주요국가 콘텐츠 시장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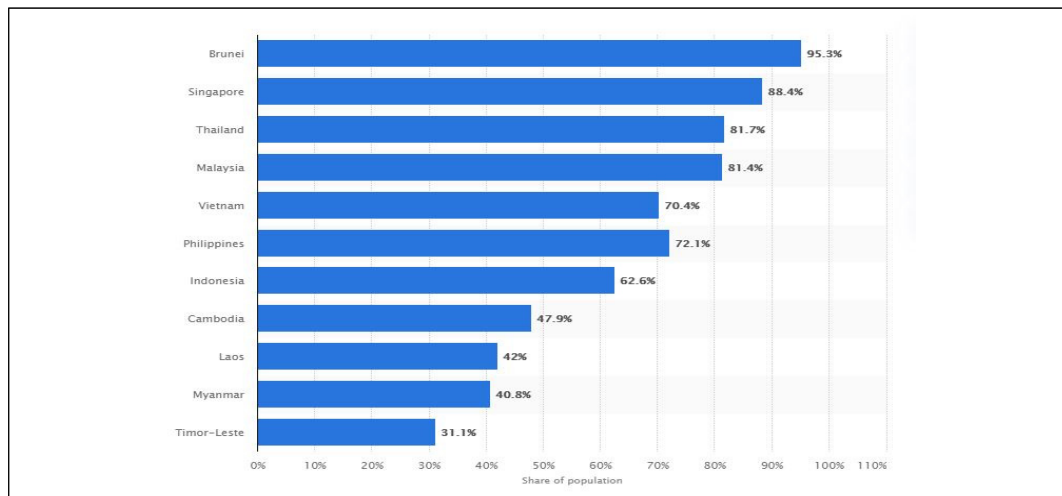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kr/cop/main.do>)

- 인터넷·모바일 기기 보급과 대중적 확산에 따른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관한 관심 증대하고 있음
  - 2018년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300억 달러에서 780억 달러로 미디어 시장이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 존재

[그림 5-4]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대비 인터넷 보급률 (2019년 5월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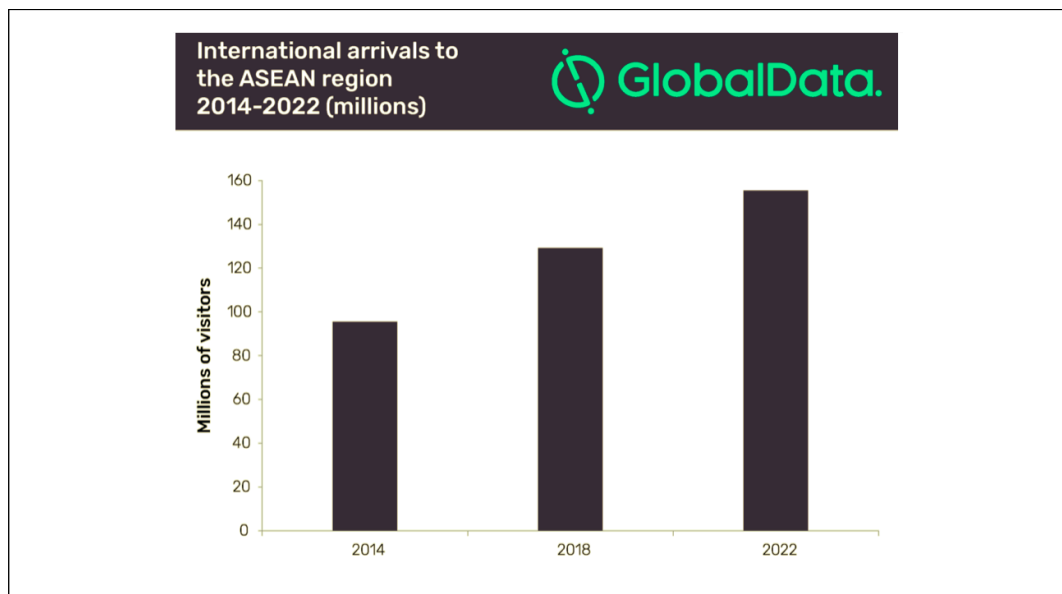
자료: Statista.com(<https://www.statista.com/>) (접속일: 2020.07.01)

## ■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 인프라 구축 수요 증대

- 아세안 국가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비율은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중앙아메리카, 서유럽과 비교할 때 낮으며,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등재속도도 느렸으나 최근 들어 문화자원 발굴과 보존을 통한 관광수요 창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2019년 인도네시아-옴빌린 탄광, 라오스-향아리평원, 미얀마-바간 등재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가속화 추세

- 최근에는 유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음
  -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관한 관심과 보존 노력 증대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이 2019년 필리핀, 2018년 & 2016년 캄보디아, 2012년 & 2011년 인도네시아, 2009년 베트남에서 등재되었음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공동등재와 아세안 회원국 상호 간 문화협력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2016년 줄다리기(Tugging rituals and games) 4개국 공동 등재 (캄보디아, 필리핀, 대한민국, 베트남)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중부 광빙성(Quảng Bình)과 인접한 라오스 힌 남누 국가생태보존지역(Hin Namno National Biodiversity Conservation Area)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음<sup>74)</sup>
- 2019년 약 1억 3천 3백만 명의 여행객이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하였으며, 해외 관광객 수 성장률은 4.72% (2018년 129.2 백만 명에서 2022년 155.4 백만 명 추산)으로 추산됨 (Global Data)
  - 향후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할 때,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선도적인 관광 목적지로 부상할 것이며, 그 뒤를 라오스가 뒤쫓을 것으로 전망됨(베트남과 라오스는 아세안지역 평균 증가율 5.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sup>75)</sup>

[그림 5-5] 2014년~2022년 아세안 지역 해외 입국자 추산



자료: SEAASIA(2020.02.11), “[REVEALED] Tourist Arrival to ASEAN Countries 2019 Reaches 133 Million”

74) Vietnam Times(2020.04.06), “Vietnam helps Laos with Hin Namno dossier compilation seeking for UNESCO’s recognition” (검색일: 2020.07.07)

75) PATA(2019), 「Asia Pacific Visitor Forecasts 2019-2023 Full Report」

〈표 5-4〉 2019년 아세안 국가 해외 관광객 입국 통계

(단위: 백만명)

순위	국가	해외 관광객 수
1	태국	39.8 (39,797,406)
2	말레이시아	20.1
3	베트남	18
4	싱가포르	15.9
5	인도네시아	13.62
6	필리핀	8
7	캄보디아	6.7
8	미얀마	4.3
9	라오스	3.4
10	브루나이	0.213 (213,000)

## 라. 한국과의 국제관계<sup>76)</sup>

-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긴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해 가고 있음
  -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 계기 정상·각료급회의의 활발한 개최
- 한-아세안 인적교류 규모는 연간 약 1,144만 명에 달함
  - 한국→아세안: 약 898만명 (제1위 방문지역)
  - 아세안→한국: 약 246만명
- 2018년 현재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의 제5의 교역대상으로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양자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 교역: 1,597.4억 달러, 투자:61.3억 달러, 건설: 119억 달러
- 우리나라와 아세안 사이의 FTA가 2009년 완결되었고,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
- 2014년 대화관계 수립 25년을 기념하여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세안과 ‘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 지향

76) 외교부 아세안국 아세안협력과(2019.10), 「아세안 개황」, 43~92쪽, 한국관광공사 Data,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Data 참고 및 재구성

-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며, 문화교류 거점으로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 개관
  - 2014년 12월에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 성과사업으로 추진

〈표 5-5〉 한-아세안 국별 교역규모 (2018년 기준)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교역	수출	수입
1	베트남	68,265	48,622	19,643
2	인도네시아	19,994	8,833	11,161
3	싱가포르	19,756	11,782	7,974
4	말레이시아	19,200	8,994	10,206
5	필리핀	15,606	12,037	3,569
6	태국	14,087	8,505	5,582
7	미얀마	1,071	534	537
8	캄보디아	974	660	314
9	브루나이	672	62	610
10	라오스	114	84	30
합계		159,742	100,114	59,628

자료: 한국무역협회(<http://stat.kita.net/main.screen>)

- 한국은 2017년 5월 처음으로 아세안 특사를 파견하고, 11월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에 전례없는 외교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발표하며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음
- 아세안은 한국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임
  -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 27~28일)이 개최된 바 있음
-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2019년 부산에서 개최하고 “평화·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인적교류와 문화 파트너십 강화를 천명하였음

6.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6.1 아세안 문화원 및 한-아세안 센터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인적·사회적·문화적 유대를 활성화하여 역내 국민 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호관계 조성 및 사람 지향의·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6.2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장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년·인적 교류 협력 확대를 장려하고, 공동체 구축에 있어 청년 참여 및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자원봉사 기회 참여를 독려한다.

6.3 역내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인식하고, 활동적 노화 증진 및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6.4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아 교육, 평생 교육, 21세기 기술훈련 등을 포함한 포용적 교육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CT)의 활용을 통한 혁신을 장려한다.

- 1990~2018년간 약 9,500만 불의 협력기금을 제공하였으며, 2019년부터 공여액을 연간 700만 불에서 1,400만 불로 증액하기로 결정
- 한국은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ASCC)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교육, 문화, 환경을 주요 협력 분야로 선정해 협력사업 시행을 하고 있음

## 2 문화정책과 제도

### 가. 신남방 권역 문화정책과 제도 현황

#### 1) 문화인프라 현황

- 아세안 국가들은 2020년 기준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 41개, 인류무형문화유산 36개를 등재하고 있음<sup>77)</sup>
  -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중앙 아메리카,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등재비율이 낮고, 등재속도도 느리다는 평가
  - 유네스코 상임이사회에 4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이 참가하고 있음
- 1959년 이래 2년마다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Southeast Asian Games, SEA 게임)”, 1996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아세안 축구연맹 선수권대회 (ASEAN Football Federation Championship, AFF Cup)”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스포츠 교류 행사로 대중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2015년 태국 방콕에 아세안 문화센터가 개관하여, 아세안의 인적·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공동 전시프로그램 시행, 각국 박물관을 통한 문화유산 교류사업 진행을 위한 허브를 구축한 바 있음
  - 2015년 베트남 하노이의 민족학 박물관 내 아세안관 개관
  - 2019년 아세안 문화센터와 한국의 아세안 문화원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박물관, 소수민족 거주지 등을 중심으로 유·무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광 상품 개발이 국가 및 민간 조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1995년 아세안 회원국 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인 ‘아세안 대학교 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가 창립되어 방콕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아세안 회원국 30개 대학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성장해 아세안 회원국 및 아세안 대화상대 국가들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아세안 국가들에서 제작된 영화를 중심으로 한, 방콕 아세안 영화제(Bangkok ASEAN Film Festival, BAFF)가 2015년부터 태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단편영화를 대상으로 한 동남아시아 단편영화제(SeaShorts Film Festival)가 2017년부터 개최되고 있음

77) UNESCO 웹사이트(<http://www.unesco.org/>) (검색일: 2020.07.05)

## 2) 문화분야 주요국가발전계획현황(전략)

### ■ 인도네시아

- 2014년 출범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는, 2017년 문화적 진보에 관한 법령(Law No.5/2017)을 발표하여 문화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표하였음
  - 위 법령은 문화적 발전을 위한 10가지 중점 대상으로, 1) 구술 전통(oral tradition) 2) 문헌(manuscripts) 3) 관습(customs) 4) 의식(rites) 5) 전통 지식(traditional knowledge) 6) 전통 기술(traditional technology) 7) 예술(arts) 8) 언어(language) 9) 민속놀이(folk games) 10) 전통 스포츠(traditional sports) 등을 선정하고, 지역 정부가 제출한 관련 정보와 제안을 수렴해 국가 수준의 모든 발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기로 함<sup>78)</sup>
- 문화적 진보 전략은 인도네시아의 사회문화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창조산업과 관광의 연계를 강조하며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문화 수출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sup>79)</sup>

### ■ 라오스

- 2016년 6월 수립된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은 Vision 2030 및 10개년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국가시행전략(2016~2025)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세 가지 주요 목표 중 두 번째 목표로, 인적자원 강화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량 강화, 모든 소수민족의 빈곤수준 감소 및 소수민족 여성 대상 질적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접근성 확대, 고유문화 보호, 정치적 안정, 사회평화 정의와 투명성 유지를 천명하였음

### ■ 베트남

- 베트남 정부는 2016년 “2030년까지의 비전, 2020년까지 베트남 문화산업의 각 분야 발전전략” 제안에 관한 총리 승인 결정문<sup>80)</sup>을 공표하고, 각 문화산업을 2020년까지 국민총생산의 약 3%, 2030년까지 국민총생산의 약 7%에 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문화산업 중점 발전 분야로, 1) 영화, 2) 공연 예술, 3) 미술·사진·전시, 4) 광고, 5) 여행 문화 등 5대 분야를 선정하였음

78) The Jakarta Post(2018.12.04), “Congress seeks to establish national 'cultural strategy'” (검색일: 2020.07.20) (<https://www.thejakartapost.com/life/2018/12/04/congress-seeks-to-establish-national-cultural-strategy.html>)

79) Independent Observer(2018.12.28), “Indonesia engineers a new cultural strategy as its base for all future development” (검색일: 2020.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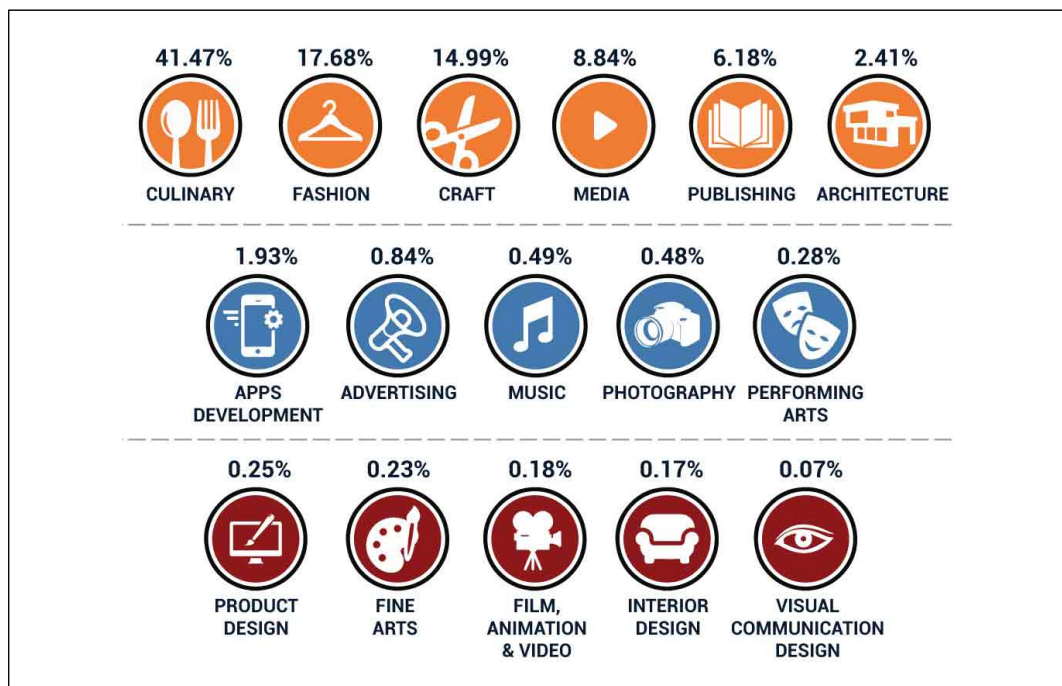
80) PHÊ DUYỆT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CÁC NGÀNH CÔNG NGHIỆP VĂN HÓA VIỆT NAM ĐẾN NĂM 2020, TẦM NHÌN ĐẾN NĂM 2030 (Số: 1755/QĐ-TTg, ngày 08 tháng 09 năm 2016)

## 나. 인도네시아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 일반 정책 현황

- 2019년 대선 이후 꾸려진 조코 위도도 2기 내각의 교육문화부 장관으로 ‘고젝 (GoJek)’ 공동창립자이자 CEO인 나디엠 마카림(Nadiem Makarim)이 취임하여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
  - 기존 관광부가 담당하던 업무는 창조경제청(The Creative Economy Agency, Bekraf)이 추진하는 문화산업육성 정책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 새롭게 신설된 창조경제청은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를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창조경제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비전을 내놓았음
-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청의 통계에 따르면, 문화부문의 국민총생산 기여도 상위 6개 분야는 음식(41.47%), 패션(17.68%), 공예(14.99%), 미디어(8.84%), 출판(6.18%), 건축(2.41%)이며, 하위 5개 분야는 제품디자인(0.25%), 순수예술(0.23%), 영화 애니메이션 비디오(0.18%), 실내장식(0.17%), 시각통신디자인(0.07%)임

[그림 5-6] 인도네시아의 창조경제: 부문별 국민총생산 기여도 (2017년)



자료: The ASEAN POST(2019.07.17), "Getting creative in Indonesia" (검색일: 2020.07.11)

- 인도네시아 중장기개발 계획 (RPJMN 2020~2024)의 최신 초안(2019년 8월)에 따르면 주요개발 목표로, 1) 성평등 2) 자본 및 사회문화 3) 효과적인 정부 계획안 4) 지속 가능한 개발 5) 재난복구를 설정하였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관광 및 서비스업

의 개발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sup>81)</sup>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로드맵(Making Indonesia Industry 4.0 Roadmap)을 2018년 4월 18일에 발표하여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와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진전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펼치고 있음<sup>82)</sup>
-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이슬람 종교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9년 5월 14일 발표된 2019~2024년 인도네시아 샤리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MEKSI 2019~2024)은 인도네시아를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할랄 산업 국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sup>83)</sup>
  - 사회 전반의 이슬람화 추세는 교육과 문화에 대한 종교적 규제정책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2) 문화관련 인프라 현황

-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 9개, 인류무형문화유산 9개를 등재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는 교육관련 업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문화총국이 문화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는 창조문화청이 관할하고 있음
  - 2019년 출범한 제2기 조코 위도도 정부는 기존 관광부의 이름 바꾸어 관련 업무를 창조문화청과 교육문화부의 문화총국이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였음
- 인도네시아에는 15개의 전국 방송, 10여 개의 케이블 방송이 운영 중이며 민영방송인 RCTI가 최고 시청률을 기록<sup>84)</sup>
- 문화 콘텐츠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교육문화부, 방송위원회, 통신정보기술부, 영화 검열 위원회가 있음
-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세종학당 6개소가 운영 중임<sup>85)</sup>

81) KOTRA(2020.01), 「2020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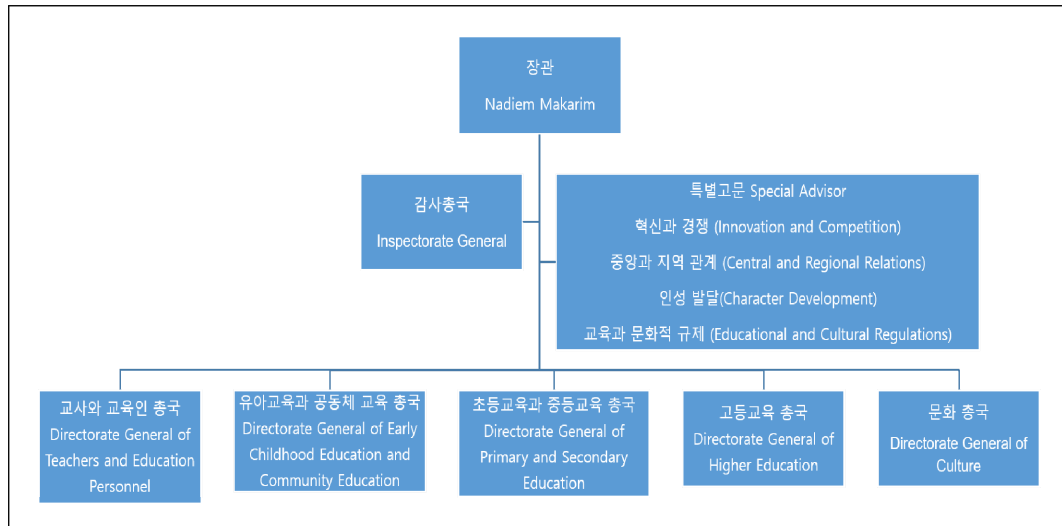
82) KOTRA(2020.01), 「2020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7~8쪽

83) KOTRA(2020.01), 「2020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8~9쪽

84) 한국콘텐츠진흥원(2017.01.31), 「아시아 주요 6개국 문화콘텐츠산업 가이드북」, 124쪽

85) 세종학당 재단 홈페이지, 2019년 6월 기준 자료 참조 (검색일: 2020.07.20)

[그림 5-7]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조직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인도네시아 문화행정 조직 및 정책현황을 참조하고 최신 영문 Wikipedia 업데이트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

## 다. 라오스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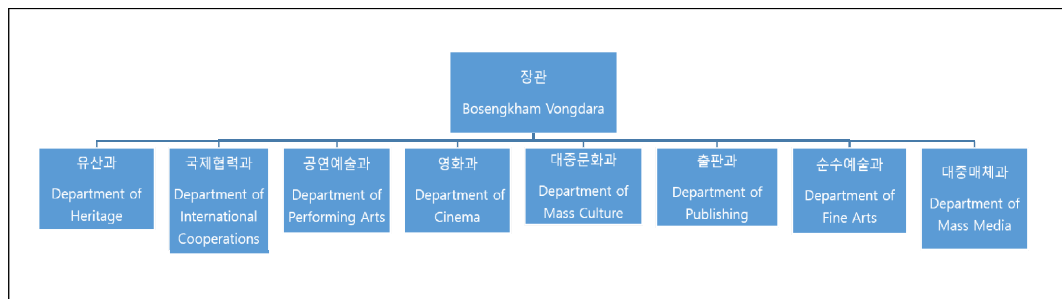
### 1) 일반 정책 현황

- 라오스는 문화와 창조산업 증진 계획(2011-2016)과 5개년 실행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음
- 최빈국 중 하나로 ‘문화와 개발’을 연계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적 지향이 있음
- 8차 5개년 국가 사회경제 발전 계획(2016~2020)에 따라 수공예 부문 지원정책 마련해 지역개발과 문화정책을 연계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 수공예 부문이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UNESCO 2018 Report에 따르면 4,237개의 수공예품 공장이 있고, 일본, 유럽연합,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1 지구 1 문화상품’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중국과 양해각서를 통해 2020년 전국의 25% 가구에 디지털 방송 서비스(DTMB & DVBT)제공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
- 아세안과 다자간, 베트남과 양자 간 문화협력 관계를 형성해 ‘문화와 개발’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2) 문화관련 인프라 현황<sup>86)</sup>

-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 3개, 인류무형문화유산 1개를 등재하고 있음
- 신남방권역의 최빈국(LDC) 중 하나로, 문화관련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출판: 127개의 출판매체 (27개 신문-11개 일간지 포함)
  - 영화: 12개의 영화관 (수도 비엔티안과 박세에 집중되어 있음, 이동극장차 운영으로 문화격차 해소 노력)
  - 공동체 라디오와 청년 라디오 운영: 열악한 미디어 환경을 극복하고 소수민족집단 (흐몽과 크 무 등) 공동체의 발전 도모
- 직업 예술가에 대한 국가지원정책과 함께 2015년 예술가 협회를 창립하였음
- 정보문화관광부(장관-보생캄 봉다라 Bosengkham Vongdara)가 문화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림 5-8]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조직도<sup>87)</sup>



-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세종학당 1개소가 운영 중임 (2020년 1개소 추가 결정 발표)

## 라. 베트남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 일반 정책 현황

- 베트남 문화체육부는 “무상원조와 ODA 유치, 활용과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 (2013년 12월 26일)”<sup>88)</sup>를 공포하고 해외 원조를 통한 문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음

86) UNESCO(2018),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18 Report” 참조 및 재구성

87) UNESCO(2018),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18 Report” 참조 및 재구성

88)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Ban hành Quy chế của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hướng dẫn việc thu hút, vận động và quản lý nguồn hỗ trợ phát triển chính thức (ODA) và nguồn vốn vay ưu đãi của các nhà tài trợ” (Số 4551/QĐ-BVHTTDL, ngày 26 tháng 12 năm 2013)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2030년까지의 비전, 2020년까지 베트남의 문화산업 각 분야 발전전략” 제안에 관한 총리 승인 결정문<sup>89)</sup>을 통해 정책 추진 방향 법제화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발전 사업 전략을 주관하고 정부 조직이 협력하는 관계임을 명시
  - 문화산업 중점 발전 분야로, 1) 영화, 2) 공연 예술, 3) 미술, 사진과 전시, 4) 광고, 5) 여행 문화 등 5가지 분야를 선정하였음
- 2001년 국회에서 문화유산법<sup>90)</sup>을 최초 제정한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음
- 2019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수민족 동포들의 특색있는 전통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복원하며, 보호하는 기술-경제 수준과 규정 및 내용; 기본 준칙에 관한 결정”<sup>91)</sup>을 공표하여 베트남 소수민족들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적 보호 정책을 구체화하였음
- 특히 소수민족의 무형문화 유산에 대한 훈련과 교육, 민간 예술·문화 보존을 위한 모임의 조직 모델, 소수민족 전통축제를 복원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직 모델을 제시하였음

## 2) 문화관련 인프라 현황

-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 8개, 인류무형문화유산 8개를 등재하고 있음
  - 1982년 고도(古都) 후에(Huế)의 유적 보존 센터를 설립하고, 1993년 최초로 ‘고도(古都) 후에(Huế) 유적 군체’를 세계유형문화 유산으로 등재하였음
- 베트남 문화관련 정책과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응우옌 응옥 티엔, Nguyễn Ngọc Thiên)과 4명의 차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4명의 차관은 각각 공연 예술국, 스포츠 체육 총국, 관광총국, 기초문화국을 담당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조직인 국립 문화예술연구소(최초 설치 1971년)가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와 문화연구·정책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 국립 문화예술연구소는 중부 후에시와 남부 호찌민시에 분원을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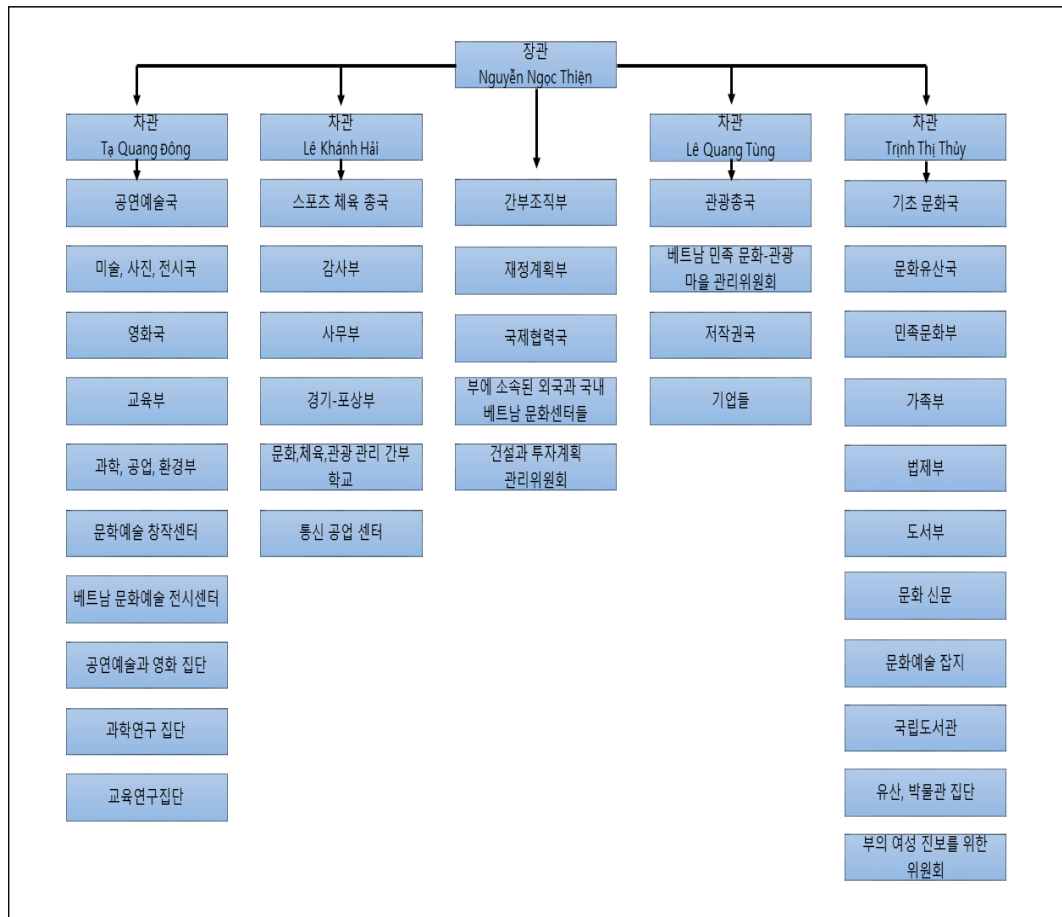
89) PHÊ DUYỆT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CÁC NGÀNH CÔNG NGHIỆP VĂN HÓA VIỆT NAM ĐẾN NĂM 2020, TẦM NHÌN ĐẾN NĂM 2030 (Số: 1755/QĐ-TTg, ngày 08 tháng 09 năm 2016)

90) Luật Di sản Văn hóa (Số: 28/2001/QH10, ngày 29 tháng 06 năm 2001)

91) Ban hành Quy định về tiêu chí, tiêu chuẩn; nội dung, quy trình và định mức kinh tế-kỹ thuật trong bảo tồn, phục dựng, lưu trữ các giá trị văn hóa truyền thống đặc sắc của đồng bào dân tộc thiểu số (Số: 4036/QĐ-BVHTTDL, ngày 15 tháng 11 năm 2019)

- 수도 하노이의 극장과 공연예술대학교 (University of Theater and Performing Arts of Hanoi, 1980년 개교)가 전통 및 대중 문화예술인 전문 양성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소수민족극, 영화-방송기술, 무용, 미술 설계, 영화예술, 사진, 무대예술, 방송학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 베트남에는 약 140여 개의 영화관과 멀티플렉스가 있으며, 630개의 상영관이 있음<sup>92)</sup>
- 아세안 국가들 중 최다수인 15곳의 세종학당이 베트남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sup>93)</sup>

[그림 5-9]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조직도



자료: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https://bvhttdl.gov.vn/>) 참조 및 재구성

92) Nhân dân(2019.05.28), “Thị trường phát hành phim Việt Nam và nguy cơ thua ngay trên sân nhà” (검색일: 2020.07.20)

93) 세종학당 재단 홈페이지, 2019년 6월 기준 자료 (검색일: 2020.07.20)

### 3 한국의 對신남방 문화ODA 현황과 전략

#### 가. 신남방 권역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현황

##### ① 한국의 對신남방 문화ODA 지원현황

-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10년)까지 신남방 권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ODA 사업에 총 1천 6백 21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표 5-6〉 한국의 對신남방 문화ODA 지원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지출액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0.29	0.49	1.17	1.51	1.75	2.95	2.21	2.13	0.87	2.84	16.2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문화 Voluntary Code) (검색일: 2020.07.10)

- 한국의 對신남방 문화ODA 지원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사업 규모는 2009년~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총 6백 4십 7만 달러인 것으로 파악됨
  - 주요 사업대상국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임

〈표 5-7〉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주관 對신남방 문화ODA 사업 추진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지출액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0.01	0.06	0.16	0.21	0.56	0.65	1.04	1.35	-	2.43	6.47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제출기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문화 Voluntary Code) (검색일: 2020.07.10)

- 한국의 신남방 권역 주요 3개국(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에 대한 문화ODA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음

〈표 5-8〉 한국의 신남방 주요국(3개국) 문화ODA 지원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혜국	분류										
인도 네시아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56	0.217	0.323	0.508	0.401	0.403	0.191	0.033	0.048	0.020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80		0.027	0.033	0.048	0.072
	자연문화 유산 보호										
	합계	0.056	0.217	0.323	0.508	0.481	0.403	0.218	0.066	0.096	0.092
라오스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57	0.254	0.263	0.231	0.613	1.071	1.079	0.115	0.857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02				0.022	0.040	0.142	0.103	0.082	0.192
	자연문화 유산 보호										
	합계	0.002	0.057	0.254	0.263	0.253	0.653	1.213	1.182	0.197	1.049
베트남	문화 및 레크레이션	0.185	0.097	0.506	0.509	0.503	0.462	0.452	0.413	0.344	0.257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24	0.027	0.018					0.081	0.041
	자연문화 유산 보호										
	합계	0.185	0.121	0.533	0.527	0.503	0.462	0.452	0.413	0.425	0.298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7.02)

## ② 주요 3개국 문화ODA 지원현황

- 2009년~2018년까지 對신남방 문화ODA 지원 규모 총액을 비교하면, 프랑스, 일본, 독일, 한국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18년에는 한국이 지원 규모에서 주요국가에 앞서 문화ODA의 선도적 지원국가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음
- 프랑스는 신남방 권역 국가들에 대한 최대 문화ODA 공여국으로서 문화 관련 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임. 한편, 한국은 2015년 이후 자연문화유산 보호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지원을 시작하였음

〈표 5-9〉 주요 공여국 對신남방 문화ODA 규모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공여국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한국	문화 및 레크레이션	0.29	0.49	1.17	1.51	1.75	2.95	2.21	2.13	0.87	2.84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6	0.11	0.20	0.07	0.24	0.11	0.80	0.36	0.52	0.68
		자연문화 유산보호							1.14	0.55	0.68	0.85
		합계	0.35	0.6	1.37	1.58	1.99	3.06	4.15	3.04	2.07	4.37
2	프랑스	문화 및 레크레이션	10.6	3.92	8.64	4.30	5.63	5.22	5.10	2.87	3.48	2.03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9	0.36	0.29	0.28	0.23	0.16	0.08	0.30	0.09	0.08
		자연문화 유산보호	0.71		0.28	0.49	1.14	1.08	0.64	0.48	0.13	0.33
		합계	11.4	4.28	9.21	5.07	7	6.46	5.82	3.65	3.7	2.44
3	일본	문화 및 레크레이션	8.43	2.74	2.91	1.37	1.01	1.51	0.67	0.67	1.03	0.54
		관광정책, 행정, 관리	1.51	1.96	1.98	2.65	2.05	3.05	1.67	3.78	1.91	1.84
		자연문화 유산보호		0.02	0.02	0.02	0.02	0.02	0.70	0.05		
		합계	9.94	4.72	4.91	4.04	3.08	4.58	3.04	4.5	2.94	2.38
4	독일	문화 및 레크레이션	2.89	2.22	2.60	4.76	3.83	7.00	4.24	1.23	1.16	0.83
		관광정책, 행정, 관리	0.79	0.90	0.39					0.12		0.03
		자연문화 유산보호	0.40	0.23		0.71						
		합계	4.08	3.35	2.99	5.47	3.83	7	4.24	1.35	1.16	0.86

주: 2018년 기준으로 공여국 문화ODA 총 지출액 순위를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 유산보호) Recipient 아세안 8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자료 없음) 소숫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검색일: 2020.07.10)

## 2) 특징 및 시사점

-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 추진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신남방 권역 국가들에 대한 문화ODA의 선도적 공여자로서 등장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문화유산 보존,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은 기존 주요 문화ODA 공여국들의 중점 추진 사업이 되고 있음. 한국은 이러한 기존의 사업 모델에서 더 나아가 신남방 권역에서 수행한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같은 타 공여국들의 역내 문화ODA 사업과 구별되고 차별화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문화ODA 사업을 신남방 권역에서 개발협력국의 수요에 기초하며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K-ODA의 모델로 브랜드화 해나갈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남방 권역 국가들은 정치적 상황의 차이와 상호 간 경제·문화적 격차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내의 지역, 계층, 성별 문화적 격차도 상당히 큰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ODA 사업은 소외 지역과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문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는 사업 모델로 접근이 가능함
-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은 3P (People, Prosperity, Peace)를 주요 추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고 주요 내용으로 상호이해 증진과 미래지향적 상생 관계 구축을 천명하고 있음
-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세안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상호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 이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아세안 사무국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아세안 회원국의 공동 합의에 따른 사업 승인과 추진 절차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개별 수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 공통의 이해관계와 수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우리 정부는 2019년 12월 아세안 사무국이 주관하는 미얀마 라카인 주 「로힝야 귀환 난민 대상 라디오 보급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사업」에 5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음<sup>94)</sup>

## 나. 인도네시아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문화ODA 현황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면적과 인구를 지닌 국가로서, 동남아 지역에 지원된 문화ODA 사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2015년 기준 전체 동남아 문화ODA 지원 규모의 21% 차지 함<sup>95)</sup>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 문화, 예술, 문화사업, 관광, 체육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문연수과정을 진행하는 문화동반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인도네시아 문화예술 ODA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ODA (연수사업)를 진행하였음<sup>96)</sup>
- KOICA와 CJ CGV는 2014년 ‘인도네시아 청소년 영화창작 교육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10월까지 인도네시아 ‘토토의 작업실’을 중심으로 미래의

94) 외교부 홈페이지(2020.06.15), <보도자료: 강경화 장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총장 통화>

95) 이태주(2017), 「한국형 문화ODA 정책과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연구」

96) ODA KOREA 홈페이지, “2019년 부처별 인도네시아 지원계획” (검색일: 2020.07.10)

영화인을 꿈꾸는 현지 청소년들과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영화 강사육성 사업을 진행하였음<sup>97)</sup>

- 해당 사업은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27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완료하였음

## 2) 문화ODA 특징 및 시사점

-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되거나 손상된 문화유산의 복원과 보존, 재난 발생 시 대처 역량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큼
  - UNESCO는 2010년 메라피(Merapi) 화산 및 2014년 켈루트(Kelud) 화산 폭발로 훼손된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유적인 보로부두르 사원의 보호를 위해 화산재 제거, 문화 관광 및 창조산업 활성을 통한 인근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보로부두르 보존 업무 인력의 재난 위험 감소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년간 사업을 추진하였음
- 광범위한 도서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적 지향이 강한 상황임
- 공연·예술 분야를 문화산업의 융합, 연구 개발, 투자 홍보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16개 분야 중 하나로 선정<sup>98)</sup>하였으며,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사회 전반의 이슬람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문화ODA 사업 모델 제안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종교적 이해와 각종 규제에 관한 심화된 이해가 필요 함<sup>99)</sup>
- 조코 위도도 정부는 창조경제청 설립을 통해 문화와 산업을 연결해 경제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경험과 관련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다. 라오스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문화ODA 현황

- 일본의 JICA는 라오스 영화부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제작 기자재를 지원하고 영화제작자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라오스 영화산업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sup>100)</sup>

97) 중앙일보(2014.08.03), <KOICA-CJ CGV, '인도네시아 청소년 영화창작' 지원 협약> (검색일: 2020.07.21)

98) 이태주(2017), 「한국형 문화ODA 정책과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연구」

99) KOTRA(2020.01), 「2020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8~9쪽

100) UNESCO(2018) Report

- 스위스 정부의 개발협력기구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DC)는 “라오스를 위한 라오스 (Lao, for Lao)”라는 주제로 2004년에 설립된 라오스 문화 도전 기금(Lao Culture Challenge Fund, LCCF)을 지원하여 라오스 문화 증진에 기여<sup>101)</sup>
  - 2017년~2021년: 18 백만 달러 규모 지원
-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유산 보존을 통해 개발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라오스 세계문화유산인 ‘참파삭 문화경관 내 왓푸사원과 고대 주거지’ 내 흥낭시다 사원의 보존·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 문화ODA 특징 및 시사점

- 신흥방권역의 최빈국(LDC) 중 하나로, 문화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등 기초 문화인프라 개발관련 ODA에 대한 수요가 큼
- 수도와 지역(산간, 소수민족 거주지)간 문화 격차가 큰 상황이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 정책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에 관한 관심이 큼
- ‘문화와 개발’을 연계시키는 관점이 강하며, 특히 문화유산 보존 사업과 전통 수공업품 생산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음
- 인터넷 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방송 서비스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 라. 베트남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문화ODA 현황

- 일본의 JICA는 안장성의 찌우독, 응예안성, 트어티엔후에성에서 관광관련 ODA를 팜남성 호이안에서 문화재 보존관련, 속장성에서 농구와 유도등 스포츠 관련 문화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sup>102)</sup>
- 한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문화분야 ODA를 사업인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통해 베트남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4개의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음<sup>103)</sup>

101) UNESCO(2018) Report

102) JICA 홈페이지(<https://www.jica.go.jp/english/>), “Volunteers Allocation Map” (접속일: 2020.07.01)

10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9.09.19), <문체부, 베트남에 14번째 ‘작은도서관’ 문 열어 - 베트남어로 된 한국 문학작품, 케이팝 등 한국문화 콘텐츠 지원>

- 동 사업은 베트남어로 된 한국문학 작품 등 출판물과 K-Pop 등 한국문화 콘텐츠를 문화 소외 지역의 청소년층에 제공하고 프로젝트 등 기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음
- 베트남 사회의 교육열과 현지 수요를 고려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통한 현지화된 문화ODA 모델로서 큰 성과가 있었던 사업임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되고, 베트남 교육개발목표 달성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5-10]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계획 모형



자료: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베트남 문화예술 ODA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ODA (연수사업)을 진행하였음<sup>104)</sup>

## 2) 문화ODA 특징 및 시사점

- 한국 문화체육 관광부의 문화ODA 사업인 ‘작은 도서관’ 사업은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현지인들의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음
  - 2019년까지 북부에 하노이 4개관, 빈푹성 4개관, 푸토성 3개관, 남딘성 3개관 등 총 14개 작은도서관 개소

104) ODA KOREA 홈페이지, “2019년 부처별 베트남 지원계획” (검색일: 2020.07.10)

- ‘작은 도서관’ 사업은 문화ODA 사업을 문화 격차 해소, 교육 및 인력개발과 연계하고 현지어 번역 출판물을 통한 한국문화 홍보 사업으로써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베트남과 한국은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여, 양국 간 상호 인식이 기타 신남방 권역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뉴스 등 정보의 유통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초기 ODA 사업의 주된 형식이었던 단기간의 지역 봉사, 일회적 연수 혹은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베트남 현지인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한국문화 콘텐츠만 일방적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문화ODA 사업 모델을 새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은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구성 측면에서 세대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의 ‘밀레니얼 세대’(22세에서 35세)인 ‘Z세대 (Thế hệ Z)’는 2025년까지 베트남 노동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약 천 5백만 명의 소비 잠재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측됨<sup>105)</sup>
  - 인구구조의 고령화 추세 및 특히 농촌지역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
-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성장세가 동남아시아 최대인 점, 도시적 삶의 경험 증대와 새로운 문화적 욕구 분출 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같은 사업처럼 베트남의 새로운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및 일상생활 밀착형 문화ODA 사업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105) Nielsen Việt Nam 보고서(2018.09.26), “KẾT NỐI VỚI THẾ HỆ Z TẠI VIỆT NAM” (검색일: 2020.07.20)

## 1 신북방 권역 일반현황

## ■ 신북방 권역의 공간적 범위

- 신북방 권역의 공간개념은 과거 북방정책 대상국 중 현재 EU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유라시아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위치한 신흥경제권을 의미<sup>106)</sup>
  - 북방지역은 '17년 기준 세계 GDP 2.5%, 수출입 규모 전세계의 2.9%, 2.4%를 차지
  - 인구는 2.9억 명(세계의 3.4%)으로, 우리의 FTA 미체결 경제권 중 가장 큰 시장에 해당
-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신북방 권역을 동유럽·동슬라브 지역을 포괄하는 서부권, 코카서스·중앙아시아·몽골 지역을 포괄하는 중부권, 러시아 극동·중국 동북 3성 지역에 해당하는 동부권으로 분류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함<sup>107)</sup>
  - 특히 중부권의 경우, 석유화학·도로 등 우리 기업 관심 사업 지원, 제조업·ICT 분야로의 협력 확대, ODA를 활용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이 강화되어 있음

〈표 5-10〉 신북방 권역 국가별 지역권 분류 및 문화ODA 관련 현지 인프라 분포

지역권 분류	지역 구분	국가명	주요 특징	중점협력국 지정여부	한국문화원 유무	세종학당 유무	KOICA 해외사무소 유무
서부권	동유럽·동슬라브 지역	몰도바	-				
		러시아	EAEU 창설 주도국			0	
		우크라이나	EU와 FTA 체결국			0	
		벨라루스	EAEU 회원국			0	
중부권	코카서스 지역	아제르바이잔	-	0		0	0
		조지아	-				
		아르메니아	EAEU 회원국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	EAEU 회원국		0	0	
		우즈베키스탄	-	0		0	0
		투르크메니스탄	중립국			0	
		키르기스스탄	EAEU 회원국			0	0
		타지키스탄	-			0	
동부권	동아시아 지역	몽골	-	0		0	0
		중국(동북 3성)	-			0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관계부처합동(2018.6) 2쪽 참조 및 재구성

106)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관계부처합동(2018.6),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안)」

107)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도자료(2017.12.7),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가. 역사·지리적 특성

-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경학적 요충지로서 세계의 주요 강대국(러시아·중국·미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역이자 전략적 요충지
  - 고대 및 중·근세 중앙아시아 지역의 왕조들이 강성할 때에는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동·인도·동유럽 등지로까지 진출한 반면, 역외 강국 등장 시 중앙아시아지역은 침략과 정복의 대상이었음
- 동서 교류의 중심지인 동시에 온화한 기후와 적절한 수자원 등 농경/정주문화 발전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고대에서 근세에 걸쳐 찬란한 문명 발전하여 인류의 정신 문명과 과학발전에 크게 기여
- 몽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1991년 12월 소련 해체 및 독립국가연합(CIS) 창설이라는 외부적 영향에 의해 독립을 이루고 단시간 내 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정부 리더십은 강한 반면 행정적 기반은 다소 열악한 한계를 지님. 또한, 러시아 문화로부터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새로이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나. 언어·종족·문화적 특성

### ■ 신북방 중부권 지역의 문화적 특징<sup>108)</sup>

- 중앙아시아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 정체성은 유목성, 이슬람, 다문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유목성: 타지키스탄<sup>109)</sup>을 제외한 중앙아시아인은 고대 중국변방의 유목민족 간 세력싸움에서 밀려난 투르크족(돌궐, 위구르)의 후손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한 뒤 세운 다양한 국가 간 언어적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단길의 정복자이자 중계자 역할을 자칭함. 이러한 영향으로 손님에 친절하고, 다른 문화 유입에 적극적이며, 장사에 능수능란한 성향을 보임
  - 이슬람: 중앙아시아 5개국들 중에서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음에도 이슬람교는 오늘날까지 중앙아시아에서 신앙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이며, 중앙 아시아인들의 정신세계와 생활을 구성하는 문화의 구심점으로 존재함
  - 다문화: 실크로드 중심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이민족 지배자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문화와 융합,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듭하는 ‘혼성문화(混成文化; Syncretism)’적 특성을 지님. 아울러 중앙아시아 지역의 다민족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나 소수민족을 배려하고, 외부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다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됨

108) 윤성학(2018), 「현대 중앙아시아의 이해」, “5장. 중앙아시아 문화의 특징,” 85~93쪽,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109) 타지키스탄의 경우 농업이 전체 경제력의 70%인 전형적인 농업 국가이며 투르크어가 아닌 페르시아어를 사용함

-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의 소위 코카서스 3국과 북코카서스 지역 자치공화국들을 포괄하는 코카서스 지방의 경우 지구상에서 민족적 다양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일컬어지며, 이는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해주는 한편 많은 영토적·민족적 분쟁을 야기<sup>110)</sup>

## 다. 문화적 수요와 특성

### ■ 자국 산업 육성 및 다변화의 측면에서 관광 및 문화창조산업에 대한 수요 점증

- 자원의존적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국가발전계획 수립 시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 산업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국 문화콘텐츠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자국 문화에 대한 (비)공식적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창조적 문화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

### ■ 전통 문화유산의 실질적 관리역량 확보에 대한 수요 증대

- 신북방 권역 국가들의 경우 차별적 정체성 형성 노력과 더불어 소련에 의해 단절된 자국 내 전통 문화유산을 보호·보존·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2000년대부터 경주하여 왔음
- 그러나 경제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제적 이슈에 의해 정책적 후순위로 밀림에 따라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과제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이에 최근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국제기준에 맞춰 자국 내 문화기반시설의 물적·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관리인력에 대한 훈련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며,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모바일 수요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 문화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110) 윤창용(2019), 「역사와 문화를 통한 코카서스 3국 들여다보기」 21~22쪽

## ■ 한계점

- 정부 차원의 인식 대비 낮은 행정역량과 부족한 예산투자로 인하여 기획된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들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뒤에도 종합적인 시행계획으로 연결·확장되지 못하고 단발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라. 한국과의 국제관계

- 1990년대 초반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한국은 신북방 권역 국가가 지닌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방위에 걸쳐 협력기반을 확장하고 있음
  -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앙아시아 및 몽골 지역에 일찍 진출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플랜트, 제조업, 금융, IT 분야에 있어 중요한 개발협력국가로 부상하였음
  -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 중인 약 30만 명의 고려인과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 문화는 해당 지역으로의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고 있음

## 2 문화정책과 제도

### 가. 신북방 권역 문화정책과 제도 현황

#### ■ 문화분야 주요국가발전계획현황

- 신북방 권역 국가들의 국가발전계획상에 나타난 문화분야는 주로 자원의존적 산업 모델을 탈피하고, 산업다변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광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천명하는 수준의 언급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몽골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일부 국가의 최근 개발전략에서 관광이 아닌 문화 그 자체를 실행전략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몽골의 경우 2020년 1월 발표한 ‘비전 2050(Vision 2050)’에서 핵심목표 전면에 문화육성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신북방 권역 국가들과 차별점을 보임
- 우즈베키스탄은 ‘개발전략 2017-2021’을 통해 자국 문화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박물관, 문화 및 교육기관의 발전, 기존의 어린이들을 위한 스포츠, 음악, 예술시설 건립 및 재건축 활동에 초점을 두는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나. 몽골의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 일반 정책 현황

##### ① 몽골의 국가발전계획<sup>111)</sup>

#### ■ 몽골 장기개발정책 2015-2040

- 몽골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2016년 신규 국가 장기개발목표(vision) 및 중기 행동계획 수립에 앞서 2015년 6월 국회에서 ‘몽골 장기개발정책 2015-2040(The long-term development policy of Mongolia 2015-2040)’을 수립하였음
  - 문화분야와 관련해서는 ‘몽골의 문화, 역사, 조국에 대한 자부심 구축을 통한 창의성, 생산성, 긍정적 견해 및 조화 촉진’(①-1) 및 ‘신기술 발전을 통한 몽골의 문화, 유산 및 가치에 대한 보존, 연구, 홍보 및 적용 지원’(⑤-3)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함<sup>112)</sup>

111) 이하는 별도 자료표기가 없는 경우 관계부처 합동(2016.12), 「몽골 국가협력전략」, 9~12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11), 「19년 국가협력전략(CPS) 중간평가 최종보고서」, 23~28쪽 참조 및 재구성

112) NDI(2015), 'Draft Long Term Development Policy of Mongolia (2015~2040) Developed by the National

〈표 5-11〉 몽골 ‘장기개발정책 2015~2040’ 주요 내용

5대 핵심 정책 방향	세부 정책과제
① 몽골인의 개발, 고숙련인력 양성 및 생산성 향상	①-1. 몽골의 문화, 역사, 조국에 대한 자부심 고취 ①-2. 양질의 평생교육 제도를 통한 세계적인 창의력 증진 ①-3. 산업화에 따른 고숙련 노동력 양성 및 노동생산성 향상 ①-4. 범국가 차원 최신행 지식·경영관리·협동 관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①-5. 기술 습득, 혁신 역량 개발
② 정부의 조직역량 및 정책·규제 강화	②-1. 통합적인 개발기획·계획 제도 구축 및 정책·규제 역량 강화 ②-2. 개발정책에 부합하는 전략적 구조와 책임제도 구축 및 지속적인 개선 ②-3. 세계적인 역량과 지식을 보유한 정부 구현 ②-4. 정부조직 운영관리, 최신 지식·기술·혁신 기반 지속적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개발 촉진 ②-5. 정부기관의 책임성·투명성·평등성 확보
③ 다방향 경제발전, 국제시장 진출 및 지하자원의 효율적 개발	③-1. 에너지, 연료, 식품 등 주요 상품의 자급자족을 제고를 통한 경제 독립성 강화 ③-2. 국가 생산성, 경제 효율성 통합 및 분야 간 연관성 향상 ③-3.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원자재 가공 생산을 통한 경제 다양화 ③-4. 지하자원의 평등·정당 배분 및 민간기업의 창조적·균형적 발전 ③-5. 예산, 금융, 자금의 집행, 평가, 감사, 모니터링 체계화 ③-6. 친생태계적인 혁신기술 활용
④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최신 기술 도입 및 혁신 도모	④-1. 국가혁신체계구축을 통한 국제시장 진출 촉진 ④-2. 주요 산업 분야로 기술혁신체계 구축 및 국제, 지역 시장 진출을 통한 협력 확대 ④-3.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재해위기 예방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④-4. 각 분야별 전통적·친환경적 최첨단기술 개발 및 도입, 표준측정 국가 종합제도 구축 ④-5.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재활용
⑤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산층 확대, 국민 행복 및 복지 증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⑤-1. 중산층 비중 및 범위의 지속적 확대 ⑤-2. 국민의 행복, 복지 증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⑤-3. 몽골의 문화, 유산 및 가치에 대한 보존, 연구, 홍보 및 적용 지원 ⑤-4. 출산장려 및 인력관리를 통한 몽골 내 인구증가 촉진 ⑤-5. 도시와 지방의 균형적 개발을 통해 인구집중도 낮추기 ⑤-6. 환경오염 감소·방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주: 문화와 직접 연관 있는 세부과제에 별도 표시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12), “몽골 국가협력전략” 10쪽

## ■ 몽골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

- 2016년 2월 몽골 의회는 SDGs 목표 달성을 견인하기 위해 장기개발목표인 ‘몽골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Mongolia Sustainable Development Vision 2030, SDV-2030)’을 의결하고, 향후 수립될 중기개발 계획, 행동계획, 연례 사회경제개발 가이드라인 및 정부예산의 기본문서로 설정함
  - 문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산업 다변화의 일환으로 유목민 문화 및 관광의 중심지로서 관광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만 언급되고 있음

## ■ 몽골 정부 행동 프로그램 2016-2020<sup>113)</sup> 및 3주(柱) 개발정책

- ‘몽골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에 의거하여 무효화된 기존 몽골 MDGs 기반 ‘포괄적 국가발전전략 2007-2021’을 대체할 문서로 ‘몽골정부 행동 프로그램 2016-2020 (Action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2016-2020)’이 2016년 11월 발표됨
  - 문화·예술부문과 관련하여, 문화부문 법적 환경 정비 및 문화발전정책, 재정, 관리 및 조직개혁을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민족예술 및 고전예술, 유목 문명의 국가적 보존, △공공문화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문화관광 활성화, △몽골문화의 해외 투자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몽골 콘텐츠의 개발 등의 정책방향을 수립함

### 〈 문화분야 주요 정책과제 〉

- 몽골의 역사, 문화, 전통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정규과정의 도입 (3.2.10, 3.2.11)
- 문화법 개정, 영화법·박물관법 현대화 및 시행요건 마련 (3.2.42)
- 민족예술 및 고전예술, 유목 문명의 국가 보존, 인적자원 정책의 공식화, 전문 간부 지원, 예술작품 및 예술가 대상 재정지원 개선, 몽골어문화의 보호·지원·발전 및 출판 장려 등을 통한 몽골 문화의 회복력 창출(3.2.44)
- 국가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사적 주제 관련 전문 예술작품(영화, 연극, 문학 등) 제작을 위한 재정지원 (3.2.46)
- 문화관광 증대, 해외 몽골문화 홍보, 관련 상품·서비스 생산 (3.2.47)
- 중요 문화재 및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존 및 보호 노력 증진, 박물관 보존 및 보호 관련 요건의 국제표준화 (3.2.57, 3.2.48)
- 문화예술지원기금(Culture and Arts Support Fund) 설립 (3.2.50)
- 국립자연사박물관·극장·예술단지, 국립예술대극장의 건립 (3.2.43, 3.2.57, 3.2.59)
- 울란바토르 내 국립·시립 극장 및 문화센터에 대한 평가, 농촌지역 수요기반 문화시설의 건립 (3.2.45, 3.2.49)
- 문화 및 과학 종사자들의 노동가치 증대 (3.2.58)

- 또한 몽골 정부는 2018년 2016-2020 행동계획의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주(柱) 개발정책(Three-pillar Development Policy)’을 마련하였으며, 다층적 경제개발 정책 가운데 무역, 관광,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목표를 설정함

113) ‘Action Program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2016-2020’참조 및 재구성  
([http://www.mfa.gov.mn/wp-content/uploads/2015/06/2016-2020\\_Gov\\_AP\\_Eng\\_Revised.pdf](http://www.mfa.gov.mn/wp-content/uploads/2015/06/2016-2020_Gov_AP_Eng_Revised.pdf))

〈 문화, 관광, 인프라 개발 목표 〉

- 목표 7. 지역경제 통합체계 가입 등 국제무역체계 개선, 내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개발
- 목표 8. 지역 단위의 관광인프라 및 경쟁력 강화, 현지 사정에 부합하는 특수 참여형 관광업 개발
- 목표 9.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일된 교통, 물류, 사회기반을 개발

■ 비전 2050<sup>114)</sup>

- 몽골 정부는 2016년 2월 공표되었던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 이후 두번째 장기 발전정책인 ‘비전 2050(Vision 2050)’을 2020년 발표함
- ‘비전 2050’은 몽골이 1992년부터 단·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해 온 517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및 계획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30년간 장기 개발계획을 담고 있음

〈표 5-12〉 몽골의 ‘비전 2050’ 장기발전정책

사명 (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근간, 위상(statehood), 유산의 존중</li> <li>• 몽골의 공통된 국가 가치 유지</li> <li>• 인류의 진보 지원</li> <li>• 토양 및 자연의 보호</li> <li>• 평화롭고 인도적인 사회의 건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 및 공정한 거버넌스 강화</li> <li>• 모든 가계 및 시민에의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자립형 경제</li> <li>• 건전하고 교육적이며, 애국적이고 유연하며, 지능적이고 창조적인 시민을 함양한 국가로의 발전</li> </ul>
핵심목표 및 추진과제	
<p><b>핵심목표 1. 단일한 국가가치</b>  (과학적 사실 및 현대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전국민을 위한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 하나의 신념” 을 개발하고, 심오한 국가 정체성을 지닌 국가 건설에 기초가 될 공통 가치를 형성)</p>	
<p>1-1. (국가적 자긍심과 화합) 전통, 역사, 문화유산, 문학, 예술 작품을 통한 국가적 자긍심, 애국심 및 단결력 증진  - 문화부처 구조·조직 간소화, 인적자원개발시스템 구축,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경제적 가치 책정 등</p> <p>1-2. (몽골 유목민 문명) 국가 정신 및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몽골 중심의 창조적 유목민 문명 보존 선도국가 등극  - 유목 문명 보존 전담기구 설치, 유목 문화 특성을 반영한 국가 브랜드/혁신 구축, 이해관계자 지원 등</p> <p>1-3. (몽골어 및 문자) 국가가치 및 구성요소로서 모든 시민의 몽골어 및 문자 사용  - 전 교육과정에서의 몽골어 및 작문교육 확대, 해외 유학생 지원 및 몽골어자격시험 개설, 해외 몽골어 교육기관 증대 등</p> <p>1-4. (연구 및 사회개발) 몽골의 역사, 언어, 문화, 관습, 유목 문명, 종교 및 철학 중심의 국제 몽골 연구 수행, 연구 결과의 공개 및 대중 이용을 통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계몽 달성  - 가치연구 및 국제연구의 안정화, 혁신적 연구방법 도입, 연구결과의 공개 등</p> <p>1-5. (세계의 몽골) 몽골의 국가적 가치 및 몽골 문화의 세계 전파, 국가명성 증진, 재외 몽골인과의 협력  - 해외 문화홍보 전담기관(몽골국제협력협회) 설립 및 프로그램 확산, 문화유산 해외보호시스템 확립, 인적자원 개발 등</p>	

114) 이하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2020.03.04),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발표〉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05.29). “[동향세미나]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확정”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핵심목표 2. 인간 개발

(모든 이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생활 친화적 환경 하에 양질의 교육에의 접근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건전한 몽골인 개발)

- 2-1. (교육)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 창출, 평생학습시스템 강화
- 2-2. (보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습관을 지닌 시민 육성을 통한 접근성 높고 효과적인 양질의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 2-3. (가족) 지속가능한 인구증가 장려,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시민·가정 구축
- 2-4. (과학·혁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 과학·혁신시스템 개발
- 2-5. (인간친화적 생활환경) 삶의 욕구와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건강하고 편안하며 유익한 환경 조성
- 2-6. (노동시장) 노동경제의 균형 유지, 지식경제 창출, 모든 이에게 일자리 및 소득 제공
- 2-7. (몽골 유전자풀(pool)) 몽골인 유전자풀의 보호, 위험 예방 역량 강화

## 핵심목표 3. 삶의 질과 중산층

(고용 지원, 가구소득의 지속적 신장,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가계 건설, 중소기업과 저렴한 주택,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조건의 제공, 인락한 생활조건이 뒷받침된 중산층 양산)

- 3-1. (사회보장 및 보험시스템 개혁) 생명을 보장하고 사회보험시스템을 강화하는 사회보장서비스 개발
- 3-2. (저렴한 주택) 가구 구매력에 맞는 저렴한 주택 제공 여건 조성
- 3-3. (고용 및 스타트업 기업) 고용 촉진, 기업가정신 및 기술 개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3-4. (중산층 자금지원) 중산층 확대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표로 한 금융서비스 제공
- 3-5.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양식) 시민과 가정의 활동적인 생활양식 지원, 신체 문화/스포츠 친화적 환경 조성
- 3-6. (토지관계) 시민 중심의 촘촘한 토지관리시스템 구현을 통한 평등, 정의, 국가경제안보, 지속가능발전의 보장

## 핵심목표 4. 경제

(지속가능한 1인당 경제성장, 중산층 증대, 빈곤의 급격한 감소, 경제발전정책의 근간, 자급자족역량, 수출집약, 투자/저축역량, 다중(multi-pillar) 경제)

- 4-1. (부강한 몽골) 안정적인 거시경제환경 조성, 사회 지배집단으로서의 중산층 형성
- 4-2. (경제 우선순위) 경제 우선순위 분야 개발, 수출지향 경제 창출
  - 창조산업(문화, 영화, 음악, 디자인, 건축) 발전정책 기반 구축
- 4-3. (스마트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과 연계된 다중적·포괄적 금융시스템 개발
- 4-4. (지역협력) 역내 경제/무역 통합 참여, 무역 촉진
- 4-5. (경쟁력있는 브랜드)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 확대
- 4-6. (국부펀드) 경제 다변화, 혁신, 신기술, 인간개발, 녹색성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공신력 있는 국부펀드 형성

## 핵심목표 5. 스마트 거버넌스

(몽골인의 개발, 체계적인 행정 구조를 갖춘 성숙한 공무원, 시민 중심의 전자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로의 완벽한 전환, 공공-민간-시민사회 협력 확대, 인권 존중, 사법체계, 부패없는 국가 등을 보장하는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 5-1. (스마트 거버넌스) 권력의 분배, 통제, 균형의 합리화, 거버넌스 안정성 보장
- 5-2. (스마트한 구조) 행정기관의 구조 및 조직 정의를 통한 기능과 권한 구분의 명확화
- 5-3. (E-Mongolia) 인간개발을 지원하는 효과적·효율적 전자정부 개발
- 5-4. (유능하고 윤리적인 공무원) 잘 교육되고 전문적이며 유능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이고 지능적인 공무원 육성
- 5-5. (인권존중사회) 시민사회-민간-공공부문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국가발전정책의 계획 및 이행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 구축
- 5-6. (부패없는 거버넌스) 사법체계 강화를 통한 부패 및 위법행위 감소

## 핵심목표 6. 녹색발전

(환경친화적 녹색발전 촉진, 생태계 균형 유지,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현재·미래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삶의 질 향상)

- 6-1. (주요 생태계로서의 자연) 자연의 가치와 이점의 보전, 주요 생태계 균형 유지
- 6-2. (천연자원의 이점) 천연자원의 복구 및 다음 세대로의 승계, 자원 낭비의 감소, 개발자원의 창출
- 6-3. (소중한 물) 물부족 방지, 표층수(surface water)의 저장, 수자원 수요 충족 여건 창출
- 6-4.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녹색발전) 생산적·포용적인 저탄소 녹색 경제 개발, 기후변화 분야 국제사회 기여

#### 핵심목표 7.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인권·자유·사회질서·시민 생활환경 보장, 재난위험 감소를 통한 국방역량 강화 및 인간/사회안보 보장)

- 7-1. (군대) 국가방위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
- 7-2. (엄격한 국경보호) 국경의 불가침성 및 국경지역 안보 보장, 국경 군 조직 개발, 국경보호역량 증대
- 7-3. (시민·사회평화) 비전통적 위협의 감축·예방·완화 역량 강화, 평화로운 안보환경 조성
- 7-4. (법집행기관 개발) 집행 부문 법적환경 개선 및 개발 지원, 노동조건 개선, 경쟁력있는 인적자원 개발
- 7-5. (정보보안) 공공, 민간 및 개인정보의 완전성·기밀성·접근성 보장, 경쟁력 창출

#### 핵심목표 8. 지역발전

(국가 문화의 존중, 인구정착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자연환경 및 생태계 균형 유지, 미래 세대에의 보전, 경제 다변화·전문화·협력을 통한 녹색성장, 지역경제통합, 상대적으로 균형잡힌 지역개발)

- 8-1. (인프라) 통합 인프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의 완전한 통합
- 8-2. (관광) 핵심 경제부문과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 개발
- 8-3.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 경제의 주요 부문으로서, 환경친화적이고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며, 회복력을 갖추고, 사회개발 동향 및 요구에 대응하며, 책임감 있고 생산성이 높은 농업 육성

#### 핵심목표 9. 울란바토르 및 위성도시

(살기 좋고 환경친화적이며 인간 중심의 스마트시티 발전)

- 9-1. (인간중심도시)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지적인 시민으로의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노동 제공
- 9-2. (친환경 솔루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생태계 균형,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 녹색 기술을 갖춘 생활환경 조성
- 9-3. (계획중심 개발) 잘 계획된 위성도시관리시스템을 통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도시(metropolis)로 성장
- 9-4. (좋은 도시 거버넌스) 시의 규칙 및 표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거버넌스 및 안정적인 법적환경 조성
- 9-5. (위성도시) 국가적 관광, 문화 서비스 및 산업을 창출하고, 동북아시아의 교통·물류·국제관계의 중심지가 될 위성도시 개발 -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 페스티벌 조직

주: 문화 관련 목표의 경우 별도 표시

자료: 2020년 몽골 의회 결의 제52호 부속서 1 「비전 2050」 몽골의 장기발전정책(“Алсын хараа-2050” Монгол Улсын урт хугацааны хөгжлийн бодлого) (<https://www.legalinfo.mn/law/details/15406>) (검색일: 2020.07.15) 참조

## ② 몽골의 문화정책

### ■ 몽골 문화법

- 몽골은 1996년 4월 11일 제정된 문화법에 따라 문화분야 정부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문화활동의 범위(제3조 제1항), 몽골 국민의 문화적 권리(제4조) 및 의무(제5조), 문화조직의 설립(제7조), 문화관리체계(제12조),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권한(제13조 및 제14조), 문화조직의 관리(제15조), 문화관계 이해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16조~제18조), 재정(제21조), 문화근로자의 사회보장(제22조) 등을 규정

## ■ 몽골 문화정책의 목적, 목표, 원칙, 기본방향

- 문화에 관한 정부정책 관련 2012년 국회 결의문에 따르면, 몽골 문화정책의 목적과 목표, 원칙,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표 5-13〉 문화에 관한 정부정책 관련 국회 결의문(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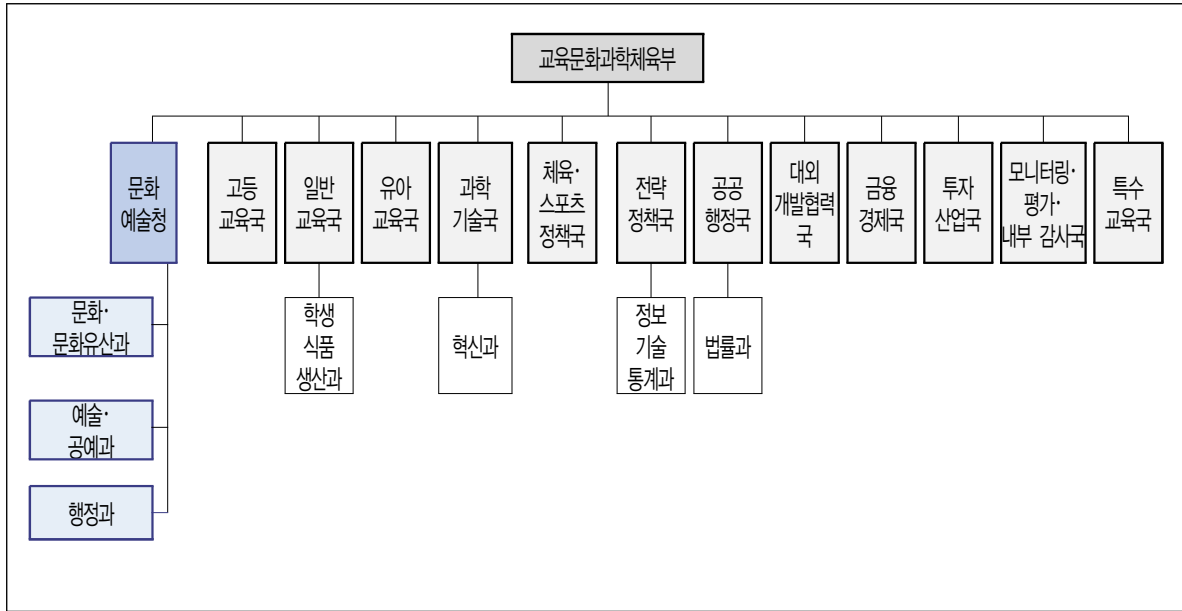
문화정책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들이 문화적 가치를 창출, 수용, 소유, 전달 및 보존할 수 있는 여건 조성</li> <li>• 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li> <li>• 전통문화의 세계홍보</li> <li>• 국가 발전에의 문화의 역할과 기여 촉진</li> <li>• 시민, 가정, 조직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li> <li>• 몽골인의 인도적, 지적, 문화적 및 전통적 시민으로의 발전</li> </ul>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발전에서 문화와 예술의 역할, 그 기여와 효율성 제고</li> <li>2) 시민의 문화적 가치 창출, 향유, 소유, 전달/전파에 유리한 환경 및 조건 조성</li> <li>3)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상속 및 활성화</li> <li>4) 국가 문화와 예술을 세계에 알리고 몽골 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독창성을 보장</li> </ol>
문화정책의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도적 및 시민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와 개념 존중</li> <li>2) 세계 문화 업적과 비견할 몽골 유목민의 전통·고전·민족 문화 개발</li> <li>3) 몽골 민족 및 소수민족의 유산·역사·관습의 존중·보존</li> <li>4) 몽골 민족 문화의 확산, 타국 문화의 몰입, 유산과 관습의 상실, 정신적 악화 방지</li> <li>5) 문화에 대한 시민의 정신적·창의적 향유 권리 및 자유 보장, 문화적 재능의 발견·발전 지원</li> <li>6) 문화분야에서의 정부-시민사회-민간 부문 협력 지원, 문화 활동에 가족과 시민의 동등한 참여 보장</li> <li>7) 문화적 가치의 창시자 및 무형 문화유산의 전승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li> <li>8) 시민, 문화 노동자, 예술가의 아이디어, 방법, 동향, 분야 등의 자유로운 선택·사용 장려</li> <li>9) 문화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대외 관계와 협력 증진</li> </o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 중기 및 단기 전략 및 실행 계획에 따른 문화정책 이행</li> <li>• 중앙행정기관의 문화정책 시행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개발)</li> </ul>

## ■ 문화정책 담당조직

- 현재 몽골 정부 내 문화예술 분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은 교육문화 과학체육부 산하 문화예술청(Culture, Art Agency, Соёл урлагийн газар)으로, 2016년 총선 후 내각 개편에 따라 2016년 7월 27일자로 신설되었음<sup>115)</sup>

115) 2020년 6월 24일 제9대 총선이 시행된 결과 제8대 총선과 동일하게 몽골 인민당(MPP)이 압승하였으나, 올해 초 '비전 2050' 채택의 영향으로 내각이 소폭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5-11]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및 문화예술청 조직도



주: 본 조직도에서 구분한 ‘-청’과 ‘-국’ 모두 몽골어로는 r a 3 a p 로 표기하나, 정부조직상 문화예술청만이 별도의 Agency로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함

자료: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조직도(<https://mecss.gov.mn/page/4/>) (검색일: 2020.06.09.); 문화예술청 홈페이지 (<https://culture.gov.mn/>) (검색일: 2020.06.09)

## 2) 문화관련 인프라 현황

### ■ 몽골의 문화 인프라 현황

〈표 5-14〉 2010~2019년 몽골 주요 문화 인프라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분야 종사자 수	6,233	6,457	6,845	7,011	6,813	6,783	7,140	7,005	7,041	-
박물관 수	46	46	46	46	46	46	46	46	46	46
박물관 전시회 수	236,632	244,315	251,687	261,645	271,516	268,998	281,107	276,143	289,589	244,918
- 전시회 방문자 수	416,000	517,400	598,600	920,600	608,400	583,400	543,100	577,400	781,400	689,600
예술공연 수	4,947	5,149	4,697	4,236	4,358	4,442	5,204	4,740	4,094	3,711
- 공연 관람객 수	1,936.6	1,974.9	1,669.3	1,962.2	1,603.3	4,642.7	1,669.3	2,345.4	1,929.3	3,680.5
영화 상영관 수	30	29	21	23	30	32	55	82	113	-
공공 도서관 수	373	373	377	376	380	370	362	362	362	364
- 도서관 이용자 수	297,346	289,604	305,928	284,930	286,155	263,222	252,671	260,077	317,347	388,180
지역 문화센터 수	341	341	342	342	343	341	346	346	344	345
- 문화센터 점유좌석 수	87,940	89,128	90,925	91,241	93,037	92,334	90,403	88,856	88,007	89,317

자료: 몽골 통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과학과 문화’([http://www.1212.mn/Stat.aspx?LIST\\_ID=976\\_L20\\_2&type=tables](http://www.1212.mn/Stat.aspx?LIST_ID=976_L20_2&type=tables)) (검색일: 2020.07.23)

- 몽골 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는 약 7천명 가량으로 몽골 총인구에 비해 적지 않은 숫자이나, 정부의 예산 부족 및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sup>116)</sup>
  - 2017년 기준 몽골의 문화예술 분야 인력의 평균 임금은 약 220달러로 국가 평균 임금 대비 150달러가량 적은 수준이며, 교육기관 종사자 임금 대비 59달러, 스포츠 분야 종사자 임금 대비 20달러 낮음
- 몽골 정부의 문화분야 정책에도 불구하고, 영화 상영관 수를 제외한 문화 인프라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증감을 거듭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유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2010년에 비해 2019년 이용자 수가 증가함
  - 몽골은 외국문화의 자국 내 유입(공연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나 전반적인 공연시설은 낙후한 실정이며, 행사기획 및 홍보 능력이 있는 현지 회사가 없어 사전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sup>117)</sup>

## ■ 한국의 몽골 현지 인프라

- 한-몽 공동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한 지속적 이행점검 체계 가동
  - 한·몽 공동위원회는 양국 간 범정부적 협의체로 수교 25주년이었던 2015년 3월 2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회의 개최
    - \* 제1차(15.3.26), 제2차(16.3.24), 제3차(18.3.26), 제4차(19.6.28)
  - 분과위로 한·몽골 문화공동위, 교육과학기술공동위, 자원협력위, 농업협력위 운영
  - 문화공동위(국장급)는 1991년 발효한 한·몽골 문화협정에 따라 2001년 몽골에서 처음 개최
    - \* '05년 2차, '11년 3차, '16년 4차
- 정·재계 차원에서는 양국 간 범정부적 협의체인 '한-몽 공동위원회'를 필두로 국회, 민간 협의체가 운영 중임
  - 한·몽 공동위원회는 수교 25주년이었던 2015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분과위로 한·몽골 문화공동위, 교육과학기술공동위, 자원협력위, 농업협력위를 운영 중임
  - 이 중 문화공동위(국장급)는 1991년 발효한 한·몽골 문화협정에 따라 2001년 몽골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음<sup>118)</sup>

11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통신원리포트(2019.01.09), <몽골 문화예술 관련기관 동향> ([http://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6468&page=1&find=&search=&search2=](http://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6468&page=1&find=&search=&search2=)) (검색일: 2020.07.03)

117) 한국국제교류재단(2020). 「2019 지구촌 한류현황 I. 아시아대양주」, 86쪽

118) 2016년 6월 개최된 제4차 문화공동위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분야 경험 교류, △문화유산 공동학술조사, △스포츠 선수단 합동 훈련, △방송인 및 대중매체 교류, △청소년 및 지자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 함. 외교부 보도자료(2016.06.28). <‘한-몽골 문화 유대 관계의 새로운 도약 모색’ -제4차 한-몽골 문화공동위, 울란바타>

- 국회 차원에서는 ‘한·몽 의원친선협회’ 주도하에 ‘한·몽 협력포럼’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한·몽 경제협력위원회’, ‘한·몽 경제포럼’ 등 민간차원의 협의제도 운영 중임

## 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 일반 정책 현황

#### ①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발전계획<sup>119)</sup>

##### ■ 우즈베키스탄 5개 우선순위 발전전략 2017~2021

- 우즈베키스탄의 2대 대통령인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는 2016년 12월 대선에서 88.6%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된 이후 국가발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폭넓은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2017년 2월 향후 5년간의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 2017-2021(Uzbek Development Strategy 2017~2021 또는 Strategy of Actions on Further Development of Uzbekistan, “Harakatlar Strategiyasi” 2017~2021)”을 발표함
- 문화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자유화’ 분야에서는 산업 다각화의 일환으로서 관광산업 육성을, ‘사회부문 발전’ 분야에서는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교육시설의 개선을, ‘안보·외교정책’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이미지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상기 발전전략의 이행을 위해 각 우선순위 영역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이후 해마다 주력 분야를 선정하여 분야별 실천전략을 수립·이행하여 왔음
  - (‘17년) 국민과의 대화와 인간 권익의 해 / (‘18년) 활동적인 기업가정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해 / (‘19년) 활동적인 투자와 사회 발전의 해 / (‘20년) 과학, 교육 및 디지털 경제의 해<sup>120)</sup>
  - 2020년 2020년 상반기에는 당해 설정한 284개 실천전략 중 70개 항목을 조기 달성함

르에서 개좌>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06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55](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064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55)) (검색일: 2020.07.24)

119) 이하는 민지영·김초롱(2018),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9~13쪽 및 관계부처 합동(2020.1).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55~56쪽 참조 및 재구성

120) 우즈베키스탄 개발전략센터. “국가지침” (<https://strategy.uz/index.php?static=programa>) (검색일: 2020.07.13)

## ②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정책

### ■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의 이행성과

-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 수립 이후 국가 문화의 발전 및 세계 문화 공간으로의 적극적인 통합,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홍보, 민속 및 아마추어 예술의 대중화, 우즈베키스탄 문화 및 예술의 혁신적인 개발에 중점을 둔 일련의 체계적인 조치를 수행함

####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 이후 주요 개혁성과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문화발전 개념과 그 시행을 위한 로드맵 승인
- “프렌즈 클럽(дўстлар клублари)”의 설립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물적 및 기술 기반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프렌즈 클럽: 후원자로서 산업체, 기업협회, 은행 등과 문화예술기관 간 집단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
- 박물관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채택
- 문화재 유적지 및 예술품 복원을 위한 국립 학교와 민속 악기, 민속 무용, maqom 분야의 공화당 경쟁 부활
- Maqom Art 국제 회의, Bakhshi Art 국제 축제, Sharq Taronalari 국제 음악 축제, Great Silk Road 국제 민속 예술 축제 등 우즈벡 고전 및 민속 예술을 소개하기 위한 국제행사 조직

### ■ 우즈베키스탄 문화발전의 개념 및 로드맵<sup>121)</sup>

- 우즈베키스탄 정부조직상 문화부의 설립 관련 법률 외에 문화 관련 기본법은 현재까지 부재하였으나, 미르지요예프 정부 이후 관련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2018년 11월 28일 대통령 결의안 제 PP-4038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문화 발전 개념(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да миллий маданиятни янада ривожлантириш концепцияси)”에 의거, 문화발전의 목표, 주요 원칙, 방향 등이 최초로 규정됨
  - 동 결의안의 승인을 위한 대통령령 문서에서 우즈베키스탄 국가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시함

- 1) 문화적 관계, 문화·예술기관의 법적 지위, 예술가의 사회적 보호 등을 위한 단일한 법적 프레임워크 부재
- 2) 젊은 예술가 및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포괄적 시스템의 부족
- 3) 문화·예술기관의 물적 및 기술 기반 낙후
- 4) 현대 미디어 공간에서 민족 문화의 활용 부족, 정보통신기술의 불완전 도입에 따른 문화 관련 연구, 홍보, 국제 문화관계의 통합 저해
- 5)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참여 및 창조적 활동을 독려할 효과적인 경쟁 시스템 및 해외 단체와의 협력 부족

121) 이하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PQ-4038호(2018.11.28),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문화 발전 개념에 대한 승인(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ДА МИЛЛИЙ МАДАНИЯТНИ ЯНАДА РИВОЖ ЛАНТИРИШ КОНЦЕПЦИЯСИНИ ТАСДИКЛАШ ТЎҒРИСИДА)」  
(<https://lex.uz/docs/4084926>) (검색일: 2020.06.20)

- 또한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 2017-2021’상의 요구와 해외 모범 사례, 사회정치적 변화 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이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 간주하고, 동 결의안의 아이디어에 유의하여 문화분야 규정 초안을 개발할 것을 명시함

〈표 5-15〉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문화발전 개념

국가 문화 발전의 주요 목표	문화 및 사회 영역의 개선을 통한 조화로운 정체성 형성 및 사회통합 강화
국가 문화 발전의 주요 원칙	1) 창조의 자유, 문화 간 관계의 평등, 인권에 대한 존중, 범국가적·보편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 보존 2) 문화·예술 분야 교육의 체계화, 과학성(scientificity) 및 연속성 보장 3)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수행된 업무의 투명한 공개 4) 개인의 정신 및 성숙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이디어에 대한 무관용
국가 문화 발전의 주요 방향	1) <b>유·무형 문화유산 및 박물관 분야</b> - 역사적·과학적·예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식별, 보존, 관리체계 개선 - 현대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통한 모든 정보의 단일 전자 데이터베이스로의 통합 - 본래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과학적·역사적 접근법에 기반을 둔 보존작업 수행 - 국내·외 무형 문화유산의 수집, 문서화 및 보존 지원 및 관리인 지원 체계 개선 - 우즈베키스탄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조치 강화 - 박물관 관리에 효과적인 관리 및 마케팅 방법의 사용, 현대적 요구에 따른 박물관의 물적 및 기술 기반 강화  2) <b>극장, 영화관 및 서커스 분야</b> - 현대극, 국내외 고전, 국내외 순회 활동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장기 공연목록 구성 - 역사적 인물 및 현대 영웅의 이미지 창조, 연극·영화 작품의 이념적·예술적 수준 제고 및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 연극 및 영화 비평의 강화 - 민족의 독립성, 국가적·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 조국애, 국민정서 속 파괴적 아이디어의 차단과 관련한 연극과 영화의 역할 증대 - 국제영화제에서 자국 영화 및 로케이션 홍보, 다큐멘터리·대중영화 제작시스템 개선 - 서커스 관련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서커스 프로그램 및 관객 확대, 국제무대에서 국가 서커스 예술의 명성 고취, 모바일 서커스의 효율성 제고  3) <b>민족 음악 분야</b> - 민족 음악 유산의 보존 및 재창조, 사람들이 향유할 충분한 기회 창출 - 작곡가 및 음악가의 활동을 지원, 재능있는 연주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콩쿨 개최, 새로운 조건에서 전통 음악 장르 개발을 위한 "도제식" 전통 발전 - 작곡가, 음악학자 및 공연가의 창의적인 작업 참여를 위한 모든 기회와 조건 확대  4) <b>팝아트 분야</b> - 국가적 가치에 기초한 대중음악의 발전 및 홍보, 재능 있는 팝 가수의 식별 및 지원 시스템 개선, 대중 문화 행사, 콘서트 및 투어의 체계적인 조직 - 국립 기관인 "우즈베크콘서트(Uzbekconcert)" 산하 "우즈베키스탄 인민예술가 클럽"의 개발, 음악 학교 학생들을 위한 "마스터 클래스" 개최 등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 발굴 - 음악·예술 학교에서 도제식 전통의 개발, 유명 예술가들과의 창의적인 회의 조직 - 그룹 및 독주자들의 창조 활동, 레퍼토리 및 시나리오의 이념적·예술적 수준 제고

	<p><b>5) 민족 무용 분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 무용의 발전단계에 대한 과학적 심층 연구, 세계 문화에서의 입지 강화 및 새로운 사례 창출, 전국 모든 지역의 무용 경향 보존</li> <li>- 도제식 전통을 바탕으로 한 재능 있는 민족 무용가 양성을 위한 무용 학교 설립</li> <li>- 독특한 민족 무용 의상(무대 의상 포함)의 보존, 복원 및 창작</li> <li>- 국가적·보편적 가치 간 조화를 이루는 민족 무용 및 안무 기술의 예술적 발전</li> </ul> <p><b>6) 순수미술 및 응용 예술 분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미술 및 응용 예술, 디자인 및 민속 공예 분야의 재능 있는 예술가의 조기 식별, 지원, 작품의 선별적 대중화, 예술적 잠재력을 향상시킬 시스템 개선;</li> <li>- 독창적인 스타일 및 부류의 민속 장인, 문화·예술 유명 인사 간 교류 시 도제식 전통의 효과적 활용, 창의적 워크숍 활동 강화</li> <li>- 민속 공예의 전통 보존 및 개발을 위한 여건 생성, 민속 수공예품 지원</li> <li>- 국내외 대규모 전시회 조직을 통한 국가 예술의 성과를 세계에 소개</li> </ul> <p><b>7) 공원 및 문화 센터 분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파트너십을 포함한 공원 및 문화센터의 물적 및 기술 기반 강화, 활동 개선</li> <li>- 공원 외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정기적인 공공 산책로 시스템 구축</li> <li>- 문화센터에서의 민속 예술 및 공연예술의 형태 및 방식 개선 지원</li> <li>-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문화·교육 방식에 대한 지원, 모범 사례의 일반화 및 촉진</li> </ul> <p><b>8) 과학, 교육, (재)훈련 분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분야에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의 (재)훈련 및 심화 훈련 시스템 개선</li> <li>- 미취학 아동의 기초적인 음악 개념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특별 음악(민속 음악, 클래식, 팝 음악)의 제작 및 공연 레퍼토리 형성</li> <li>- 1차, 2차, 특수 및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연속성 보장, 교육의 질 향상, 재능 있는 예술가로의 발전</li> <li>- 과학적 연구 지원 및 연구 결과의 적용, 예술가의 작업여건 개선</li> <li>-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예술기관과의 교류 및 훈련 시스템 확대</li> </ul> <p><b>9) 문화 관광 분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적 요구 및 국제 표준에 맞춘 문화·예술기관 서비스의 질적 제고, 새로운 오락센터 및 공원 건립</li> <li>-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세계 문화공간으로의 통합, 풍부한 역사·문화유산과 현대적 문화·예술 트렌드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긍정적인 자국 이미지 형성</li> <li>- 자국 및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다양한 문화영역에서의 관광 기회 대중화 및 확대, 독특한 역사·문화적 복합물의 전시를 통한 자국의 매력 창조, 관광객 유치</li> <li>-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문화 및 관광 루트의 생성 및 개발</li> <li>- 문화 및 예술 분야의 국가 브랜드 제작 및 국제 관광시장 진출을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 문화분야의 국제 경쟁 및 축제 지원</li> </ul>
--	---

자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PQ-4038호(2018.11.28),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문화 발전 개념에 대한 승인」 부속서

1,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문화 발전 개념」 (<https://lex.uz/docs/4084926>) (검색일: 2020.06.20)을 참조

- 이상의 문화발전 개념에 의거하여 “2019-2020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문화발전 개념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2019-2020 йилларда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да миллий маданиятни янада ривожлантириш концепциясини амалга ошириш бўйича «ЙЎЛ ХАРИТАСИ»)” 및 지역별 조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 기관으로서 지역별 문화센터를 설립함
- 또한 본 개념의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성격의 조정위원회<sup>122)</sup>를 구성하고, 주요 과업으로서 다음의 아홉 가지를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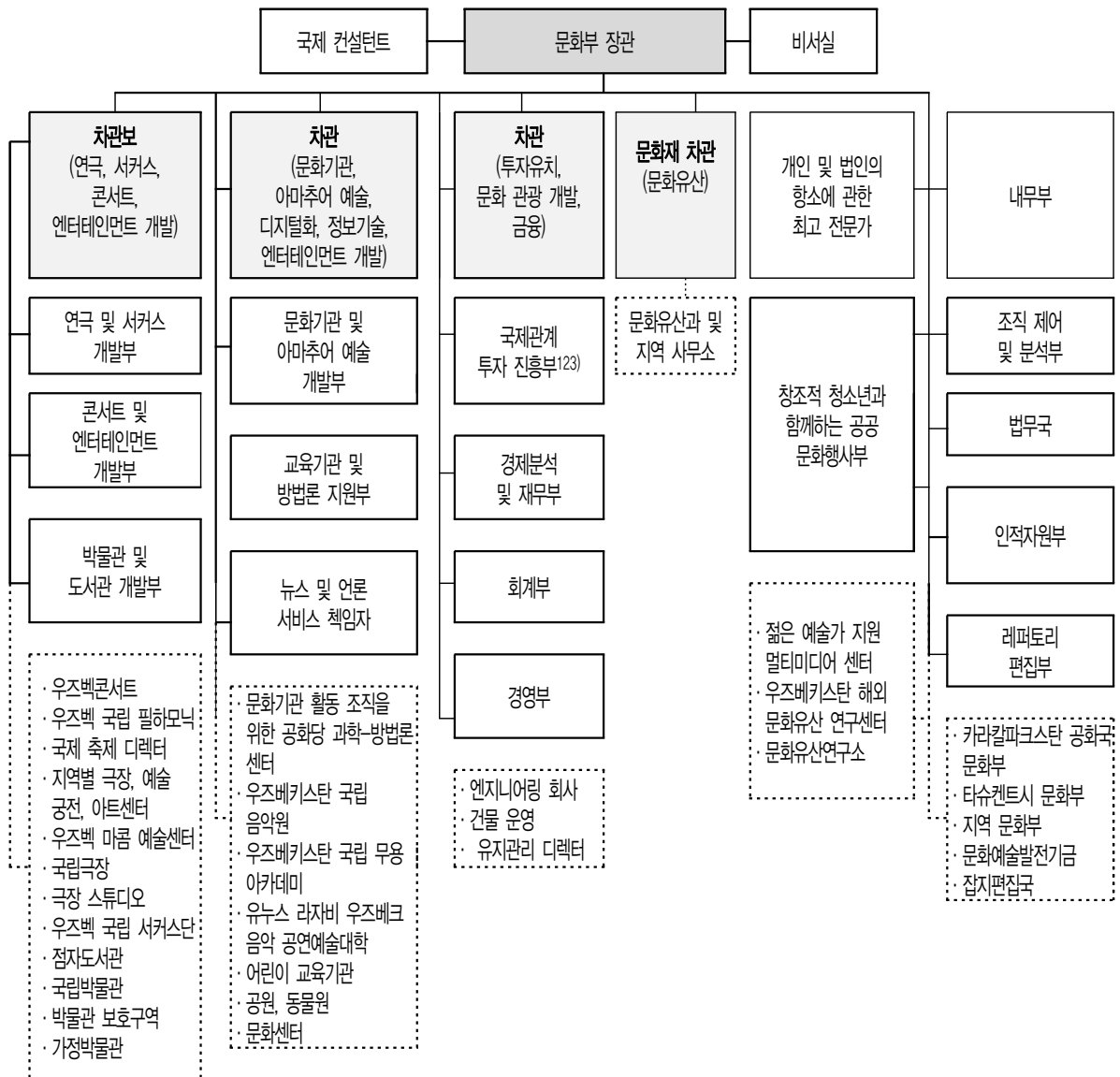
- ① 문화분야 제도·규제 시스템 및 문화기관 활동의 개선
- ② 역사·문화유산 및 국가·문화적 전통의 보존과 민족 예술 지원
- ③ 젊은 세대 대상 교육 확대 및 국가적·보편적 가치의 이식
- ④ 국민의 창조적 잠재력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확장
- ⑤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문화분야 도입 확산, 문화연구 및 홍보에 혁신적 아이디어 및 기술의 효과적 사용 증대
- ⑥ 문화서비스 이용의 사회적 평등 및 문화생활에의 적극적인 시민참여 보장
- ⑦ 상호 호혜적 국제문화관계 조직 및 개발, 세계 문화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국가 문화의 고려, 인권 존중과 평등에 대한 관심
- ⑧ 문화발전 관련 정책결정과 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의 결정 간 합치
- ⑨ 문화·예술기관의 모든 기능 보장, 물질적 기반 강화, 시설 보호에 대한 공적 통제 확립

## ■ 문화정책 담당조직

-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문화분야 담당부처는 문화부로, 1992년 설립된 이래 2004년 문화체육부를 거쳐 2017년 2월 정권교체 후 다시 문화부로 재편됨

122) 조정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부총리를 의장, 문화부 장관을 부의장으로 하며, 유관부처의 장·차관급 인사, 문화부 산하 교육기관장, 예술가 협회장, 지역 관련 부처장 등으로 구성됨.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결정 PP-4730호(2020.05.26) “우즈베키스탄 문화부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부속서 4.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문화발전 개념을 이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 참고. <https://lex.uz/docs/4828880> (검색일: 2020.07.10)

[그림 5-12]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중앙사무소 구조



자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결정 PP-4730호(2020.05.26) 「우즈베키스탄 문화부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부록 2.  
(<https://lex.uz/docs/4828880>) (검색일: 2020.07.10) 및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웹사이트 참조 및 재구성  
(<http://madaniyat.uz/site/app-view>) (검색일: 2020.07.13)

123) 1996년부터 문화·과학·관광 분야의 대외협력 업무는 외무부 국제협력실에서 담당해왔으나, 2016년 12월 관광 개발에 대한 국가위원회(State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ourism Development)가 설립되고, 2019년 1월 에는 투자위원회와 대외무역부가 통합된 형태의 투자 및 대외무역부(Ministry of Investments and Foreign Trad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가 설립되어 대외협력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2019년 5월 정부 결의에 의해 폐지되고 문화 분야의 대외협력 업무를 문화부로 이관함

## 2) 문화관련 인프라 현황<sup>124)</sup>

### ■ 중앙아시아 내 우즈베키스탄의 위상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 보유국이자 문화·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대표함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3,240만 명(중앙아시아 5개국 중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5개국 모든 국가 및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
  - 우즈베키스탄은 실크로드의 중심지이자 호레즘 왕국, 티무르 제국 등 중앙아시아 역사를 주도했던 왕조의 근거지로서 유구한 역사와 높은 문화적 전통 보유

### ■ 전통문화

- 독립 이후 전통 회교 문화가 복원되고 터키·이란 등 외부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 확대로 현대 중앙아시아 회교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
- 우즈베키스탄 민요(3/4박자)와 전통춤(안디잔·부하라·호레즘 지역 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주요 가무
- ‘마할라(‘마을’을 뜻함)’라 불리는 단위 조직을 형성하여 정보 교류 및 의사소통을 통해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마을 조직 문화 존재
- 티무르 제국의 창시자이자 우즈베키스탄의 영웅으로 숭상 받는 아미르 티무르(1336~1405), 티무르의 손자인 울루그베크(1394~1449), 우즈베키스탄 문학의 창시자인 알리셰르 나보이(1441~1501) 등 문화적 소재를 삼은 역사적 인물이 다양한 편

### ■ 인구구성

- 125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세 이하 인구가 전 인구의 56.5% 차지
  - 인종구성: 우즈베크인(81%), 러시아인(5.5%), 타지크인(5%), 카자흐인(3%), 카라칼팍인(2.5%), 고려인(0.6%)

### ■ 종교

- 고대에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8~9세기 아랍 침략 이후 이슬람화
  - 현재 우즈베크인 88%가 무슬림(수니파 70%)

124) 이하 별도 자료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외교부(2019), 「우즈베키스탄 개황」, 46~53쪽, 72~78쪽 참조 및 재구성

- 독립 이후 전통 회교 문화가 복원되고 터키·이란 등 외부 이슬람 세계와의 교류 확대로 현대 중앙아시아 회교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으나,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철저한 정경(政教) 분리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정치 불안 요소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종교정책을 지지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접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과격 시아파 원리주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음

## ■ 한국어 및 한국학 현황

- 2019년 2월 기준으로 총 104개 초·중·고교 및 대학교와 한글학교에서 2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중
  - 대학교: 14개 대학교에서 47명의 교원 및 2,2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수강 중
    - \* 한국어과/한국어전공 개설: 4개 대학교(동방대, 사마르칸트외대, 니자미사범대, 세계 언어대)
    - 제2외국어 수업 진행: 세계경제외교대 등 9개 대학교
  - 초·중·고등학교: 37개 학교에서 67명의 교원이 10,470명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외국어 정규 교과목으로 교육 중
  - 한국교육원: 2019.2월 현재 25명의 한국어 교사(주로 고려인)가 한국교육원 내 50개 학급에서 3,700여 명의 수강생들에게 한국어 강의
  - 타슈켄트 세종학당: 교원 10명, 학생 500여 명(연간 1,500여 명 수강)
- 2018.9월 동방대학교에 중앙아시아 최초의 한국학 단과대학 개설
  - 한국어문학과, 한국역사문화학과, 한국경제정치학과에서 총 80명 모집

## ■ 교민 및 한국기업 현황

- 우즈베키스탄에는 수도인 타슈켄트시를 중심으로 약 3,0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지상사원·유학생 등이 주류
- 현재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은 약 18만 명으로 CIS(총 50만 명) 국가 중 최다
- 2018년 12월 기준 636개의 한국 기업 또는 한국 투자 기업이 진출하여 활동 중
  - 대표기업: 한국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삼성전자, POSCO대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GS건설 등

## ■ 정부 간 협의체 현황

- ‘한-중앙아 협력 포럼’, ‘한-우즈베키스탄 정책협의회’, ‘한-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 공동위원회’ 등 주로 경제분야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정책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경우 2007년 출범 후 2017을 제외하고 2018년까지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총 11회 개최), 2019년 기준 정책협의회는 총 13차례, 무역경제공동위는 총 9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다만 한-우즈베키스탄 문화공동위원회는 1994년 문화협정 체결 이후 2004년 제1차 회의, 2006년 제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음

## 라. 아제르바이잔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 일반 정책 현황

#### ① 아제르바이잔의 국가발전계획<sup>125)</sup>

##### ■ 아제르바이잔 2020

- 現 일함 알리예브 대통령은 2012년 12월 석유와 가스 수출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고 인적지원, 물리적 인프라, 제도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국가발전전략 비전으로서 “아제르바이잔 2020(Azerbaijan 2020: Look into the Future)”을 발표함
  - 특히 비석유 부문 발전전략으로 △비석유 가공 산업 발전(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 촉진방안 마련 △관광인프라 및 농업 발전을 제시함

〈표 5-16〉 아제르바이잔 2020 주요 목표

목표 및 세부주제
1. 2020년까지 인재개발을 우선순위로 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2. 2020년까지 1인당 GDP 13,000 달러 달성
3. 2020년까지 GDP 중 비석유 분야 비중 연평균 7% 달성
4. 2020년까지 비석유분야 수출 1인당 1,000 달러 달성
5.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
6. 월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1).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17쪽

##### ■ 국가경제 및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

- 2016년 12월 발표한 “국가경제 및 주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통해 비석유 부문과 교육, 금융, 공공서비스 등 11개 주요 사회경제 부문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경제발전전략으로 비석유 부문의 발전과 함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을 제시함

125) 이하는 관계부처 합동(2020.1),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17~18쪽, 및 정동연·강부균(2018), “코카서스 3국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3쪽 참조 및 재구성

- 특히, 특수관광업과 관련하여, △바쿠(Baku) 관광 잠재력 극대화·국가 관광 진흥 기구 설립, 바쿠 홍보 캠페인 실시, 관광인프라 개발, △관광협의회 설립, 관광오락구역(Tourism Recreation Zones) 조성, 항공을 통한 주요 도시와의 연결성 향상, △웰빙, 겨울 시즌, 문화, 비즈니스, 지속가능(농촌·생태) 관광상품 등 지역 관광상품 개발, △교육, 표준화 및 인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관광품질 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목표를 제시함

## ② 아제르바이잔의 문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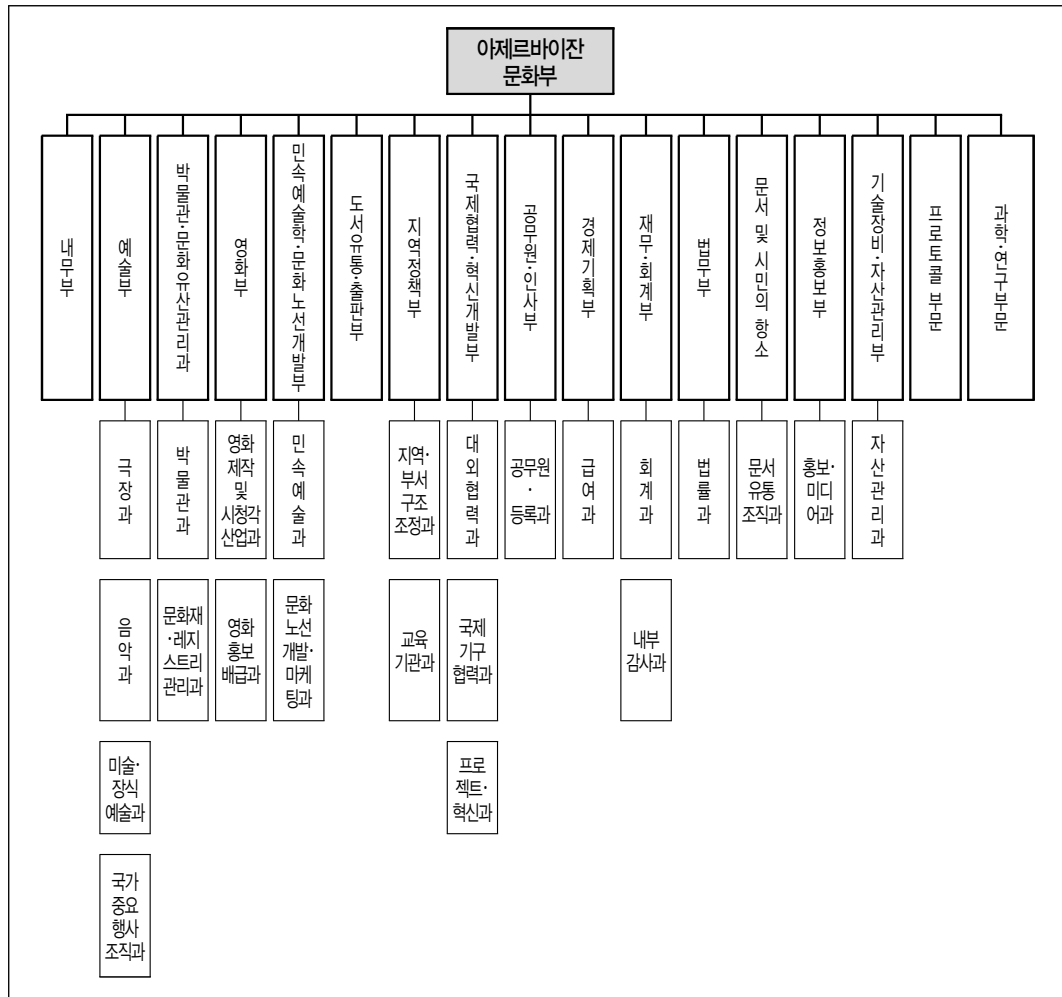
###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문화개념

- 2014년 2월 14일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승인한 본 문서에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문화개념 정의와 더불어 해당 개념에 따른 분야별 주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문화개념의 목표: 아제르바이잔인의 무결성 보장, 문화정책의 보호, 현대적 요구에 맞춘 시스템 개선, 문화유산의 보호, 창의성 지원 및 개발, 모든 문화분야의 발전, 문화정책의 관리, 법률, 재무, 정보, 인적자원, 물적 및 기술 인프라, 국제협력과 같은 보안 매커니즘 개발, 문화유산 확보에 필요한 개혁 이행 보장 등
  - 분야별 세부목표: (행정기능 강화)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 △문화관리 방법의 현대적 개혁, △재원의 다양화, △정보제공의 개선,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현대화, △국제협력(문화유산 보호) △무형 문화유산 보호, △역사·문화적 기념물 복원 및 역사·문화 보호구역 개발, △박물관 업무 현대화, △도서관 및 정보네트워크 현대화(전문기술 개발) △전문 연극예술 개발, △전문 음악 예술 지원, △공예예술 홍보(문화산업 발전) △영화촬영법 개발, △출판·인쇄사업 발달

### ■ 문화분야 담당조직

- 아제르바이잔 문화부는 문화유산, 문화, 예술, 역사 및 보호, 출판 및 영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정책 및 규제를 시행하는 중앙 집행 기관임
  - 2018년 제정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문화부 규정에 따라 문화부의 활동 영역, 권리와 의무, 조직구조 등이 규율됨

[그림 5-13] 아제르바이잔 문화부 조직도



자료: 아제르바이잔 문화부 홈페이지(<http://mct.gov.az/en/structure-and-coworkers>) (2020.06.14) 참조

## 2) 문화관련 인프라 현황

## ■ 전통문화

- 전통음악으로는 무감이 있으며 우리의 창과 유사하며 무감 노래 시 반주 악기로는 나가라(북), 고사나가라(쌍북), 가발(탐버린)이 있음. 무감가수로는 알림 가시모프가 유명하며 무감은 재즈에도 영향을 미쳐, 재즈 무감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개척됨
- 유목민족으로 춤을 좋아하며 결혼식 등 축제 시 춤을 추는 전통이 있음
- 가장 전통적이고 유명한 공예품은 카펫으로 바쿠 및 지방에 카펫박물관이 있음
- 전통 스포츠로는 말을 타고 하는 경기로 폴로 스포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초브간(Chovgan)’이 있으며 2013년 10월 우리의 김장문화와 함께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

## ■ 언어

- 공용어는 아제르바이잔어로 알타이어계에 속하며 한국어와 어순이나 문법 구조가 비슷함
- 1922년 라틴 알파벳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으나 1939년 키릴 알파벳이 도입되었다가 독립 후인 1991년 다시 수정 라틴 알파벳으로 전환함. 짧은 기간에 공식 문자가 3번이나 바뀌는 혼란을 경험한 아제르인들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공서에서 쓰는 문자를 라틴 알파벳으로 통일하고 학교에서도 아제르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 종교

- 이슬람교(96%)로 이 중 시아파 85%, 수니파 15%), 러시아 정교 및 아르메니아 정교 (3%), 무교 (2%), 기타(1%)

## ■ 교민 및 한국기업 현황

- 교민 현황: 약 190명(2019년 3월 기준)
  - 일반 115명, 상사원 30명 (삼성, LG 등), 유학생 20명, 공관원 및 국제기구 25명, 약 20여명의 고려인 가족 거주
- 한국기업 지상사 현황
  -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 전자, 희림건축, 유니코 로지스틱스, 한솔 EME, 삼미건설 등이 진출함
  - '07.7월 아제르바이잔 한국경제인 협의회(KOBA) 구성

## ■ 아제르바이잔 내 한국어과 및 한국학 현황

- 아제르바이잔 언어 대학, 바쿠 국립대학, 나흐치반 국립대학, 아제르바이잔 기술 대학, 헤제르 대학 등 아제르바이잔 내 5개 대학에서 한국어과(또는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세종학당이 운영 중
- 2019년 8월 현재 200여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수강중이며 한류의 영향 등으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증가

### 3 한국의 對신북방 문화ODA 현황과 전략

#### 가. 신북방 권역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현황

##### ① 한국의 對신북방 문화ODA 지원현황

- 2009~2018년까지 10년간 러시아 및 중국(동북3성)을 제외한 신북방 권역 12개 국가에 한국이 제공한 문화ODA 규모는 약 4.72백만 달러(약 5억 6,700만원) 규모임
- 신북방 지역에 제공된 한국의 문화ODA는 '문화 및 레크레이션' 및 '관광정책 및 행정 관리' 분야에 국한되어 있음

〈표 5-17〉 한국의 對신북방 문화ODA 규모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공여국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신북방	문화 및 레크레이션	0.45	0.20	0.49	0.45	0.45	0.65	0.33	0.35	0.39	0.20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2	0.02	0.02	0.01	-	0.12	0.03	0.13	0.18	0.19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	-	-	-	-	-	-	-
		합계	0.47	0.22	0.52	0.47	0.45	0.77	0.37	0.49	0.58	0.39
2	몽골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6	0.06	0.29	0.25	0.21	0.20	0.13	0.23	0.15	0.15
		관광정책 행정 관리	-	0.02	0.02	0.01	-	-	0.03	0.04	0.07	0.07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	-	-	-	-	-	-	-
		합계	0.06	0.08	0.31	0.26	0.21	0.20	0.16	0.26	0.22	0.23
3	우즈베키스탄	문화 및 레크레이션	0.15	0.09	0.18	0.17	0.20	0.17	0.16	0.09	0.09	0.04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2	-	-	-	-	0.12	-	0.10	0.12	0.11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	-	-	-	-	-	-	-
		합계	0.17	0.09	0.18	0.17	0.20	0.29	0.16	0.19	0.20	0.15

주: 신북방 권역 12개국(중국 동북3성 및 러시아 제외)을 대상으로 도출(총 지출액 기준)

자료: ODA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20.07.03)

## ② 신북방 권역 주요국(3개국) 대상 문화ODA 지원현황

- 신북방 권역 중점협력국 3개국(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을 대상으로 주요 원조 공여국 8개국(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이 제공한 문화ODA는 2018년 기준 약 1.277백만 달러(약 1억 5,300만원)에 해당함
  - 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이 문화ODA와 관련하여 해당 개발협력국에 제공한 약 1.732백만 달러(약 2억 800만원)의 약 73.74%에 달하는 수치임
  - 특히 GNI대비 원조규모가 가장 많은 노르딕 국가들(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해당 개발협력국들에 대해서는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에만 제한적인 수준의 문화ODA를 제공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기준 한국은 주요 공여국 8개국 중 신북방 지역 주요 3개국에 가장 원조를 제공한 국가에 해당함

〈표 5-18〉 주요 공여국 문화ODA 규모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공여국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한국	문화 및 레크레이션	0.207	0.145	0.471	0.419	0.406	0.363	0.288	0.500	0.247	0.365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17	0.023	0.025	0.015	-	0.124	0.032	0.135	0.182	0.186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	-	-	-	-	-	-	-
		합계	0.224	0.168	0.496	0.434	0.406	0.488	0.320	0.635	0.429	0.552
2	일본	문화 및 레크레이션	3.029	3.809	1.254	0.606	0.199	0.195	0.311	1.455	1.231	0.200
		관광정책 행정 관리	0.121	0.090	0.220	0.147	0.087	0.068	0.155	0.206	0.187	0.075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	0.027	0.445	-	0.018	0.333	-	-
		합계	3.150	3.899	1.474	0.780	0.730	0.263	0.484	1.994	1.419	0.276
3	프랑스	문화 및 레크레이션	1.282	0.176	0.969	0.494	0.490	0.271	0.300	0.380	0.315	0.200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21	0.011	0.018	0.012	-	-	-	-	-	-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	-	0.177	0.125	0.071	0.062	0.019	0.073
		합계	1.303	0.186	0.987	0.506	0.667	0.396	0.370	0.443	0.335	0.273
4	독일	문화 및 레크레이션	0.345	0.603	0.323	0.869	0.675	1.376	0.420	0.089	0.200	0.162
		관광정책 행정 관리	0.333	0.391	0.514	-	-	-	-	0.005	0.003	-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0.015	-	-	-	-	-	-	-
		합계	0.678	0.994	0.852	0.869	0.675	1.376	0.420	0.094	0.202	0.162

순위	공여국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	스페인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52	0.068	0.038	-	-	-	-	-	-	-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00	0.001	0.012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	-	-	-	-	-	-	-
		합계	0.052	0.068	0.038	-	-	-	-	0.000	0.001	0.012
6	포르투갈	문화 및 레크레이션	-	-	-	-	-	-	0.003	0.002	0.001	0.003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0.001	-	-	-	-	-	-	-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	-	-	-	-	-	-	-
		합계	-	-	0.001	-	-	-	0.003	0.002	0.001	0.003
7	노르웨이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29	0.033	0.072	0.022	0.017	0.016	-	-	-	-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	-	-	-	-	-	-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	-	-	-	-	-	-	-
		합계	0.029	0.033	0.072	0.022	0.017	0.016	-	-	-	-
8	스웨덴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23	0.007	-	0.013	0.012	0.000	0.051	-	-	-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	-	-	-	-	-	-
		자연문화 유산 보호	-	-	-	-	-	-	-	-	-	-
		합계	0.023	0.007	-	0.013	0.012	0.000	0.051	-	-	-
29개 DAC 회원국 전체			5.615	6.110	6.397	3.340	2.826	2.795	1.864	3.478	2.832	1.732

주: 2018년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주요 공여국 간 문화ODA 순위를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 보호) (검색일: 2020.07.03)

〈표 5-19〉 세부분야별 문화ODA 지원현황 (문화 및 레크레이션)

(단위: 백만 달러)

DAC 사업유형	주요국	문화ODA 사업	지원액
프로젝트 (C01)	한국	(몽골) 해외 작은 도서관 건립	0.176
	일본	(아제르바이잔) 기술협력 활동 (TC Aggregated Activities)	0.018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D01)	한국	(몽골)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0.153
		(우즈베키스탄)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0.036
	일본	(몽골) 기술협력 활동 (TC Aggregated Activities)	0.144
		(우즈베키스탄) 기술협력 활동 (TC Aggregated Activities)	0.037
	프랑스	(몽골) 알리앙스 프랑세스 (문화분야 활동)	0.11

DAC 사업유형	주요국	문화ODA 사업	지원액
기타 기술원조 (D02)	독일	(우즈베키스탄) 괴테 인스티튜트 (지역사회 파트너십)	0.087
		(몽골) 괴테 인스티튜트 (지역사회 파트너십)	0.075
	프랑스	(몽골) 프랑스문화원 (문화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협력·문화실 (SCAC, 울란바토르 국제영화제, 전문가 세미나, 인식 제고활동 등)	0.045
		(아제르바이잔) 독일 대외관계연구소(IFA) 기금 (문화활동), 협력·문화실(SCAC,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건국 100주년 기념 전시, Doisneau 전시 준비)	0.019

주: 지원금액이 0.01백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2018년, 총 지출액 기준)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 (검색일: 2020.07.04)

## 2) 특징 및 시사점

### ■ 신북방 권역 중점협력국 대상 문화ODA의 특징

- 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을 대상으로 주요 원조 공여국 8개국이 제공한 사업유형별 문화ODA는 2018년 기준 약 1.277백만 달러(약 1억 5,300만원)임
- 2018년 주요 원조 공여국 8개국 중 상기 3개국에 문화ODA를 제공한 국가는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의 6개국이며, 이 중 한국이 가장 많은 0.552백만달러(약 6,600만원, 6개국 중 43.20%)의 원조를 제공함
  - 한·일·프 3국 모두 50% 이상의 원조액을 몽골에 제공하고 있어 몽골이 신북방 권역에서 지니는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음
- 세부분야별 비중을 보면 ‘문화 및 레크레이션’ 약 0.930백만달러(72.84%), ‘관광정책 및 행정 관리’ 약 0.274백만달러(21.44%), ‘자연문화유산 보호’ 약 0.073백만달러(5.73%)로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음
  - 특히 ‘자연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경우,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기타 기술협력’의 유형으로 세 국가에 모두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프랑스 외무성 주관 하에 몽골,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고고학 발굴 및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은 최근 신북방 권역 중점협력국 3개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ODA 공여를 활발히 확장해나가고 있음
  - 특히 다른 주요 원조 선진국들의 해당 권역으로의 원조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공여 비중이 확장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국과 신북방 권역 간 협력에 있어 우호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 그러나 개도국 유학생/연수생 지원, 기타 기술원조 등으로 사업유형을 점차 다변화 해가고 있는 프랑스, 일본 등과는 다르게 한국의 주요 문화ODA는 아직 KOICA 해외봉사단 및 자문단의 파견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사업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 사업의 성료가 인접 분야의 연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사업유형에 초점을 맞춘 문화ODA를 구상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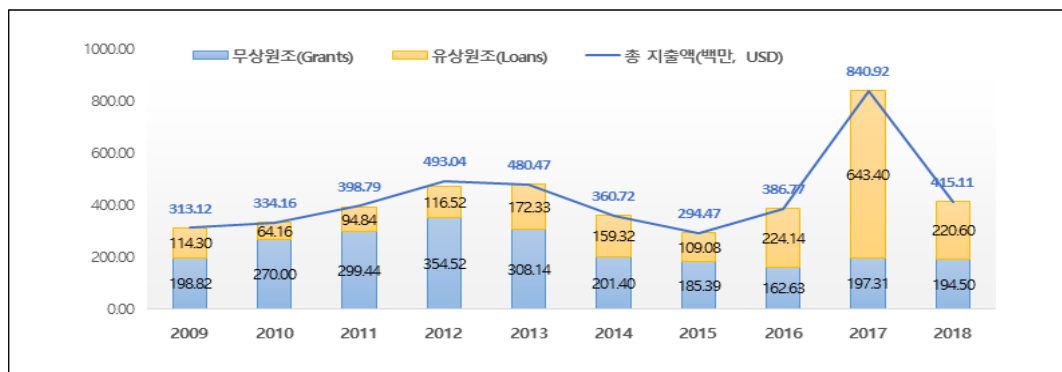
## 나. 몽골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문화ODA 현황

#### ■ 對몽골 문화ODA 현황

-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국제사회가 몽골에 제공한 문화ODA 분야 원조(다자기구 제외) 규모는 연평균 431.76백만 달러(약 518억 3,800만원, 총 지출액 기준)로, 평균 11.33%씩 증가함
  - 2017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년 대비 117.42% 증가한 840.92백만 달러(약 1,009억 6,300만원)가 지원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정책차관 315백만 달러 및 세계은행의 경제관리 지원을 위한 개발정책파이낸싱(DPF) 122백만 달러의 차관 지출의 영향인 판단됨<sup>126)</sup>
- 같은 기간 몽골에 제공된 문화ODA분야 연평균 유/무상 원조는 각각 191.87백만 달러(약 2,303억 6,050만원)와 237.22백만 달러(2,848억 570만원), 연평균 비중은 40.92% 대 59.08%로 무상원조의 비중이 더 높음
  - 다만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무상원조의 비중이 유상원조를 압도하고 있으나, 점차 대등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 5-14] 對몽골 문화ODA 추이 및 유/무상원조 규모 변화(2009~2018)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 보호) (검색일: 2020.07.06)

1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9.11), 「19년 국가협력전략(CPS) 중간평가 최종보고서」, 19쪽

- 몽골 문화ODA 관련 분야 상위 10대 공여국의 2018년 원조액은 254.269백만 달러(약 3,066억 4300만원)로, 이는 전 세계 공여국들이 제공한 문화ODA의 61.25%에 해당하는 수치임
  - 2018년 한국의 대몽골 문화ODA 공여액은 80.10백만달러(약 961억 6,900만원)로 전체의 19.30%를 차지
- 한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평균 37.73백만 달러(약 452억 9,600만원)를 제공하며 몽골 최대 공여국 5위권 안에 꾸준히 머물러 있음
  - 2009년도 한국의 문화ODA 공여액은 39.265백만 달러(435억 4,000만원, 전체 공여액의 11.75%)로, 10년 새 약 2배의 성장세를 보임

〈표 5-20〉 몽골 top10 공여국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3	한국	한국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독일
4	독일	독일	한국	한국	한국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5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호주	호주	미국	미국	미국
6	호주	캐나다	호주	호주	호주	미국	미국	캐나다	호주	호주
7	캐나다	호주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캐나다
8	프랑스	프랑스	핀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9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캐나다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프랑스	벨기에
10	노르웨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핀란드	영국	영국	영국	영국	프랑스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 보호) (검색일: 2020.07.06)

## 2) 문화ODA 특징 및 시사점

- 한국과 몽골은 상호 중요한 원조 파트너로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음
  - 2018년 기준 한국은 베트남,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몽골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sup>127)</sup>, 몽골에 있어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에 해당

127) 유상원조는 4위, 9위에 해당함(총 지출액 기준) ODA통계(<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20.07.13)

- 최근 몇 년간 문화ODA 분야의 사업실적을 보면 해외봉사단 및 자문단 파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협력하는 사업유형이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 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과거에 진행되었던 유사사업 및 향후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몽골 정부가 “비전 2050”에 입각하여 한국이 현재 설정한 몽골 중점협력분야 역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문화강국'을 제1목표로 삼음에 따라 문화ODA 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문화분야에서의 사업방향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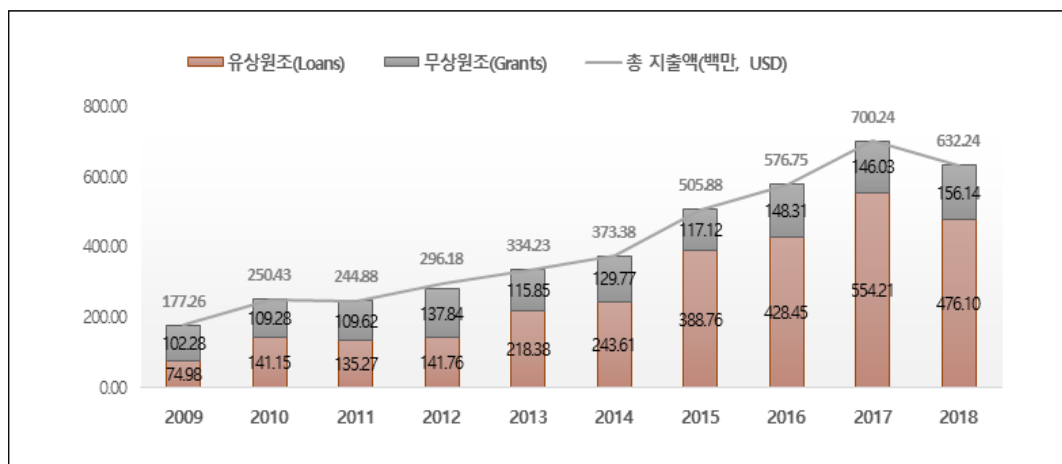
## 다. 우즈베키스탄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문화ODA 현황

#### ■ 對우즈베키스탄 문화ODA 현황

-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우즈베키스탄에 지원된 문화ODA 분야 원조규모는 연평균 409.15백만 달러(약 493억 4,300만원, 총 지출액 기준)로 평균 16.20%의 증가세를 보임
- 이 중 유상원조는 280.27백만 달러, 무상원조는 127.22백만 달러에 해당하며, 평균적으로 64.08% 대 25.92%의 비율로 유상원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5-15] 對우즈베키스탄 문화ODA 및 유/무상원조 규모 변화(2009~2018)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 보호) (검색일: 2020.07.06)

- 2018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문화ODA 상위 10개국의 원조액을 합하면 298.55백만 달러(약 36억원)로, 전체 공여국이 제공한 문화ODA의 47.15%<sup>128)</sup>에 해당함
- 한국은 2018년 한 해 37.402백만 달러(약 451억 700만원)를 우즈베키스탄 문화ODA에 할애, 일본 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문화ODA에 지원하고 있음
  - 2009년 한국이 제공한 문화ODA는 8.231백만 달러로, 10년 동안 약 4.5배 증가함

〈표 5-21〉 우즈베키스탄 문화ODA top10 공여국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일본	한국	일본	독일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	독일	일본	한국	일본	독일	독일	한국	한국	한국	한국
3	미국	독일	독일	한국	미국	미국	독일	독일	독일	독일
4	한국	미국	미국	미국	한국	한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5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프랑스	프랑스	스위스	프랑스
6	스위스	영국	스위스	영국	프랑스	영국	스위스	스위스	프랑스	스위스
7	영국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영국	프랑스	영국	영국	영국	영국
8	스웨덴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9	그리스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
1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스페인	스페인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 보호) (검색일: 2020.07.06)

## 2) 문화ODA 특징 및 시사점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문화ODA는 신북방 권역 중점협력국들 가운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른 두 국가에 비해 유상원조, 및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임
- 2017년 정권을 잡은 미르지요예프 정부가 사회 전 방위에 걸쳐 역동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및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어 향후 양국 간 협력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 우즈베키스탄이 추진하는 국가발전전략상에서 문화분야는 주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주요 거점 박물관 건립에 국한되어 있으나, 관광산업을 국가 중

128)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개발협력국들에 비해 문화ODA 상위 10개국에의 편중도가 낮은 편인데, 역설적으로 전체 원조액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더 적은 수준임. 2018년을 기준으로 일본(34.41%), 한국(5.92%), 독일(3.40%), 미국(1.73%)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모두 1% 미만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점 사업 중 하나로 인식하고 각종 특화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지역 고유의 문화소재 개발 및 자원화를 위한 현지 역량 강화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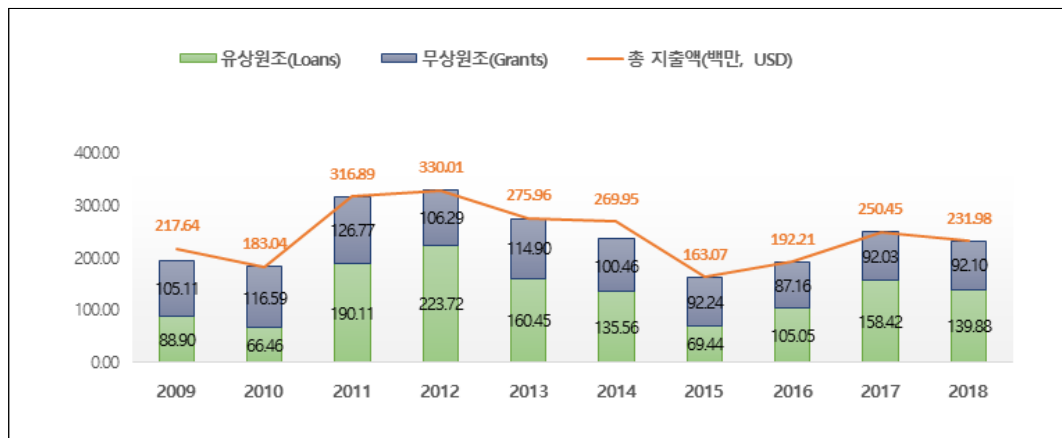
## 라. 아제르바이잔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문화ODA 현황

#### ■ 對아제르바이잔 문화ODA 현황

-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아제르바이잔에 제공된 문화ODA 규모(총 지출액 기준)는 연평균 243.12백만 달러(약 291억 8,900만원)임
- 같은 기간 문화ODA 유상원조는 연평균 133.8백만 달러(약 160억 6,400만원), 무상원조는 연평균 103.36백만 달러(약 124억 1,000만원)가 지원되었으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간 비율은 각각 연평균 54.68%, 45.32%에 해당함

[그림 5-16] 對아제르바이잔 문화ODA 추이 및 유/무상원조 규모 변화(2009~2018)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 보호) (검색일: 2020.07.06)

- 상위 10개 공여국이 지원한 문화ODA 분야 원조액은 2018년 기준 162.340백만 달러(약 194억 9,100만원)로, 이는 전체 공여국이 아제르바이잔에 지원한 원조액의 70%에 달하는 수준임
- 한국은 2009년 1.673백만 달러(약 20억 860만원, 전체 공여국 대비 0.77%)를 아제르바이잔에 제공하였으며, 2018년 현재 약 13배에 달하는 21.787백만 달러(약 261억 5,800만원) 규모로 성장함

- 한국은 2010년 이후 줄곧 아제르바이잔 전체 공여국 중 3-4위 규모의 원조를 제공해왔으며, 2018년 전체 공여액의 9.39%를 담당하였음

〈표 5-22〉 아제르바이잔 문화ODA top10 공여국

순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독일	미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독일
2	미국	독일	미국	미국	미국	독일	독일	독일	독일	일본
3	프랑스	프랑스	독일	독일	독일	한국	미국	한국	한국	프랑스
4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미국	한국
5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영국	스위스	프랑스	미국
6	노르웨이	일본	노르웨이	노르웨이	영국	영국	프랑스	프랑스	스위스	스위스
7	러시아	노르웨이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스위스	영국	영국	오스트리아
8	한국	스웨덴	영국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웨덴
9	영국	영국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10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페인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 보호) (검색일: 2020.07.06)

## 2) 문화ODA 특징 및 시사점

- 신북방 권역 다른 두 중점 개발협력국에 비해 아제르바이잔의 문화ODA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개별 원조 건수에 의해 전체 원조 구성이 영향 받을만큼 소규모임
- 현재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토대로 국가 비전(아제르바이잔 2020), 국가발전프로그램, 분야별 로드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시각에서의 국가발전전략을 의욕적으로 구상,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분야 발전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
  - 주요 분야나 전략 면에서 아직 산업 간 균형발전 및 공공서비스 개선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화분야에 대한 시각은 국가발전계획상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다만 특수 관광업이 주요 11개 산업분야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한 문화ODA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문화ODA 분야 원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통신, 전자정부, 스마트농업, 관광산업 등의 분야에 있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 아프리카 일반현황

#### 가. 역사·지리적 특성<sup>129)</sup>

##### ■ 아프리카 대륙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

- 아프리카 대륙의 면적은 아시아 대륙에 이어 제2위 규모이며 2016년 말 기준 12.2억 명으로 집계되어 아시아 대륙(44.4억 명)에 이어 제2위 규모이자 전 세계 인구의 16.2%에 해당함
- 역사적으로 서구 열강에 의한 노예무역과 식민 지배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경험한 바 있음
  - 서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유럽 및 아메리카 노예무역이 이루어졌으며 동아프리카는 중동 노예무역이 이루어짐
- 1885년 베를린회의(Berlin Conference)로 서구 열강의 식민지 분할이 공식화되었으며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주의(colonialism) 시대가 본격화됨.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무력 진출과 경쟁을 더욱 촉발하여 제1차 세계대전 원인 중 하나를 제공함
- 열강들이 일방적으로 획정한 국경은 아프리카의 민족 구성 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훗날 서로 이질적인 여러 민족이 강제로 묶이면서 갈등을 초래하여 심한 경우 내전으로 비화하는 등 현재까지 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정과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대내외적인 분쟁과 대립의 위험 상존

-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대내외적인 분쟁과 대립의 위험이 남아 있음
  - 1946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서구 식민 종주국으로부터의 독립 관련 제외) 가운데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분쟁은 총 124건으로 전 세계(323건)의 38.4%를 점유하고 있음
- 정치적 이유 외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기인한 국가 간 또는 국내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129) 한국수출입은행(2018), 「2018 아프리카편람」, 16~20쪽 참조 및 재구성

-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정부-군벌 간 내전(시에라리온), 자원 소재지 주민의 경제적 소외로 인한 테러(나이지리아 유전지대), 인접국 자원 약탈 및 양민 학살(콩고민주공화국 국경 인근에서 르완다와 우간다가 자행) 등 유형이 나타남
- 이슬람근본주의를 추종하는 무슬림 세력에 의한 국내 종교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됨

## ■ 취약한 경제기반과 빈곤 지역 이미지

- 대부분 농업, 광업 등 1차 산업에 크게 의존하며, 제조업 기반은 남아공을 제외하면 매우 취약함
  - 농업은 대부분 기후조건에 따라 작황이 크게 좌우되며 주요 수출품목도 농산물이나 소수의 광물자원에 한정됨
- 국가 주도에 의한 수입대체 산업 육성의 노력이 각국에서 이루어졌으나, 인프라 부족에 따른 높은 운송비, 영세한 시장규모, 기술·자본·숙련인력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군사 쿠데타, 장기 1인 독재체제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불안정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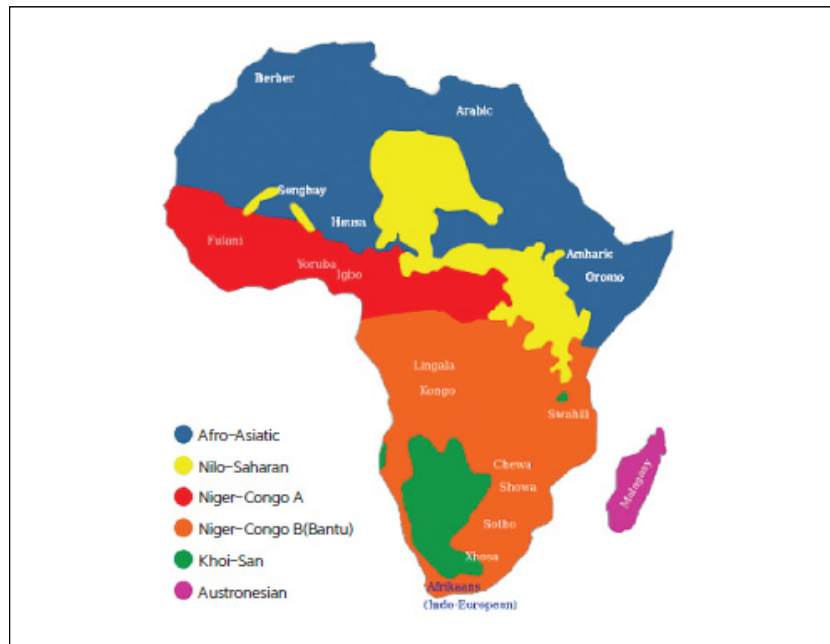
- 아프리카는 저발전, 기아, 부패, 분쟁, 내전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였으나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낙후된 땅에서 미래의 떠오르는 대륙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전체 인구 대비 높은 청년 비율, 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정치적 안정, 중산층 확대, 교육 수준 발전, 인프라 및 인간개발 요구 영역의 증 등에 바탕을 둬
- 민주주의가 확산되어 정치적 안정이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기대됨
- 내전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인프라 부족, 인구 절반이 최소 빈곤선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인간개발이 주로 의식주 환경 개선에 머물러 있다는 점, 최근 COVID-19로 불거진 취약한 보건위생 문제는 경제발전을 저해할 요소로 지적됨

## 나. 언어·종족·문화적 특성

### ■ 다양한 문화를 지닌 주체의 공존<sup>130)</sup>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부족, 종교, 언어 그룹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
  - 전통적으로 원주민들은 부족을 이루어 주변 환경에 맞게 유목 혹은 정착 생활을 하였으며, 이집트, 가나, 말리,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는 왕국이 존재하였음
- 북아프리카는 아프로-아시아계(Afro-Asiatic: 아랍계)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니제르 콩고계(Nigero-Congo)를 주축으로 하는 흑인(negroid) 주민이 다수임
- 다양한 언어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기도 함. 같은 언어계열이라 하더라도 부족별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 영어나 프랑스어 등 서구 언어를 제1공용어로 두는 편임. 탄자니아의 스와힐리어(Swahili), 르완다의 키냐르완다어(Kinyarwanda), 부룬디(Kirundi)처럼 드물게 아프리카 고유언어가 제1공용어로 쓰이기도 함
  -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언어 분포는 아프로-아시아계, 나일-사하라계, 니제르-콩고 A·B계, 코이산계, 오스트로네시아계 등으로 분류되며, 각 그룹에 속하는 언어의 종류는 총 2,000여 종으로 알려져 있음

[그림 5-17]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언어 분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2018 아프리카편람」, 13쪽

130) 한국수출입은행(2018), 「2018 아프리카편람」, 13~15쪽 참조 및 재구성

〈표 5-23〉 아프리카 대륙의 언어 그룹과 분포 지역

언어 그룹	분포 지역	주요 언어
아프로-아시아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아랍어, 베르베르어, 하우사어
나일-사하라	차드, 남수단, 우간다, 케냐	카누리어, 송하이어, 누비아어
니제르-콩고 A	서아프리카 해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요루바어, 이보어, 아산티어
니제르-콩고 B	적도 이남 지역(최대 언어 그룹)	반투어 계열
코이산	나미비아, 보츠와나 일대	하드자어, 산다웨어, 코웨어
오스트로네시아	마다가스카르	말라가시어

자료: Nations Online(<http://www.nationsonline.org>); 한국수출입은행 (2018), 「2018 아프리카편람」, 14쪽

## ■ 유구한 역사를 통한 고유문화 발달

- 아프리카는 부족마다 독특한 양식의 고유문화를 발달시켜 왔으며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춤, 노래, 그림, 악기, 의복 양식을 통해 지금도 그 특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의복 양식은 마사이부족과 같이 출신 배경을 나타내는 고유의 표식으로 작용하기도 함
- 일찍이 유럽·중동의 영향을 받아 문자가 발달한 북아프리카와 달리 사하라 이남은 구전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에티오피아처럼 고유문자를 사용하는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는 제국주의 시기를 거치면서 자국 언어를 로마자로 표기함
- 서구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존 문화와 결합한 독특한 양식의 문화가 나타나기도 함

## ■ 강한 구전 문화 전통과 낮은 문해율

- 북아프리카 및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문자문화보다는 구전 문화 전통이 강함
- 현재까지도 문해율이 낮아 정보 전달의 주 매개체는 그림, 라디오, 영상임
- 빈곤층 및 저학력층 주민 대상 ODA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대상의 문해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예)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 그림으로 된 설명서 등 제공, 주기적인 프로그램 구두/영상 교육 등
- 국제 원조나 시민사회 지원을 통해 문해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전통문화 훼손 및 단절

- 제국주의 시기 거치며 고유의 유·무형 문화유산이 훼손·단절된 현상이 나타남
- 만성적인 재정과 인력의 부족으로 문화유산을 복원·복구하기 위한 자체적 노력은 희박한 편이며 주로 원조공여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 ■ 한 국가 내 집단별 문화적 상이성이 드러남<sup>131)</sup>

- 부족·종교 등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 집단 간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이러한 다양성은 문화적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바탕이 되지만 국내 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음
- 집단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모두가 접근 가능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 외부문화의 전파와 확산

- 1990년대까지 코카콜라로 대표되는 서구 음식, 축구(특히 유럽 리그), 영화 등 서구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하였다면, 최근에는 한·중·일 등 동북아시아권 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국가별로 주로 소요되는 콘텐츠는 한국은 드라마와 K-Pop, 일본은 출판만화, 중국은 케이블 TV 회사 진출을 중심으로 한 뉴스, 영화, 드라마 등임. 태권도, 가라데, 쿵후 같은 전통무술에 관한 관심도 높은 편임
- 무선 인터넷 발달로 인해 유튜브, 누리소통망을 통한 외부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대중문화의 파급력이 높음
  - 영화나 만화 같은 미디어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럽 축구 경기 영상은 음식점과 주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음. 이러한 콘텐츠를 통한 해당 문화권의 생활양식에 호기심을 갖거나 생활양식을 습득하려는 현상이 나타남
-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 복제한 DVD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점이 성행하며 지인 간 USB를 통해 공유하는 경향 등 미디어 콘텐츠의 불법복제 문제가 지적됨

## 다. 문화적 수요와 특성

### 1) 개발협력국의 문화에 대한 재인식

##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수요 증가<sup>132)</sup>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창의성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창의성 진작 및 인적개발과 연계된 문화 활동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131) 한국수출입은행(2018), 「2018 아프리카편람」, 15쪽 참조 및 재구성

132) UNESCO(2017),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 유네스코는 이와 관련한 핵심지표로 “국제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에 문화통합,” “개발도상국의 문화 및 창의산업에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도상국의 창의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시
- 국가별 발전전략에 문화 다양성, 문화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강화, 관광업 활성화 전략이 포함됨

## ■ 관광업 활성화 수요 증대

- 아프리카에서 관광업은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자 경제성장 동력으로, 경제발전 및 구매력 상승에 따라 내수 관광업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치안 문제, 교통인프라 미비, 관광인프라 부족은 관광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힘

## ■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수요 증대

- 아프리카 국가는 풍부한 전통문화와 자연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나,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에 정부역량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는 정책적 후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할 전략과 이를 시행할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전통문화유산은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단절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존하고 증진할 대책이 필요함

## 2) 경제발전과 문화 수요 증가

### ■ 구매력 향상에 따른 여가문화 수요 증가

-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구매력이 상승함에 따라 여가문화가 확산됨
  - 국가별로 상이하나, 영화관, DVD 대여점, 도서관, 체력단련시설, 미술관, 공연장, 박물관, 주재국들의 문화원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여가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다변화 역시 요구됨
- 구매력을 지닌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여가문화 여건의 편중 현상도 심해지고 있음
- 대형문화시설은 주로 국제원조나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건설됨

## ■ 디지털 문화콘텐츠 수요 증가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인구밀도가 낮고 교통 인프라가 미흡해 2000년대 초부터 모바일 기기(휴대전화)를 이용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됨<sup>133)</sup>
  - 인구밀도가 낮고 유선 통신선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흡해 기지국 건설을 통한 무선통신 발달해옴
  - 2000년대 중반부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송금, 구매가 가능하였음
- SNS나 유튜브 등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파급력이 높음
  - 3G 휴대전화더라도 페이스북, 유튜브, 메신저가 기본적으로 탑재된 기기가 많음
  - 메신저를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공유하며 놀이문화로 발전시킴
-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문화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더불어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기술지원 및 관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함

## ■ 문화교육 수요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정서적 공감형성과 소통, 문화향유로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효과, 역량 개발에 기반을 둔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함
- 한 국가 내에서도 집단 간 문화다양성이 두드러지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집단의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관련 정보 및 지식 전파가 필요함
- 연령층에 따라 필요한 문화교육 목표와 내용은 다름. 따라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여성,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문화자원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수반되어야 함
- 아동 및 청소년 세대는 사하라 이남 발전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문화교육을 통해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 문화교육은 정서 함양 외에도 인지능력, 사고력, 창의력을 북돋는 데 이바지함

1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2020년 5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712&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curr](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03712&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5&search_region=&search_area=&curr)) (검색일: 2020.07.17)

### ■ 한류 인기 상승 및 한국어 학습 수요 증대

- 한국 드라마와 영화, K-Pop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음. 미디어 콘텐츠로 한국을 접하는 경우가 많으며 콘텐츠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음
- 한국어 학습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현지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나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편임
  - 한국어 강사는 KOICA를 통해 파견된 봉사단원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주로 중등교육에 배치되고 있음
- 한국어 수요 증대 배경에는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장학생으로서 한국 유학 기회를 모색하는 고학력자가 다수 있기 때문임. 유학생 지원자들은 한국행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학국에 상관없이 장학기회를 모색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3) 한계

### ■ 지역별·계층별 문화적 빈부격차 증대

- 수도, 도시, 특정 지역공동체 등에 문화자원이 편중되어 문화적 빈부격차를 야기함. 문화적 빈부격차는 비단 도시-농촌 사이뿐 아니라 도시 내 계층 사이에서도 발견됨. 도시 내 마련된 문화시설은 일반 주민보다 외국인이나 경제적 여건이 있는 일부 계층이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도시-농촌 및 계층 간 문화적 빈부격차가 감소하도록 보편적 인구를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문화적 빈부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공시설 확충은 물론 문화자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역시 마련되어야 함

### ■ 건전한 여가 및 놀이문화 부재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아동·청소년 인권은 빠르게 증진되고 있으나 고강도의 노동에 투입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교육권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인적으로 활용할 시간이 나더라도 건전한 여가 및 놀이 문화가 부재해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 가정이나 공동체 내에서 청소년이 여가를 즐길만한 문화 인프라와 문화 자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노동에 투입되기보다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을 위한 여가 및 놀이문화 역시 마련되어야 함

- 청소년이 음주 및 가정 내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 가족 구성원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함

## ■ 공공문화시설 확대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필요

-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이 조성되었지만 수요보다 현저히 공급 수준이 매우 낮은 편임
- 공공문화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거주지에 따른 문화적 빈부격차가 나타남
- 일부 지역의 경우 국제 원조를 통해 지역센터 등이 마련되어 해당 지역의 문화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함
  - 낮은 도시화율을 보이는 지방일수록 교통시설이 미비해 근접한 지역 주민이라 할지라도 접근하기 어려움
- 지방의 경우 관리소홀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됨에 따라 공공 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행정 역량개발이 수반되어야 하며 지속성을 위한 해당 정부의 책임성이 요구됨
  - 유네스코는 이와 관련된 지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계획에 문화통합,” “문화자원의 분배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지역사회의 취약집단이 문화자원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국제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에 문화통합,” “개발도상국의 문화 및 창의산업에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도상국의 창의성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제시

## ■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문화자원 접근성 및 문화역량 강화 기대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가능한 모바일 기기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음
  - 무선통신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낙후지역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수반되어야 함. 무선통신망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문화자원을 제공하고 역량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자원 접근성 및 문화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SNS에 탑재할 UCC 경연대회 등을 통해 지식확산을 꾀할 수 있음

## 라. 한국과의 국제관계

### ■ 對아프리카 ODA 지속해서 증가

- 한국의 對아프리카 ODA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5-24〉 한국의 對아프리카 ODA 추이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대상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프리카 ODA 총액	96.9	142.6	181.4	264.0	274.3	338.4	362.7	421.1	415.3	514.2
전년 대비 상승률	-	47%	27%	46%	4%	23%	7%	16%	-1%	24%
29개 DAC 회원국 전체	30,110	31,216	36,836	32,926	33,728	31,796	29,339	29,818	32,692	33,266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07.06)

###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확대 필요성

- 한국 정부는 한국의 비교우위와 개발협력국의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여 아프리카에 7개의 중점협력국을 두고 있음. 전 세계 중점협력국 24개의 약 30%를 차지하나 아프리카의 대륙 규모 및 국가 수와 비교할 때 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 아시아 11개국, 중동 2개국, 중남미 4개국
- 아프리카 내 중점협력국은 가나, 세네갈(이상 서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이상 동아프리카), 모잠비크(이상 남아프리카)임

### ■ 자원개발 전략 수출지역<sup>134)</sup>

- 아프리카 국가들은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다각화 전략으로 경제다각화 및 제조업 기반 확충을 통한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투자 확대함
-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등 신흥 자원개발국에 대한 플랜트 산업 시장 개척 가능성이 큼
  - 도로, 교량 등 간선 토목에서 항만, 공항, 통신, 주택 등 기초 인프라와 고부가가치 플랜트, 의료, IT 등 다양한 분야 확대 가능성 큼

134) 한국수출입은행(2018), 「아프리카국가편람」, 33쪽 재구성

## ■ 한국의 경제성장 노하우 전수<sup>135)</sup>

-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적자원 개발, 정부 행정역량 강화, 지식기반경제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를 축적하였음. 이는 1차 산업 경제구조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지식과 인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한국의 對아프리카 교육 및 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
- 2017년 말 기준 아프리카 지역 해외투자 누계 실적은 신규법인 625개, 투자금액 42.5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 총 누계 신규법인 수의 0.9% 및 투자금액의 1.1로 여전히 미미함

## ■ 아프리카연합 Agenda 2063 달성을 위한 한국의 협력 기회 확대<sup>136)</sup>

- Agenda 2063 주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중 한국과 협력이 기대되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
  - 아프리카 수도 및 상업중심지 연결 고속철도망 건설: 인류·물자·용역 이동 촉진, 물류비용 감축, 물류시스템 정체 해소
  - 아프리카 사이버대학교 설립:e-learning 노하우 전수를 통한 교육서비스 접근성 증대
  -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창설: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규모 확대에 기여
  - 콩고민주공화국 Grand Inga 수력발전댐 건설: 기술 공유
  - 범아프리카 e-네트워크 구축: 광대역 유선통신 인프라 구축 기술 전수

## ■ 한국 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채널 마련

- 2018년 아시아 최초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 Development Bank) 연차총회를 개최함.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 대륙의 세계은행(World Bank) 격으로 아시아권 최초로 유치했다는 사실은 아프리카의 한국에 관한 관심과 한국의 對아프리카 교류 및 협력 확대 의지를 보여줌
- 2018년 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이 출범하여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며,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모든 사항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고 있음<sup>137)</sup>

135) 한국수출입은행(2018), 「아프리카국가편람」, 36쪽 재구성

136) 한국수출입은행(2018), 「아프리카국가편람」, 39쪽 재구성

137) 한-아프리카재단 홈페이지(<https://www.k-af.or.kr:6026/load.asp?subPage=110>) (검색일: 2020.07.03) 재구성

## 2 문화정책과 제도

### 가. 아프리카 문화정책과 제도 현황

#### 1) 문화인프라 현황

##### ■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성

-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 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정서적 공감형성과 소통, 문화향유로 나타나는 긍정적 정서효과와 역량개발에 기반을 둔 복리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 지속가능개발목표 4.7은 문화다양성 인식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의 의의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확대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제시함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창의성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창의성 진작 및 인적개발과 연계된 문화활동 발굴이 필요함

##### ■ 문화자원 개발 필요성

- 아프리카 국가들은 문화자원을 새로 개발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연계할 재정과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국제원조에 의존하고 있음

##### ■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 체계 수립 필요성

- 아프리카는 식민시대를 거치며 전통문화 단절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계승·발전시킬 정책적 기반이 미흡함
- 전통문화기술 보유자 발굴과 생계 지원, 기술보존 및 확산을 위한 교습서 제작과 보급, 관련 산업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 여가문화 확대를 위한 문화사업 필요성

- 아프리카는 정치적 안정을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여가문화가 확대됨.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다양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 문화적 빈부격차 감소를 위해 공공문화시설 및 공공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현시점에서 공공문화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 수준이 낮으며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 디지털 문화콘텐츠 필요성

- 유선통신보다는 무선통신이 발달한 환경적 특성상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소비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짐. 이를 통해 외부 문화가 유입되고 재창조되는 현상이 나타남
- 보다 다양한 문화적 자극을 제공할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확대해야 함.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협력국의 콘텐츠 창작 및 활용 능력 개발을 지원할 필요 있음

## ■ 창의성 확산을 위한 예체능 교육 필요성

-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을 복돋을 수 있음
- 연령대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취약집단 대상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아동 및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문화교육, 특히 예체능교육이 정규교과과정에 삽입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여가 및 놀이문화를 복돋기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함

## 2) 문화분야 주요국가 발전계획 현황(전략)

### ■ 아프리카연합 Agenda 2063<sup>138)</sup>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2013년 5월 AU의 전신인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창설 40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장기적 발전전략인 Agenda 2063을 선포
- 2062년까지 50년에 걸친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장기적 발전전략을 담음. 최초 10개년 실행계획(First 10-Year Implementation Plan)은 7대 목표별로 우선 추진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최초 10개년 (2014~2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
  - 7개 목표: 1)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아프리카의 번영, 2) 범아프리카주의 이념과 아프리카 르네상스 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으로 연합되고 통합된 대륙, 3) 굿 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존중, 정의구현 및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아프리카, 4) 평화롭고 안전한 아프리카, 5) 강력한 문화 정체성, 공동의 유산, 가치와 도덕성을 지닌 아프리카, 6)

138) 한국수출입은행(2018), 「아프리카국가편람」, 23~25쪽 참조 및 재구성

아프리카인, 특히 여성과 청년의 잠재력과 아동복지를 통해 인간 중심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아프리카, 7) 국제사회의 행위자이자 동반자로서 강력하고 연합되며, 위기 대응력과 영향력을 지닌 아프리카

## ■ Agenda 2063의 문화 부문 전략

- 7대 목표 중 목표 1, 목표 5에 문화 부문 목표 및 발전전략이 명시됨
- [목표 1. 포괄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아프리카의 번영] 아프리카 고유의 자연유산을 건강하게 보존
  - 야생동물과 야생지대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고유한 자연유산,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가치를 인정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지닌 경제·사회 구축
- [목표 5. 강력한 문화정체성과 공동의 유산, 가치, 도덕성] 문화정체성, 유산, 언어, 지역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르네상스(Africa Renaissance) 달성을 추구함
  - 범아프리카주의 대륙 전역에 걸친 완전한 확립
  - 아프리카 르네상스가 정점에 도달
  - 문화, 유산, 언어, 지역적 다양성은 강점의 원인이 되며 이는 아프리카 도서 국가의 유/무형 문화재를 포함

## ■ 문화분야 발전전략과 수행체계

- 국별 발전전략에 문화분야의 중요성이 명시됨. 원조공여국, 국제기구(특히 UNESCO)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강조하는 지식공유, 창의성, 문화다양성, 문화적 권리가 언급됨
- 문화 담당 부처는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체육, 교육, 청소년, 가족, 관광, 예술, 정보통신 분야와 병존함. 문화·체육·관광 부처가 서로 분리된 형태 다수 발견됨
- 아프리카 중점협력국(7개국) 문화·체육·관광 담당 부처
  - 가나: 관광·예술·문화부(Ministry of Tourism, Arts & Culture), 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 세네갈: 문화·통신부(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세네갈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 에티오피아: 문화·관광부(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우간다: 젠더·노동·사회발전부(Ministry of Gender,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관광·야생·고대유물(Ministry of Tourism, Wildlife, and Antiquities), 교육·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 탄자니아 정보·문화·예술·체육부(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rts and Sports), 천연자원·관광부(Ministry of National Resources and Tourism)
- 르완다: 청소년·문화부(Ministry of Youth and Culture), 체육부(Ministry of Sports), 여행·관광부(Ministry of Travel and Tourism)
- 모잠비크: 문화·관광부(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 3) 동아프리카 3개국(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검토 배경

#### ■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중점협력국

- 동아프리카는 14개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는 한국 정부의 중점협력국으로서 한국과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국가발전계획 및 전략 수립 및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오
  - 동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연합 기준에 따라 사하라 이남 이하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동쪽에 인도양, 서쪽에 중부 아프리카, 남쪽에 남부 아프리카를 둠
  - 동부 아프리카 14개국은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가 있음
- 동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도 신흥발전지역으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음. 그중에서도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소요 없이 안정된 정치적 상황을 나타냄

#### ■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는 지리적 여건, 영토 크기, 인구 규모, 경제력 규모, 문화적 속성 등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만 반투(Bantu)계 주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스와힐리어계 언어를 쓴다는 공통점을 지님. 이들 국가는 접경국으로 열강에 의한 국경 획정 이전부터 상호교류가 있었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님

## 나. 우간다 문화정책과 제도 현황

### 1) 일반 정책 현황

#### ■ 우간다 일반현황<sup>139)</sup>

139) 한국수출입은행(2020), 「2020세계국가편람」, 224~225쪽; 한-아프리카미래재단(2015a), 「국별연구 시리즈: 우간다」, 3~9쪽 참조 및 재구성

- 40개의 다른 민족이 고유의 언어, 문화, 관습을 지님. 공용어는 영어와 스와힐리어임. 민족·인종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있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몇몇 민족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강하게 보임
  - 특정 부족 및 지역 출신에 정치적·경제적 이권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전체면적은 한반도의 1.1배 (남한의 2.4배)로 인구는 3,661만 명임. 공용어는 영어이며 루간다어, 스와힐리어, 반투어, 닐로틱어가 쓰임. 가톨릭교 41.9%, 개신교 42%, 이슬람교 12.1%로 구성됨
- 한국과 1963년 수교를 맺었으며 2011년 주 우간다 한국대사관 개설
- 정부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계획 및 전략을 주도
- 1986년부터 무세베니(Yoweri Kaguta Museveni) 대통령이 장기집권 중. 정부는 집중된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계획 및 전략을 주도함
- 내륙국으로서 취약한 경제 인프라를 지녔으나 풍부한 석유 매장량, 농축산물 수출로 경제성장을 지속함

#### ■ 국가발전계획에 문화다양성 확보 및 관광업 활성화 목표 포함<sup>140)</sup>

- 구체적인 문화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우간다 국가발전계획인 VISION2040 내 Social Transformation Pillar 내에 문화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다양한 문화의 수렴하고 단합하기 위한 가치체계를 개발하려 함
- 담당 부처는 젠더·노동·사회개발부(Ministry of Gender,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로 문화정책을 사회개발 측면에서 다루고 있음
- 문화사업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남. 소수부족 보호를 천명하였으나 장기독재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됨

## 2) 문화관련 인프라 현황<sup>141)</sup>

### ■ 영화산업 발달

- 우간다는 사하라 이남에서 드물게 자체적인 영화산업이 발달한 곳임. 인도의 발리우드, 나이지리아의 놀리우드<sup>141)</sup>에 이어 우가우드(Ugawood)라고도 불림

140) 글로벌발전연구원(2017), 「한국형 문화ODA 정책과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연구」, 1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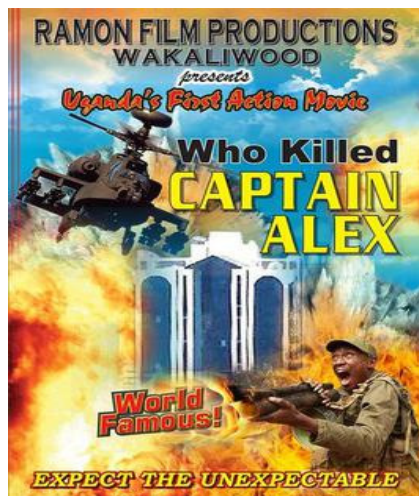
141) 한-아프리카미래재단(2015), 「국별연구 시리즈: 우간다」, 182~183쪽 참조 및 재구성

- 우간다의 대표적인 영화사인 와칼리우드는 ‘누가 알렉스 지휘관을 죽였나(Who killed captain Alex)’와 같은 성공작을 제작하고 외국 감독 및 자본의 러브콜을 받고 있으나, 불법 복제와 적절한 홍보수단의 부족은 영화산업의 장애가 되고 있음

## ■ 관광산업 발달

- 우간다의 유네스코 세계유형문화유산은 1994년에 등재된 브윈디 천연국립공원, 르웬조리 산지 국립공원, 2001년에 등재된 카수비(Kasubi) 부간다왕릉군까지 총 3개의 문화유산이 존재함. 세계무형문화유산은 2005년에 등재된 나무껍질옷 만들기과 2015년에 등재된 바송고라, 바냐빈디, 바투로인의 Koogere 구전 두 가지가 있음
- 다양한 동식물과 관광자원을 보유하여 아프리카의 진주(Pearl of Africa)라고 불림
  -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높은 르웬조리 산(Mt. Rwenzori)산과 머치슨 폴(Muchison Fall) 국립공원, 퀸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 국립공원, 브윈디(Bwindi) 국립공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자(Jinja)의 래프팅은 세계 5대 래프팅으로 꼽히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오락거리를 제공함
- 우간다의 관광산업(Travel Revenue)은 2013-2015년 기준 평균 약 11억 1,200만 불로, 2014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3년 대비 약 40.22% 감소, 2015년의 총 관광수입은 2014년 대비 44.57%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5-18] 우간다 영화 “Who Killed Captain Alex”



[그림 5-19] 우간다 카수비 왕릉 (Kasubi Royal Tombs)



자료: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Who\\_Killed\\_Captain\\_Alex%3F](https://en.wikipedia.org/wiki/Who_Killed_Captain_Alex%3F)) (검색일: 2020.07.08)  
 Pinterest(a)(<https://www.pinterest.co.kr/pin/18084835987522724/>) (검색일: 2020.07.08)

## 다. 탄자니아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 일반 정책 현황

#### ■ 탄자니아 일반 현황<sup>142)</sup>

- 탕가니카와 잔지바르 연합의 합중국으로 외교, 국방, 대외무역, 통화정책 등의 분야에서 연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으나 잔지바르는 별도의 대통령, 행정부, 의회를 가지고 상당한 자치권을 보유
- 전체면적은 한반도의 4.3배(남한의 9.5배)로 인구는 5,230만임. 13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됨.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임. 본토는 이슬람교(35%), 토속종교(35%), 기독교(30%)로 추정되며, 잔지바르는 99% 이상이 이슬람교로 구성됨
- 한국과 1992년 수교를 맺었으며 2015년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관 개설
- 인간개발지수가 사하라 이남 평균보다 낮아 다분야에 걸친 개발과 투자가 요구됨
  - 특히 경제도 다르에스살람과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잔지바르, 아루샤(세렝게티), 모시(킬리만자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낮은 인간개발지수를 나타냄
  - 지역별 1인당 GDP 역시 경제수도인 다르에스살람이 약 850달러인데 반해 키고마 지역은 300달러로 지역에 따라 두 배 이상 금액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함

#### ■ 쿠데타와 내전을 겪지 않은 평화로운 국가

- 탄자니아에는 110여 개의 부족이 있으며 100여 개의 토착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독립 이후 정책적으로 스와힐리어 교육을 강화하여 제1공용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부족적 정체성보다는 탄자니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여 민족정체성(One Tanzania)을 확립함
  -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함. 그 과정에서 영국총독부는 탄자니아인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던 독립영웅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에게 정권을 이양함. 니에레레는 1962년 탄자니아 첫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5년까지 안정적인 정치를 펼침. 1958년과 1960년에 치른 두 차례의 선거에서 TANU가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으며, 새 정부와 영국 정부는 런던에서 열린 헌법회의에서 탕가니카의 완전한 독립에 합의함<sup>143)</sup>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특히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내분이 끊이지 않았던 중 동부 아프리카에서 내분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정치상황을 유지한 국가는 탄자니아가 유일함

142) 한국수출입은행(2020), 「2020세계국가편람」, 220~221쪽; 한-아프리카미래재단(2015b), 「국별연구 시리즈: 탄자니아」, 3~8쪽 참조 및 재구성

143) 한-아프리카미래재단(2015b), 「국별연구 시리즈: 탄자니아」, 33~39쪽 참조 및 재구성

## ■ 국가발전계획에 Art and Cultural Insustry 포함

- 탄자니아 국가발전계획인 VISION2030에 전통 예술에 대한 계승과 보전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상품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개발로 연계되도록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림 5-20] 탄자니아 텡가텡가(Tinga Tinga) 그림



자료: Pinterest(b), "TingaTinga Tales," (<https://www.pinterest.dk/pin/217087644512901815/>) (검색일: 2020.07.08)

- 세렝게티야생국립공원, 킬리만자로산, 잔지바르 등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관광자원을 다수 가지고 있어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이를 통한 탄자니아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 기울이고 있음
-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과 관심이 높음
- 도시를 중심으로 현지인들이 즐길 문화생활 거리가 많음. 해변공원, 영화관, 박물관, 다양한 상점 등이 있음. 주로 대도시에서 몰려 있어 문화적 빈부격차가 나타남

## 2) 문화관련 인프라 현황<sup>144)</sup>

### ■ 탄자니아 예술 - 미술과 음악

- 탄자니아는 텡가텡가(Tingatinga) 미술과 마콘데(Makonde)족의 조각예술이 유명함. 문학 분야에서는 소설과 비소설 모든 분야에서 시적이고 우아한 산문체로 두각을 나타냄
  - 마콘데 조각예술: 마콘데족은 탄자니아 남부에 거주하며 목각 조각을 전통적으로 해오던 사람들로 이들의 목각 공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함

144) 한-아프리카미래재단(2015b), 「국별연구 시리즈: 탄자니아」, 136~143쪽 참조 및 재구성

- 팀가팅가: 탄자니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형식의 회화 스타일을 발전시켜 매우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냄
- 탄자니아에서 즐겨듣는 음악은 팝, 타랍(Taarab), 댄스 음악, 찬송가 등 매우 다양한 장르가 있음. 이러한 음악은 정치적 운동이나 선동을 할 때 사용되었으며, 젊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도 함
  - 아프리카인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날 당시 댄스 음악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self reliance)을 알리는 역할을 함
  - 봉고 플라바(Bongo Flava)라는 새로운 장르는 매우 유명한 것으로 많은 젊은이에게 음향 기술자, 제작과 연출의 다양한 분야, 작가, 조명, 카메라 등의 일자리를 제공함

## ■ 탄자니아의 스포츠

- 독립 직후 탕가니카 정부는 스포츠를 포함한 문화 전반에 대한 발전, 강화를 추구함
  - 1962년에 국가문화청년부(Ministry of National Culture and Youths)를 조직함
  - 1967년에는 국가스포츠위원회(National Sports Council)를 조직하는 법령을 통과시킴
- 스포츠를 전 국민이 다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프로그램 고안함
- 탄자니아에서 오래된 스포츠 종목은 육상경기이며 이후 식민시기를 거쳐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가 도입됨
  - 하키, 복싱, 네트볼, 미식축구 등이 새로 유입됨
  - 축구(football)는 농구, 네트볼, 육상 등의 스포츠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스포츠임

## ■ 탄자니아의 관광자원

- 좁은 저지대 해안선과 고산지대, 호수지대 등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킬리만자로산, 세렝게티 등 다수의 관광자원 보유
- 총 7건의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이 있음
  - 응고롱고로 자연 보존 지역(Ngorongoro Conservation Area, 1977), 세렝게티 국립공원(Serengeti National Park, 1981), 킬와 키시와니 유적과 송고 음나라 유적(Ruins of Kilwa Kisiwani and Ruins of Songo Mnara, 1981), 셀루스 동물 보호 구역(Selous Game Reserve, 1982), 킬리만자로 국립공원(Kilimanjaro National Park, 1987), 잔지바르 석조 도시(Stone Town of Zanzibar, 2000), 콘도아 암석화 유적(Kondoa Rock-Art Sites, 2006)
- 주요 관광자원의 외국인 입장료는 상당히 비싼 편이나, 탄자니아 국민은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음

[그림 5-21] 탄자니아 응고롱고로(Ngorongoro) 보호구역



자료: Tanzania Tourist Board(a)(<https://www.tanzaniatourism.go.tz/en>) (검색일: 2020.07.08)

[그림 5-22] 탄자니아 잔지바르 스톤타운(Stone Town in Zanzibar)



자료: Tanzania Tourism Board(b)(<https://www.tanzaniatourism.go.tz/en/destination/zanzibar-island/P20>) (검색일: 2020.07.08)

## 라. 르완다 문화정책과 제도현황

### 1) 일반 정책 현황<sup>145)</sup>

- 중동부 아프리카 고원 지대에 있는 국가로 아프리카 본토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작은 면적이며 기후는 온화. 인구밀도가 높으며 경제적으로는 UN이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로 분류하는 국가 중 하나. 2015년 인구는 세계에서 76번째인 11,262,564명으로 추정되어 인구밀도가 세계 29번째인 445명/km<sup>2</sup> (한국은 세계 23번째인 503명/km<sup>2</sup>)
  - 경상도 크기 내륙국으로 인구밀도가 한국과 유사함

145) 한국수출입은행(2020), 「2020세계국가편람」, 220~221쪽; 한-아프리카미래재단(2015c), 「국별연구 시리즈: 르완다」, 3~4쪽 참조 및 재구성

- 1994년 4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벌어진 제노사이드(Genocide)로 100일간 80만 명이 사망하고 4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함. 다수족인 후투족과 소수족인 투치족 간의 종족갈등으로 빚어졌으며 당시 집권세력이던 후투족의 투치족 집단학살로 발발하였음. 투치족의 승리로 종결되었으며 당시 사령관이던 카가메가 대통령이 되어 장기집권 중. 제노사이드 직후 신속한 전후복구와 경제성장, 무보복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정책으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
- 부패가 만연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달리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치안이 안정되어 안전한 국가로 여겨짐. 부패인식은 전세계에서 50위권임

#### ■ 정보통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괄목할 성과를 거둠<sup>146)</sup>

- 인구 100명당 70명이 이동통신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 말부터 KT를 통한 LTE망이 개설되어 키갈리를 비롯한 몇몇 중소도시에서도 4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eRwanda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부분적인 전자정부도입, 농촌 지역 e-커머스 확산, 전국 병원
- ICT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의존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

## 2) 문화관련 인프라 현황<sup>147)</sup>

### ■ 르완다 예술 - 춤, 음악, 미술, 공예

- (음악과 춤) 르완다 예술에서는 음악과 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퍼포먼스의 대부분 용기와 그 뛰어남에 대한 묘사에 대한 것이며 유머러스한 춤과 노래 가사들부터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 비롯한 예술적인 것까지 다양함
- (미술) 소의 똥으로 그린 이마공고(Imigongo)도 르완다의 특징적인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검은색, 붉은색, 흰색이 주로 사용되며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패턴을 사용하여 그리는 그림으로 주로 여성이 그리며 집 내부를 장식하거나 도자기 디자인에 응용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됨
- (공예) 바구니, 도자기 등 다양한 종류의 전통적인 작품과 미술 작품이 르완다의 다양한 지방에서 발달.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뚜껑이 달린 아가세케(Agaseke) 바구니로,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제작하여 결혼식 때에는 곡물을 담아 신부 측에서 신

146) 한-아프리카미래재단(2015c), 「국별연구 시리즈: 르완다」, 8쪽 참조 및 재구성

147) 한-아프리카미래재단(2015c), 「국별연구 시리즈: 르완다」, 12~13쪽 참조 및 재구성

랑 측으로 주는 예물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르완다만의 특징적인 예술품으로, 사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성스러운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5-23] 르완다 소똥 그림(Imigongo)



[그림 5-24] 르완다 전통 접시와 항아리



자료: Visit Rwanda(a)(<https://www.visitrwanda.com/interests/rwanda-culture-and-traditions/>) (검색일: 2020.07.08)

## ■ 르완다의 스포츠 - 높이뛰기, 사이클

- (높이뛰기) 르완다 높이뛰기는 전통적으로 여성은 참여할 수 없는 남성만의 스포츠로, 다양한 높이의 언덕에서 한 사람씩 각자 뛰는 형태로, 결과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점수를 내지는 않음. 현재는 보기 힘든 스포츠나 전통적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나 젊은 엘리트들(intore)의 훈련을 위하여 실시됨
- (사이클) 제노사이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스포츠 행사의 하나로 사이클링이 활성화되어있음. 사이클은 1989년에 시작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팀이 3개에서 2013년 현재 16개로 늘어나는 등 확산 추세임. 언덕이 많은 자연환경 덕분에 사이클에 적합하여 사이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프리카에서 사이클을 하기 좋은 매력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음

## ■ 르완다의 관광자원

- 열대우림, 화산지대, 사막지대, 호수지대 등 다양한 지리적 환경과 멸종위기 마운틴 고릴라 등 다수의 관광자원 보유. 고릴라 관광산업은 국가 수입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과거 분쟁의 폭력적인 이미지를 벗고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커뮤니티를 참여시켜 빈곤 감소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화산 국립공원, 능웨 국립공원, 아카게라 국립공원, 키갈리 시, 키부 호수, 콩고 나일 트레일 등이 주요관광지

[그림 5-25] 멸종위기의 르완다 마운틴고릴라(Mountain Gorilla)



자료: Visit Rwanda(b)(<https://www.visitrwanda.com/interests/gorilla-tracking/>) (검색일: 2020.07.08)

- 국제원조를 통해 박물관과 국립공원을 조성하였음. 입장료 정책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하게 외국인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며 국민이나 아프리카 주민은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박물관 입장료에 가이드가 포함되어 방문객이 르완다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전달하는데 기여함
- 주변 관광대국으로 인해 관광산업은 상대적 열위에 놓임. 르완다 정부는 관광사업 육성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주변국의 관광 역량이 상대적으로 뛰어남

### 3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 현황과 전략

#### 가. 아프리카 권역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현황

##### ①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 지원현황

- 한국 정부는 꾸준히 對아프리카 문화ODA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분야에 지원액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아프리카 권역의 문화ODA는 개발협력국 간 원조 분야 및 규모가 큰 차이를 보임

〈표 5-25〉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 규모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번호	개발 협력국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아프 리카	문화 및 레크레이션	0.28	0.68	1.36	1.69	1.04	3.04	2.30	3.97	6.35	12.60
		관광정책, 행정, 관리	0.10	0.02	0.07	0.61	0.67	0.78	—	—	0.01	0.12
		자연문화 유산보호	—	—	—	—	—	—	—	—	—	—
	합계	0.39	0.70	1.43	2.31	1.71	3.82	2.30	3.97	6.36	12.72	
2	우간다	문화 및 레크레이션	—	—	—	—	0.04	0.05	0.07	0.10	0.15	0.19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	—	—	—	—	—	—
		자연문화 유산보호	—	—	—	—	—	—	—	—	—	—
	합계	—	—	—	—	0.04	0.05	0.07	0.10	0.15	0.19	
3	탄자 니아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7	0.03	0.10	0.32	0.05	0.06	0.18	0.66	1.04	0.97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	—	—	—	—	—	—
		자연문화 유산보호	—	—	—	—	—	—	—	—	—	—
	합계	0.07	0.03	0.10	0.32	0.05	0.06	0.18	0.66	1.04	0.97	
4	르완다	문화 및 레크레이션	—	—	0.04	0.06	0.15	0.26	0.13	0.03	0.05	0.07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0.04	0.03	0.05	—	—	0.01	0.08
		자연문화 유산보호	—	—	—	—	—	—	—	—	—	—
	합계	—	—	0.04	0.10	0.18	0.31	0.13	0.03	0.06	0.15	
29개 DAC 회원국 전체			237.86	119.41	211.19	210.61	149.83	203.02	109.50	129.08	146.75	194.24

주: 2018년 기준으로 공여국 문화ODA 총 지출액 순위를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4.22., 2020.06.02)

## ② 주요 3개국의 문화ODA 지원 현황

- 일본의 ‘이집트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가 2018년부터 시작되면서 주요 문화ODA 공여국으로 등장했으며, 주요 아프리카권역 공여국이었던 프랑스, 핀란드, 독일, 스페인 등 유럽국가의 문화ODA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특정 개발협력국, 특정 프로그램을 장기간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표 5-26〉 주요 공여국 문화ODA 규모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공여국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일본	문화 및 레크레이션	5.31	6.07	7.56	5.52	3.81	3.84	3.06	3.68	4.54	113.64
		관광정책, 행정, 관리	1.45	5.58	6.22	83.86	36.58	62.72	35.34	67.83	71.30	6.95
		자연문화유산보호	—	—	0.12	—	—	—	—	—	—	—
	합계	6.76	11.65	13.90	89.38	40.39	66.57	38.41	71.50	75.84	120.59	
2	프랑스	문화 및 레크레이션	90.61	24.70	65.14	43.08	39.72	36.30	30.50	24.05	33.32	20.95
		관광정책, 행정, 관리	30.05	2.02	29.59	0.82	2.77	1.42	1.08	0.81	5.44	3.59
		자연문화유산보호	22.07	1.43	1.65	0.95	1.48	4.94	1.01	0.86	0.56	1.67
	합계	142.73	28.14	96.38	44.85	43.97	42.66	32.59	25.72	39.33	26.20	
3	핀란드	문화 및 레크레이션	0.71	0.39	0.86	0.49	0.12	0.19	0.08	0.05	0.01	0.00
		관광정책, 행정, 관리	0.60	1.88	0.20	1.50	0.06	0.57	5.95	2.40	1.81	5.78
		자연문화유산보호	—	—	—	—	0.02	0.03	0.10	0.01	—	0.00
	합계	1.31	2.27	1.06	1.99	0.20	0.79	6.12	2.46	1.83	5.78	
29개	DAC 회원국 전체		237.86	119.41	211.19	210.61	149.83	203.02	109.50	129.08	146.75	194.24

주: 2018년 기준으로 공여국 문화ODA 총 지출액 순위를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4.22., 2020.06.02)

〈표 5-27〉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문화ODA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DAC 사업유형	주요국	문화ODA 사업	지원액
프로젝트 (C01)	일본	2018 이집트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II) (Grand Egyptian Museum Construction Project (II))	112.35
		2014~2017 이집트 박물관 건설 프로젝트 (I) (Grand Egyptian Museum Construction Project (I))	220.01
	프랑스	2014 모리타니아 방다르겐 연안 보호사업 (Contrib Capitalization du BACoMaB)	3.32
	핀란드	2015 탄자니아 상아 및 무기 탐지견 사업 (Dog Detection Project)	9.88

DAC 사업유형	주요국	문화ODA 사업	지원액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D01)	프랑스	2014-2018 마다가스카르 알리앙스 프랑세즈 직원 파견	6.56
	일본	2014-2018 잠비아 문화 부문 JAICA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1.07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E01)	일본	2017 이집트 문화분야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사업	6.56
	프랑스	2017 마다가스카르 문화분야 공무원 국립행정대학원 연수	5.21
기타 기술원조(D02)	프랑스	2018 모로코 문화 부문 기술 지원	1.68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 3321, 41040 (검색일: 2020.04.22)

## 2) 특징 및 시사점

### ■ 한국은 아프리카 문화ODA의 약 6.5% 차지

- 2018년 기준 한국의 문화ODA 지원액은 1,272억으로 DAC 문화ODA 총 지원액 1억 9,424만의 6.5%를 차지함. 이는 일본, 프랑스에 이어 3위에 해당
- 한국 전체 ODA 규모 대비 문화ODA는 약 2.5%로 DAC 국가 평균인 0.49%를 상회함
- 문화ODA 총액의 95%를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에 집중함

### ■ 일본 문화ODA의 압도적 규모

- 일본의 아프리카 문화ODA 지원액 1억 2,059만 불은 DAC회원국 전체 지원액의 62%에 해당할 정도로 압도적 규모를 보임 (2018년)
- 2010년대 일본 문화ODA의 93%는 이집트 박물관 건설에 투입되어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함
- 일본의 전체 ODA 규모 대비 문화ODA는 6.45%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

###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화 전략이 필요

- 북아프리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문화ODA 74%가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에 집중되며 20%가 관광 부문, 5%가 자연유산보존 부문에 투입됨
  - 2016-2018년 아프리카 문화ODA 총액: 4억 7,006만달러 중 (문화) 2억 7,783만달러 (관광) 1억 8,098만달러 (자연유산) 1,125만 불
  - 2016-2018년 사하라 이남 문화ODA 총액: 1억 7,361만달러 중 (문화) 1억 2,984만달러 (관광) 3,566만달러 (자연유산) 811만달러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화 전략이 필요

## 나. 우간다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문화ODA 현황

〈표 5-28〉 우간다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2016~2018)

(단위: 백만 달러)

개발협력국	ODA 부문	분류	2016	2017	2018	2016-2018 계
사하라 이남	문화ODA 합계		48.16	64.28	61.17	173.61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0.19%	0.23%	0.22%	(평균) 0.21%
우간다	전체 ODA	ODA 전체 규모	1073.15	1298.89	1260.89	3632.93
	문화 ODA	문화 및 레크레이션	0.53	0.69	0.72	1.94
		관광정책, 행정, 관리	0.11	0.10	0.12	0.32
		자연문화유산보호	-	-	-	0.00
		문화ODA 합계	0.64	0.79	0.84	2.26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0.06%	0.06%	0.07%	(평균) 0.06%

주: 29개 DAC 회원국 전체 ODA 지출액으로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7.05)

### ■ 담당 부처

- 문화분야 주무 부처는 젠더·노동·사회발전부(Ministry of Gender,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로 문화정책을 사회발전 정책의 하나로 둬. 주요 부처 목표는 문화적 성장, 기술 발전, 노동생산성 증진과 성평등, 노동행정, 사회보장, 공동체 개선 장려에 있음
- 관광 분야 주무 부처는 관광·야생·고대유물부(Ministry of Tourism, Wildlife, and Antiquities)로 관광 및 문화자원 관리 및 이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체육 부문 담당 부처는 교육·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로 시민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을 위한 체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려함

### ■ 2006년 국가문화정책이 마련되었으나 실제 이행을 위한 노력은 미흡함

- 2006년 국가문화정책(National Culture Policy)이 마련되었으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음. 국가문화정책은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인문예술계 증진, 관광사업 증진, 소수부족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sup>148)</sup> 2009년 동성애 처벌 법안 제출되고 2010년 박해가 이루어지자 국제사회는 성소수자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한편 우간

148) Observation of Culture Policies in Africa (OCPA), "Uganda National Cultural Policy,"(검색일: 2020.06.11)

다 정부에게 국가문화정책 이행을 촉구하였음<sup>149)</sup>

## ■ 문화ODA 유입

- 우간다의 총 수원금액 대비 문화ODA의 비중은 2016-2018년 기준 평균 약 0.06%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평균의 약 1/3수준에 못 미치며,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ODA 중 1.3%만을 차지해 우간다의 문화분야 ODA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한국의 對우간다 문화ODA 기여도

- 한국 정부는 우간다에 2013년부터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만 문화ODA를 지원하고 있음
- 제공 유형은 전문가 및 봉사단원 파견(D01)임
- 2018년 기준 우간다에 제공하는 전체 ODA 2,465만 불 중 문화ODA는 19만 불로 0.77%에 해당함

## 2) 문화ODA 특징 및 시사점

### ■ 문화 부문이 사회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됨

- 2000년대부터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주무 부처가 젠더, 노동, 및 사회 발전부로 문화 부문을 사회발전 전략의 하나로 간주함

### ■ 문화다양성을 함양하는 섬세한 전략 필요

- 부족별 문화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며, 특정 부족이 정재계 권력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문화 부문 정책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 기독교 근본주의적 시각에 따른 문화다양성 저해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한편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섬세한 문화ODA 전략 필요
  - 동성애 불법화 및 과도한 처벌 수준(감금, 태형, 사형 등)

### ■ 문화ODA 규모 확대 필요

- 전반적으로 문화ODA 규모가 부족한 가운데 자연문화유산보호 ODA 확대 필요성이 두드러짐

149) UNESCO(2012), "Action Plan for the Uganda National Cultural Policy," (검색일: 2020.06.11)

- 풍부한 전통문화유산과 자연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산업화하여 경제다각화에 기여할 전략이 필요

#### ■ 문화정책 이행을 위한 세부 전략 및 지원 필요

- 국제사회의 판단에 따르면 2006년 마련된 국가문화정책은 충분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 동성애 차별, 특정 부족 우대 등에 따른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권리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만성적인 재정 부족이 원인으로 꼽힘
- 문화정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세부 전략 마련과 이에 부응할 문화ODA 지원이 필요

#### ■ 다양한 한국 기업 및 한국인 국제개발협력 종사자 거주

- 문화ODA 제공 시 현지 수요 및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한국인이 다수 거주
- KT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기반 국제개발협력 NGO는 물론 다양한 국제기구 및 분야에 한국인 국제개발협력 종사자가 활약 중
  - 한국식 떡집이 운영될 정도로 한인 커뮤니티가 발달함

## 다. 탄자니아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문화ODA 현황

〈표 5-29〉 탄자니아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2016~2018)

(단위: 백만 달러)

개발협력국	ODA 부문	분류	2016	2017	2018	2016~2018 계
사하라 이남	문화ODA 합계		48.16	64.28	61.17	173.61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0.19%	0.23%	0.22%	(평균) 0.21%
탄자니아	전체 ODA	ODA 전체 규모	1465.98	1440.82	1516.73	4423.54
	문화 ODA	문화 및 레크레이션	2.14	2.80	1.94	6.88
		관광정책, 행정, 관리	1.14	0.52	0.44	2.10
		자연문화유산보호	0.01	0.15	0.04	0.20
		문화ODA 합계	3.29	3.47	2.42	9.18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0.22%	0.24%	0.16%	(평균) 0.21%

주: 29개 DAC 회원국 전체 ODA 지출액으로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7.05)

## ■ 담당 부처

- 문화, 예술, 체육 분야는 정보·문화·예술·체육부(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rts and Sports)에서 담당하며 2025년까지 질 높은 교육, 문화적 가치 함양, 체육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함. 정보접근성 확대, 청소년 경제역량 강화, 대중의 문화 및 체육 향유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국가정체성을 증진하는 데 주력함<sup>150)</sup>
- 관광 분야는 천연자원·관광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Tourism)에서 담당하며 천연자원 및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관련한 관광산업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둠<sup>151)</sup>

## ■ 1997년 문화정책 마련<sup>152)</sup>

- 1997년 문화정책(Cultural Policy)을 마련하였음.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 주민의 문화생활 활성화, 교육, 관광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음. 나아가 문화적 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당시 주무부처는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임. 현재는 정보·문화·예술·체육부와 천연자원·관광부로 재편됨

## ■ 문화ODA 유입

- 우간다의 총 수원액 대비 문화ODA의 비중은 2016~2018년 기준 평균 약 0.06%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평균 수준이며,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ODA 중 5.3%를 차지해 탄자니아의 문화분야 ODA는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기타 국가들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한국의 對탄자니아 문화ODA 기여도

- 한국 정부는 탄자니아에 꾸준히 문화ODA를 지원하고 있으나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에 한정됨
- 제공 유형은 프로젝트(C01) 및 전문가 및 봉사단원 파견(D01)임
- 2018년 기준 우간다에 제공하는 전체 ODA 7,326만 불 중 문화ODA는 97만 불로 1.32%에 해당함

150) Tanzanian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rts, and Sports, "Vision and Mission," (검색일: 2020.07.03)

151) Tanzanian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Tourism, "About Us," (검색일: 2020.07.03)

152) Tanzan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1997), (<http://www.tzonline.org/pdf/culturalpolicy.pdf>)

## 2) 문화ODA 특징 및 시사점

### ■ 문화, 예술, 체육을 육성하는 부처와 문화자원을 산업화하는 관광 부처가 분리

- 문화, 예술, 체육은 정보·문화·예술·체육부에서 담당하는 한편,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산업에 연계하는 전략은 천연자원·관광부에서 담당
- 문화 자원 보존 관리를 통한 산업화 전략이 마련되었음을 시사
- 한국 정부의 전통문화자원 보존 및 증진 노하우를 전수할 여지가 있음

### ■ 문화ODA 규모 확대 필요

- 사하라 이남 평균과 비슷한 문화ODA가 지원되나, 자연문화유산보호 ODA 확대 필요성이 두드러짐
- 탄자니아는 인도양을 따라 거대한 자연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인해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 ■ 다양한 한국 기업 및 한국인 국제개발협력 종사자 거주

- 문화ODA 제공 시 현지 수요 및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한국인이 다수 거주
- 다르에스살람 국립대학교에 한국학센터가 설립되어 여러 활동의 focal point로 활용할 수 있음
- 굿네이버스, 에누마(Enuma) 등 한국 기반 국제개발협력 NGO는 물론 다양한 국제기구 및 분야에 한국인 국제개발협력 종사자가 활약 중

## 라. 르완다 문화ODA 현황 및 전략

### 1) 문화ODA 현황

〈표 5-30〉 르완다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2016~2018)

(단위: 백만 달러)

개발협력국	ODA 부문	분류	2016	2017	2018	2016~2018 계
사하라 이남	문화ODA 합계		48.16	64.28	61.17	173.61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0.19%	0.23%	0.22%	(평균) 0.21%

개발협력국	ODA 부문	분류	2016	2017	2018	2016-2018 계
르완다	전체 ODA	ODA 전체 규모	501.49	511.56	500.25	1513.30
	문화 ODA	문화 및 레크레이션	0.50	0.45	0.40	1.35
		관광정책, 행정, 관리	0.05	0.06	0.12	0.23
		자연문화유산보호	—	—	0.10	0.10
		문화ODA 합계	0.55	0.51	0.62	1.68
	전체 ODA 대비 문화ODA 규모		0.11%	0.10%	0.12%	(평균) 0.11%

주: 29개 DAC 회원국 전체 ODA 지출액으로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레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7.05)

## ■ 담당부처

- 문화분야 담당 부처는 청소년·문화부(Ministry of Youth and Culrue)로 청소년 전인교육, 직업훈련과 르완다 문화 및 가치에 대한 고양을 목표로 함. 르완다 전통 예술 및 문화 증진 외 애국주의 등 국가에 대한 국민 의무를 강조하는 정신교육기관의 면모를 지님
  - 2019년 11월 체육문화부의 문화 부문이 청소년부에 편입되면서 체육과 문화 부문이 분리되었음
- 체육 분야 담당 부처는 체육부(Ministry of Sports)로 국민생활체육 증진과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 역량 강화 등에 목표를 둠
- 관광 분야 담당 부처는 여행·관광부(Ministry of Travel and Tourism)로

## ■ 르완다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문화정책 포함

- 르완다 문화정책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창의력 증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국민 삶의 질 개선, 통합 문화 및 가치 창조, 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함
- 르완다 국가경제발전계획인 VISION2050의 실행전략인 국가개선전략(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에 구체적 실행 목표가 명시됨
  - NST1 Pillar 1 (경제적 변화): 좋은 일자리 창출,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 확립, 환경 관리
  - NST Pillar 2 (사회적 변화):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구배당효과 증대, 현대적인 생활환경 조건
  - NST Pillar 3 (거버넌스 변화): 통합의 문화 및 가치 강조, 국제협력 증대, 공공기관의 역량 및 책임의식 강화, 국민의 개발 참여 증대

## ■ 르완다 문화정책

- 현 청소년문화부 전신인 체육문화부에서 2017년 10월 체육, 문화, 예술 증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음
- 체육문화 부문 전략(Sector Strategic Plan for Sports and Culture)<sup>153)</sup>
  - 2017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7개년 계획임
- 창조적 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전략(Five Year Strateg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Arts Industry)<sup>154)</sup>
  - 지식 기반 기술부터 예술 분야까지 역량 강화 및 산업화 전략을 담음

## ■ 문화ODA 유입

- 르완다의 총 수원액 대비 문화ODA의 비중은 2016-2018년 기준 평균 약 0.11%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이며,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지원받은 총 문화ODA 중 0.96%만을 차지해 르완다의 문화분야 ODA가 지리적, 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한국의 對르완다 문화ODA 기여도

- 한국 정부는 르완다에 2011년부터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과 관광정책 부문에 문화ODA를 지원함
- 제공 유형은 2014년(프로젝트)을 제외하고는 전문가 및 봉사단원 파견(D01)임
- 2018년 기준 르완다에 제공하는 전체 ODA 2,609만 불 중 문화ODA는 15만 불로 0.56%에 해당함

## 2) 문화ODA 특징 및 시사점

### ■ 문화정책을 문화 육성 및 사회통합 수단으로 활용

- 문화정책은 르완다어, 전통문화유산, 자연문화유산 확충 및 접근성 확대에 목표를 두는 한편 르완다적인 가치와 애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주민동원 수단으로도 활용됨

153) Ministry of Sports and Culture(2017a), "Sector Strategic Plan for Sports and Culture." (인터넷 미공개 자료)

154) Ministry of Sports and Culture(2017b), "Five Year Strateg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Arts Industry: 2017-2022," ([https://minisports.gov.rw/fileadmin/document\\_2019/Five\\_year\\_Strategic\\_Plan\\_for\\_the\\_development\\_of\\_Creative\\_Arts\\_Industry.pdf](https://minisports.gov.rw/fileadmin/document_2019/Five_year_Strategic_Plan_for_the_development_of_Creative_Arts_Industry.pdf)) (검색일: 2020.07.08)

- 르완다는 제노사이드 이후 사회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을 통해 르완다의 국가 및 민족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이 같은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르완다는 권위주의 국가로 주민의 정치적 자유와 언론 자유 등이 크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문화정책이 사회통합을 이유로 주민 억압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감시 필요

#### ■ 전반적인 문화ODA 확대 필요

- 전반적으로 문화ODA 규모가 부족한 가운데 관광정책 및 자연문화유산보호 ODA 확대 필요성이 두드러짐
- 특히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 ■ 잦은 조직 재편과 재정부족으로 인한 수행계획 실현 미흡

- 다양한 문화정책 수행계획(Action Plans)을 수립하고 있으나 잦은 조직 재편으로 정책 수행 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움
- 재정 부족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중단된 사업이 다수 있음. 그중 전통예술기술 전승과 보존을 목표로 교본 제작 및 배포, 전수자 양성, 산업화 전략을 세웠으나 재정 부족으로 이행단계에 이르지 못함. 또한,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수립한 체육교육 개설, 체육시설 확충, 체육교가 역량 강화를 위한 수행계획이 일부만 시행됨
- 문해력 향상, 창의력 발달, 인쇄/출판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출간사업 필요성 증대

#### ■ 한국의 전통문화산업 및 관광업 노하우를 살린 관련 문화ODA 확대 필요

- 르완다의 전통문화유산은 정부 및 문화ODA 지원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며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 방안이 부재함. 한국은 전통문화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진흥할 산업화 전략에서 성공을 거둔 바 있음. 따라서 한국 정부는 르완다 전통문화유산의 보존뿐 아니라 상업적 가치를 발견하고 산업화를 증진할 문화ODA 사업에 비교우위를 지님
- 르완다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등 영토가 크고 관광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 국가에 둘러싸여 주변국보다 관광업에 대한 비교우위가 낮은 편임. 한국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관광 대국 틈새에서 나름의 관광업 비교우위를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경험이 있음. 따라서 한국 정부는 르완다만의 문화자원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고 관광업 활성화에 이르는 문화정책 및 전략을 지원하는 문화ODA 사업에 비교우위를 지님

## ■ 다양한 한국 기업 및 한국인 국제개발협력 종사자 거주

- 문화ODA 제공 시 현지 수요 및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한국인이 다수 거주
- KT는 물론 잡업, 축산업 등에 다양한 한국 기업이 진출하였으며 한국 기반 NGO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분야에 한국인 국제개발협력 종사자가 거주 및 활동
- 1994년 제노사이드 시기부터 활동한 한국의 1호 국제협력개발전문가를 비롯해 한인 의사, 교사 등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다수 활동 중

## 마.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에 대한 SWOT 분석

〈표 5-31〉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 SWOT 분석

Strengths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분야 인력 및 콘텐츠에 대한 선진적인 경험 및 역량 보유</li> <li>• 디지털 콘텐츠 창작 및 SNS 미디어 활용에 대한 선진적인 경험 및 역량 보유</li> <li>• 정규교육과정 중 예체능 과목에 대한 선진적 경험 및 역량 보유</li> <li>• 공공문화시설 및 주민프로그램에 대한 선진적인 경험 및 역량 보유</li> <li>• 전통문화 계승 및 보존에 대한 선진적인 경험 및 역량 보유</li> <li>• 피식민지 및 개발협력국 경험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 용이</li> <li>• 교육, ICT, 지역개발(농촌개발) 영역 등 생활밀착형 ODA에 대한 성공적 경험이 축적되어 문화프로그램 수립에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문화의 일방적 수출마인드</li> <li>• 단발성 프로그램인 경우 지속가능성이 낮음</li> <li>• 일관된 문화ODA 정책 및 전략 부재</li> <li>• 타 분야 ODA 예산에 비해 낮은 ODA 자원</li> <li>• 한국형 ODA 모델 수립 당시 문화영역 불포함</li> <li>• 예체능 교육은 주로 1~3년 파견되는 KOICA 봉사단원을 통해 제공되는데, 후임 단원이 파견되지 않을 경우 교육 효과가 단절될 수 있음</li> <li>• 신북방/신남방 권역에 비해 아프리카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깊은 현지 전문가 부족</li> </ul>
Opportunities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 공약 확대</li> <li>• SDGs 내 문화분야 세부목표 포함</li> <li>•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인식 확산</li> <li>• 전문성과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ODA 사업 참여 욕구 증가</li> <li>• 한류 등 한국의 문화사업 성공 배경에 대한 현지 관심 증대</li> <li>• 현지 정부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문화정책의 필요성 인식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일관성 저하</li> <li>• 문화ODA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부족</li> <li>• ODA 시행기관 수 증가 및 재정 악화로 인한 ODA 자원 확대 제약</li> <li>• 타 공여국 및 국제기구보다 문화ODA 경험이 적고 재정 규모가 작음</li> <li>• ODA 효과성 및 투명성 강화 요구 증가</li> <li>•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데다 인구가 적고 영토가 넓은 아프리카 특성상 도시-농촌 간 사회경제적 자원 편차가 큼</li> <li>• 개발협력국 이행부처의 비협조적 태도 우려</li> <li>• 위로부터의 사업에 따른 실무직원의 책임감 위축이나 부패에 기인함</li> </ul>

## 바. 한국의 對아프리카 문화ODA 전략

### ■ (정책 실현) 아프리카 국가 문화정책 세부 사항 마련 및 이행 지원

-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혹은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통해 문화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세부 실행 정책이 미비하거나 실행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재정 및 인력 부족 문제로 정책을 이행하지 못함
-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세운 문화정책을 검토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 (개발협력국 책임성) 개발협력국 수요에 맞춘 문화ODA 프로그램 제공

- 한국문화 수출을 벗어나 한국의 문화정책 및 사업 경험을 개발협력국 수요에 맞게 적정 프로그램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 수출이 아닌 한국문화의 현지화 전략이 요구됨
- 한국의 문화ODA 전략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프로그램 발굴 단계부터 주무 부처 실무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수반해야 함
  - 아프리카 공공기관의 경우 상명하복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발협력국 실무진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회의 여건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 (소프트 프로그램 강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소프트 프로그램 제공

- 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작업,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은 문화ODA 재정 규모가 큰 일부 선진국이 주로 담당함. 박물관, 도서관 등 사업은 관련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지원, 자원제공, 역량강화 등 장기간의 사후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對아프리카 ODA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고 재정 규모가 작은 한국은 재정 규모가 작은 한국은 소규모 사업이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에 강점을 지님
  - 학교, 주민센터, 문화시설 활용 프로그램 예시: 문화활동 경진대회, 교범/교습서 제작 기술 전수 등
  - 일부 국가는 KOICA 봉사단원의 현장사업으로 마련한 주민센터, 태권도장, 문화시설 등을 보유함
- 주민들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한 문화활동 마련 및 제시

### ■ (창의성 진작) 청소년 대상 문화ODA 프로그램 제공

- 한국 정부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교육ODA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선진적 경험과 역량을 지님

- 개발협력국 청소년의 창의성 진작을 위해 청소년 대상 문화ODA 프로그램을 제공
- 개발협력국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예술, 문화활동, 디지털콘텐츠 역량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시
- 현지 청소년의 근본적인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규교과과목에 예체능교육을 포함시키도록 개발협력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음
  - 1주일에 1회 교과과목 편성 등
  - KOICA 봉사단원을 교사로 파견하는 한편 현지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 등 제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 (전통문화 계승·발전)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문화ODA 프로그램 제공

- 한국은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해왔으며 선진적 경험과 역량을 지님
- 한국은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분쟁과 식민시대를 거치며 전통문화가 단절되는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구전문화가 두드러지는 아프리카에서는 전통문화기술 계승 및 보존에 필요한 명세화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실현하지 못함
- 전통문화기술 보유자 발굴 및 지원, 전통문화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습서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 (문해력 향상) 인쇄/출판 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ODA 프로그램 제공

-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ODA도 중요하지만 인쇄/출판 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도서 보급이 수반되어야 함
- 한국은 인쇄/출판 분야에 대한 선진적 경험과 기술적 역량을 지니고 있음
-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종이를 자체 생산하지 못해 도서제작비용이 높고, 주민들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출판문화가 저발전한 경향이 있음
- 인쇄기술뿐 아니라 삽화, 디자인, 편집 등 전반적인 출판기술 역량 보급이 시급함

#### ■ (디지털 콘텐츠)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문화ODA 프로그램 제공

- 한국은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선진적 경험과 역량을 지님. 유선통신보다는 무선통신이 발달한 아프리카 여건을 활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기술을 전수하는 데 강점을 지님
-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협력국의 산업 다변화, 일자리창출, 창의성 진작 등을 콘텐츠 창작 및 활용 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음

# VI

## 제6장 권역별 문화ODA 시범사업안

---

- ① 신남방: 베트남
- ② 신북방: 몽골
- ③ 아프리카: 르완다



### 1 주요 문화정책 수요와 시범사업의 필요성

#### 가. 현황 분석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영상산업 발전에 관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협력 강화가 채택되었음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내용 부분 발췌)

30. 우리는 영화산업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제안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간 영화 제작 및 기관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의 실질적 진전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2019년 방콕, 세부, 부산에서 개최된 라운드테이블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ODA 사업 파트너로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연수 프로그램 혹은 시설 건립 및 기자재 지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 부족한 실정임
- 한국의 영상미디어 콘텐츠 (CJ E&M, Lotte Cinema 등), 첨단 영상·모바일 기기 생산 기업 (삼성, LG 등)의 현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상태임
-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한류 확산의 주요 거점 국가로 자리 잡아 왔으나, 최근 들어 문화시장의 독점(전체 상영관의 70%가 한국기업)에 대한 우려와 K-Pop 스타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극성 팬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표출되는 등으로 反한류 정서도 커지는 상황임
-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현지 투자기업 등이 영화제를 기획해 한국영화를 홍보하는 일회성 행사들만이 주로 진행되고 있어, 민간교류 사업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 온·오프라인 영상미디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과 콘텐츠 제작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임.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따른 대중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2020년 5월 기준 넷플릭스(Netflix)에서 제공되고 있는 베트남 영화는 모두 13편에 이르고 있음<sup>15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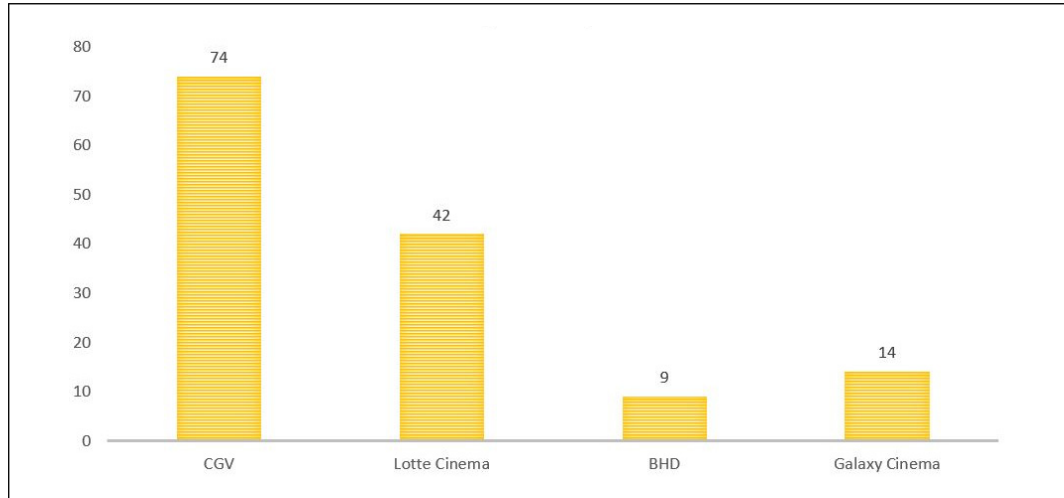
155) Kenh14.vn(2020.05.19), "Điểm mặt 13 phim điện ảnh Việt đáng xem trên Netflix: Đủ đầy từ cơn sốt Hai Phượng đến "bom tấn Cánh Diều Vàng" (검색일: 2020.07.20)

- 베트남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다큐멘터리, 독립·예술·실험영화, 공동체 영화 등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정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고 있는 상황임
  - 베트남 국영영화사의 민영화와 상업 영화시장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제작편수 급감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영화는 문화상품이기에 이윤추구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음<sup>156)</sup>
- 해외 저명 영화제에서 베트남의 독립 예술 영화와 다큐멘터리의 수상이 빈번해지고, 제작지원작 선정 소식 등이 빈번하게 전해지며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베트남 영화시장의 성장에 따라 해외교포 영화인들의 귀국 후 활동도 증대하고 있으며, 해외 제작자들과의 협업도 증대하고 있음
  -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킹콩: 해골섬; 원제: Kong:Skull Island>의 베트남 제작사례 (2015~2016)
- 2016년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베트남 국가 문화예술연구소가 공동으로 “2016 베트남-한국 인류학 영화 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양국의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 등을 통한 문화교류를 시도하여 베트남 내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일회성 행사에 그침<sup>157)</sup>
- 베트남 영화인협회가 운영하는 ‘영화재능 발전 지원센터’가 2002년부터 젊은 청년 세대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일본 대사관과 문화원, 파나소닉 등의 기업이 센터 활동을 후원하고 있음
- ‘하노이 독랩(Hanoi Doclab)’ 등 민간 다큐멘터리, 예술 실험영화 공동체가 2009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나, 적당한 장소와 후원자를 찾지 못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독일 문화원(Goethe-Institut), 프랑스 문화원(L’Espace) 등의 지원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과 개선, 모바일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Youtube 등)를 통한 1인 미디어와 독립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한국 기업인 CGV와 Lotte Cinema가 베트남 회사인 BHD와 Galaxy Cinema를 크게 앞서 국내 시장을 지배해가면서, 영화시장에 대한 해외기업 의존도와 독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sup>158)</sup>

156) Nhân dân(2019.05.28) “Thị trường phát hành phim Việt Nam và nguy cơ thua ngay trên sân nhà” (검색일: 2020.07.21)

157) Viện Văn hóa Nghệ thuật Quốc gia Việt Nam (VICAS) 홈페이지(2016.11.17) “Tuần phim nhân học Việt Nam - Hàn Quốc 2016” (검색일: 2020.0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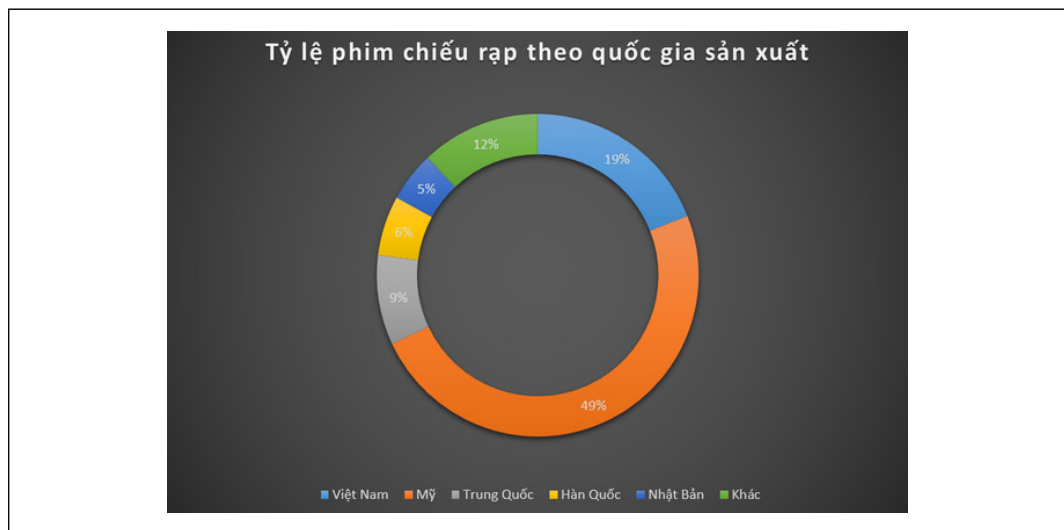
[그림 6-1] 베트남 내 영화관 현황 (극장사 별, 2019년 2월 기준)



자료: “Bùng nổ ngành chiếu phim ở Việt Nam: Khán giả thích đến rạp xem gì?” (www.cafef.vn) (검색일: 2020.06.30)

- 한국영화의 베트남 스크린 점유율은 극장 시장 점유율에는 미치지 못하며, 미국, 베트남, 중국영화에 뒤처져 있으며, 드라마 혹은 K-Pop 등 다른 한류 콘텐츠에 비해서도 대중적 관심과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
  - 미국 영화 49%, 베트남 영화 19%, 중국영화 9%, 한국영화 6%, 일본영화 5% (애니메이션), 기타 12%

[그림 6-2] 베트남 극장상영영화 제작 국가별 통계



자료: “Bùng nổ ngành chiếu phim ở Việt Nam: Khán giả thích đến rạp xem gì?” (www.cafef.vn) (검색일: 2020.06.30)

- 베트남 제작 영화의 상당수는 CJ E&M과 Lotte Cinema에 의해 제작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158) Nhân dân(2019.05.28), “Thị trường phát hành phim Việt Nam và nguy cơ thua ngay trên sân nhà” (검색일: 2020.07.21)

## 나. 대상국가의 주요 문화정책

- 2006년 국회에서 영화법<sup>159)</sup>을 공식 제정하여, 영화 관련 활동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였으며, 저작권과 영화 보존,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와 감시에 관한 법적 규정을 분명히 하였음
  - 영화법에 따르면 베트남 영화 발전을 위해 베트남 영화 발전 지원 기금 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조성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sup>160)</sup>
- 베트남 정부는 2013년 “2030년까지의 비전, 2020년까지 영화 발전전략” 승인에 관한 총리결정문<sup>161)</sup>을 통해 영화산업 발전에 관한 전략을 구체화하였음
  - 2020년까지: 베트남 영화가 현대적 영화로 풍부한 민족적 특색이 있으며 경제-사회적인 효과를 제고하고 새로운 세기의 베트남인들의 인격과 문화의 기반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는 토대가 될 수 있게 함
  - 2030년까지: 베트남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다수의 상위 입상작을 배출하고, 역내와 세계적 수준의 영화적 재능을 지니며, 아시아에서 위상과 특색을 지닌 영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분투할 것임
- 베트남 정부의 “영화 발전전략 (2013)”은 영상산업 종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 추진을 명시하고 있음
  - 주요 집중 양성 대상: 감독, 제작자, 각본가, 평론가, 촬영기사, 미술 설계자, 산업-기술인, 배우
  - 양성 형식: 단기간 기술증진 배양, 국내와 국외의 정규훈련

## 다. 문화정책기관·협력기구

###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국 (Cục Điện Ảnh)

- 1953년 호찌민 주석의 명령(Sách lệnh 147/SL)에 의한 “베트남 국영 사진 및 영화 기업” 설치가 기원
  - 베트남 혁명 영화 발전과 건설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출발했으며, 현재는 베트남의 영화산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국장과 부국장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 사무국, 기술 경제 사무국, 영화선전 사무국이 업무를 담당하고 남부 호찌민시에도 대표부를 운영하고 있음

159) Luật Điện ảnh (Số: 62/2006/QH11)

160) Lao Động(2019.10.04), “Quỹ hỗ trợ điện ảnh Việt Nam: 12 năm triển khai vẫn chưa thành lập” (검색일: 2020.07.21)

161) Phê duyệt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điện ảnh đến năm 2020, tầm nhìn đến năm 2030” (Số: 2156/QĐ-TTg, ngày 11 tháng 11 năm 2013)

- 2020년 2월말 신입 영화국장으로 비 끼엔 타잉(Vi Kiến Thành)이 취임해 조직을 정비 중인 상황임<sup>162)</sup>
  - 전임 국장들의 잇따른 은퇴와 드림웍스의 영화 <스노우 몬스터; 원제 Abominable>의 베트남 내 개봉과 내용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전임 영화국장이 사임하는 등 장기간 내홍을 겪은 바 있음
- 자체 사업으로 ‘토요일 오후의 영화’ 프로그램을 국영방송 채널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중잡지인 <영화, 극장>을 발행하고 있음<sup>163)</sup>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국은 베트남 내 영화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주요 사업협력기구로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음

####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 문화예술 연구소 (VICAS)

- 197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연구소로 설립된 이래 발전해 왔으며 2007년 이후 현재의 명칭과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본원 있고, 중부 후에시와 남부 호찌민시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국가 단위 및 각 지역의 문화자원과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가급 연구소임
- 주요 연구 활동으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자문과 전략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전통문화유산 보존, 자료수집 및 소수민족 문화에 관한 연구, 해외사례와 경험 참조 등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베트남 문화·예술 관련 도서관 및 영상 아카이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전문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음. 2009년부터 자체 연구생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292명의 박사급 연구생이 등록되어 있음<sup>164)</sup>
- 부이 호안 선(Bùi Hoài Sơn) 박사가 소장을 맡고 있으며, 2명의 부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연구소 내 자체 극장과 현대예술 센터이자 전시관인 VICAS Art Studio(<http://vicasartstudio.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술저널인 <문화학>을 발간하고 있음

162) Tuổi trẻ(2020.02.24), “Cục trưởng Mỹ thuật Vi Kiến Thành được bổ nhiệm làm cục trưởng Cục Điện ảnh” (접속일: 2020.07.20)

163) <http://dienanhkichtruong.com.vn>

164) VICAS 홈페이지(<http://vicasartstudio.com/>) 참조

- 국립문화예술연구소는 전국의 베트남 문화행정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으로 문화 정책자문과 지식 공유 및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파트너로 설정할 수 있음

## ■ 베트남 영화인 협회 (Hội Điện ảnh Việt Nam)

- 1970년에 창립된 베트남 영화, 방송인 직능조직으로 베트남 영화인들의 대표 단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
- 베트남 전역에 35개 지소를 두고, 1,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영화인 협회의 주석은 국방부 소속 영화감독이었던 인민예술가 당 주언 하이(NSND Đặng Xuân Hải)가 맡고 있음
- 베트남 국립영화제작사가 민영화된 이후 국내 영화시장 내에서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상업 영화시장에서 밀려나 제작 기회를 잃은 영화인들의 생계 관련 문제와 상업 영화와 해외영화에 잠식당한 베트남 영상·문화 생태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 하노이에서 “영화재능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찌민시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영상·문화 전문 온라인 잡지인 ‘세계영화’(thegioidienanh.vn)를 발간하고 있음
- 영화인협회는 베트남 정부가 공인한 다수의 “인민예술가” 영화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1세대 영화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징성을 지니고, 베트남 영화 산업과 생태계가 처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발언권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영화인협회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베트남 영상·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의 형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하노이 인민위원회

- 수도인 하노이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중앙정부에 직속된 행정조직임
- 인민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응우옌 득 쥡(Nguyễn Đức Chung)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직도 겸임하고 있음
-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승인과 협조를 얻어야만 진행될 수 있으며, 인민위원회 내부에 문화 체육국 및 대외 협력사업국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 현지 사업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협력 파트너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라. 관련사업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 ■ 관련사업: 하노이 영화재능발전지원센터 (<http://www.tpdmovie.com.vn/>)

- 베트남 영화인협회가 운영하는 영화재능발전지원센터 사업은 2002년부터 베트남의 차세대 영화인 양성과 청소년 대상 영상·문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음
  -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센터 사업을 지원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 다큐멘터리, 대본, 연기, 기본 촬영, 아동 및 10대를 위한 강좌, 단기 워크숍, 영화학, 감독 업무학, 기초 영화제작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 호찌민시에서도 일부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음
- 주요 강좌와 프로그램은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매년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만든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Giải Búp Sen Vàng, 금연꽃 새싹상)을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수료생 혹은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센터 내 다른 교육프로그램 참가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시도하고 있음
-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수료생 중 일부는 해외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베트남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는 등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음

### ■ 문제점

- 일상적인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센터 운영 및 관리 계획이 부재하며, 지원 관계에 있는 국가와 단체 및 기관들이 영화상영회와 홍보 혹은 사업단위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체사업으로 영상미디어 관련 단체, 회사에 대한 ‘내부 교육’ 지원과 상업용 비디오 제작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센터 운영재정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여름방학 기간 운영하는 주요 교육프로그램인 “기초영화제작과정”(12회) 등록비로 3,000,000동(약 15만원 상당)이 책정되어 있으나 베트남의 소득수준(2019년 평균 노동소득 242달러, 약 29만원)<sup>165)</sup>을 고려할 때 문화소외 계층, 특히 미성년자의 접근이 쉽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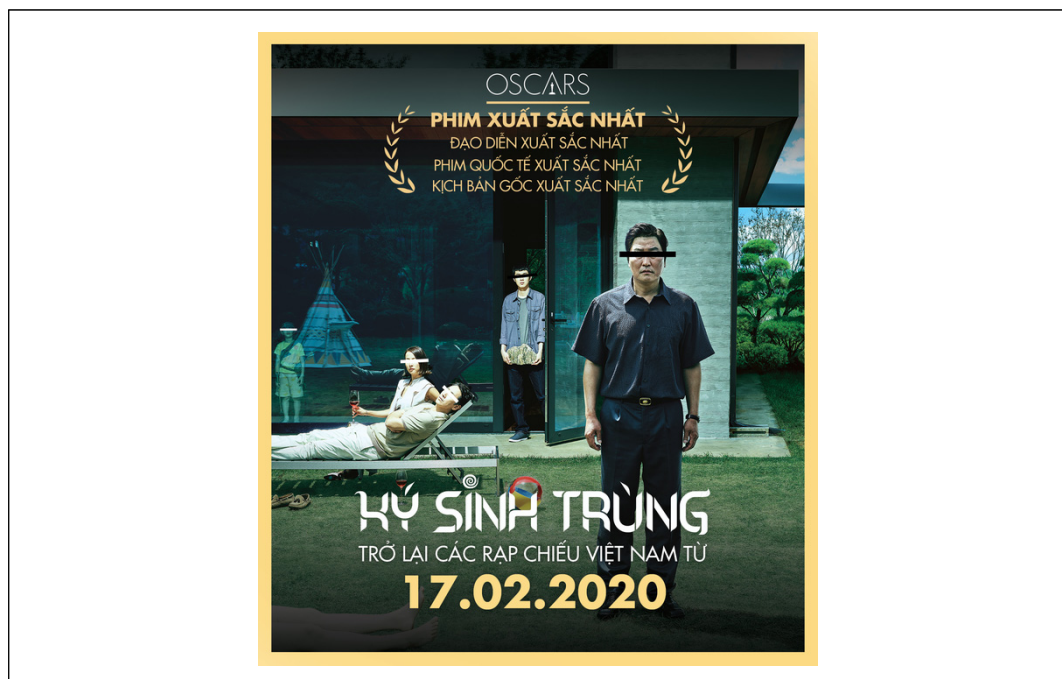
165) Zingnews(2019.12.21), “Thu nhập trung bình của lao động Việt chỉ bằng 1/7 khu vực” (검색일: 2020.07.11)

- 비영리 기관을 지향하고 있으나, 유료 수강생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기자재 혹은 공간 대여 등 적극적인 민간 영상·문화센터로써 공공성은 미흡한 상황
- 센터 운영정책에 대한 체계성과 교육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일부 이용자들의 불만이 온라인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
-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에 대한 높은 대중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고 낙후된 공간과 제한적인 영상 기자재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단기간 영화 제작 워크숍과 영화제 등 행사 위주로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

## ■ 사업 필요성

- 베트남 사회에 확산된 ‘한류 문화’의 유행과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상·문화교류 사업은 소규모 영화제 혹은 상연회 행사 수준에 머물러 왔음
- 젊은 청년 영화인들의 경우 부산국제영화제 등 해외 영화제가 제공하는 영화제작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높으나, 구체적인 영상·문화교육과 연결된 상호교류와 지원 사업은 부재한 상황임
-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이후, 한국영화 산업 발전 경험과 콘텐츠 제작 환경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영화 ‘기생충’은 베트남에서 예외적으로 2차례에 걸쳐 개봉되었음(흑백판 포함)

[그림 6-3] 영화 ‘기생충’의 두 번째 베트남 개봉을 알리는 포스터



자료: “Bùng nổ ngành chiếu phim ở Việt Nam: Khán giả thích đến rạp xem gì?” (www.cafef.vn), (검색일: 2020.06.30)

-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경험과 관련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로 조직화 되어 영상-문화 저변 확대와 발전 기반을 구축한 경험이 있음
  - 함께하는 미디어 센터의 사례 (<https://www.media-center.or.kr/>)
- 복합 영상-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영상·문화에 대한 대중적 접근성을 증대하며, 콘텐츠 제작 기술 교육, 제작 및 기기 대여,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지원, 상영회 개최,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인 운영·정책컨설팅과 역량강화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자본과 콘텐츠에 잠식되고 있는 베트남 영화시장에서 단순히 소비자로서만 전략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촬영 및 편집 기술 습득 및 실습기회와 영상-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을 시도할 수 있는 영상-문화센터 건립은 한국의 영상-문화발전 및 저변 확대 경험과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으로서 시의적절한 문화ODA 사업이 될 수 있음

## 2 시범사업안: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정책 자문사업

### 가. 사업개요

-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영상산업 발전에 관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후속 성과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정부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추진 상황에 따른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근대문화 건축물이자 노후화된 영화인협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 정책자문 사업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과 함께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표 6-1〉 사업개요서 (잠정)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 정책자문 사업</li> <li>• 영문: Establishing the Media-Culture Center with Consulting the Education Programs and Managing Policies of the Center</li> </ul>	
	사업기간/ 총 사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분: 신규</li> <li>• 기간: 2021-2023년 (3년) (잠정)</li> <li>• 총 사업 예산: 3,000천 달러</li> </ul>	
	대상지역/ 수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하노이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국, 국립문화예술 연구소, 하노이 인민위원회</li> </ul>	
	사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li> </ul>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문화)</li> </ul>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영상·문화 콘텐츠 개발 역량 및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li> </ul>	
	우리측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문화 콘텐츠 및 전문인력 교육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신남방 권역에서 새로운 문화·개발 동력을 창출하는 문화산업 선진국 이미지 제고 및 상호 동반자 관계 구축</li> <li>• 신남방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상산업 발전 분야에서 지속적 민간 영상-문화교류사업 모델로 발전</li> <li>• 영상산업 부문에서 ‘한류’에 대한 이미지 제고</li> </ul>	
사업 세부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li> <li>•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국 및 영화국</li> </ul>
		영상-문화 센터 건립 및 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설계 및 디자인</li> <li>• 촬영, 편집, 및 상영 기기</li> <li>•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용품</li> </ul>
		정책자문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미디어 교육 및 센터 운영전문가</li> <li>• 영상미디어 기기 관리·운용 전문가</li> </ul>

구분		내용	
		역량강화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경험 및 정책 공유</li> <li>• 공동 영상문화 워크숍 진행</li> <li>• 연 1회 이상 상호교류 및 업무/운영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진행</li> </ul>
	개발협력국 분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문화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제공 (영화인협회 건물 혹은 영화관)</li> <li>• 현지 사업 진행자 선정</li> <li>• 교육, 운영정책 담당자 선정</li> <li>• 연수 희망 인력 선정</li> </ul>	

## 나. 예상사업 지역과 사업기간

### ■ 사업지역: 베트남 수도 하노이

-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이며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서 영상-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가 집중되어있는 도시임
  - 면적: 3,358.6 km<sup>2</sup>, 인구: 7,520,7000(2018년 기준)<sup>166)</sup>
- 영화인협회가 젊은 차세대 영화인을 양성하기 위한 영화재능발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민간 영상-문화조직과 동호회 모임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국립문화예술연구소, 베트남 극장과 공연예술대학교 등 영상·문화 관련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과의 사업 추진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용이함
- 베트남 문화체육부가 직접 주관하는 “하노이 국제영화제(Hano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NIFF)”가 2010년부터 베트남 국립영화관을 중심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대표 국제영화제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 2018년 영화제: 45개국 147편의 출품작. 5일간 진행

### ■ 사업기간: 2021년~2023년 (3년)

- 사업 착수를 위한 업무협의 기간(6개월), 건축 및 리모델링기간(1년 6개월), 기자재 지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및 교육·운영정책 자문사업(1년)으로 계획되었음

166) 베트남 통계총국 홈페이지 자료 기준(검색일: 2020.07.20)

## 다. 사업 세부내용

### 1) 사업 세부내용

〈표 6-2〉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 정책자문 사업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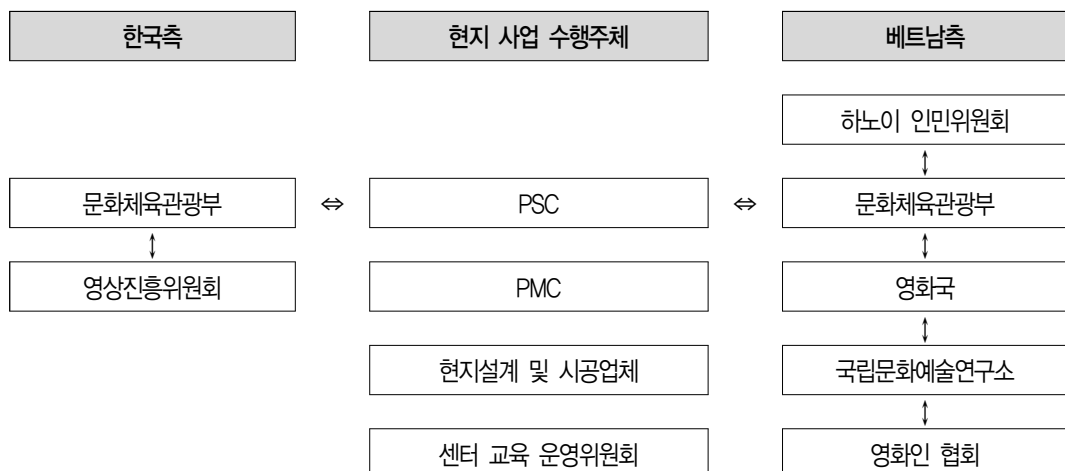
구분	예산(천\$)	내용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기자재 지원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문화센터 설계 및 시공 감리</li> <li>영상 촬영, 편집 및 상영기기 지원</li> <li>영상-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지원</li> </ul>
정책자문관 파견	350	영상 미디어 기술 전문가 및 센터 교육운영 정책 전문가 파견
역량강화연수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부서 담당자 역량 강화 초청 연수</li> <li>영상 미디어 교육 및 센터 운영인력 상호 교류 연수</li> </ul>
기타관리 사업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 기본 설계 조사</li> <li>사업실시 협의</li> <li>중간평가</li> </ul>
성과관리	150	사후관리 및 연계사업 개발
총계	3,000	

### 2) 사업수행체계 및 관리 계획

#### ① 사업수행체계

- 사업 수행체계는 공여국과 개발협력국 그리고 현지 사업협의 기구로 구성하여, 한국에서는 본 사업의 총괄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며, 교육·운영 정책컨설팅을 위해 영상진흥위원회가 민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며, 현지사업은 PMC(Project Mangement Consulting)가 총괄 관리함

〈표 6-3〉 사업수행체계 (예시)



- 베트남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산하 영화국, 국립문화예술연구소 및 영화인협회가 카운터 파트로 참여하고, 지방정부인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건설 관련 지원을 담당하며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현지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 기구로서 한국과 베트남의 민관위원이 참여하는 사업운영위원회 PSC(Project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센터 건립사업에서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한국 혹은 베트남의 현지 설계 및 시공업체가 PMC의 관리하에 사업을 수행함
- 센터교육 운영위원회는 민관위원이 참여하는 PSC를 통해 구성되고, PMC의 관리와 자문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② 사업관리계획

### ■ 사업관리자문위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 (사업관리자문위 PMC) 본 사업의 총괄관리단위로서 본 사업을 대표하여, 사업관리 (Project Management)와 사업자문(Project Consulting) 업무를 함께 수행함. PMC는 주로 하노이에서 베트남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인 영화국, 국립문화예술연구소 그리고 지역 정부인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주도하며 관계자들과 실행방안을 논의하여 사업을 진행함
- (PMC의 과업 범위) PMC의 주요 과업 범위는 1) 사업계획 재검토, 2) 사업성과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사업 구성 및 관리 체계 구축, 3)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 종합 관리, 4) 투입 및 목표 대비 성과 관리, 5)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평가 및 품질 관리, 6) 종합평가와 사후 연계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 관리임
- (PMC의 업무와 역할) PMC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1)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의, 2) 건립관련 실무기관인 지방정부 하노이 인민위원회와 시행계획 논의 및 사업 추진, 3) 사업운영위원회(PSC)에 참여 및 보고, 4) 사업평가 및 연계사업 추진 (중간평가, 종료평가 및 연계사업 추진), 5) 기자재 지원 (촬영, 편집, 상영 및 교육프로그램), 6) 전문가 파견 및 기술 자문, 7) 교육·운영 정책자문 프로그램 (초청 및 연수), 8)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등임

### ■ 사업운영위원회 (Project Steering Committee)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 영화국, 베트남문화예술연구소 및 하노이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PSC를 구성함

- 한국과 베트남이 동수의 운영위원을 추천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정책자문을 구함. 사업운영위원회는 5~7인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하였음
- PMC가 지명하는 현장책임자는 PSC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위원회에서 정책 규정 논의,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성과 검토 및 연계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협의함

## ■ 양국 간 분담사항

- 공여국인 한국 측은 우수한 전문가 그룹과 국제수준의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하며, 수여국인 베트남 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건물 혹은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지역인 하노이에 PMC가 활용할 사무공간을 제공함
- 더불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 등 행정편의와 기자재 등의 면세 통관을 지원함

〈표 6-4〉 양국 분담사항 (예시)

구분	한국 측	베트남 측
사업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파견 및 사업관리</li> <li>• 사무 기자재</li> <li>• 필요시 현지직원/통역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MC 사무실 공간</li> <li>• 하노이: 리모델링 건물 혹은 부지 선정</li> <li>• 행정관리 직원 지원</li> </ul>
리모델링 및 영상·문화센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설계 및 시공 감리</li> <li>• 국내 초청 및 현지 연수</li> <li>• 센터건물 리모델링/건립 및 영상·문화센터 조성</li> <li>• 센터 운영자 교육 및 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문화 센터 리모델링 대상 건물 및 부지 제공</li> <li>• 사업관리/운영인력 선정</li> <li>• 건축 관련 인허가 및 행정업무 지원</li> <li>• 기자재 통관 및 면세 지원</li> </ul>
교육·운영 정책 자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 분석</li> <li>• 콘텐츠 개발팀 구성</li> <li>• 콘텐츠 세부내용(교과과정, 교재) 개발</li> <li>• 운영체계 구축 및 시범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 분석 지원</li> <li>• 콘텐츠 개발팀 구성 지원</li> <li>• 콘텐츠 세부내용(교과과정, 교재) 개발 지원</li> <li>• 운영체계 구축 및 시범 운영 지원</li> </ul>
초청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청연수 비용 제공</li> <li>• 초청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청연수 대상자 선발</li> <li>• 초청연수 파견에 대한 편의 제공</li> </ul>
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소 사무용품 지원</li> <li>• 영상·문화 센터 내 필요 기자재 지원 및 기술훈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소 사무용품 배치 및 활용</li> <li>• 기자재 통관 및 면세 지원</li> </ul>

## 3) 수행일정

- 사업 착수를 위해 해당연도 상반기에는 국내외 사업실시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목표로 모니터링 및 평가 일정을 수립하였음

〈표 6-5〉 베트남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 정책자문 사업 추진 일정(안)

구분	분기별 활동	2021				2022				2023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기자재 지원	기본 및 실시 설계												
	건축공사												
	시범운영												
	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 및 기술 자문													
교육·운영 정책 자문 프로그램 (초청 및 현지 연수)	초청 연수												
	현지 연수												
	운영 및 지원												
사업기획, 운영 및 성과 관리	기초선조사												
	모니터링												
	중간평가												
	종료평가 및 연계사업 추진												
	현장인력 파견 (PM)												

#### 4) 사후관리 및 연계사업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사후관리 예산 배정을 통한 센터 내 기자재 유지 관리
  - 센터 관리·운영 역량 배양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정책자문 프로그램 운영
- 베트남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및 교류 프로그램 진행
  - 영상-문화 교육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 공동 워크숍을 통한 차세대 영화인의 교류
  - 작품 상영회를 통한 양국 영상·문화 교류
  - 청소년, 대학생 등 양국 청년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영상제작캠프
- 신남방 권역 문화ODA 사업 모델로 확산(베트남 기타지역 포함) 모색
  - 베트남 기타 중앙직할시로 확대해 도시 영상·문화 네트워크 구축 (북부-하이퐁시, 중부-다낭시, 남부호찌민시와 켄터시)

-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영상·문화 산업 발전과 시장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다른 신흥방 권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대표적 문화ODA 사업으로 확대
-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영상·문화센터 민간 네트워크로 조직화해 나가며 영상·문화 제작과 관련 지식 공유를 통한 국제 문화교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

## 5) 기대효과

- (개발협력국의 영상·문화 기술 활용역량 제고) 센터에 제공되는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자재를 통해, 첨단 영상·문화 기술을 활용할 능력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됨
- (개발협력국 국민의 영상·문화 체험, 교육, 실습기회 확대에 기여) 센터는 개발협력국 국민들의 영상·문화 기자재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교육 및 실습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문화 콘텐츠 개발 능력과 영상·문화 생태계 다양성 증대) 센터는 기존 상업 영화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형성된 베트남의 영상·문화 환경에서 배제되었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작하는 대중적 기회의 확대를 통해 영상·문화 생태계의 다양성 증대에 이바지할 것임
- (영상·문화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 센터는 베트남의 청소년과 청년세대 등 새로운 세대에 영상·문화 교육프로그램과 창작기회를 제공해 영상·문화산업 발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협업하는 영상·문화교류의 주체들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지속적인 정책자문 및 지식공유사업기반 마련) 센터는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창작하는 경험의 장으로 기능하며 관련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임
- 한국의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체제와 관리에 관한 지식, 대중 영상·문화강좌 개발과 운영 경험, 그리고 네트워킹 경험의 지속적 공유는 베트남 영상·문화센터의 교육과 운영정책 역량을 증진시킬 것이며 지속가능한 동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라. 정합성 분석

### 1) 정책 정합성 검토

#### ① 개발협력국 발전계획과의 정합성

- 베트남 정부는 영상-문화산업을 문화산업 발전계획의 주요한 분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으며, 자국 영화산업 발전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정책을 펼쳐 왔음<sup>167)</sup>
- 베트남 정부의 ‘영상산업 발전전략’은 영화산업의 공업화와 현대화 및 국제사회와 통합이라는 방향성에 기반하여,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투자영역으로 1) 영화 생산 2) 영화 선전 3) 인적자원 교육 4) 공업기술 혁신을 명시하고 있음. 영상-문화센터건립 및 교육-운영 정책 자문사업은 그러한 발전전략과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써 베트남의 영상-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들은 영상-문화 산업 발전정책에 관한 연구, 입안과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사업추진과 협의 과정에서 공유되는 경험과 지식은 영상-문화관련 행정-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② 우리정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통해 영상산업 발전에 관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의 협력 강화를 공식 채택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성과사업으로써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 정책자문 사업은 부합되는 모델임
- 한국의 대표적 문화ODA 사업인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베트남 내 문화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이 과정에서 개발협력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제공받은 유희공간에 대한 리모델링과 기자재 등을 제공했던 사업수행 경험을 축적한 바 있음
- 개발협력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하여 문화ODA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영상-문화 영역에서 새로운 문화ODA 사업을 입안해 추진하는 것은, 문화 선진국이자 동반자로서 한국의 베트남 내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167) Phê duyệt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điện ảnh đến năm 2020, tầm nhìn đến năm 2030" (Số: 2156/QĐ-TTg, ngày 11 tháng 11 năm 2013)

## 2) 경제적 정합성

- 동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영상·문화센터에 방문하고 동 시설을 활용하는 영상·문화 분야 예술가 및 새로운 영상·문화를 체험하고 배우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세대로 볼 수 있음. 사업 편익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영화상영 티켓 수익, 아트숍 운영과 식음료 판매 등의 직접적 수익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베트남 영상·문화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와 차세대 영화인을 양성하는 대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측면 등 중장기적 무형의 가치를 고려할 때,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3) 기술적 정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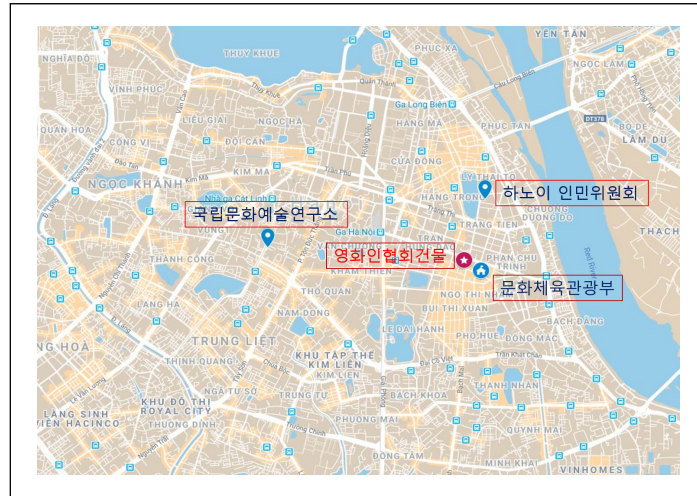
### ■ 사업투입 요소

- 본 사업의 투입요소는 후보지인 ‘영화인협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한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관련 기자재 지원, 정책자문관 파견 및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센터 건립) 부지 내 메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필요 부속건물 및 시설의 신축, 이에 따르는 기자재 및 용품 지원
  - (정책자문관 파견 및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영상·문화센터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기술 자문, 센터 및 영상·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및 경영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파견과 현지/해외 연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 ■ 사업 후보지의 기술적 정합성

- 센터 건립 후보지는 하노이 중심 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협력국 국민의 접근이 용이할 뿐 아니라, 하노이 대표적 관광지인 호안끼엠 호수와 구시가 지역 (약 1Km), 역사적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멜리아 호텔(약 600m) 등과도 가까운 지역임
- 건립 후보지는 사업주관 부서이자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400m), 하노이 인민위원회(1.4km), 국립문화예술연구소(4.1km) 등과도 매우 가까워 사업 추진 관련 업무협의 및 모니터링과 평가 등 관련 업무 수행에도 매우 용이한 위치임

[그림 6-4] 사업 후보지(영화인협회건물)와 주요 사업 파트너 위치



- (후보자-영화인 협회 건물) 베트남 영화인 협회 건물은 프랑스 식민지 시대 건축물로 시내 중심부에 있으며, 베트남 영화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건물임
- 또한, 영화인들의 일상적 모임과 활동 장소이자 2002년부터는 베트남 젊은 청년 영화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영화재능발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해당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정책 자문사업은 문화ODA 사업의 상징성과 더불어 사업 후 운영과 연계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건물과 시설이 낙후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화재능발전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다년간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건물 리모델링과 운영·정책 자문사업의 수행에 비교적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6-5] 사업 대상 후보지 건물 (베트남 영화인협회 건물, Số 51 Trần Hưng Đạo, Hà Nội)



### 1 주요 문화정책 수요와 시범사업의 필요성

#### 가. 현황 분석

##### ■ 몽골 정부의 ICT 기술 적용 노력<sup>168)</sup>

- 몽골 통신부문의 매년 품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자와 공급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몽골의 인터넷 사용자는 2011년 약 46만 명에서 2019년 약 545만 명으로 10배 이상 급증
- 몽골의 정보통신기술(ICT)은 활발한 외국인투자 및 관련 분야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음

##### ■ 자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 최근 몽골 정부는 자국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 문화콘텐츠의 매체 방영 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제약을 가하고 있으나, 자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기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
  - 이는 곧 몽골의 자체 콘텐츠가 아직은 몽골인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 ■ 한-몽골 문화창조산업 교류·협력 MOU 체결<sup>169)</sup>

- 2016년 7월 대통령 몽골 순방 당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간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및 수출 증대 기반을 마련함
  - 주요내용: △문화 창조산업 관련 경험공유 및 연수 진행, △문화분야 활동에 첨단 정보기술 도입을 위한 문화기술 공동제작 시행, △양국 방송인 교류 및 협력 확대, △양국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영화상영 교류행사 개최,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장려, △양국 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상담회 개최 및 마켓 참가, △기타 문화기술 및 창조산업 교류와 협력 등

168) 이하는 KOTRA 해외시장뉴스(2018.12.20), <몽골 IT 산업 정보통신 산업> 참조 및 재구성 (검색일: 2020.07.10)

169) 경제외교 활용포털, “한-몽골 문화창조산업 교류 협력 MOU”

([https://president.globalwindow.org/kz.info.MouDetail.do?mou\\_seq=1042](https://president.globalwindow.org/kz.info.MouDetail.do?mou_seq=1042)) (검색일: 2020.07.01)

## 나. 대상국가의 주요 문화정책

### ■ 몽골 문화분야 정책비전 및 목표

- 몽골 문화예술청은 ‘예술과 문화 부문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이 부문에서 국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예술과 문화 부문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서 예술과 문화 부문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사명 아래 ① 문화 관련 국가 정책 및 법률 시행의 관리 ② 공공행정 및 인적자원 관리, 법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구현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수행·평가라는 두 가지 전략목표를 실행 중임<sup>170)</sup>

〈표 6-6〉 몽골 문화예술청의 정책 우선순위 및 전략목표별 세부과제

몽골 문화예술청의 정책 우선순위	
1. 개인의 개발 및 공공 문화 지원, 경쟁력있는 예술·문화에의 접근성 제고, 사회에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하며 책임 있고 효율적인 국가 서비스 시스템 및 문화산업 육성 2. 문화유산 등록·관리·정보의 통합 및 문화유산의 보호·복원·강화·전수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 3. 예술·문화 부문의 수치 및 기록 개선, 단일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통한 운영 안정화 4. 문화정책 개발에 있어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중앙 관리 기관 지원 및 필요 정보 제공 5.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신속한 품질과 접근 가능한 업무 및 서비스 제공	
전략목표별 세부과제	
① 문화 관련 국가 정책 및 법률 시행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기술과 혁신, 국가의 역사·문화적 특색 관련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창조산업 개발, 새로운 능력을 갖춘 새로운 제품·서비스 창출을 통한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li> <li>• 문화 활동 관련 가정과 시민의 동등한 참여 보장, 시민의 문화적 가치 창출·향유·소지, 환경 및 여건 조성,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의 전 국민 제공</li> <li>•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전수 및 강화</li> <li>• 문화 부문 인적 자원 개발 및 승진</li> <li>• 문화·예술분야 공공·민간단체의 전문 협회 및 상호 유익한 대외 관계와 협력 증진, 지원</li> <li>• 통합 문화 경영 정보 시스템 구축, 문화 통계 유지 및 분석</li> </ul>
② 공공행정 및 인적 자원 관리, 법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구현 관련 내부 모니터링 수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부서의 리더십 보장, 직원 업무의 계획·조직, 근무 조건 보장, 법률 및 정부 결정의 이행 보고</li> <li>• 기관의 책임 영역 내에서 계약 및 계약 초안 작성, 법률 자문 제공, 법률 이행 보장 및 모니터링, 계획, (재)훈련, 기술 개발, 부패 방지 및 이해 상충, 기관 인적 자원 관련 자문 제공</li> <li>• 예산 제안 및 투자 기획, 예산집행의 관리 및 보고, 예산 지출의 투명한 보고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및 서비스 제공</li> <li>• 홍보 활동 관리</li> <li>• 법률, 정책, 프로그램, 계획 및 프로젝트의 구현을 모니터링, 평가·결론·권장 사항의 이행, 부서 활동 내부 감사 수행,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권장 사항 구상</li> </ul>

자료: 몽골 문화예술청 “우선순위, 사명, 목표” (<https://culture.gov.mn/p/t3>) (검색일: 2020.06.07)

170) 몽골 문화예술청 “우선순위, 사명, 목표” (<https://culture.gov.mn/p/t3>) (검색일: 2020.06.07)

- 몽골 문화예술청은 특히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관련된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데,<sup>171)</sup> 본 시범사업안과 관련 있는 문화정책으로는 ‘국가 문화유산정보의 디지털 저장 정책’을 들 수 있음
  - 2005년에 승인된 이 정책은 몽골 전역의 국립박물관, 21개 주립 박물관, 국립도서관,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 문서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팀을 고용하고, 2006년~2008년 동안 작업을 수행할 것을 명시함<sup>172)</sup>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집된 문화자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립기록원 등 다른 사례에서 데이터 전환율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보면 본 정책 역시 동일한 한계를 보였을 것으로 예상됨

## 다. 문화정책기관·협력기구

- 몽골 문화예술청(Culture and Arts Agency)
  - 문화예술청은 행정과, 문화·문화유산과(Соёл, соёлынөвийн хэлтэс), 예술·공예과(Урлаг, уран бүтээлийн хэлтэс)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문화유산과 및 예술·공예과가 각기 담당 분야와 관련된 법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기획, 시행, 조정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표 6-7〉 몽골 문화예술청 하위부서별 역할 및 기능

부서명	정원	역할 및 기능
문화·문화유산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무형 문화유산, 서적·출판물, 문화관광·레저서비스 관련 법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구현을 조직 및 조정</li> <li>• 박물관, 도서관, 문화 센터 및 궁전 관리</li> <li>• 관련 국내·국제 행사 활동의 조직 및 조정</li> <li>• 유·무형 문화유산, 서적·출판물, 문화관광·레저서비스 분야 지역 행정 및 전문조직, 사업체, 시민 등에 지침 제공</li> </ul>
예술·공예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연예술, 영화, 음악, 미술, 디자인 활동 관련 법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구현을 조직 및 조정</li> <li>• 극장, 영화관 및 예술 조직의 관리</li> <li>• 공연예술, 영화, 음악, 미술, 디자인 분야 공공 및 전문조직, 사업체, 시민 등에 지침 제공</li> </ul>
행정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작업 조정, 인적자원 관리, 조직홍보활동, 기획·예산운영, 통계 관리, 모니터링, 비품 관리 등</li> </ul>

자료: 몽골 문화예술청 홈페이지(<https://culture.gov.mn/>) (검색일: 2020.06.09.) 참조 및 재구성

171)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몽골 문화예술청 홈페이지 참조 (<https://culture.gov.mn/p/to1>) (검색일: 2020.07.01)

172) 몽골 문화예술청(2005.12.07) “국가 문화 유산 정보 디지털 저장 프로그램 안내” (<https://culture.gov.mn/p/t10?id=16>), (검색일: 2020. 07.14)

- 문화·문화유산과는 다시 문화정책 담당자 1명과 문화유산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담당자 2명으로 조직되어 있어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기존 정책들과의 협력 도모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문화예술청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등 여러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도 관할하고 있어 문화기관들 간 협력체계 구축이 비교적 용이
- 국가개발청(National Development Agency)
  - 몽골 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국가발전정책 전반 및 분야별 발전정책의 개발 및 이행관리 담당
- 재무부(개발금융국)
  - ODA 총괄부처로 원조사업 제안서 및 문화예술청과의 계약체결 등 관련 절차 시 협력
- 커뮤니케이션·정보기술청(Cou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 몽골 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ICT 및 전자정부 정책 총괄기관
  - 방송·디지털콘텐츠국(Broadcasting and Digital Content Department)에서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상의 디지털 콘텐츠 정책을 조정하고 있어 문화콘텐츠 관리 시 협업 가능성 존재
- 자연환경관광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Tourism)
  - 보유 중인 관광 데이터베이스와 연계, 향후 지역별 관광자원화를 위한 협업 가능
- 국가기록원(General Archival Authority)
  - 전통문화유산(오프라인자료) 비전자자료 보존 중. 디지털 전환 시 협업 가능
-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 다른 원조 공여국의 유네스코 신탁금 및 신탁사업에 따라 몽골에서의 창조/문화산업 관련 다수의 프로젝트 시행 시 중요 파트너로 활동

## 라. 관련사업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 ① 관련 사업 현황 및 문제점

#### ■ 몽골 문화원형 프로젝트<sup>173)</sup>

- ‘몽골 문화원형 프로젝트(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for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capacity building at practice level in Mongolia)’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 본부 간 체결된 ‘문화다양성 협약’을 근거로 한 ‘유네스코 아태지역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임

<sup>173)</sup> 이하의 내용은 컬처링 “문화원형 활용사례: 몽골 문화원형 프로젝트”를 요약함  
([https://www.culturing.kr/html/htmlPage.do?page=case/edu\\_05.html](https://www.culturing.kr/html/htmlPage.do?page=case/edu_05.html)) (검색일:2020.07.10)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창조산업 진흥을 위한 개도국 능력 배양의 필요성에 의해 2009년 추진됨
- 문화원형의 디지털 콘텐츠화 등에 경험이 있는 (주)시지웨이브와 호남대학교 가상현실응용 지역 혁신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유네스코 몽골위원회에서 전통문화의 디지털 콘텐츠화에 대한 기술/수행교육 및 자문활동을 수행함
-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애초 계획에 없었던 전문가 훈련과정(Specialist Training)까지 추가하여 디지털 “Green Tara” 콘텐츠 시범 개발까지 완료
- 몽골에서의 기술/수행교육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한국 현지의 문화원형 디지털 콘텐츠화 기술 수준을 홍보·전수하는 점에 있어서는 현지 콘텐츠 개발 환경이 다소 열악하다는 한계 존재

## ② 본 시범사업의 필요성

- 몽골은 2000년대 중반부터 문화유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실행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몽골에서 진행된 사업은 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맞물려 문화다양성 보존 차원에서 전통문화유산을 보호, 보존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변환기술을 이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몽골 정부의 예산 제약과 공무원들의 역량 한계로 디지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 더불어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역량으로서 문화자원을 상품화하여 현대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해당 문화를 향유토록 하고, 소득증대로도 연결되는 고부가가치 활동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1세기 창조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이 융성하기 위해서는 자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을 얼마나 매력적인 스토리를 지닌 콘텐츠로 재생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 따라서 이러한 종합적인 문화역량개발로 연결되기 위해 몽골 정부는 콘텐츠 분야에 특화된 수집, 보존,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들의 문화자산의 향유 및 재생산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 창출
  -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몽골 문화산업의 창조적 경쟁력 확보
  - 도서관, 기록원, 박물관 등 기존의 오프라인 아카이브를 구축 중인 문화시설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노드 및 종합콘텐츠 포털로서의 공간 창출이 가능

## 2 시범사업안: 매체전환 콘텐츠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몽골 문화원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 건립 사업

### 가. 사업개요

〈표 6-8〉 사업개요서 (잠정)

구분	내용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문: 매체전환 콘텐츠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몽골 문화원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 건립 사업</li> <li>영문: Construction of the digital archive system of Mongolian cultural archetypes and the Mongolia Content Development Institute for capacity building in the development of transmedia contents</li> </ul>
대상 국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몽골 (울란바타르)</li> </ul>
수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문화과학체육부 문화예술청 문화·문화유산과</li> <li>- Mrs. Munkhzul N. (Head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Cultural Heritage)</li> <li>- +976 264946, +976 264945 / munkhzul@culture.gov.mn</li> <li>- Chingeltei district, United Nations Street, Government Building II, Ulaanbaatar</li> </ul>
사업기간/ 총 사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분: 신규</li> <li>기간: 2021~2025년 (4년) (잠정)</li> <li>총 사업예산: 2,262천 달러</li> </ul>
사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li> </ul>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문화)</li> </ul>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몽골의 문화콘텐츠의 자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몽골 문화원형 아카이브 및 '몽골콘텐츠 개발원'(가칭)을 설립함으로써</li> <li>- (단기) 현지 문화원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매체전환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li> <li>- (중기) 몽골 문화원형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콘텐츠자산의 종합적 관리역량 강화</li> <li>- (장기) 문화자산의 수집, 보존, 활용, 상품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li> <li>몽골 문화창조산업 육성 및 문화저변의 확대, 몽골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li> </ul>
정책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협력전략(CPS)상 중점분야 해당 여부: (○) 몽골 공공행정 분야</li> <li>국정과제 해당 여부: (○)</li> <li>-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li> <li>-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li> <li>SDGs No. 8, 9, 11 기여: (○)</li> <li>- (8.2) 다변화, 기술발전, 혁신을 통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li> <li>-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적 정책 진흥</li> <li>- (9.1)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 보장, 경제발전 및 인간 복리에 기여하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9.b) 산업 다변화와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정책환경 보장, 개도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혁신 지원</li><li>- (11.4)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노력 강화</li><li>• 기타 대외전략(신북방 정책 관련 여부: (○))</li><li>-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2020.06)</li></ul>	
	우리측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기) 문화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및 창조적 변용 관련 한국의 정책경험 전수</li><li>• (중기) ‘몽골콘텐츠개발원’(가칭) 설립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거점 마련</li><li>• (장기) 양국 간 문화협력 분야의 지속적인 확대 및 인접 국가로의 지식공유 확산</li></ul> <p>국내 지자체, 관련 학과, 민간단체 등 문화협력 네트워크 확장</p> <p>한국 창조산업의 신북방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일자리 창출</p> <p>디지털 문화강국으로서의 경쟁력 및 국제사회 이미지 제고</p>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li><li>•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문화예술청 문화·문화유산과</li></ul>	
사업 세부 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정책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원형 발굴 및 아카이빙, 관련 콘텐츠의 제작 및 활용, 관계부처 간 협업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li><li>• 인접산업,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와의 연계 전략 수립</li><li>• 문화원형 아카이브 및 파생 콘텐츠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몽골콘텐츠개발원’(가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li></ul>
		역량강화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예술계 인사 및 관련 부처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몽골에서 연 1회(총 2회), 각 3주과정의 연수 진행</li><li>- 내용: 1) 몽골 문화원형의 발굴 및 디지털 아카이빙 과정</li><li>2) 매체별 특성 이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기법</li><li>3) 콘텐츠 진흥 및 종합관리제도 연수(실무가 간담회)</li><li>4) 한-몽 문화콘텐츠 소재 탐색을 위한 현장 답사</li></ul>
		정책자문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원형 아카이브 및 디지털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관련 기술감독</li><li>• 문화자산 통합 관리 법제도 관련 한국의 경험 전수</li><li>• 문화창조산업 육성 전략 개발 컨설팅</li></ul>
		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개발원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원형 아카이브 및 디지털 공유 플랫폼 구축</li><li>• 콘텐츠개발원 건물 설계 및 디자인</li></ul>
		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영상/이미지 촬영 및 음성 변환 기기 도입</li><li>• 시스템 S/W 및 DB 구축 장비 지원</li><li>• 콘텐츠 개발 실습 시 필요 장비 제공</li></ul>
	개발협력국 분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지 연수 및 아카이빙 구축작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 제공</li><li>•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팀(TF) 구성 및 연수 희망인력 선정</li><li>• 현지 사업 진행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공</li><li>• 아카이브 구축 이후 서버 등 기자재 유지관리비 및 통신망 사용료 자체부담</li><li>•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 및 건설적합성 조사</li></ul>	
		사후관리 계획	

## 나. 예산, 사업지역과 사업기간

### ■ 소요예산

〈표 6-9〉 사업 세부내역별 소요예산(안)

사업내용		세부내역	소요예산 (천\$)	비고
건물 설립 및 기자재 지원	건물 설립	- 건축공사비	400	500\$/m²×800m²
		- 설계비	20	건축공사비의 5%
		- 감리비	10	현지인 상주감리 1인
		- 예비비	40	건축공사비의 10%
		소계	470	
	기자재 지원	- 복합기	30	이미지 스캔, 문서 등의 복사, 5기
		- 디지털 카메라	2	동영상/이미지 촬영, 2기
		- 음향장비	20	음성파일 녹음 및 추출
		- 디지털 복원장비	80	3D 스캐너, 디지털 실체현미경, 적외선/자외선 분석기 등
		- 노트북/PC	10	노트북 4기 / PC 6기
		- DB서버	100	
		- 보존처리 비품	2	
	소계	244		
합계		714		
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	웹 개발, 자료보관 저장소 구축 등		300	
	수집된 문화자원 정보 업데이트		200	
	합계		500	
전문가 파견	사업총괄책임자(PCM)		120	5천\$×12개월×4년
	콘텐츠 관리 전문가		60	5천\$×6개월×2회
	콘텐츠 정책 전문가		60	5천\$×6개월×2회
	아카이브 구축팀(2명)		120	5천\$×12개월×2명
	합계		360	
역량 강화 연수	(방한연수) 콘텐츠 관리인력 및 문화예술인사		300	15천\$×20명×1회(3주)
	(방한+방몽연수) 통역료		180	(통역) 9천\$×2회(각 3주)
	(방한+방몽연수) 연수교재 제작		4	(번역) 1.5천\$×2회 (인쇄비) 20\$×25권×2회
	합계		484	
행정비/ 기타	기본설계조사		100	50천\$×사업별 전문가 2명(2주)
	실시협의		50	25천\$×전문가 2명(1주)
	중간평가		30	30천\$×전문가 1명
	기타 행정비용		24	0.5천\$×12개월×4
	합계		204	
총계			2,262	

###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년(총 48개월, 잠정)

## 다. 사업 세부내용

### 1) 사업 세부사항

#### ■ 정책지문

- 문화원형 발굴 및 아카이빙, 관련 콘텐츠의 제작 및 활용, 관계부처 간 협업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문화원형 아카이빙의 기준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문화콘텐츠로 '재생산'할 수 있는 매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우선시되므로, 문화유산 보존 차원에서 수행되던 기존의 디지털화 사업과의 차별성을 이해하고 제도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제 실무 담당자 내지는 조직 관리자 차원에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형 라이브러리, 스토리움 등 콘텐츠의 수집 및 재생산 관련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아카이빙 절차, 파생 콘텐츠의 관리 및 프로모션, 유사영역 간 업무조율 등을 반영한 사업모델 구상
- 문화원형 아카이브 및 파생 콘텐츠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법적 지위, 사업범위 등을 소개하고,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의 제도 및 조직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영역에 대한 논의
- 인접산업,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와의 연계 전략 수립

#### ■ 역량강화 연수

- 문화예술계 인사 및 관련 부처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몽골에서 연 1회 (총 2회), 각 3주과정의 연수 진행
- 실제 아카이빙 및 콘텐츠 관리 실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과 문화원형 아카이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할 아티스트 및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으로 양분하여 연수과정을 구성
  - 정책실무가 대상 커리큘럼:
    - 1) 몽골 문화원형의 발굴 및 디지털 아카이빙 과정의 이해
    - 2) 콘텐츠 진흥 및 종합관리제도의 이해(전문가 간담회)
  - 전문예술가 대상 커리큘럼:
    - 1) 콘텐츠 전달매체별 특성 이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기법
    - 2) 한-몽 문화콘텐츠 소재 탐색을 위한 현장 답사

## ■ 정책자문관 파견

- 문화원형 아카이브 및 디지털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관련 기술감독
- 문화원형 및 문화콘텐츠 관리 법제도 및 콘텐츠산업 육성 전략 개발 관련 컨설팅

## ■ 아카이브 구축

- 아카이빙 과정에서 수집할 문화원형 데이터의 선별 및 분류기준 정립
  - 문화원형 데이터 수집 시 상품화 가능성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 수집된 데이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므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적용
- 확립된 수집기준을 토대로 2차 년도 동안 몽골 문화원형 수집
  - 사업 초기의 편의성 및 기존 문화유산 보존사업과의 연계를 위하여 문화예술청에서 관할하는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울란바토르시 문화예술청을 대상으로 우선 수집
- 문화원형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 아날로그 자료를 영상, 사진, 음향 등의 시청각 자료로 전환 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
-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검색 및 열람이 편리한 인터페이스 구축
  - 업로드된 문화원형 데이터의 자유로운 다운로드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저작권문제 해결 필요

## ■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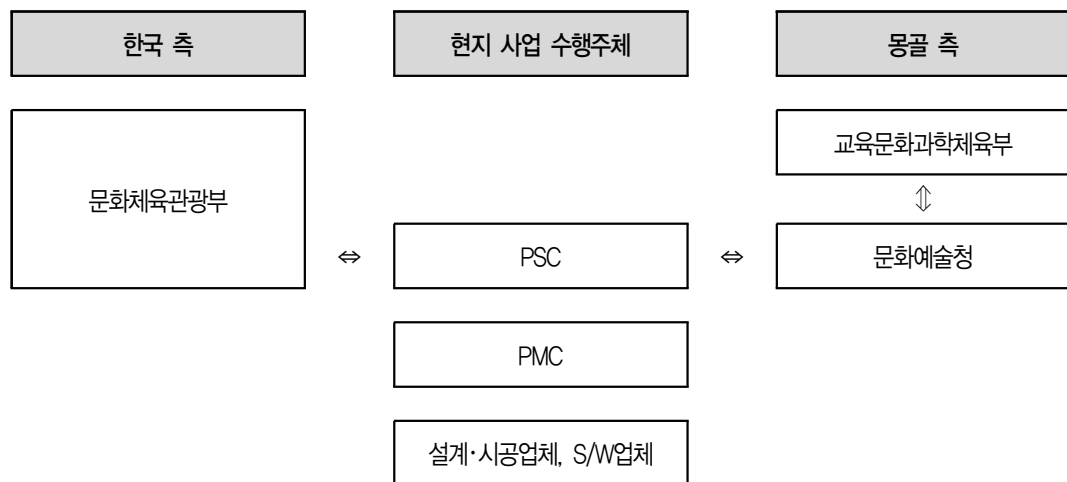
- 콘텐츠개발원의 법적 지위, 업무범위, 타 기관과의 관계 등을 담은 법제도 마련(2~3차 년도)
  - 단순히 디지털 아카이브만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설계하는 것이 아닌, 향후 몽골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홍보 기능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구상 시 고려할 필요
- 건물 설계 및 시공과정(2차 년도 중순~3차 년도)
  - 사전조사 시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지 기후 및 지리적 특성 파악 필요
  - 유관기관과의 인접성을 고려한 부지 선정 필요
  -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일정 설정
- 전산환경 구축 및 시범운영(4차 년도)

## 2) 사업수행체계 및 관리계획

### ■ 사업수행체계

- 사업 수행체계는 공여국과 개발협력국, 그리고 사업수행주체로 구성
  - 한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본 사업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에서의 사업 총괄관리는 문체부에서 파견한 사업관리수행자(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ing)<sup>174)</sup>가 담당함. 몽골 주관부서로서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문화예술청 문화·문화유산과가 수원기관으로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
  - 사업관리수행자(PMC): 본 사업의 현지 총괄관리자로서 본 사업을 대표하여 수원기관인 몽골 문화예술청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방향을 주도하고,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한국 또는 몽골의 설계·시공업체(콘텐츠개발원 건립) 및 소프트웨어업체(아카이브 구축)를 관리하며, 사업평가(중간평가, 종료평가),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함(필요시 사후관리 방향도 제시)
  - 사업운영위원회(PSC, Project Steering Committee):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한국과 몽골의 주관부서에서 추천한 5-7인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PMC로부터 활동상황을 보고받고 본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정책자문을 수행

〈표 6-10〉 사업수행주체



### ■ 양국 간 업무분담

- 공여국으로서 한국 측은 우수한 전문가 그룹과 양질의 기자재를 지원하도록 함
- 개발협력국으로서 몽골 측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이 건립될 장소를 제공하고, PMC가 활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관련 인허가, 면세통관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편의를 지원함

174) 현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 현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

〈표 6-11〉 양국 간 분담사항

구분	한국 측	몽골 측
사업 기획·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MC 파견 및 사업 전반의 기획·관리</li> <li>사무 기자재 및 자동차 배치</li> <li>필요 시 현지직원/통역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MC 현지 사무공간 제공 (몽골 문화예술청 건물 내부)</li> <li>행정관리 직원 지원</li> </ul>
콘텐츠개발원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 설계 및 시공 감리</li> <li>개발원 조성</li> <li>개발원 운영인력 훈련 및 운영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축 부지 제공</li> <li>개발원 운영인력 선정</li> <li>건축 관련 인허가 및 행정업무 지원</li> </ul>
아카이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화 및 아카이빙 관련 장비 지원</li> <li>아카이브 DB/공유 시스템 개발팀 구성</li> <li>아카이브 DB/공유 시스템 수요분석</li> <li>몽골 문화원형 정보 수집 및 아카이브 DB/공유 시스템 세부내용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자재 통관 및 면세 지원</li> <li>아카이브 DB 시스템 개발팀 구성</li> <li>아카이브 DB 시스템 수요분석 지원</li> <li>몽골 문화원형 정보 수집 및 아카이브 DB/공유 시스템 세부내용 개발 지원</li> </ul>
전문가 파견 및 정책·기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자산 전산화 및 아카이브 구축 관련 기술전문가 파견</li> <li>문화콘텐츠 관리기관 및 제도설계 관련 정책전문가 파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파견 전문가에 대한 편의 제공</li> </ul>
역량강화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비용 제공</li> <li>연수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청/현지연수 대상자 선발</li> <li>초청연수 파견에 따른 편의 제공</li> </ul>
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사무용품 지원</li> <li>개발원 운영 관련 기자재 구매 및 기술훈련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원 운영 기자재 및 사무실 사무용품 배치 및 활용</li> <li>기자재 통관 및 면세 지원</li> </ul>

### 3) 사업 추진일정(안)

〈표 6-12〉 몽골 문화원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몽골 콘텐츠진흥원(가칭) 건립 사업 추진일정(안)

구분	분기별 활동	착수				설계/자료수집				시공/구축				시범운영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사업 기획· 운영·관리	기초조사																
	PMC 파견																
	정기보고																
	모니터링																
	중간평가																
	종료평가																
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	수집/분류 기준 마련																
	문화원형수집																
	DB 구축																
	서비스 플랫폼																
	시범운영																

구분	분기별 활동	착수				설계/자료수집				시공/구축				시범운영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콘텐츠개발원 건립	설계																
	인허가																
	건축공사																
	전산환경구축																
	제도마련																
	인력훈련																
	시범운영																
전문가 파견 및 기술·정책 자문	기술자문																
	정책자문																
역량강화 연수	초청연수																
	현지연수																
기자재 지원	사업운영																
	아카이브																
	개발원																

#### 4) 사후관리: 연계사업의 구상

##### ■ 실무진·학계·(잠재)사용자 등을 위한 다방면의 교육과정 개발

- 문화원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매체변환 콘텐츠 제작 실무과정, 문화유산 및 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문가과정 등 콘텐츠산업 관련 공공·민간부문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과정의 개발 및 정례화
- 또한 몽골 국립문화예술대학, 인문예술대학 등 몽골 저명 예술대학 내 콘텐츠 관련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한국 우수 인력들의 교원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청소년과 일반인 등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콘텐츠 산업에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를 장려할 ‘스토리텔링 아카데미(가칭)’ 등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상대국 문화원형을 소재로 한 교차 콘텐츠 제작 및 동시 방영

- 양국의 신진 예술가 및 강소 콘텐츠 제작업체들을 중심으로 상대 국가 현지답사 및 소재 발굴 및 콘텐츠 제작 기회를 부여한 뒤 양국 유력 매체를 통해 소개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원형 기반 콘텐츠의 초기 수요 신장 및 판매 루트 확보에 기여하고, 양국 전문가들 간 교류 기회를 확장

##### ■ 지역 문화원형의 발굴을 통한 몽골 문화원형지도 구축 및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개발

- 몽골의 21개 주 및 239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특색 있는 문화원형 소재를 집대성하는 몽골 문화 원형지도를 구축하여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아카이브 사업을 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한편, 발굴된 지역 콘텐

츠를 관광자원 내지는 지역 특산품에 활용하는 방안 도모

-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이미 자체 콘텐츠진흥원을 운영 중인 한국의 지방정부 및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연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자체 간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저변 확대도 연계 가능

## ■ 중앙아시아 공동 문화원형 발굴 및 공유사업

- 유로피아나(Europeana)<sup>175)</sup>의 사례와 같이 인접한 국가들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중앙아시아 차원의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이를 단일 창구를 통해 누구나 열람,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
-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집대성하는 수집자이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앙아시아 문화를 확산시키는 거대한 포털로서 기능
  - 중앙아시아 공동사업의 제안을 통해 몽골은 중앙아시아에서 문화정책을 국가발전계획 전면에서 제시한 최초의 국가이자 중앙아시아 내 디지털 아카이빙 선도국가로서 자국의 정책경험을 주변국으로 확산시킴으로서 국가적 위상을 다질 수 있을 것임
  - 한국 역시 자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관련 산업을 진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5) 기대효과

### ■ 몽골 정부의 문화자원 관리 및 대국민서비스 역량 강화에 기여

- 문화콘텐츠 관리역량 및 유관업무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정부업무 효율성 강화
  - 상품화 가능성에 입각한 문화자산의 (재)분류, 축적, 관리, 공유 역량 강화
  - 문화콘텐츠 종합 관리기관으로서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의 설립을 통해 문화창조 산업 대한 몽골 정부의 제도적·조직적 역량 축적(향후 콘텐츠진흥원으로의 승격 고려)
  - 기존 문화유산 보존 담당 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문화자원의 디지털 변환을 제고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문화자원의 보존과 창조적 재생이 공존할 수 있는 협업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
- 문화자원의 대국민 공유서비스 확산 및 자유로운 이용 허용을 통한 정보제공의 효율성 증진 및 전 국민의 동등한 문화접근성 보장

175) Europeana, "Sources - Europeana Collections"에 따르면, 유로피아나(European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EU의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로, 2020년 7월 현재 91개국 3천여개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유럽 관련 약 5,900만건의 자료를 이미지, 텍스트, 음악, 음성 기록물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중임. 거의 모든 기록물을 링크드 오픈 데이터(LOD)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양식 메타데이터 간 빠른 검색을 보장하고 있으며, CC0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로운 활용 및 재가공이 가능토록 함

- 최근 몽골 내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신망을 통한 전자정부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바, 문화자원의 온라인 공유서비스를 통해 시공간적·비용 제약을 탈피한 문화자원 열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보다 친숙하고 강렬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몽골의 문화원형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몽골의 전통 및 현대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강화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자국 문화원형의 직접 관리 및 활용을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자생적 육성기반 마련**
  - 문화원형 아카이빙 사업의 핵심은 문화자산의 수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면 공개 및 자유로운 공유를 통해 2차 저작물 양산을 촉진한다는 데 있음
  - 따라서 아카이브 인력의 관리역량 향상뿐 아니라 자국 문화의 자연스러운 향유를 통해 인접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자국 산업에 대한 소비 또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를 통해 문화원형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문화창조 산업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몽골 및 인접국가와의 협력기반 확대

- **양국 간 문화협력 분야의 지속적인 확대(정책사업 확장 가능성)**
  - 양질의 문화콘텐츠는 비단 문화산업의 성장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면 어디서든 확장 가능
  - 문화원형 아카이브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문화, 교육, 관광, 미디어·출판, 홍보 등 인접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임
- **국내 지자체콘텐츠기관, 관련 학과, 민간단체 등의 협력 네트워크 확산**
  - 중앙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지역 문화자원의 관리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콘텐츠 산업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시설, 예술협회 등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
  - 이는 추후 문화정책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접 국가로의 지식공유 확산**
  - 상기 몽골 정부의 정책적 경험을 토대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주변 국가로의 공동사업도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관련 국내산업의 현지 진출 효과

- **한국 창조산업의 신북방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 몽골 정부에서의 정책사업 성공으로 몽골 내 유사업무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한국의 능력 있는 정보화 업체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몽골에서의 문화콘텐츠 수요가 더욱 증가됨에 따라 기존에 각광받던 한국의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수출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모임
-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신규 수출 콘텐츠 발굴
  -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및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몽골 현지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역시 증대될 것이고, 한국 기업 역시 우리나라에 없는 현지 콘텐츠 원형을 신규 발굴, 상품화함으로써 현지화 전략을 도모할 수 있음

## ■ 문화 및 전자정부 강국으로서의 국제사회 이미지 제고

-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 중아시아 지역에서의 역량 있는 협력 파트너 이미지 제고
- 현지에서 호감을 얻고 있는 한국 현대문화 콘텐츠에 다양한 전통문화원형이 가미된 점을 제시함으로써 한류 인식의 저변을 확대

## 라. 정합성 분석

### 1) 정책 정합성 검토

#### ① 개발협력국 발전계획과의 정합성

## ■ ‘몽골 장기개발정책 2015-2040’과의 정합성

- 국가개발연구원(NDI)에서 2016년 발표한 ‘몽골 장기개발정책 2015-2040’에서 제시한 5대 핵심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몽골인의 개발 고숙련인력 양성 및 생산성 향상, ② 정부의 조직 역량 및 정책·규제 강화, ③ 다방향 경제발전, 국제시장 진출 및 지하자원의 효율적 개발, ④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최신 기술 도입 및 혁신 도모, ⑤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산층 확대, 국민 행복 및 복지 증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sup>176)</sup>
- 각 핵심 정책방향에 대한 세부과제 중 본 시범사업과 부합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5대 핵심 정책 방향	세부 과제
② 정부의 조직 역량 및 정책·규제 강화	2-4. 정부조직 운영관리, 최신 지식·기술 혁신 기반 지속적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 촉진
⑤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중산층 확대, 국민 행복 및 복지 증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3. 몽골 문화와 자원의 연구 및 선진기술의 전파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12). “몽골 국가협력전략, 10쪽

176) 관계부처 합동(2016.12). 「몽골 국가협력전략」, 9~12쪽

## ■ ‘몽골 정부 행동계획 2016-2020’과의 정합성

- ‘몽골 지속가능발전 비전 2030’에 의해 무효화된 기존 MDGs 기반 ‘포괄적 국가발전전략 2007-2021’을 대체하는 문서로서 발표된 ‘몽골정부 행동계획 2016-2020’에서는 △단기간 내 경제회복 달성, △사회부문 성장 촉진, △국민을 위한 복지 개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의제로서 ① 공공부문 역량강화, ②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서비스 제공, ③ 국민의 신뢰 강화, ④ 국가안보 강화를 선정하였는데,<sup>177)</sup> 이 중 ‘공공부문 역량강화’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본 사업의 목적과 정합성을 보이고 있음

## ■ ‘비전 2050’과의 정합성

- 2020년 5월 13일 몽골 국회에서 최종 승인된 몽골의 새로운 장기개발계획 ‘비전 2050’에 제시된 9대 핵심목표 중 첫 번째는 ‘문화강국’으로서 국가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통일된 가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지금까지 제시된 몽골의 어떤 발전계획문서들보다도 문화정책 분야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최종 승인된 비전 문서가 부처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되고, 현재 한국의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 문서에 반영되어 있는 기존 발전계획이 비전 2050으로 대체되면 본 시범사업과의 정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② 우리 정부 대외전략과의 정합성

###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의 정합성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본 과제의 경우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국정과제 69)’ 및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국정과제 99)’와 관련됨

### ■ 신북방정책과의 정합성<sup>178)</sup>

-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아 6월 23일 개최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8차 회의에서는 ‘신북방정책 전략과 국가별 협력방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한 우호적 문화협력 환경 조성 및 문화·관광 산업 공동시장 확대를 위해 4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신북방 문화·

177) 관계부처 합동(2016.12). 「몽골 국가협력전략」, 9~12쪽

178) 이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0.06.23),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 참조 및 재구성

인적 교류 확대방안'이 제시되었음

- 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문화·인적교류 확대방안에서는 신한류 확대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문화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연관산업 성장 견인, 전략적 연계 1순위 지역군으로서의 중장기 문화협력 로드맵 수립, 정부 간 협력 및 지자체 협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체계적 문화 교류협력 기반 강화, 정부 관계자·전문가 초청연수,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 컨설팅을 통한 문화ODA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제시된 전략과 고무 조율하는 것으로 확인됨

### ③ 국제사회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와의 정합성<sup>179)</sup>

#### ■ 정합성 검토

- 본 사업은 몽골의 여러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을 수집, 재분류하고, 이를 다시 콘텐츠화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 이를 통해 21세기 창조산업의 일환으로서의 몽골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혁신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산업화, 혁신 등에 기여함
- 또한 본 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서 몽골의 문화자산에 대하여 모든 이들의 차별 없는 공평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기반시설로서 몽골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몽골 정부는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하고 제도적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인력 및 전문성의 부족,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원자료의 보존 및 디지털화의 수준은 매우 낮음. 따라서 이번 문화원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강하고, 유관기관들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간 유기적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함으로써 현재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존 보존사업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임

#### ■ 경제적 정합성

- 최근 한국에서 창조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집중 지원의 대상이 된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몽골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전략

179) 구체적 목표 및 세부목표 번역문은 지속가능발전포털에 업로드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국문본)”을 인용함.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api/unsdgs%EA%B5%AD%EB%AC%B8%EB%B3%B8.pdf>) (검색일: 2020.07.10)

적 중요도로 인해 인접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신산업 수출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몽골 현지에서의 문화원형 자산의 안정적인 수집 및 활용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경우, 인접 사업으로의 연계를 통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한-몽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수혜자의 저변이 문화콘텐츠 산업체, 전문 인력, 학계, 지자체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보임

## ■ 기술적 정합성

- 몽골 정부의 전자정부 역량 강화 노력과 더불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흥미 있는 문화자원의 전자정보화 및 공유,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밈(meme) 양산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으로 연결되어 의도한 정책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사업 수행 시 고려사항

- 몽골의 기후, 지진 발생정도, 전력수급 문제 등을 고려<sup>180)</sup>하여 건축일정을 여유있게 잡음은 물론, 콘텐츠개발원의 건축 및 아카이브 서버 운영 등의 안정성을 위하여 지질조사 시행 및 자체 발전·방한·내진설계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합의
  - 몽골은 여름이 짧은 편이고, 겨울에는 영하 40℃까지 내려가며 동결심도가 약 4m 이상인 혹한의 기후 특성을 갖고 있어 10월 중순경부터 이듬해 4월 중순경까지는 골조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몽골은 리히터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발생국가로서 구조설계 시 이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몽골의 경우 정부가 책정하는 기관별 등급에 따라 이중 전력 공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소로부터 각 변전소까지의 선로 노후화로 인하여 전력공급 상황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어 재난 또는 고장 등에 의한 정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향후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건설부지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접근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도로에 인접하게 배치<sup>181)</sup>

180) 한국국제협력단(2007), 「몽골 정부통합데이터센터(GIDC) 구축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13~15쪽 참조

181) 몽골에서는 건물과 도로와의 이격거리가 다소 클 경우 그 부지를 매매하거나 혹은 다른 건축물을 건립하여 본 건물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한국국제협력단(2007), 「몽골 정부통합데이터센터(GIDC) 구축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12쪽 참조

- 건축 자재의 원활한 수급여부, 현지-국내 건설업체 간 공사비 단가 및 서비스 품질 간 격차, 예산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업체 선정
- 문화원형 아카이브 구축 및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 설립 시 발생 가능한 문제 및 향후 발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제도 및 조직을 설계할 필요
  - 콘텐츠 가치의 평가, 저작권, 문화원형의 수집·이용 및 파생 콘텐츠의 개발 시 발생 가능한 문제들과 더불어 문화콘텐츠의 관리·유통에 용이한 법적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필요
  - 사업목적 및 방향성이 다르다고는 하나 아카이브 구축의 측면에서 문화유산 보존사업과 성격이 중첩될 소지가 많으므로 양자 간 사업성격의 구분 및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몽골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속도에 맞춰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이 진흥 및 육성기관으로 격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도적 설계 시 이를 반영
- 문화유산 보존 업무 담당자 및 문화예술청 산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과의 DB 공유를 제도화하여 문화원형 수집 데이터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축적 보장
- 문화원형 DB에 대한 자유로운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카이브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구축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몽골 내 모바일 시장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 및 편리성에 중점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 개발도 함께 고려

1

주요 문화정책 수요와 시범사업의 필요성

가. 현황 분석

1) 국가 개황

〈표 6-13〉 르완다 국가 개황

국명	르완다 (the Republic of Rwanda)		
위치	동부아프리카 대호수지역 내륙 (동) 탄자니아, (서) 민주콩고공화국, (남) 부룬디, (북) 우간다 접경		
수도 (주요도시)	키갈리 (수도, 무항가 (제2도시), 후예 (제3도시, 舊 수도)		
기후	온대, 연평균 20.5도, 최저 14도, 최고 30도 이하		
종족	후투, 투치, 트와		
면적	2만 6,338km <sup>2</sup> (한반도의 12%, 경상도와 비슷)	GDP	12억 달러 (2019)
인구	1,240만 명 (2019)	1인당 GDP	825달러 (2019)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르완단프랑 (Rwandan Franc, RWF)
종교	개신교(50%), 가톨릭(44%), 이슬람교(2%)	언어	키냐르완다어(공용어), 프랑스어(공용어),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0), 「세계국가편람 2020」, 206~207쪽 참조 및 재구성

2) 국가현황<sup>182)</sup>

■ 정치

- 대통령은 폴 카가메(Paul Kagame, 1957년 10월 23일~)로 2000년 3월 24일 집권(2003년의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10년 재선 성공. 이후 2015년 헌법을 개정하여 2017년 3선 성공).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로 3권이 분리되어있고 입법부는 하원(Chamber of Deputies)과 상원(Senate)으로 구성
- 1994년 4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벌어진 제노사이드(Genocide)로 100일간 80만 명이 사망하고 4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함. 다수족인 후투족과 소수족인 투치족

182) 한국수출입은행(2020), 「세계국가편람 2020」, 220~221쪽 참조 및 재구성; 한-아프리카미래재단(2015c), 「국별연구 시리즈: 르완다」, 3~11쪽 참조 및 재구성

간의 종족갈등으로 빚어졌으며 당시 집권세력이던 후투의 투치 집단학살로 발발하였음. 분쟁이 격화되자 UN평화유지군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철수하였고 우간다 난민캠프에서 카가메를 중심으로 성장한 반군세력이 르완다 본토에 입성하여 승리하였음. 당시 사령관이던 카가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이 계속되고 있으나 제노사이드 직후 신속한 전후복구와 경제성장, 무보복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정책으로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음

- 부패가 만연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달리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치안이 안정되어 안전한 국가로 여겨짐. 부패인식은 전세계에서 50위권 임

## ■ 경제

- 안정적인 정치환경을 바탕으로 2010년대에 들어 꾸준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 2016년부터 연 6~8% 경제성장률을 보임. 2018년 기업경영수준이 전 세계 190개국 중 41위, 217~2018년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가 전세계 137개국 중 58위에 오를 정도로 투자유치 환경이 우호적임

## ■ 사회

- 제노사이드 후속 조치 및 국가통합을 위해 제노사이드,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불인정. 인종·종족 등 차별에 근거하는 정치적 조직의 금지를 규정
  - 국가통합화해위원회, 국가제노사이드방지위원회 등 제노사이드 관련 사안의 해결 및 국가통합을 위한 위원회 설치
  - 강력한 반노사이드 정책을 통해 식민 시대부터 심각한 양상을 드러낸 종족갈등을 종식시켰다는 긍정적 성과도 있으나, 집권세력의 장기독재를 위한 비판적 여론 통제,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
- 인간개발지수는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2015년 188개국 159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도시와 농촌 간 개발 격차가 크며, 절대빈곤계층이 2016년 기준 38%에 달함
- 교육 분야는 MDGs, SDGs 목표에 따라 초등교육 등록률이 95%에 달하나 졸업률이 낮고 중등교육 취학률은 2018년 기준 41%에 그침

## ■ 인프라

- 전력, 물류, 교통 등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이 매우 열악한 편임. 포장도로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내륙국에 구릉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물류, 운송에 불리한 여건을 지님
- 물 부족 국가는 아니지만 수도시설이 부족하여 식수 접근율은 2017년 기준 58%임

- 정보통신은 인구 100명당 70명이 이동통신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 말부터 KT를 통한 LTE망이 개설되어 키갈리를 비롯한 몇몇 중소도시에서도 4G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Rwanda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부분적인 전자정부도입, 농촌지역으로의 e-커머스 확산, 전국 병원 전자시스템 도입이 이루어짐. ICT 발전에 필요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조의존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추세

## ■ 범분야

-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를 두어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의사결정기관 내 최소 30%의 여성 직위 보장함.<sup>183)</sup> 정부 고위급 인사 중 젊은 여성들이 다수 포진. 그러나 남성 우월적 문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여성은 약자의 위치에 있으며 특히 가정 내 폭력, 가사노동 부담, 교육기회 박탈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임

## 3) 국가개발정책 및 전략<sup>184)</sup>

- 르완다는 현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Vision 2020’ ‘Vision 2050’과 같은 중장기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 Vision 2020

- Vision 2020은 국가통합 및 종합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240달러인 중소득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6-14〉 르완다 VISION 2020 목표 및 핵심 부문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통합 및 종합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신장하여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240달러인 중소득국으로 전환</li> </ul>	
핵심 부문(Pillars)	범분야(Cross-cutting Issues)
1. 굿 거버넌스 및 능력 있는 국가 2. 인적 자원 발전 및 지식 기반 경제 3. 민간부문 주도 경제 4. 사회기반시설 발전 5. 생산성 있는 시장 중심의 농업 6. 지역 및 국제 경제 통합	1. 성평등 2. 환경 3. 과학, 기술, ICT

183) 외교부(2018), 「르완다 개황」, 19쪽 참조 및 재구성

184) 외교부(2018), 「르완다 개황」, 48~51쪽 참조

- 경제개발 및 빈곤감소 전략 II(EDPRS II): Vision 2020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실행 계획으로, 동 전략은 중기 전략적 목표와 4개의 주제별 부문(Thematic Areas), 8개의 기초 부문(Foundational Issues), 7개의 범 분야(Cross-cutting Issues)로 구성됨

〈표 6-15〉 르완다 EDPRS II 주요 목표 및 부문

목 표	주제별 부문(Thematic Ar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을 11.5%와 빈곤율 30%이하를 달성하여 중 소득국 위치 확보와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체제 전환</li> <li>2. 농촌 개발</li> <li>3. 생산성 증대 및 청년 고용 창출</li> <li>4.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li> </ol>
기초 부문(Foundational Issues)	범분야(Cross-cutting Issu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시경제 안정</li> <li>2. 인구</li> <li>3. 식량안보 및 영양실조</li> <li>4. 유아 계발 및 기초 교육</li> <li>5. 보건의 질적, 수요, 접근성</li> <li>6. 법, 통합, 화합, 안보, 안정</li> <li>7. 정부 재정관리의 효과성</li> <li>8. 분권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역량개발</li> <li>2. 환경 및 기후변화</li> <li>3. 가족 및 성평등</li> <li>4. 지역통합</li> <li>5. HIV/에이즈 및 NCDs</li> <li>6. 재난 관리</li> <li>7. 장애 및 사회통합</li> </ol>

- 분야별 전략계획(SSP: Sector Strategic Plan): EDPRS II 달성을 위한 15개 중점 분야의 중기 전략 목표와 우선순위 세부 분야 제시함
  - EDPRS II 15개 중점 분야: 교육, 농업, 보건, 교통, 식수 및 위생, 에너지, 민간 분야 개발 및 청년, 사회보장, ICT, 정의·화해·법 및 질서, 환경, 도시 및 농촌 정착, 분권화 및 거버넌스, PFM(Public Finance Management), 금융
- 지역별 개발계획(DDP: District Development Plan): EDPRS II 달성을 위한 30개 지방정부의 중기 전략 목표와 우선순위 분야 제시함

## ■ Vision 2050

- 르완다는 Vision 2020 이후의 중장기 계획으로 Vision 2050을 통해 2035년까지 중상위 소득국 달성 및 2050년까지 고소득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매년 평균 10% 이상의 성장률(현재 성장률의 두 배)을 달성한다는 과제를 수립함

〈표 6-16〉 르완다 VISION 2050 목표 및 핵심 부문

목 표	
• 르완다 전 국민의 높은 생활수준 보장(2035년까지 중상위 소득국 달성 및 2050년까지 고소득국 달성)	
핵심 부문(Pillars)	범분야(Cross-cutting Issues)
1. 삶의 질 향상 2. 현대적 사회기반시설 및 생계 형태 3. 번영을 위한 변화 4. 르완다의 자결권, 투명한 거버넌스, 화합, 성평등, 안정 등 Vision 2050의 핵심 가치 5. 국제 협력 및 국제적 지위 향상	1. 성 평등 2. 환경 3. 과학, 기술, ICT

- NST 1(National Strategy for Transformation 1): 르완다 정부의 7개년 국가 개발계획(7 Years Government Programme)과 중장기 경제개발 및 빈곤 퇴치 전략(EDPRS III)을 통합·대체하는 문서로 주재국의 장기개발 전략인 Vision 2020의 남은 3년과 Vision 2050의 첫 4년을 이끌어갈 이행 지침으로서 제시되었으며, EDPRS II의 중기 평가에서 도출된 보완점 및 개선점을 담고 있음
  - 르완다의 수출 증대, 투자 증대를 위한 저축 장려,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 및 국내 투자 유치, 민관협력 확대, 제2 도시 개발 및 도시화 확대, 친환경 및 현대식 농업기술 보편화, 기초생활 수준이 보장된 농촌 계획 등

〈표 6-17〉 르완다 NST1 주요 목표 및 부문

목 표	
• Vision 2050의 목표 달성을 위한 토대 완성 및 변화(transformation) 촉진을 위한 플랫폼 제공	
핵심 부문(Pillars)	경제적 변화 우선 분야
1. 경제적 변화 2. 사회적 변화 3. 거버넌스 변화	1. 좋은 일자리 150만 개 창출 2. 도시화 가속화 (2024년까지 17.3% → 35%) 3.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 확립 4. 산업화 촉진 및 연간 수출 17% 달성 5. 투자 증대를 위한 저축 고무 6. 농축산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 7. 천연자원 및 환경의 지속적인 관리
사회적 변화 우선 분야	거버넌스 변화 우선 분야
1. 빈곤 퇴치 2. 영양실조 근절 3. 양질의 보건을 통한 인구배당효과 증대 4.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인구배당효과 증대 5. 현대적인 생활환경 조성	1. 통합의 문화 및 가치 강조 2. 국민과 재산의 안전과 안보 확립 3. 국제협력 증대 4. 정의, 법, 질서의 강화 5. 공공기관의 역량 및 책임의식 강화 6. 국민의 개발 참여 증대

#### 4) 르완다 국제개발협력 현황<sup>185)</sup>

##### ■ 개발 현황

- 르완다는 현재 최빈개도국(LDC)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국제사회가 2000~2015년 간 추진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를 제외한 모든 목표(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의 권익 신장, 영유아 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를 달성
- 르완다는 아울러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원조 효과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개발 자원 투입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10~2014년간 총 54억 1,140만 불의 개발원조 수수
- 현재 르완다와의 개발협력은 르완다 정부가 수립한 Vision 2020 및 EDPRS II 등 중장기 경제개발 전략·이행 계획의 틀 하에서 르완다 정부-공여국 간 협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 ■ 공여국(기관) 현황

- 공여기관 간 원조 조화(Aid Harmonization) 추진
- 르완다 정부는 개발협력의 분절화를 지양하고자 공여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분장(Division of Labour, DoL)을 수립하여 관리. DoL은 르완다 개발파트너조정그룹(Development Partners Coordination Group, DPCG)이 2013년에 승인한 것으로, 공여기관의 비교우위에 따라 EDPRS II 산하 1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중점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주요 공여기관별 중점분야 분담(division of labor)
  - 벨기에: 보건, 에너지, 분권화 및 거버넌스
  - 독일: 교육, 민간부문 및 청년고용, 분권화 및 거버넌스
  - 네덜란드: 민간부문 및 청년고용, 정의·화해·법·질서, 분권화 및 거버넌스
  - 영국: 교육, 사회보장, 금융
  - 미국: 교육, 보건, 민간부문 및 청년고용
  - 아프리카개발은행: 교통, 에너지, 민간부문 및 청년고용
  - 유럽연합: 농업, 에너지, 분권화 및 거버넌스
  - 세계은행: 농업, 에너지, 도시 및 농촌 정착
  - 스위스: 농업, 보건, 민간부문 및 청년고용

185) 외교부(2018), 「르완다 개황」, 54~57쪽 참조

- 글로벌 펀드: 보건
- 일본: 농업, 수자원 및 위생, 에너지
- 한국: 교육, 농업, ICT
- UNDP: 정의·화해·법·질서, 환경, 분권화 및 거버넌스
- UNICEF: 교육, 보건, 사회보장
- WFP: 교육, 농업, 사회보장

〈표 6-18〉 주요 공여국 對르완다 ODA 규모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공여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미국	145.90	140.88	178.10	159.77	155.88	159.99	198.46	177.91	177.36	170.00
2	영국	89.97	106.18	136.72	64.66	162.54	79.17	154.79	92.90	76.58	73.05
3	네덜란드	54.22	39.43	47.46	37.03	49.58	50.66	40.83	55.89	48.07	47.12
4	독일	44.16	48.71	47.75	32.47	28.15	35.77	35.38	47.85	45.24	45.58
5	벨기에	82.36	70.54	80.15	53.50	47.57	42.19	35.88	26.30	40.62	41.86
6	일본	21.34	22.82	24.38	32.79	49.86	22.61	16.39	27.40	43.32	37.75
7	스웨덴	13.35	25.22	34.25	15.54	29.68	39.09	32.79	29.17	31.20	31.94
8	한국	2.31	6.86	5.82	7.11	12.48	16.46	20.93	18.27	16.52	26.09
9	캐나다	13.49	58.72	11.44	17.04	6.55	5.19	3.05	6.91	8.34	8.34
29개 DAC 회원국 전체		512.71	550.34	598.39	448.28	570.78	478.40	558.35	501.49	511.56	500.25

주: 2018년 기준으로 공여국 ODA 총 지출액 순위를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07.03)

## ■ 공여기관별 주요 추진 활동(2017년 3분기 기준)

- 경제: (AfDB)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는 11. 30 아프리카개발은행과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금융협정을 체결하고, 르완다 내 지속가능한 수도 위생 공급 사업과 기술 및 사업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임.
- 에너지: (세계은행) 양허성 차관 형태로 1.25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분야 개발 정책 운영(Development Policy Operation, DPO) 금융협정을 체결. 이는 전기 접근성 확대 및 서비스 강화, 전기 발전 용량을 563 메가와트로 확장(현재 213 메가와트) 하는 계획을 포함함.
- 교육: (UNICEF) 부모 교육, 영양 공급 개선, 어린이 보호 등이 포함된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을 위해 IKEA 재단의 기부금 350만 유로를 4만 명의 르완다 아동에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보건 및 위생: (미국) 11월부터 향후 2년간 후예(Huye) 지역의 영양실조 방지사업을 후원하여, 38%에 달하는 아동 발육부진 비율을 낮추고 지역 내 영양과 위생 상태를 증진시키고자 함
- 난민: UNHCR, WFP, Equity Bank Rwanda는 르완다 내 난민캠프의 현금기반지원(Cash Based Transfer; CBTs)을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함

## ■ 르완다 정부-공여국 간 협의체

- (협의체) 개발파트너조정그룹(Development Partners Coordination Group, DPCG)은 르완다 최상위 정책대화 협의체로, 르완다 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공여기관들이 모여 르완다 개발정책의 성과 및 현황을 논의. 매년 1회 개발 파트너 리트릿(Development Partners Retreat, DPR) 및 분기별 DPCG 회의 등을 통해 공여국과 개발협력국 간의 생산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협의체) 분야별 정책대화그룹(Sector Working Group, SWG)은 분야별 전략(Sector Strategic Plan, SSP)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참여하는 개발협력국 부처, 공여기관,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공유. 반기별 JSR(Joint Sector Review)과 분기별 SWGs 회의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원조정책 평가) 르완다 정부는 원조정책 목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여기관의 對르완다 개발협력 효과성을 평가하는 DPAF(Donor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부산총회, 파리 선언, 르완다 원조정책 등 합의사항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음

## 5) 한국의 對르완다 지원계획<sup>186)</sup>

### ■ 한국 對르완다 개발협력 현황 개관

- 우리나라는 2010년 르완다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對르완다 국가협력전략(CPS)의 3대 중점 분야(교육, 농촌개발, ICT)를 중심으로 ODA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
- 총 ODA 지원 실적: 총 1억 3,285만달러 (2009~2018)

186) 외교부(2018), 「르완다 개황」, 57~60쪽 참조 및 재구성

- 지난 10년간 꾸준히 ODA 규모가 꾸준히 상승한 편이며, 아프리카 ODA 대비 르완다의 비중이 높은 편임
  - 2019년 기준 르완다 GDP(101억 달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소득 이하 국가 GDP 총액(1조 7,391억 달러)의 0.58%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아프리카 대비 르완다 원조는 5.1%임<sup>187)</sup>

〈표 6-19〉 한국의 對르완다 ODA 추이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대상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프리카 ODA 총액	96.92	142.60	181.37	264.05	274.30	338.42	362.74	421.05	415.30	514.19
르완다 ODA 총액	2.31	6.86	5.82	7.11	12.48	16.46	20.93	18.27	16.52	26.09
르완다 비중	2.4%	4.8%	3.2%	2.7%	4.6%	4.9%	5.8%	4.3%	4.0%	5.1%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07.06)

## ■ 주 공여기관은 KOICA와 EDCF

- EDCF 지원 실적: 1,016만 달러 (2009~2018)
- KOICA 지원 실적: 1억 899만 달러 (2009~2018)
- 전체 ODA 중 KOICA의 참여 비율이 82%, EDCF가 7.6%로 양 기관을 위주로 ODA가 이루어짐. KOICA를 통한 원조가 주를 이루었으나 2015년부터 EDCF를 통한 국립대학교 건립사업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EDCF의 원조 참여 비율이 상승함

〈표 6-20〉 한국의 對르완다 EDCF 및 KOICA 지원 규모 (2009~2018)

(단위: 백만 달러)

대상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르완다 ODA 총액	2.31	6.86	5.82	7.11	12.48	16.46	20.93	18.27	16.52	26.09
EDCF	-	-	-	-	0.49	-	0.59	0.43	0.45	7.12
KOICA	2.28	6.10	4.87	6.35	11.00	15.45	18.69	13.87	13.83	16.55
KOICA 투입 비율	98.7%	88.9%	83.7%	89.3%	88.1%	93.9%	89.3%	75.9%	83.7%	63.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20.07.06)

18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검색일: 2020.07.08)

## ■ KOICA 對르완다 지원 현황

- 2018년도 對르완다 KOICA 지원: 158.34억 원. 2018년 KOICA의 對르완다 지원 규모는 아프리카 협력대상국 중 에티오피아에 이어 2위 기록(국별 프로젝트 지원 예산 기준)
- 프로젝트 사업: 총 9건
  - 르완다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 2차 지원사업(2013-2018/530만 달러)
  - 르완다 ICT 혁신 역량강화 사업(2013-2018/560만 달러)
  - 르완다 아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2013-2018/500만 달러)
  - 르완다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사업(2014-2018/400만 달러)
  - 르완다 농촌공동체 지원사업(2014-2018/1,100만 달러)
  - 르완다 직업교육훈련 역량강화사업(2014-2019/500만 달러)
  - 르완다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역량 강화사업(2017-2020/700만 달러)
  - 르완다 산업연구개발 역량강화사업(2014-2018/250만 달러)
  - 르완다 세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합 EBM 시스템 고도화 및 역량강화사업(2018-2020/600만 달러)
- 초청연수사업: 10개 과정 49명, 석사과정 제외
- 봉사단 파견사업: 2018년 3월 기준, 총 29명
  - 일반 단원 19명, 시니어 단원 5명, 중장기 자문단 3명, 국제개발 1명, 글로벌 닥터 1명
  - 교육(직업훈련 포함), 농촌지역 개발, 보건 분야 등에서 활동 중

## ■ KOICA 對르완다 사업 향후 계획

- KOICA는 각종 국제원조 규범과 원조 모범 관행 및 르완다 국가 개발 목표에 입각하여 對르완다 ODA의 중장기적 성과목표를 수립, 추진하고 있음

〈표 6-21〉 CPS 중점 분야별 성과목표 및 중점 분야 사업 추진 계획(안)

개발협력 성과목표(Outcomes)	개별 활동 (Inputs and Activities)
ICT 기반의 고급 기술 및 지식 습득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민간부문 개발	(프로젝트) ICT 혁신역량강화사업 (봉 사 단) ICT 분야 중장기 자문단 및 봉사단 파견 (연 수) ICT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ICT를 활용한 정부 운용의 효율성 촉진 및 서비스 제공 확대	(프로젝트) 전자영수증 발급 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조세포털 구축사업 (프로젝트)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사업 (봉 사 단) ICT 분야 중장기 자문단 파견 (연 수) 전자정부 활용 관련 교육훈련 제공

개발협력 성과목표(Outcomes)	개별 활동 (Inputs and Activities)
농업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아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 (연 수) 관개 및 농지 개발 관련 교육훈련 제공 (민관협력)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
농업 부가가치 향상	(프로젝트)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봉 사 단) 지역 개발 분야 중장기 자문단 및 봉사단 파견 (연 수)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훈련 제공 (민관협력) 커피협동조합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팅 사업
고용시장 친화적인 질 높은 TVET 교육훈련 제공	(프로젝트)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 2차 지원 사업 (프로젝트) 직업교육훈련 역량강화사업 (봉 사 단) 직업훈련 분야 중장기 자문단 및 봉사단 파견 (연 수) 직업훈련 관련 교육훈련 제공

## ■ EDCF 對르완다 지원 현황

- 르완다 국립대학교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중
  - 사업 소재지: 키갈리, 사업 규모: 총 1,016만 달러 (2017~2018)
  - 사업 대상지: 르완다대학교 키갈리 본관 및 3개 분교

## 나. 르완다의 주요 문화정책

### 1) 르완다 문화분야 정책

#### ■ 르완다 문화분야 정책목표<sup>188)</sup>

- 르완다 문화정책 주무부처인 청소년문화부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기량을 함양하고 르완다 문화를 국가발전의 근간으로 두는 데 목적을 둠
- 르완다에서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육성 외에도 제노사이드 이후 정서적 상처를 수습하고 국민에게 애국주의를 바탕으로 르완다적 가치를 확산하는 수행전략으로 기능
  - 르완다 문화정책은 1994년 제노사이드 3년 후 1997년에 이르러 희생자 유골을 확인하고 제노사이드로 인한 국민들의 정서적 상처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됨. 청소년, 체육, 문화를 한 부처에서 담당하다가 2008년 청소년부, 체육문화부로 분리되었고 2011년 청소년, 체육, 문화부로 합쳐진 뒤, 2019년 청소년문화부와 체육부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름<sup>189)</sup>
- 세부 목표는 ARISE 원칙에 따라 HAPPi Generation을 양성하는 것임
  - ARISE: Accountability, Reliable & Result Oriented, Innovation& Integrity, Sense of Urgency, Excellence

188) Rwanda Ministry of Culture, "Mission & Vision," (<http://myculture.gov.rw>) (검색일: 2020.07.03)

189) Rwanda Ministry of Sports, "Backgrounds." (<https://minisports.gov.rw/index.php?id=8>) (검색일: 2020.07.03)

- HAPPI Generation: Healthy, Attitude & Aptitude (skills, education), Patriotic, Productive, Innovative

## ■ 르완다 주요 문화사업

- (르완다어 및 르완다 문화교육) 르완다 토착어인 키냐르완다어 교육과 르완다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펼침<sup>190)</sup>
  - 르완다어
  - 르완다 전통춤과 음악
  - 르완다 미술 및 공예
-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박물관과 문화유적을 통해 르완다 문화 및 풍요로움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데 목적을 둬. 총 7개의 국립박물관을 두고 있음. 최초 박물관인 르완다민족박물관(Ethnographic National Museum)에서 전통춤 교육을 비롯한 전통 예술보존사업이 이루어짐<sup>191)</sup>
  - Ethnographic Museum located in Huye District (1987)
  - Kandt House Museum in Nyarugenge District (2004)
  - Kwigira Museum in Nyanza District (2006)
  - King's Palace Museum in Nyanza District (2008)
  - Rwanda Art Museum in Kicukiro District (2009)
  - Museum for Campaign Against Genocide in Gasabo District opened (2012)
  - Museum of Environment in Karongi District-Western Province (2015)
  - National Liberation Museum Park in Gicumbi District
- (이토레로(Itorero) 프로그램) 주민들에게 르완다 국가 이념 및 가치 체계를 교육하여 바람직한 르완다인으로 거듭나도록 독려함. 시민교육, 민방위, 애국주의, 사회규범 교육 등을 제공하며 문화교육, 전통춤 교육을 통해 르완다 국가 이념을 고취함<sup>192)</sup>
  - 핵심 가치: unity, patriotism, selflessness, integrity, responsibility, Volunteerism, humility
- (아카이브 및 도서관 서비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헌 외 정부 문서를 보존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

190) Rwanda Academy of Language and Culture, "About Us," (<http://ralc.gov.rw>) (검색일: 2020.07.03)

191) Institute of National Museums of Rwanda, "Introduction," (<https://museum.gov.rw/>) (검색일: 2020.07.03)

192) Rwanda National Intorero Commission, "Mission and Vision," (<https://www.nic.gov.rw/>) (검색일: 2020.07.03)

## 2) 르완다 전통춤 보존 및 진흥 사업

### ■ 전통춤 Intore: 르완다 대표 전통문화예술

- (뚜렷한 개성의 종합예술) 르완다 전통춤 인토레(Intore)는 르완다 왕국 때부터 이어진 문화유산으로 르완다 왕의 전사로서 전쟁 승리를 기원하거나 기념하는 종합예술임<sup>193)</sup>
  - 다양한 르완다 전통춤 중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 명확한 주제, 독특한 안무 등 뚜렷한 개성을 지님
  - 여타 르완다 전통춤: 이किनimba(르완다 영웅과 왕의 일대기를 주제로 함), 우무샤야요(Umushayayo), 이비호조(Ibihozo) 등

[그림 6-6] 인토레 여성군무



[그림 6-7] 인토레 남성군무



자료: Pinterest(c), "Rwanda Culture, Rwanda," (<https://www.pinterest.at/pin/330522060126312899/>) (검색일: 2020.07.17)  
Visit Rwanda(a), (<https://www.visitrwanda.com/interests/rwanda-culture-and-traditions/>) (검색일: 2020.07.08)

- 독특한 음악과 무용으로 전사들의 춤이지만, 르완다 사회·문화·자연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표현. 강한 비트, 활기찬 리듬이라는 아프리카 전통무용의 특성이 있으면서도 르완다의 문화적 상징(신성한 소 sacred cows, 태양 등)을 표현한 안무가 특징임<sup>194)</sup>
  - 부드러운 군무(Ballet): 여성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부드러운 몸짓의 춤을 공연
  - 전쟁영웅 군무(Dances of War Heroes): 남성들이 사냥 시 착용하는 전통의상 입고 호전적 춤 공연
  - 고수: 전통북 연주는 르완다 전통춤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 요소임. 전통적으로 신성한 북(the Sacred Drum)은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었으며, 연주자는 매우 존경받았고 부와 명예가 보장되었음
  - 악사: 음계를 가진 악기를 연주

193) The New Times(2018.08.16), "Rwandan traditional dance: A firm grip on culture", (<https://www.newtimes.co.rw/lifestyle/rwanda-traditional-dance-firm-grip-culture>), (검색일: 2020.07.17).  
참고: The New Times는 르완다의 관제언론임

194) Music in Africa(2015.02.11), "Traditional Music in Rwanda", (<https://www.musicinafrica.net/magazine/traditional-music-rwanda>), (검색일: 2020.07.17)

- 가수: 고수나 악사가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역사성) 르완다 왕국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예술이며 식민지 이전 르완다의 생활상, 음악, 의복, 문화를 살펴볼 수 있음
- (국립무용단) 1974년 국립무용(발레단) “National Ballet of Rwanda: Urukerereza”가 설립되어 기술 전수 및 공연을 제공
  - 구전으로 이루어져서 표준화된 기술이 부재하며 체계적인 보존이 어려움
  - 유명세를 탄 전통춤에서 무용단 영입
  - 최근 정기 오디션을 통해 인재 발굴 사업을 진행<sup>195)</sup>
- (낮은 산업화 수준)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으나 관련 산업이 저발달함. 이윤 창출이 어려워 국립무용단 같은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문 직업으로 삼기보다는 취미생활의 일부로 활용됨<sup>196)</sup>
  - 주로 박물관 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유료공연을 하거나 국가행사 공연으로 보존되고 있음

#### ■ 개발협력국 재정난으로 인한 전통춤보존사업 중단

- 후예(Huye)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에 전통춤교육원에서 2014~2015년 전통춤 보존을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었음. 2016년 마련된 ‘2017-2022년 창조적 예술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에서도 전통춤 복원 및 진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개시되지 않음

#### ■ 2017-2022 창조적 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전략

- (예술 증진과 산업화) 르완다 정부는 2016년 현 청소년문화부의 전신인 문화체육부를 통해 ‘창조적 예술 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전략’(Five Year Strateg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Arts Industry)을 수립함
- (목표) ‘5개년 전략’은 제국주의로 인한 전통예술 단절 상황을 극복하고 예술 증진을 통해 주민들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산업 증진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데 목표를 둠
- (전통춤 Intore 강조) 전통춤 Intore는 1921년 벨기에 통치 이후 전통예술문화가 단절된 르완다의 현실을 가리키는 대표적 예술형태로 꼽힘

195) 오디션 관련 보도자료: Ministry of Youth and Culture(2020.06.03) “Fresh talents join National ballet” ([http://myculture.gov.rw/index.php?id=42&tx\\_news\\_pi1%5Bnews%5D=419&tx\\_news\\_pi1%5Bcontroller%5D=News&tx\\_news\\_pi1%5Baction%5D=detail&cHash=a2aa1d8f2cfe008c49fcd69073b63400](http://myculture.gov.rw/index.php?id=42&tx_news_pi1%5Bnews%5D=419&tx_news_pi1%5Bcontroller%5D=News&tx_news_pi1%5Baction%5D=detail&cHash=a2aa1d8f2cfe008c49fcd69073b63400)), (검색일: 2020.07.17)

196) Music in Africa(2015.11.25), “Rwanda’s cultural policy” (<https://www.musicinafrica.net/magazine/rwanda%E2%80%99s-cultural-policy>), (검색일: 2020.06.29)

- (전통춤 진흥 장애물) 전통춤을 비롯한 르완다 전통행위예술 증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예술시설 부족, 재정부족, 마케팅전략 부재, 교육기관 부족, 관련 인프라 미비, 교과과정 배제, 재능발견 및 발전전략 부재, 첨단기술 부재 등을 꼽음

#### ■ 재정부족 및 문화ODA 지원 부족으로 인한 수행계획 실현 미흡

- 다양한 문화정책 수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있으나 재정부족으로 이행하기 어려워 중단된 사업이 다수 있음. 그중 전통예술기술 전승과 보존을 목표로 교범 제작 및 배포, 전수자 양성, 산업화 전략을 세웠으나 재정 부족으로 이행단계에 이르지 못함. 또한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수립한 체육교육 개설, 체육시설 확충, 체육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수행계획이 일부만 시행됨
  - 전통춤 교범 개발을 통해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진흥 도모
  - 전통춤 진흥을 위한 정책컨설팅을 통해 전통문화예술 산업화 이룩
- 문해력 향상, 창의력 발달, 인쇄/출판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출간사업 필요성 증대
  - 전통춤 교범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개발협력국 출판/인쇄 역량 강화

### 3) 르완다 문화협력 및 ODA 동향

#### ■ 르완다 문화ODA 동향

- 르완다 문화ODA는 문화 및 레크레이션 분야와 관광 분야에 주로 이루어지며 자연 문화유산보호는 드물게 이루어짐. 주된 ODA 사업은 공여국의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 소규모 단기사업이 주를 이루며 드물게 제노사이드 유적 보존 및 박물관 관리 등 대규모 장기사업이 진행됨
- 서구 공여국의 문화ODA는 감소하는 반면 일본과 한국 등 비서구 공여국의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임
- 르완다 문화분야 주요 협력 국가는 벨기에,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임. 對르완다 ODA 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영국은 교육 및 사회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문화ODA에는 최근 5년간 참여하지 않음

#### ■ 르완다 전통예술 분야 지원 미비

- 르완다 정부는 2016년 전통예술 복원 및 증진을 위한 2017-2022 5개년 전략을 마련하였으나, 구체적 정책 지원이 부족하며 문화ODA 사업안에 포함되지 않음

- 전통미술이나 공예품은 아지지(Azizi),<sup>197)</sup> 나미람보 여성센터(Nyamirambo Women's Center)<sup>198)</sup> 등 개인 사업을 통해 관광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사업가가 외국인 거주자라는 점, 주 고객층이 외국인이라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르완다 전통예술 중 종합예술적 가치를 지닌 전통춤 가르쳐주는 사설 기관을 찾기 어려우며 후예(Huye) 국립박물관에 마련된 전통춤 교육원을 중심으로 극소수 수강자를 통해 전수되고 있음

〈표 6-22〉 주요 공여국 對르완다 ODA 규모 (2009~2018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공여국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벨기에	문화 및 레크레이션	-	0.016	-	-	-	-	0.068	0.088	0.146	0.149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	-	-	-	-	-	-
		자연문 화유산보호	-	-	-	-	-	-	-	-	-	-
	합계		-	0.016	-	-	-	-	0.068	0.088	0.146	0.149
2	한국	문화 및 레크레이션	-	-	0.044	0.059	0.145	0.257	0.129	0.032	0.047	0.072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0.045	0.034	0.052	-	-	0.013	0.076
		자연문화 유산보호	-	-	-	-	-	-	-	-	-	-
	합계				0.044	0.104	0.179	0.309	0.129	0.032	0.060	0.148
3	일본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08	0.041	0.097	0.056	-	0.023	0.112	0.079	0.002	0.067
		관광정책, 행정, 관리	-	0.073	0.040	0.009	0.037	-	0.046	0.050	0.048	0.048
	합계		0.008	0.114	0.137	0.065	0.037	0.023	0.157	0.129	0.050	0.115
4	프랑스	문화 및 레크레이션		0.018	0.506	0.323	0.298	0.330	0.176	0.208	0.101	0.087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	-	-	-	-	-	-
		자연문화 유산보호	-	-	-	-	-	0.306	-	-	-	-
	합계		0.000	0.018	0.506	0.323	0.298	0.635	0.176	0.208	0.101	0.087

197) Azizi Life는 서방 사업가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로컬 협동조합, 취약계층(여성 등)을 고용해 고품질로 르완다 전통공예품 제작 및 판매, 고품질 기성품 판매, 걸쳐투어 프로그램 등을 진행. 보다 많은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 (<https://azizilife.com/>) 참고

198) 나미람보여성센터는 제노사이드희생가족 출신 여성 등을 고용하여 고품질의 섬유/의류 브랜드인 우무티마(Umutima, 심장)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독특한 디자인으로 현지에서 인기가 많음. 보다 많은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 (<http://www.nwc-umutima.org/products.html>) 참고

순위	공여국	분류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	독일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0.313	0.320	0.224	0.145	0.168	0.232	0.019	0.034	0.065	0.022
		관광정책, 행정, 관리	-	-	-	-	-	-	-	-	-	-
		자연문화 유산보호	-	-	-	-	-	-	-	-	-	-
	합계		0.313	0.320	0.224	0.145	0.168	0.232	0.019	0.034	0.065	0.022

주: 2018년 기준으로 공여국 문화ODA 총 지출액 순위를 도출하였음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7.03)

## ■ 주요 문화ODA 사례

- (벨기에)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에만 참여하며, 2015년부터 시민사회 등 민간 협력을 통해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사업 위주로 원조 투입. 서구 공여국 중 드물게 문화ODA 원조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한국)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관광 부문에 참여하며 박물관 확장 프로젝트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협력국 인력(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사업임
- (일본)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관광 부문에 참여하며 대부분 개발협력국 인력(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사업임
- (프랑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에 주로 참여하며 기타 기술 원조에 집중함. 문화ODA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 (독일)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에 주로 참여하며 기타 기술 원조에 집중함. 문화ODA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

〈표 6-23〉 주요국 르완다 문화ODA 지원현황

(단위: 백만 달러)

DAC 사업유형	주요국	문화ODA 사업	지원액
프로젝트 (C01)	노르웨이	2010 르완다 문화부 자금 지원 사업	1.57
	미국	2018 나마타(Nyamata) 제노사이드 기념관 보존 사업	0.10
	독일	2017 칸트 박물관 수리 사업 (modification of Kant-museum in Kigali/conception alteration)	0.05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D01)	일본	2010-2011, 2014-2017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 JAICA 봉사단원 파견	0.40
		2015-2018 관광정책 및 관리 부문 JAICA 봉사단원 파견	0.18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E01)	일본	2017-2018 관광정책 및 관리 부문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사업	0.002
	스웨덴	2010 스웨덴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기관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사업	0.10

DAC 사업유형	주요국	문화ODA 사업	지원액
NGO 등 민간협력 지원 (B01)	벨기에	2015-2018 인간개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지원 (Les Services et Produits Culturels de Rai Sont Davantage Porteurs de Dveloppement Humain et dee Croissance Durable)	0.40
	일본	2018 가라데 관련 집기 개선사업	0.07
기타 기술원조 (D02)	벨기에	2010 Phasing Out: Creation Platform Theater	0.01
	일본	2009-2011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 기술 지원	0.02
	프랑스	2013 프랑스어 학습 지원	0.10
		2014 문화부문 세부 전략 기술 지원	0.33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Purpose code 16061(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33210(관광정책, 행정 관리), 41040(자연문화유산보호) (검색일: 2020.07.08)

#### 4) 한국의 문화ODA 동향

##### ■ 전체ODA 대비 문화ODA 비중 미흡

- 한국의 對르완다 ODA 총 규모에 비하여 문화ODA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함
-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관광업 분야 ODA를 제공하며 자연문화유산보호 프로그램은 실시된 바 없음

##### ■ 전통문화예술, 디지털 콘텐츠 등 문화ODA 수행 분야 다각화 필요

- 2014년 키갈리 제노사이드 박물관 확장 사업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이 KOICA 봉사단원 파견을 통해 이루어지며, 단원의 수행 내역은 태권도 전수, 도서관 서비스 개선, 관광 분야 지식 공유 및 지원 세 가지에 한정됨. 훌륭한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관련 사업은 이루어진 바 없음
- 한국은 태권도, 도서관, 박물관, 관광정책 등에 국한된 對아프리카 문화ODA 수행 부문을 벗어나 한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새로운 문화ODA 부문을 개척해야 함
- 르완다 전통춤 보존 및 진흥 사업은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단절된 전통문화예술을 복원하고 증진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사업임
- 르완다 전통춤 진흥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은 ICT강국인 한국의 비교우위 부문 중 하나임

##### ■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형 모듈형 사업 필요

- 한국 문화ODA의 특징인 봉사자의 단기 근무, 잦은 수혜기관 변화, 단발성 프로그램은 개발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 일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책 마련, 전문가 파견, 현지 인력 역량강화 등 중장기적 모듈형 사업 개발이 요구됨

- (모듈형 전통춤 보존 및 진흥 사업) 단기적으로 전통춤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여타 전통문화 보존사업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인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전통문화학교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단기(시범사업안): 교범 제작을 통한 전통춤 표준화 사업
  - 중기: 전통문화 표준화 사업. 전통공예, 전통미술, 전통음식(바나나술) 등
  - 장기: 전통문화학교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통문화 계승·발전 체계 마련

## 다. 문화정책기관·협력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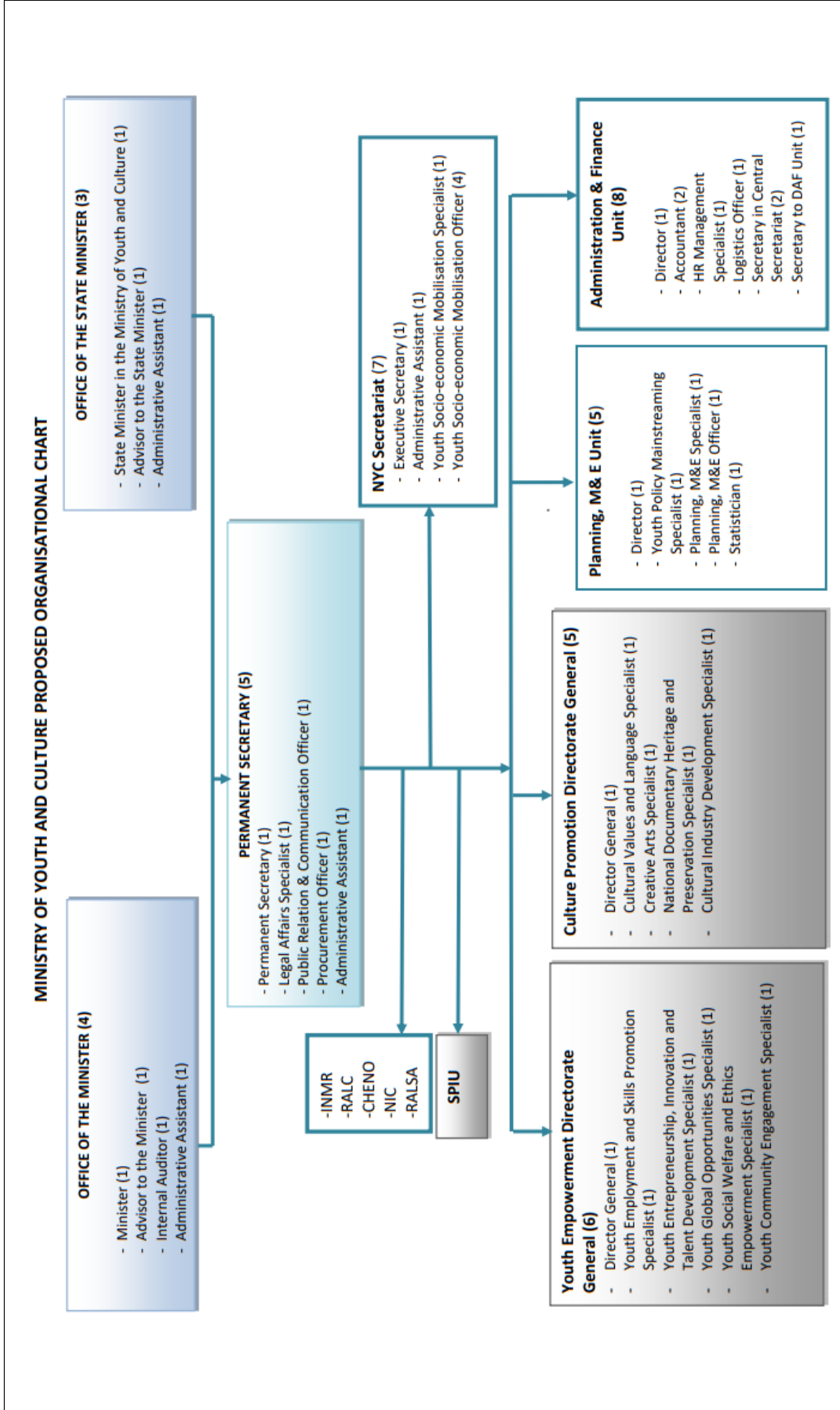
### ■ 르완다 청소년문화부

- 르완다 청소년문화부는 6개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됨
  - 국가청소년위원회(NYC: National Youth Council)
  - 언어·문화교육원(RALC: Rwanda Academy of Language and Culture)
  - 국립박물관(INMR: Institute of National Museums of Rwanda)
  - 국가보훈처(CHENO: Chancellery for Heroes, National Orders and Decorations of Honour)
  - 이토레로위원회(NIC: National Itorero Commission)
  - 아카이브도서관국(RALSA: Rwanda Archives and Library Services Authority)

### ■ 유관기관

- 각 기관의 사업은 르완다개발청, 교육청, 거버넌스청과의 협력을 통해 이행. 르완다에는 총 7개의 청(Boards)이 있음
  -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 르완다 발전전략 전반의 이행을 담당함. 투자 유치, 관광, 산업다각화 등 담당
  - 르완다교육청(Rwanda Education Board): 문화정책 이행 시 학교 교육 연계사업 담당
  - 르완다거버넌스청(Rwanda Governance Board): 문화정책 이행 시 국외 기관 등과 협력사업 담당
- 현지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요. 특히 ODA를 비롯한 국제원조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지 District-level 정부(한국의 도청급)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

[그림 6-8] 르완다 청소년문화부 조직도(안)



자료: Rwanda Ministry of Youth and Culture(2020), "Ministry of Youth and Culture Proposed Organization Chart," (인터넷 미공개 자료)

## 라. 관련(유사) 사업 현황 및 문제점·필요성

### ■ 전통춤보존사업

- (실행계획 마련) 후예에 위치한 국립박물관에 전통춤교육원에서 2014~2015년 전통춤 보존을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었음. 2016년 ‘2017-2022년 창조적 예술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에서도 전통춤 복원 및 진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재정부족으로 사업이 개시되지 않음
- (국립무용단) 1974년 국립무용(발레단) “National Ballet of Rwanda: Urukerereza”가 설립되어 기술 전수 및 공연을 제공
  - 구전으로 이루어져서 표준화된 기술이 부재하며 체계적인 보존이 어려움
  - 유명세를 탄 전통춤에서 무용단 영입
  - 최근 정기 오디션을 통해 인재 발굴 사업을 진행<sup>199)</sup>
- (낮은 상업화 수준) 르완다 전통춤은 무용수와 악사로 이루어진 공연으로 르완다 역사와 문화를 내용으로 함.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으나 관련 산업이 저발달함. 이윤 창출이 어려워 전문 직업으로 삼기보다는 취미생활의 일부로 활용됨
  - 주로 박물관 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유료공연을 하거나 국가행사 공연으로 보존되고 있음
- (기타: 중등수업은 학교장 재량에 달림) 사립 중고등학교 일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전통춤 수업 진행. 학생의 가정환경 및 학교 재정상황이 비교적 풍족한 경우 예체능 교과과정을 개설할 수 있지만 공립학교 대부분과 일부 사립학교는 사정이 어려움
  - 르완다 교육부는 초중등 과정 중 1~3회 박물관 등에 현장학습을 할 것을 권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학교 등록금 자체는 무료지만 교복, 현장학습비, 여타 수업 진행비는 유료이며 대부분 학생은 현장학습비(7~10불)를 부담하기 어려움. 교육부 혹은 REB가 20xx년 현장학습 진행 학교를 xx개로 정한 뒤 District Office에 할당하고, District Office가 학교 재정 및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현장학습을 종용하는 일도 종종 일어남

### ■ 문제점

- (표준화, 계량화 미흡) 안무, 음악 등에 대한 표준화 및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수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퍼포먼스의 방향성이 달라짐

199) 오디션 관련 보도자료: Ministry of Youth and Culture(2020.06.03)“Fresh talents join National ballet” ([http://myculture.gov.rw/index.php?id=42&tx\\_news\\_pi1%5Bnews%5D=419&tx\\_news\\_pi1%5Bcontroller%5D=News&tx\\_news\\_pi1%5Baction%5D=detail&cHash=a2aa1d8f2cfe008c49fcd69073b63400](http://myculture.gov.rw/index.php?id=42&tx_news_pi1%5Bnews%5D=419&tx_news_pi1%5Bcontroller%5D=News&tx_news_pi1%5Baction%5D=detail&cHash=a2aa1d8f2cfe008c49fcd69073b63400)), (검색일: 2020.07.17)

- (교범 부재) 교범이 마련되지 않아 주로 시범, 영상 등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짐. 교수자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인재 발굴이 어려움
- (교수법 미발달) 주로 시범을 통해 교육하여 지식 확산이 어렵고 일단 배우더라도 기술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짐
- (상업화 전략 부재) 관광 산업화 전략 부재

## ■ 필요성

- 개발협력국의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됨
- 한국은 전통예술보존사업 및 관광 산업화에 대한 선진적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전수할 역량이 있음
  - 전통예술 표준화 및 계량화
  - 전통예술 상업화
  - 전통예술 연계 관광산업 발굴 등

## 2 시범사업안: 르완다 전통춤 복원 및 진흥을 위한 지식공유사업

### 가. 사업개요

〈표 6-24〉 사업개요서 (잠정)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문: 르완다 전통춤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지식공유사업</li><li>• 영문: Knowledge Sharing Project for Intore (Rwandan Traditional Dance) Preservation and Promotion</li></ul>	
	사업기간/ 총 사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구분: 신규</li><li>• 기간: ex) 2021-2022년 (2년) (잠정)</li><li>• 총 사업 예산: 1,066천 달러</li></ul>	
	대상지역/ 수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르완다 후에 국립박물관 내 전통춤교육원</li></ul>	
	사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li></ul>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타 (문화)</li></ul>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도국의 전통예술문화 보존 및 관광산업화 전략 개발</li></ul>	
	우리측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자원 보존 및 창조적 활용 지원 등 문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문화 선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동반자 관계 구축</li></ul>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li><li>• 수혜국: 르완다 청소년문화부</li></ul>	
사업 세부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정책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통춤 보존(표준화, 계량화) 및 진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플랜 수립</li><li>• 전통춤 관광산업화 전략 수립</li><li>• 현지상황 파악</li></ul>
		역량강화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여 명의 전통춤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담당인력을 초청하여 3주간 서울 및 전주에서 연수 진행</li><li>• 세계민속공연대회 (World Folklore Competition) 참가 지원 (해외)</li></ul>
		정책자문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통춤 보존 및 진흥, 관광 산업화에 대한 한국의 경험 및 지식 공유, 춤 교수자 및 정책 담당자에 대한 교육</li><li>• 전통춤 표준화 및 계량화 기술 및 지식 공유</li><li>• 교범 제작 기술 및 지식 공유</li></ul>
		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통춤 교범 제작 및 인쇄 비용</li><li>• 교범 디지털화</li><li>• 유튜브와 트위터를 활용한 교육 경로 마련</li></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타당성조사</li><li>• 실시협의</li><li>• 중간평가</li></ul>
	개발협력국 분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업대상 장소(전통춤교육원) 제공</li><li>• 사무 공간, 행정적 지원</li><li>• 전통춤 교수자 및 전수 희망자 선발</li><li>• 전통춤 교범 2쇄 이후 인쇄비용</li><li>• 전통춤 교범 배포비용 (운송비 등)</li></ul>	

## 나. 사업 세부내용

### 1) 사업 세부내용

〈표 6-25〉 사업 세부내용

구분	예산 (천\$)	내용
정책지문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춤 보존(표준화, 계량화) 및 진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플랜 수립</li> <li>전통춤 관광산업화 전략 수립</li> <li>현지상황 파악</li> </ul>
역량강화연수	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여 명의 전통춤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담당인력을 초청하여 3주간 서울 및 전주에서 연수 진행</li> <li>세계민속공연대회 (World Folklore Competition) 참가 지원 (해외)</li> </ul>
정책지문관 파견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춤 보존 및 진흥, 관광 산업화에 대한 한국의 경험 및 지식 공유, 춤 교수자 및 정책 담당자에 대한 교육</li> <li>전통춤 표준화 및 계량화 기술 및 지식 공유</li> <li>교범 제작 기술 및 지식 공유</li> </ul>
기자재 지원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춤 교범 제작 및 인쇄비용</li> <li>교범 디지털화</li> <li>유튜브와 트위터를 활용한 교육 경로 마련</li> </ul>
기타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당성조사</li> <li>실시협의</li> <li>중간평가</li> </ul>
총계	1,066	

#### ■ 정책지문

- 전통춤 보존 및 진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플랜 및 전략 수립
  - (표준화 및 계량화) 전통춤의 안무, 음악, 기타 양식을 표준화 및 계량화하여 교범을 통해 이를 배포·확산
- 전통춤 관광산업화 전략 수립
- 현지상황 파악

#### ■ 역량강화연수

- 전통춤 보존을 위한 노하우 및 지식 공유를 위해 전통춤 교수자 10인, 전통춤 전수자 10인을 초청하여 3주간 서울 및 전주에서 연수 진행. 전통춤 진흥에 관한 정책 노하우 및 지식 공유를 위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담당인력 5인

- 세계민속공연대회 (World Folklore Competition) 참가 지원 (해외)
  - 르완다 전통춤팀은 아프리카 내 대회 출전 경험만 있음. 이들을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세계민속 공연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세계 전통춤 공연가와 교류하고 르완다 전통춤의 가치를 확인하고 세계 무대에 알리도록 함

## ■ 정책자문관 파견

- 전통춤 보존 및 진흥에 대한 한국의 경험 및 지식 공유, 춤 교수자 및 정책 담당자에 대한 현지 역량강화 교육
- 전통춤 관광산업화에 대한 한국의 경험 및 지식 공유, 정책 담당자 현지 역량강화 교육
- 전통춤 교범 제작 기술 및 지식 공유

## ■ 기자재 지원

- 전통춤 교범 제작 및 초기 인쇄 비용
  - 추후 인쇄 및 출판 역량강화 사업 연계 가능
- 전통춤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
  - 르완다 전통춤 교범을 인쇄본 외에도 디지털 버전을 만들어 관심있는 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교범을 soft copies로 만들
- 유튜브 및 트위터를 통한 교육 경로 확보
  - 르완다 대중은 유튜브와 트위터를 가장 많이 활용
  -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관련 자료를 업로드함

## ■ 행정비 및 기타

- 타당성 조사 전문가 초빙 비용
- 개발협력국과 실시협의 비용
- 중간평가 전문가 초빙 및 전통춤 시연행사 비용

〈표 6-26〉 르완다 전통춤 복원 및 진흥을 위한 한-르 지식공유사업 내용 및 예산(안)

사업내용		세부내역	산출	소요예산 (천\$)
정책자문	종합 정책 수립 (전통춤 보존, 진흥, 산업화 전략) 현지사정파악	사업책임자 1인	5천\$*6개월*1회	30
		전통무용 전수 전문가 1인	5천\$ 3개월	15
		전통무용 정책 전문가 1인	5천\$ 3개월	15
		연구보조원 1인	3천\$*12개월*2회	72
	계			132
역량강화연수	초청연수	정책 담당 인력 5인	15천\$*5인(3주)	75
		전통무용 교수자 10인	15천\$*10인(3주)	150
		전통무용 전수자 10인	15천\$*10인(3주)	150
		계		375
	세계민속공연대회 참가 지원	전통무용 전수자 13인	8천\$*13인 (1주)	104
		공여국 및 개발협력국 관계자 각 1인 여비	5천\$*2인(1주)	10
		계		114
계			489	
정책 자문관 파견	정책 담당자 교육	전통무용 정책 전문가 1인	5천\$*18개월	90
	전통춤 교범 제작 기술 및 지식 공유	전통무용 전수 전문가 1인	5천\$*18개월	90
	계			180
기자재 지원	전통춤 교범 제작비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자재 구입	5천\$*1회	5
	1쇄 인쇄비	교범 1쇄 2천부 인쇄비	20\$*2천 부	40
	계			45
행정비/기타	타당성조사	전문가 2인	500천\$*2인(2주)	100
	실시협의	전문가 2인	25천\$*2인(1주)	50
	중간평가	전문가 1인	30천\$*1인	30
		전통춤 시연행사	40천\$*1회	40
	계			220
사업 총계				1,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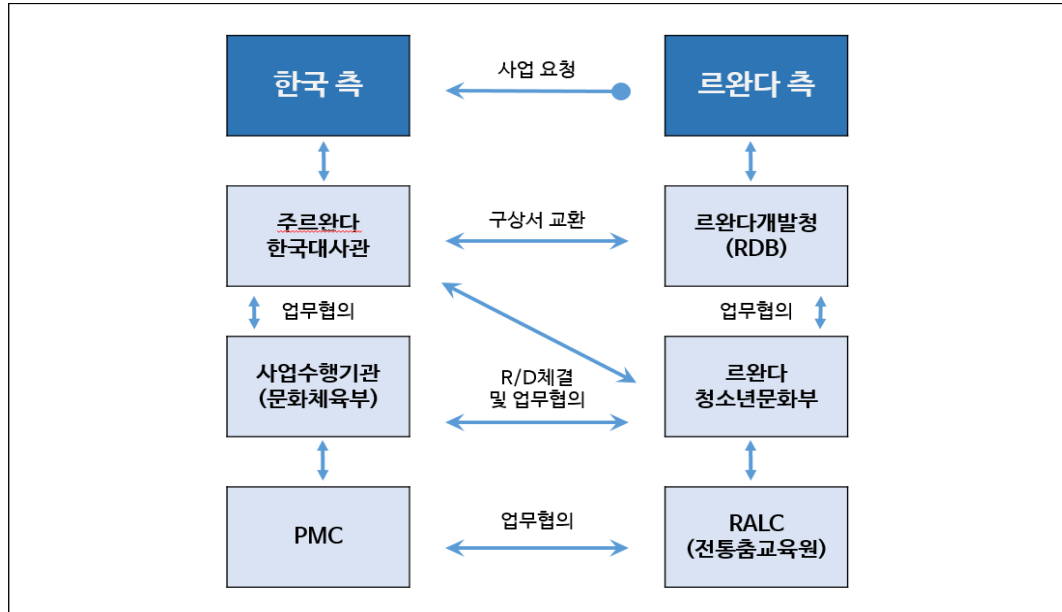
## 2) 사업수행체계 및 관리 계획

### ■ 현지 유관기관 및 사업수행체계

- 사업총괄기관은 르완다개발청(RDB)이며, 사업수행기관 간 협의의사록 체결 후 정부 간 구상서를 교환함

- 사업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르완다 청소년문화부이며 PMC 업체 선정 후 르완다 전통춤교육원 실무책임자와 상호 협력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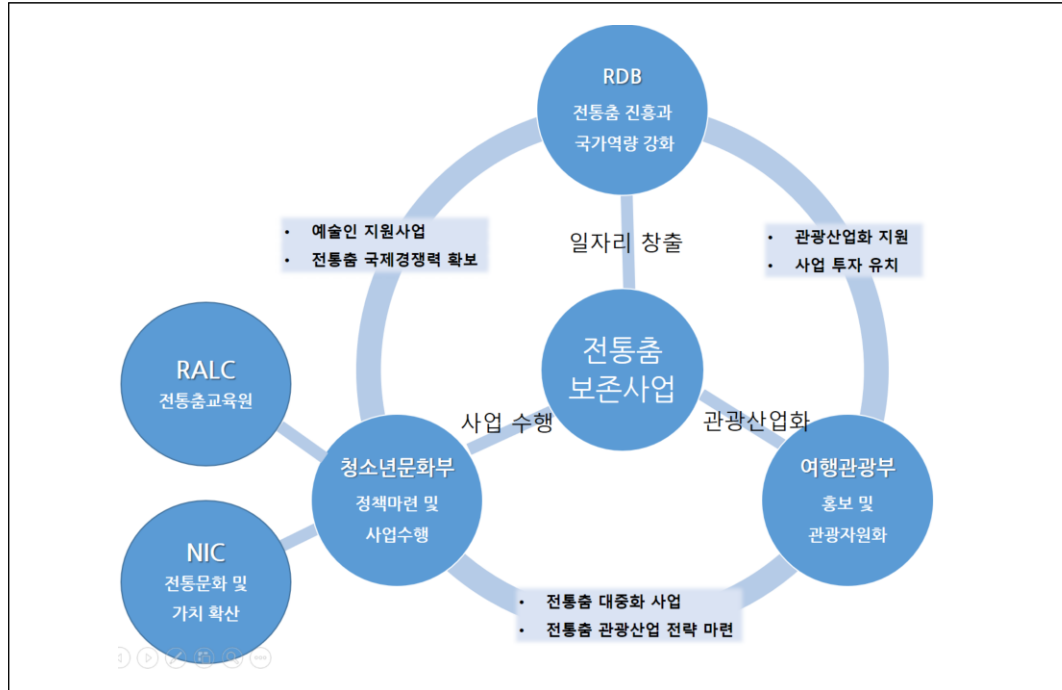
[그림 6-9] 사업수행체계



- (르완다개발청) 국가발전전략에 기반하여 르완다 전통춤 사업 전략 수립 및 제시. 문화ODA 시 긴밀한 협력관계 필요함
  - 내각 부처 중 하나로 르완다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방안 제시
  - 한국의 경제기획원 혹은 수출무역진흥공사 역할 수행. MINECOFIN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권한을 지닌 부처
  - 문화ODA 수행 시, 청소년문화부보다 더 중요한 기관일 수 있음
  - 주요 업무: 르완다 발전전략 수행. 투자유치, 내수산업 성장, 제조업 강화, 관광산업화, 저작권 승인 및 관리 등 담당. 전통문화 산업화, 관광자원화 담당
- (청소년문화부) 전통춤 사업 주무 부처로 세부 시행사항에 대해 협의
- (NIC) 청소년문화부 산하기관으로 르완다 주민 정신교육 담당
  - 국가에 대한 충성 등 정부에 대한 순응적 태도를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둠
  - 르완다적 가치 확산이라는 이면에는 정부의 주민에 대한 정신적 통제 목적이 있음
- (RALC) 청소년문화부 산하기관으로 르완다 언어 및 문화 교육 담당
  - 교습소처럼 운영
  - 전통춤교육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수행 시, 확인 필요. 전통춤교육은 후에국립박물관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문화부 재편에 따라 변동 가능. NIC, RALC 본부는 후에가 아닌 키갈리에 있음

- (국립무용단) 전통춤 전문가 집단. 교범 마련, 교수자 및 전수자 보유
- (여행관광부) RDB와 협의하여 전통춤 관광 상품화 및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수행

[그림 6-10] 르완다 전통춤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지식공유산업 유관기관 업무 관계도



## ■ 사업관리계획

- 사업 확정 및 협의의사록 체결 시 의사록에 제시된 전문가 파견, 정책 자문, 역량강화, 국내연수, 교범 제작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함
- 사업관리수행자(PMC)는 본 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르완다 키갈리 및 후예에서 르완다 청소년문화부 및 후예 전통춤교육원과의 업무협의를 이루고 이를 통해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도함
- 사업운영위원회를 두어 문화체육관광부 르완다 사업관리팀과 르완다 청소년문화부 및 전통춤교육원 간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정책자문을 구하고 정책규정 논의 및 사업추진 현황 공유, 상호 성과검토를 이행함
- 양국 간의 부문별 관리사항은 아래와 같음

〈표 6-27〉 양국 간 분담사항

구분	한국 측	르완다 측
사무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관리</li> <li>• 사무 기자재 및 자동차 배치</li> <li>• 필요 시 현지 직원 고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 공간, 행정적 지원</li> </ul>
정책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수립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보고서, 설문자료 등</li> <li>• 필요자료 제공</li> </ul>
역량강화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연수생 선발 및 연수 실시계획 수립</li> <li>• 연수기관 선정 및 연수 실시</li> <li>• 연수결과 평가 및 환류</li> <li>• 세계민속공연대회 참가 부대비용(항공, 숙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 연수 후보자 추천 및 통보</li> <li>• 세계민속공연대회 참가자 연습공간 제공 및 후보자 추천 및 통보</li> <li>• 세계민속공연대회 참가비</li> </ul>
정책자문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적정 전문가 선발 및 파견</li> <li>•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교육실시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파견 전 입국 비자 및 거주 허가 제공</li> </ul>
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춤 교범 제작 및 1쇄 인쇄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춤 교범 배포 비용 (운송비 등)</li> <li>• 전통춤 교범 2쇄 이후 인쇄 비용</li> </ul>

### 3) 수행일정

- PMC 선정 후 현지조사를 통해 현지 실정에 맞는 세부 사업시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사업일정관리
- (n년 상반기) 마스터플랜 준비 및 연수사업 대상자 선발
- (n년 하반기) 구축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정책자문관 파견하여 지식공유사업 실시. 초청연수 실시
- (n+1년 상반기) 교범 제작 도입. 세계민속공연대회 참가
- (n+1년 하반기) 교범 완성 및 배포

〈표 6-28〉 사업수행 일정

구분		n년				n+1년			
		1Q	2Q	3Q	4Q	1Q	2Q	3Q	4Q
정책 자문	현지조사 및 실시협의								
	전통춤 교수자 및 전수자 현황 정보 수집								
	전통춤 보존 및 진흥 마스터플랜 구축								

구분		n년				n+1년			
		1Q	2Q	3Q	4Q	1Q	2Q	3Q	4Q
역량강화 연수	연수생 선발 및 연수 계획 수립								
	연수생 선정								
	초청연수								
	세계민속공연대회 참가								
정책 자문관 파견	전통춤 보존 및 진흥 지식 공유								
	전통춤 관광산업화 지식 공유								
	전통춤 표준화 및 계량화 지식 공유								
	전통춤 교범 제작 지속 공유								
기자재 지원	교범 제작 도입								
	교범 완성								
	교범 배포								
사업기획, 운영 및 성과 관리	기초선조사								
	모니터링								
	중간평가								
	종료평가 및 연계사업 추진								
	현장인력 파견 (PM)								

#### 4) 사후관리 및 연계사업

##### ■ 모니터링

- (산출물) 르완다 전통춤 마스터플랜 마련, 교범 제작 및 배포, 관련자 초청연수, 세계민속공연대회 참가
- (성과) 르완다 전통춤 보존 및 진흥을 통해 르완다 전통예술문화 발전에 기여, 르완다 전통문화의 상업적 가치 제고, 양국 전통무용 종사자 협력기회 제공 및 한-르 협력관계 증진
- (평가계획) 사업 착수 후 반기별 중간평가(양국 정부), 사업종료 6개월 이내 종료평가(ODA 평가전문가), 사업종료 후 3~5년 후 사후평가 진행(ODA 평가전문가)

##### ■ 사후관리

- 제작된 교범 추가인쇄가 가능하도록 출판용 원판 관리
- 전통춤 교수법 발전 및 관련 산업 증진을 위한 지속적 훈련프로그램 진행

## ■ 연계사업

- 본 사업을 통해 전통춤을 표준화·계량화하여 교범을 만들고(단기), 사업 결과에 따라 공예, 미술 등 타 전통예술 분야로 확대하고(중기), 르완다 전통문화가 지속가능한 수단으로 보존 및 진흥되도록 전통문화학교 등의 교육시설 설립(장기)
- (중기적 연계사업안 1) 르완다 출판 및 인쇄업 역량강화 사업
  - 구전문화 전통이 강한 르완다는 지식 공유 및 확산에 기반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해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출판 및 인쇄 역량을 강화한 청소년문화부를 통해 향후 르완다 출판업 및 인쇄업 역량강화로 연계사업을 펼칠 수 있음에 따라 트위터로 유튜브 링크를 공유
- (중기적 연계사업안 2) 르완다 전통미술 및 공예 분야 진흥 및 보존사업
  - 전통춤 진흥 및 보존 지원을 계기로, 전통미술 및 공예 분야 진흥 및 보존으로 확대할 수 있음
- (장기적 연계사업안 1) 르완다 전통문화학교 설립
  - 르완다 전통춤, 공예, 미술, 음식(바나나술 등)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시설 마련
  - 르완다가 스스로 전통문화 보존 및 진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도록 교육시설을 건설해 지속가능한 수단을 제공
  - EDCF의 르완다국립대학교 인프라 지원사업 참고
- (장기적 연계사업안 2) 아프리카 전통문화예술 진흥 및 보존사업
  - 르완다 외 전통문화예술 단절을 겪는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5) 기대효과

- 한국형 문화ODA 모델 개발
  -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진흥 관련 지식공유 문화ODA 모델 개발
  - 한국의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진흥, 민족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대한 관련 노하우 이전
- 한국형 對아프리카 문화ODA 노하우 개발
- 한국-르완다 문화예술 지식공유 모델 개발
- 문화예술 지식공유를 통한 르완다 사회 창의력 증진
- 르완다 전통춤 및 문화예술 진흥 및 보존
  - 르완다 전통춤 진흥 및 보존
  - 르완다 전통문화예술 산업화 및 일자리/소득 창출 전략 마련

- 르완다 전통문화예술 국가경쟁력 제고
  - 르완다 전통문화예술의 관광산업화
  - 세계민속공연대회 참가를 통한 르완다 전통춤의 국제경쟁력 확인
- 한-르완다 교류협력 확산

## 다. 정합성 분석

### 1) 정책 정합성 검토

#### ① 개발협력국 발전계획과의 정합성

##### ■ 르완다 국가경제발전전략과 문화정책

- 르완다 문화정책은 국가경제발전전략의 하나로 창의력 증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국민 삶의 질 개선, 통합 문화 및 가치 창조, 문화유산 전승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함. 전통춤보존사업은 이러한 르완다 문화정책의 목표에 들어맞음
- 르완다 정부는 국가혁신전략의 하나로 지식기반 발전을 지향하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성장을 추구함. 이 과정에서 문화정책이 지니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주변국은 무역·유통 인프라, 관광자원, 광물자원, 가용농토 등 풍부한 경제성장 동력이 있지만, 르완다는 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높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

##### ■ 르완다 정부의 정책적 한국모델 지향

- 르완다는 한국을 국가발전모델 중 하나로 삼으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노하우를 전수받으려 함. 특히 지식기반 경제발전 과정에 관한 관심이 높음
- 2016년 VISION2050을 제시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핵심수행부처인 MINECOFIN 장관인 클레버 가테테(Claude Gatete)는 한국의 혁신사례를 비준 있게 다룸<sup>200)</sup>

#### ② 우리정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 ■ 한국의 對르완다 지원전략과 부합

- 본 사업은 한국의 최근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과도 부합함. 2017년 국제개발협력

200) MINECOFIN(2016.12.16) "The Rwanda We Want: Towards 'Vision 2050', at National Dialogue Presentation" ([http://www.minecofin.gov.rw/fileadmin/user\\_upload/Hon\\_Gatete\\_Umushyikirano\\_Presentation\\_2016.pdf](http://www.minecofin.gov.rw/fileadmin/user_upload/Hon_Gatete_Umushyikirano_Presentation_2016.pdf))

종합시행계획은 “다양한 ODA 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개도국 내 발전 분야 다각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자부심 및 주인의식 제고를 위해 문화적 특수성, 관광자원 등에 대한 잠재성이 있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함

## 2) 경제적 정합성

- 본 사업은 전통문화예술의 산업화를 통해 현지 일자리 창출, 현지 소득 증대 및 르완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 기술적 정합성

### ■ 한국의 사업수행 역량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과에서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추진, 문화분야 대외원조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문화교류에 대한 문화ODA 사업수행이 가능

### ■ 사업대상기관 적절성

- 사업대상기관인 전통춤교육원은 최근 개축한 르완다국립박물관에 소재하여 르완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또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므로 전통춤 진흥 및 보존의 구체적 성과를 확인하기 쉬움
- 관련 사업에 대한 개발협력국 측 사업시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음

### ■ 한국 경험 전수 시범사업국으로 적절

-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한국처럼 작은 영토, 높은 인구밀도를 지녔으며, 한국경제발전 시기처럼 구성원 간 수직적 관계를 이룸. 정부는 한국의 경제발전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에 협조적임. 따라서 한국 경험을 아프리카 맥락에 맞게 전수하고자 할 때 시범사업국으로서 적절함
- 면적이 작으면 적은 비용으로 전국 대상 사업을 펼칠 수 있어서 원조 소외 지역 발생 빈도를 최소화할 수 있음. 거점지역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하면 주변 지역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 측 책임성) 한국 측은 시범사업 수행이 목표이지 실험대상이 아님을 주지하고,

르완다 국가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함

- 우리 측 ODA 목표에 따라 단발성 사업에 머무를 것이 예상될 경우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함.  
찾은 단발성 사업은 국제원조에 대한 개발협력국 정부와 주민의 신뢰를 낮춰 국제개발협력 노력을 훼손함

## ■ 우호적인 국제개발협력 환경

-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펼치기에 매우 좋은 국가로 꼽힘. 면적은 경상도 크기에 불과하나 2016년 100여 개의 국제개발협력기관이 상주함. 이는 국제원조가 필요한 최빈국인 탓도 있지만 개발협력사업 수행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였기 때문임
- (굿거버넌스) 르완다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러 관련 부처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상부의 정책지시사항이 하부로 잘 전달이 되는 편임. 국가공무원과 현지 시민사회는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지니며 여타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청렴도가 매우 높음
- (온화한 기후) 르완다는 연중 한국의 봄/가을 날씨로 생활하기 좋은 기후임. 또한,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인구밀도가 높아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원조 혜택이 분배됨. 또한 면적이 작아 시범사업 후 전국으로 확대하기 쉬움
- (통일된 공용어)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한 개의 토착어를 사용하는 국가로 국제개발협력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수월함. 그 밖의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인데 영어는 2008년부터 제1공용어로 지정됐지만, 프랑스어는 벨기에 식민통치를 겪으며 100여 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영어보다 프랑스어가 널리 쓰임
  - 2008년부터 유럽어 중 영어만 공용어로 인정하는 정책을 펼치다 최근 프랑스어도 인정. 현 정권 고위관계자는 우간다 난민캠프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아 영어를 사용하고 프랑스어는 잘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반면 국민은 프랑스어에 익숙하고 상류층 자녀들은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선호
  - 스와힐리어/영어를 사용하는 탄자니아도 이러한 이점을 지님
  - 반대 사례로 다양한 부족어가 쓰이는 케냐에서는 한 교실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 수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 (안전한 치안 환경)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치안이 매우 좋은 편임.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키갈리는 야간에도 도보로 근거리 상점이나 식당을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함. 강도, 소매치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 주의할 필요는 있음. 야간에는 무장한 군인과 경찰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순찰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킴

#### 4) 기타: 사업 수행 시 고려할 사항

- (간식 및 식사 제공) 사업에 아동 및 청소년이 참여할 시 간식 및 식사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함. 성인의 경우에도 가벼운 수준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음
  - 아동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르완다 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사업 프로토콜 숙지
  - 여타 공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예) 종일 프로그램 시작 시, 아침 제공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귀가 전에도 간식 제공 (기춤비 (Gicumbi) 기준 1인 7~10불)
- (참여자 동의서 수합 여부 검토)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참여자의 자유의사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가 동의 여부를 포함한 안내문 발행
  - 프로그램 정보 제공: 프로그램 수행 전 참여자들에게 프로그램 목적, 내용, 관리자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제공
  - 참가자 동의서 수합: 프로그램 수행 전 프로그램 참여 및 중단 여부에 대한 참가자의 권리를 알림, 아동의 경우 부모 혹은 후견인에게도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동의서 수합
- (교통사고) 르완다는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비포장도로가 많고 조명시설이 부족해 프로그램 수행 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
  - 일출 후 일몰 전 이동: 계절변화 없이 06시경 일출, 18시경 일몰이 이루어짐. 많은 국제기구가 어두울 때 차량 이동을 금지함
  - 숙련된 운전자 고용
  - 차량 정비 상태 점검: 차량이 제대로 정비되었는지 점검. 특히 타이어가 닳지 않고 무늬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지 확인
  - 안전수칙 숙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숙지
  - 응급처치법 숙지 및 구급약 완비: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할 응급처치법 숙지 및 구급약 완비
- (교범 제작 원재료 수급 차질) 수입에 의존하는 잉크, 종이 등 수급 차질
  - 필요한 원재료 종류와 양을 파악하는 대로 확보 노력
  - 수입 및 현지 수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한국 물품 조달 시 1개월 이상 소요
- (국외 연수 안전사고)
  - 연수지 문화 및 에티켓 사전 강의
  - 연수지 안전사고 사례 및 대처방법 사전 강의
  - 개인활동 자제 안내

# VII

## 제7장 결론

- ① 연구 의미와 고려사항
- ② 연구결과 요약



### 1. 연구 지향점과 의의

-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반하여, 한국의 문화ODA 확대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ODA 확대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신남방, 신북방 및 기타 권역별 문화ODA전략과 시범사업(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력대상국의 국가발전전략 가운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대상국의 자체 발전계획과 사회문화적 현실에 기반 한 협력대상국 맞춤형 문화ODA 전략을 구상하고자 하였음
- 문화ODA 사업 확대는 주요 선진국들의 문화ODA 지출이 정체 된 속에서 한국의 문화발전에 기반 한 한국의 문화발전의 노하우를 협력대상국과의 교류와 문화ODA 사업 수행을 통해 협력대상국에 전수를 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임
- 한국정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임. 한국이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내실있고, 한국만의 고유성을 가진 국제개발협력사업 모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화ODA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2. 연구와 코로나 19

-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국내외의 여건과 상황의 변화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결과임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ODA 사업 추진 상황과 협력대상국들의 상황을 고려한 사업 모델의 수정 또는 새로운 사업 모델 수립이 필요할 수 있음
-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문화ODA 예산과 사업을 줄일 가능성이 큼.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협력대상국 상황에 맞는 문화ODA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협력대상국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됨. 이를 위한 협력대상국 맞춤형 문화ODA 사업의 세밀한 디자인이 요구됨

### 1. 문화ODA 확대 필요성 방향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첫째, 한국 문화ODA 성과 분석, 둘째, 한국 ODA 전략에서 문화분야 확대논리와 방안 제시, 셋째, 권역별 문화ODA 전략 제시, 넷째, 권역별 주요국 대상 문화ODA 시범사업안 제출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문화ODA는 개발협력국 국민의 마음을 얻어 공여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한 문화외교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
- 국제사회에서 인구증가, 도시화,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평성, 존엄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가치체계로서의 문화의 역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과 틀로서 문화의 역할, 창의성의 원천으로서의 문화의 역할 강조하였음

### 2. 지속가능발전과 문화의 연계성

- 최근 국제 논의의 흐름은 개도국 개발전략에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양적 성장에만 기여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 및 질적 성장과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의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개발도상국 주민들과의 정서적 공감형성 및 소통이 중요하며, 문화향유로 나타나는 행복, 정체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협력대상국의 복리증진을 도모해야하며,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고 포용 및 전파의 필요

### 3. 주요국 문화ODA 분석

-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문화ODA 주요국들의 문화ODA 현황을 분석하였음
- 문화ODA 정책 목표에 따라 국가별로 주요 사업지역과 주요 사업 형태가 결정됨

자국의 전체적인 문화ODA 전략의 목표를 수립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국의 필요에 맞는 종합적인 문화ODA 사업은 미진함에 따라 개발협력국의 필요와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한국의 문화ODA 사업 목표와 동원 가능한 자원을 고려한 종합적인 문화ODA 추진 계획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문화ODA 사업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강하여 역량강화, 문화예술교육, 연수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문화재청에서는 중점협력국 대상 양자 및 다자 ODA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발성 사업이 아닌, 문화재청-수요국 정부간 MOU, ODA 협의 등의 절차 후 연수사업, 연구용역, 프로젝트 등 복합적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KOICA의 경우, 문화인프리를 구축하거나, 문화유산 관리 시스템 구축, 유적 및 사원 보존 사업 등 문화유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하드웨어 구축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사업, 기자재 지원, 사업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단기적, 개별적 문화ODA 사업에서 벗어나 한국의 우수한 문화 정책 발전경험 공유하고 문화분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개도국 지원 및 협력 다각화 추진을 위한 문화ODA가 필요함

#### 4. 문화ODA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한국형 문화ODA: 평화와 발전의 지속을 위한 문화가치의 글로벌 공감
- 목표: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형 문화ODA 정립
- 세가지 추진전략: ① 문화가치를 통한 ODA의 혁신과 확장, ② 범분야 개발협력국 맞춤형 ODA 확산, ③ 상생과 협력을 통한 문화ODA 지속성 확보

#### 5. 문화 기반 정책자문 사업

- ‘개발도상국의 문화 기반 자립적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사업(Korean Partnership Program for Self-Sustaining Development based on Culture,

이하 KPSC)’으로 ODA 사업 유형 가운데,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TC) 분야에 해당함

- 문화ODA 정책컨설팅 사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적절히 혼합하여, 개발협력국의 지식창출 및 개발협력국 자본축적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함
- 특히, 문화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이 개발협력국의 경제개발마스터플랜, 국가계획, 개발정책 등 개도국의 국가발전전략 가운데 문화 다양성, 문화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강화, 관광업 활성화 전략 등 포함·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문화분야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발굴을 추진함
  - 현지수요에 기반한 문화 인프라·문화플랫폼 지원사업, 예술분야 사업, 문화콘텐츠, 스포츠, 관광분야 사업 발굴 가능
- 세부 유형은 정책기술자문, 제도 구축, 인프라 구축 연계사업, 인력역량 강화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발협력국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정책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구상함

## 6. 권역별 문화ODA 확대 전략

### ■ 신남방 권역

- 신남방 권역 국가들은 정치적 상황의 차이와 상호 간 경제·문화적 격차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내의 지역, 계층, 성별 문화적 격차도 상당히 큰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ODA 사업은 소외 지역과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하며 문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는 사업 모델로 접근이 가능함
- ‘아세안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상호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필요가 있음

### ■ 신북방 권역

-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자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방안이 핵심 산업 분야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 신북방 권역 국가들의 경우 차별적 정체성 형성 노력과 더불어 소련에 의해 단절된 자국 내 전통 문화유산을 보호·보존·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2000년대부터 경주하여 왔음. 이에 조응하는 전략이 필요함

## ■ 아프리카

-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창의성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창의성 진작 및 인적개발과 연계된 문화 활동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별 발전전략에 문화 다양성, 문화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강화, 관광업 활성화 전략이 포함됨
- 아프리카에서 관광업은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자 경제성장 동력으로, 경제발전 및 구매력 상승에 따라 내수 관광업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
-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할 전략과 이를 시행할 정책 마련이 시급함

## 7. 시범사업안

- 권역별 한 개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안을 구상하였음. 신남방권역에서는 베트남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정책 자문사업안, 신북방권역에서는 몽골을 대상으로 매체전환 콘텐츠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몽골 문화원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 건립 사업을 제시하고, 아프리카 권역에서는 르완다 전통춤 복원 및 진흥을 위한 지식공유사업을 제안하였음

## ■ 베트남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영상-문화센터 건립 및 교육·운영 정책자문 사업</li> <li>• 영문: Establishing the Media-Culture Center with Consulting the Education Programs and Managing Policies of the Center</li> </ul>
	사업기간/ 총 사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분: 신규</li> <li>• 기간: 2021~2023년 (3년) (잠정)</li> <li>• 총 사업 예산: 3,000천 달러</li> </ul>
	대상지역/ 수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하노이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영화국, 국립문화예술 연구소, 하노이 인민위원회</li> </ul>
	사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li> </ul>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태(문화)</li> </ul>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영상·문화 콘텐츠 개발 역량 및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li> </ul>
	우리측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문화 콘텐츠 및 전문인력 교육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신남방 권역에서 새로운 문화·개발 동력을 창출하는 문화산업 선진국 이미지 제고 및 상호 동반자 관계 구축</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남방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상산업 발전 분야에서 지속적 민간 영상-문화교류사업 모델로 발전</li> <li>• 영상산업 부문에서 '한류'에 대한 이미지 제고</li> </ul>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li> <li>•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국 및 영화국</li> </ul>	
사업 세부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영상-문화 센터 건립 및 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설계 및 디자인</li> <li>• 촬영, 편집, 및 상영 기기</li> <li>•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용품</li> </ul>
		정책자문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미디어 교육 및 센터 운영전문가</li> <li>• 영상미디어 기기 관리·운용 전문가</li> </ul>
		역량강화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영상미디어 센터 운영 경험 및 정책 공유</li> <li>• 공동 영상문화 워크숍 진행</li> <li>• 연 1회 이상 상호교류 및 업무/운영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진행</li> </ul>
	개발협력국 분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문화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 제공 (영화인협회 건물 혹은 영화관)</li> <li>• 현지 사업 진행자 선정</li> <li>• 교육, 운영정책 담당자 선정</li> <li>• 연수 희망 인력 선정</li> </ul>	

## ■ 몽골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매체전환 콘텐츠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몽골 문화원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 건립 사업</li> <li>• 영문: Construction of the digital archive system of Mongolian cultural archetypes and the Mongolia Content Development Institute for capacity building in the development of transmedia contents</li> </ul>
	대상 지역	• 몽골 (울란바타르)
	수원기관	•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문화예술청 문화·문화유산과
	사업기간/ 총 사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분: 신규</li> <li>• 기간: 2021~2025년 (4년) (잠정)</li> <li>• 총 사업예산: 2,262천 달러</li> </ul>
	사업유형	• 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
	사업분야	• 기타(문화)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의 문화콘텐츠의 자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몽골 문화원형 아카이브 및 '몽골콘텐츠 개발원'(가칭)을 설립함으로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현지 문화원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매체전환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li> <li>- (중기) 몽골 문화원형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콘텐츠자산의 종합적 관리역량 강화</li> <li>- (장기) 문화자산의 수집, 보존, 활용, 상품화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li> </ul> </li> <li>• 몽골 문화창조산업 육성 및 문화저변의 확대, 몽골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li> </ul>

구분		내용	
	우리측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기) 문화콘텐츠의 체계적 관리 및 창조적 변용 관련 한국의 정책경험 전수</li><li>• (중기) ‘몽골콘텐츠개발원’(가칭) 설립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거점 마련</li><li>• (장기) 양국 간 문화협력 분야의 지속적인 확대 및 인접 국가로의 지식공유 확산 국내 지자체, 관련 학과, 민간단체 등 문화협력 네트워크 확장 한국 창조산업의 신북방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디지털 문화강국으로서의 경쟁력 및 국제사회 이미지 제고</li></ul>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li><li>• 몽골: 교육문화과학체육부 문화예술청 문화·문화유산과</li></ul>	
사업 세부 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정책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원형 발굴 및 아카이빙, 관련 콘텐츠의 제작 및 활용, 관계부처 간 협업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li><li>• 인접산업,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와의 연계 전략 수립</li><li>• 문화원형 아카이브 및 파생 콘텐츠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몽골콘텐츠개발원’(가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li></ul>
		역량강화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예술계 인사 및 관련 부처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몽골에서 연 1회(총 2회), 각 3주과정의 연수 진행 - 내용: 1) 몽골 문화원형의 발굴 및 디지털 아카이빙 과정 2) 매체별 특성 이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기법 3) 콘텐츠 진흥 및 종합관리제도 연수(실무가 간담회) 4) 한-몽 문화콘텐츠 소재 탐색을 위한 현장 답사</li></ul>
		정책자문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원형 아카이브 및 디지털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관련 기술감독</li><li>• 문화자산 통합 관리 법제도 관련 한국의 경험 전수</li><li>• 문화창조산업 육성 전략 개발 컨설팅</li></ul>
		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개발원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화원형 아카이브 및 디지털 공유 플랫폼 구축</li><li>• 콘텐츠개발원 건물 설계 및 디자인</li></ul>
		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영상/이미지 촬영 및 음성 변환 기기 도입</li><li>• 시스템 S/W 및 DB 구축 장비 지원</li><li>• 콘텐츠 개발 실습 시 필요 장비 제공</li></ul>
	개발협력국 분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현지 연수 및 아카이빙 구축작업을 위한 물리적 공간 제공</li><li>•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팀(TF) 구성 및 연수 희망인력 선정</li><li>• 현지 사업 진행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공</li><li>• 아카이브 구축 이후 서버 등 기자재 유지관리비 및 통신망 사용료 자체부담</li><li>• ‘몽골 콘텐츠개발원’(가칭)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 및 건설적합성 조사</li></ul>	
	사후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종료 후 사후평가 시 사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 도출 유도</li></ul>	

## ■ 르완다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개요	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르완다 전통춤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지식공유사업</li> <li>• 영문: Knowledge Sharing Project for Intore (Rwandan Traditional Dance) Preservation and Promotion</li> </ul>	
	사업기간/ 총 사업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분: 신규</li> <li>• 기간: ex) 2021~2022년 (2년) (잠정)</li> <li>• 총 사업 예산: 1,066천 달러</li> </ul>	
	대상지역/ 수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르완다 후예 국립박물관 내 전통춤교육원</li> </ul>	
	사업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컨설팅 및 프로젝트</li> </ul>	
	사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문화)</li> </ul>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의 전통예술문화 보존 및 관광산업화 전략 개발</li> </ul>	
	우리측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자원 보존 및 창조적 활용 지원 등 문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문화 선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동반자 관계 구축</li> </ul>	
사업 세부내용	주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문화체육부</li> <li>• 수혜국: 르완다 청소년문화부</li> </ul>	
	우리정부 분담사항	정책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춤 보존(표준화, 계량화) 및 진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플랜 수립</li> <li>• 전통춤 관광산업화 전략 수립</li> <li>• 현지상황 파악</li> </ul>
		역량강화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여 명의 전통춤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담당인력을 초청하여 3주간 서울 및 전주에서 연수 진행</li> <li>• 세계민속공연대회 (World Folklore Competition) 참가 지원 (해외)</li> </ul>
		정책자문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춤 보존 및 진흥, 관광 산업화에 대한 한국의 경험 및 지식 공유, 춤 교수자 및 정책 담당자에 대한 교육</li> <li>• 전통춤 표준화 및 계량화 기술 및 지식 공유</li> <li>• 교범 제작 기술 및 지식 공유</li> </ul>
		기자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춤 교범 제작 및 인쇄 비용</li> <li>• 교범 디지털화</li> <li>• 유튜브와 트위터를 활용한 교육 경로 마련</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당성조사</li> <li>• 실시협의</li> <li>• 중간평가</li> </ul>
	개발협력국 분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대상 장소(전통춤교육원) 제공</li> <li>• 사무 공간, 행정적 지원</li> <li>• 전통춤 교수자 및 전수 희망자 선발</li> <li>• 전통춤 교범 2쇄 이후 인쇄비용</li> <li>• 전통춤 교범 배포비용 (운송비 등)</li> </ul>	

## 국내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2),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
- 관계부처 합동(2016.12), 「몽골 국가협력전략」
- \_\_\_\_\_ (2016.5), 「아제르바이잔 국가협력전략」
- \_\_\_\_\_ (2016.5),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
- \_\_\_\_\_ (2019.11), 「19년 국가협력전략(CPS) 중간평가」
- \_\_\_\_\_ (2019.7), 「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_\_\_\_\_ (2020.1), 「5개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 \_\_\_\_\_ (2015),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_\_\_\_\_ (2016),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_\_\_\_\_ (2017),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_\_\_\_\_ (2019),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_\_\_\_\_ (2020), 「2020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글로벌발전연구원(2017), 「한국형 문화ODA 정책과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연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일본의 원조기관 일원화 및 개혁조치」
- \_\_\_\_\_ (2019.11), 「19년 국가협력전략(CPS) 중간평가 최종보고서」
- \_\_\_\_\_ (2020.05.29), 「[동향세미나]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
- \_\_\_\_\_ (2020.06.01), “2020년 5월 아프리카 한눈에 보기”
- 문화재청(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5.19), “콘텐츠산업 수출액 10조 원 돌파, 전년 대비 9.1% 증가”
- \_\_\_\_\_ (2019.09.19), “문체부, 베트남에 14번째 ‘작은도서관’ 문 열어-베트남어로 된 한국 문학작품, 케이팝 등 한국문화 콘텐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
- \_\_\_\_\_ (2018),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 \_\_\_\_\_ (2019), 「2018 콘텐츠 산업백서 연차보고서」
- \_\_\_\_\_ (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8 문화예술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2019), 「N콘텐츠」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관계부처합동(2018.6),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안)」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도자료(2017.12.7),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0.06.23),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 주요 내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보도자료(2018.06.1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안건(2019.12.19)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 제4차 회의 안건

외교부 아세안국 아세안협력과(2019.10), 「아세안 개황」

외교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10.15), “신남방정책의 핵심이자 한류의 중심, 아세안”

외교부(2018), 「르완다 개황」

우즈베키스탄개발전략센터, “행동전략 우선순위 영역”  
([https://strategy.uz/index.php?static=prioritetnye\\_napravleniya](https://strategy.uz/index.php?static=prioritetnye_napravleniya))

원주시(2019), 「문화도시 조성계획」

윤성학(2018), 「현대 중앙아시아의 이해」, “5장. 중앙아시아 문화의 특징,”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이태주(2017), 「한국형 문화ODA 정책과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연구」

\_\_\_\_\_ (2019), 「개도국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보람(2016),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현황진단 및 추진체계 연구」

정정숙(2013), 「문화 영역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방안 연구」

정혁(2015), 「KSP 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계수·정연내(2019), “한국 문화ODA 실행전략 연구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23권 제3호

주공고민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2019.11.25), “‘KOICA 콩고국립박물관 공식 개관’ 새소식,”  
([http://overseas.mofa.go.kr/cd-ko/brd/m\\_10663/view.do?seq=1342287](http://overseas.mofa.go.kr/cd-ko/brd/m_10663/view.do?seq=1342287))

지속가능발전포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국문본)」  
(<http://ncsd.go.kr/api/unsdgs%EA%B5%AD%EB%AC%B8%EB%B3%B8.pdf>)

청와대 대통령비서실(2019.11.26), “한·미얀마 정상회담 관련 서면 브리핑”

한국개발연구원(2015), 「지역별 발전현황 진단 및 KSP 추진전략 연구」

\_\_\_\_\_ (2015), 「주요 국제개발협력기관 지식공유사업 현황 연구」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20), 「2019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_\_\_\_\_ (2018), 「한류와 문화정책」

한국국제협력단(2007), 「몽골 정부통합데이터센터(GIDC) 구축사업 실시협의 결과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문화산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 연구」참조

한국수출입은행(2020), 「2020세계국가편람」

\_\_\_\_\_ (2018), 「2018 아프리카편람」

한국콘텐츠진흥원(2017.01.31), 「아시아 주요 6개국 문화콘텐츠산업 가이드북」

한-아프리카미래재단(2015a), 「국별연구 시리즈: 우간다」

\_\_\_\_\_ (2015b), 「국별연구 시리즈: 탄자니아」  
 \_\_\_\_\_ (2015c), 「국별연구 시리즈: 르완다」  
 해외문화홍보원(2019),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보고서」  
 KOICA(2017), 「2017년 ODA 백서」 참조 및 재구성  
 \_\_\_\_\_ (2018),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_\_\_\_\_ (2018), 「글로벌연수(CIAT 프로그램) 길라잡이」  
 KOTRA(2020), 「2020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KOICA(2019), 「해외봉사단 지원실적」

## 국외자료

Adelman, Ken (2011), "Not-So-Smart Power: Go Ahead, Congress, But Away at U.S. Foreign Aid," *Foreign Policy* (April 18)

Alesina, Alberto, and David Dollar (2000),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33-63

Andrabi, Tahir and Jishnu Das (2010), *In Aid We Trust: Hearts and Minds and the Pakistan Earthquake of 2005*. ashington, DC: World Bank

Ban hành Quy định về tiêu chí, tiêu chuẩn; nội dung, quy trình và định mức kinh tế-kỹ thuật trong bảo tồn, phục dựng, lưu trữ các giá trị văn hóa truyền thống đặc sắc của đồng bào dân tộc thiểu số (Số: 4036/QĐ-BVHTTDL, ngày 15 tháng 11 năm 2019)

Berthélemy, Jean-Claud (2006), "Bilateral Donors' Interest vs. Recipients' Development Motives in Aid Allocation: Do All Donors Behave the Same?"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0(2): 179-194

Bohner, Gerd and Nina Dickel (2011),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2(1): 391-417

Bowen, Janine (2019), *Foreign Aid and Economic Growth: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 (Routledge: New York)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Ban hành Quy chế của Bộ Văn hóa, Thể thao và Du lịch hướng dẫn việc thu hút, vận động và quản lý nguồn hỗ trợ phát triển chính thức (ODA) và nguồn vốn vay ưu đãi của các nhà tài trợ" (Số 4551/QĐ-BVHTTDL, ngày 26 tháng 12 năm 2013)

Browne, Stephen (2006), *Aid and Influence: Do Donors Help or Hinder?* (London: Earthscan)

Burnside, Graig and David Dollar (1998), "Aid, the Incentive Regime and Poverty Reduction," *The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Microeconomics and Growth* (June)

CAFEF(2020.06.30), "Bùng nổ ngành chiếu phim ở Việt Nam: Khán giả thích đến rạp xem gì?"

- Charron Nicholas (2011), "Exploring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Corruption: Has the Anti-Corruption Movement" Been Effective? *The Developing Economies*, 49(1): 66-88
- Collier, Paul and David Dollar (2002), "Aid Allocation and Poverty," *European Economic Review*, 46(8): 1475-1500
- Dietrich, Simone, Minhaj Mahmud and Matthew Winters (2018), "Foreign Aid, Foreign Policy, and Domestic Government Legitimacy: Experimental Evidence from Bangladesh," *The Journal of Politics*, 80(1): 133-148.
- Dollar, David and Victoria Levin (2006), "The Increasing Selectivity of Foreign Aid, 1984-2003," *World Development*, 34(12): 2034-2046
- Fishstein, Paul, and Andrew Wilder (2012), *Winning Hearts and Mind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Security in Afghanistan*. Medford, MA: Feinstein International Center, Tufts University.
- Goldsmith, Benjamin, Yusaku Hourichi, and Terence Wood (2014) "Doing Well by Doing Good: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Foreign Public Opinion,"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9: 87-114
- Hoeffler, Anke and Verity Outram (2011), "Need, Merit, or Self-Interest-What Determines the Allocation of Aid?"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5(2): 237-250
- ICA News,, [https://www.jica.go.jp/english/news/field/2019/20200206\\_01.html](https://www.jica.go.jp/english/news/field/2019/20200206_01.html)
- Independent Observer(2018.12.28), "Indonesia engineers a new cultural strategy as its base for all future development"
- Institute of National Museums of Rwanda. "Introduction." (<https://museum.gov.rw/>)
- Kenh14.vn(2020.05.19), "Điểm mặt 13 phim điện ảnh Việt đáng xem trên Netflix: Đủ đầy từ cơn sốt Hai Phượng đến "bom tấn Cánh Diều Vàng"
- Lancaster, Carol (2006), *Foreign Aid: Diplomacy, Development, Domestic Politics* (Chicago: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 Lao Động(2019.10.04), "Quỹ hỗ trợ điện ảnh Việt Nam: 12 năm triển khai vẫn chưa thành lập"
- Luật Di sản Văn hóa (Số: 28/2001/QH10, ngày 29 tháng 06 năm 2001)
- Luật Điện ảnh (Số: 62/2006/QH11)
- Lucas Jr, Robert E.(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 Lundsgaarde, Erik, Christian Breunig and Seem Prakash (2007), "Trade Versus Aid: Donor Generosity in an Era of Globalization," *Policy Sciences*, 40(2): 157-179
- Maizers, Alfred, and Machiko Nissanke (1984), "Motivations for Aid to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12(9): 879-900

- McGillvray Mark (2004), Is Aid Effective? (Helsinki: WIDER)
- Michael Bohnet(2013), 독일의 개발협력 정책, FES Information Series
- MINECOFIN(2016.12.16), “The Rwanda We Want: Towards ‘Vision 2050’. at National Dialogue Presentation ([http://www.minecofin.gov.rw/fileadmin/user\\_upload/Hon\\_Gatete\\_Umushyikirano\\_Presentation\\_2016.pdf](http://www.minecofin.gov.rw/fileadmin/user_upload/Hon_Gatete_Umushyikirano_Presentation_2016.pdf))
- Music in Africa(2015b), “Rwanda’s cultural policy” (<https://www.musicinafrica.net/magazine/rwanda%E2%80%99s-cultural-policy>)
- Nielsen Việt Nam(2018.09.26), KẾT NỐI VỚI THẾ HỆ Z TẠI VIỆT NAM
- Nye, Joseph (2002),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 Why the World’s Only Superpower Can’t Go It Alo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ECD(2013),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Spain 2011
- OECD(2014), Knowledge Sharing Alliance Facilitating Dialogue for Universal Development
- PATA(2019), Asia Pacific Visitor Forecasts 2019-2023 Full Report
- Pew Research Center(2019.04.01), “The countries with the 10 largest Christian populations and the 10 largest Muslim populations”
- Phê duyệt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điện ảnh đến năm 2020, tầm nhìn đến năm 2030"
- PHÊ DUYỆT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CÁC NGÀNH CÔNG NGHIỆP VĂN HÓA VIỆT NAM ĐẾN NĂM 2020 TẦM NHÌN ĐẾN NĂM 2030 (Số: 1755/QĐ-TTg, ngày 08 tháng 09 năm 2016).
- PHÊ DUYỆT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CÁC NGÀNH CÔNG NGHIỆP VĂN HÓA VIỆT NAM ĐẾN NĂM 2020, TẦM NHÌN ĐẾN NĂM 2030 (Số: 1755/QĐ-TTg, ngày 08 tháng 09 năm 2016)
- Pinterest(a). “Kasubi Royal Tombs.” (<https://www.pinterest.co.kr/pin/18084835987522724/>)
- Pinterest(b). “TingaTinga Tales.” <https://www.pinterest.dk/pin/217087644512901815/>
- Pinterest(c). “Rwanda Culture, Rwanda.” (<https://www.pinterest.at/pin/330522060126312899/>)
- Riddell, Roger (2008), Does Foreign Aid Really Work?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Rwanda Academy of Language and Culture. “About Us.” (<http://ralc.gov.rw>)
- Rwanda Ministry of Culture. “Mission & Vision.” (<http://myculture.gov.rw>)
- Rwanda Ministry of Sports and Culture(2017a), “Sector Strategic Plan for Sports and Culture.” (인터넷 미공개 자료)
- Rwanda Ministry of Sports and Culture(2017b), “Five Year Strateg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Arts Industry: 2017-2022.”  
[https://minisports.gov.rw/fileadmin/document\\_2019/Five\\_year\\_Strategic\\_Plan\\_for\\_the\\_development\\_of\\_Creative\\_Arts\\_Industry.pdf](https://minisports.gov.rw/fileadmin/document_2019/Five_year_Strategic_Plan_for_the_development_of_Creative_Arts_Industry.pdf)
- Rwanda Ministry of Sports. “Backgrounds.” (<https://minisports.gov.rw/index.php?id=8>)

- Rwanda National Intorero Commission. "Mission and Vision." (<https://www.nic.gov.rw/>)
- The New Times(2018.08.01), "Rwandan traditional dance: A firm grip on culture"
- Ministry of Youth and Culture(2020a), "Fresh talents join National ballet"
- Rwanda National Intorero Commission(2020b), "Ministry of Youth and Culture Proposed Organization Chart." (인터넷 미공개 자료)
- Solow, Robert M.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1): 65-94
- Tanzania Tourism Board). "Stone Town in Zanzibar."  
(<https://www.tanzaniatourism.go.tz/en/destination/zanzibar-island/P20>)
- Tanzania Tourist Board(a). "Ngorongoro National Preservation Area."  
(<https://www.tanzaniatourism.go.tz/en>)
- Tanzan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1997.  
(<http://www.tzonline.org/pdf/culturalpolicy.pdf>)
- Tanzanian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rts, and Sports. "Vision and Mission."  
(<https://www.habari.go.tz/pages/vision-and-mission>)
- Tanzanian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Tourism. "About Us."  
(<https://www.maliasili.go.tz/about/category/ministry-overview>)
- The ASEAN POST(2019.07.17), "Getting creative in Indonesia"
- The Jakarta Post(2018.12.04), "Congress seeks to establish national 'cultural strategy'"
- Tuổi trẻ(2020.02.24), "Cục trưởng Mỹ thuật Vi Kiến Thành được bổ nhiệm làm cục trưởng Cục Điện ảnh"
- UNESCO(2013), The Hangzhou Declaration-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Hangzhou International Congress.15-17 May. China
- UNESCO(2017),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 UNESCO(2017),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 UNESCO(2018),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2018 Report
- World Bank (1998),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Policy Research Report
- World Bank(2001), Cultural Heritage and Development: A Framework for Action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Younas, Javed (2008), "Motivations for Bilateral Aid Allocation: Altruism or Trade Benefit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4(3): 661-674
- Zürcher, Christopher, Jan Koehler, and Jan Böhnke (2010), "Assessing the Impact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 East Afghanistan 2005-2009,"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누리 세종학당 홈페이지 ([www.sejonghakdang.org](http://www.sejonghakdang.org))  
몽골문화예술청 (<https://culture.gov.mn/>)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bvhttdl.gov.vn/>)  
세종학당 재단 홈페이지 (<https://www.ksif.or.kr/intro.do>)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홈페이지 ([www.nsp.go.kr](http://www.nsp.go.kr))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유네스코 동향 (<http://overseas.mofa.go.kr>)  
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diplomatie.gouv.fr>)  
하노이영화재능발전지원센터 (<http://www.tpdmovie.com.vn/>)  
한국관광공사 (<https://kto.visitkorea.or.kr/kor.kto>)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main.screen>)  
한국수출입은행 (<https://www.koreaexim.go.kr/kr/oeis/m03/s01.jsp>)  
한국어능력시험 (TOPIC) 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main.do>)  
한-아프리카재단 홈페이지 (<https://www.k-af.or.kr:6026/load.asp?subPage=110>)  
해외건설협회 (<http://www.icak.or.kr/>)  
Azizi Life (<https://azizilife.com/>)  
JICA (<https://www.jica.go.jp/english/>)  
KSP 홈페이지 (<http://www.ksp.go.kr/index>)  
KSP Brochure ([http://www.ksp.go.kr/resources/contents/KSPBrochure\\_ko.pdf](http://www.ksp.go.kr/resources/contents/KSPBrochure_ko.pdf))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ipm/os/acms/smrizeAreaList.do?lang=ko>)  
KOICA 홈페이지 ([http://koica.go.kr/sites/koica\\_kr/index.do](http://koica.go.kr/sites/koica_kr/index.do))  
OECD 통계 (<https://stats.oecd.org/>)  
Statista.com (<https://www.statista.com/>)  
Voice of America (<https://www.voanews.com/>)  
VICAS 홈페이지 (<http://vicasartstudio.com/>)  
Nymirambo Women's Center (<http://www.nwc-umutima.org/products.html>)



개도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ODA의 역할과 신규사업 발굴 연구

---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일	2020년 8월
인쇄처	더크리홍보(주)

---